



통일문학작품선집 ㉘

장 편 소 설

# 새 벽 길

전 설 주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장 편 소 설

# 새 벽 길

전 설 주

평 양 출 판 사

주체111(2022)년

# 제 1 장

## 1

작전과의 전용차가 수리에 들어가서 수송과의 대기차를 불렀더니 지정해준 시간보다 7분이나 늦게 나타났다.

《왜 늦었지?》

운전병 문하사는 운전대를 잡은채 심드렁한 어조로 대답했다.

《차정비 좀 했습니다.》

한병구대위는 실눈을 지으며 그를 쏘아보았다.

《명령받은 시간전에 정비할수 없었나?》

다른 과의 사병이라 해도 명령시간을 위반하는것을 용서할수 없었다. 군기에서 시간엄수는 제일차적요구로 되는것이다.

《이놈의 차가 워낙 고물단지라서요. 정비하자니 부품도 변변치 않고 게다가 또...》

중언부언 변명하던 문하사는 병구의 얼굴을 피땀 쳐다보더니 황급히 차에서 뛰어내렸다.

《대위님, 죄송합니다.》

작전보좌관 한병구대위라면 엄격하기로 소문난 장교이다. 스스로 일과규률을 엄수하고 원리원칙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는 법이 없다. 복장상태도 언제 봐야 흠잡을데 없이 단정하다. 다림발을 잘 세운 군복을 몸에 착 달라붙게 챙겨입고 소위 《직선직각교육》을 받은 3사(제3륙군사관학교)출신장교답게 절도있는 걸음걸이로 지나가는 그를 만나면 누구나 부지중 자기의 복장상태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

《그 눈빛 보라니까. 괜히 거짓말하다가 들통나기 전에 일찌감치 솔직히 말하는게 상책이야.》

이것은 언젠가 련대본부 작전서기가 한 말이다.

아닌게 아니라 약간 검스레한 살갓에 굴곡이 푸릿한 병구의 얼굴에서 제일 인상적인것은 그 눈이다. 조금 작을사한편인데 그 눈빛이 여간 날카

롭지 않다. 꼭 남의 심장속까지 꿰뚫어보는것같은 눈빛이다.

운전병 문하사도 그 눈빛에서 작전서기의 말을 상기한것임에 틀림없다.

《고향친구를 만나 이야기 좀 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그따위 요술을 부리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병구는 그제야 차에 올라탔다.

《가자.》

차는 곧 병영정문을 빠져나갔다.

정문앞에 강이 흐르고 다리건너편은 용수리라는 시골마을이다. 면소재지에서 시오리 떨어진 마을이지만 다방이며 술집, 당구장, 맥주집, 무도장 등 현대본부 장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각종 접객업소들이 수두룩하다. 그 사이사이에 약국집 감초격으로 사람사는 동네에 없을수 없는 구멍가게들도 끼여있다.

병원집도 한채 있다. 제중의원, 지혜가 간호원으로 근무하고있는 병원이다.

병구는 차타고 그앞을 지날 때마다 언제나 그러는것처럼 병원쪽을 유심히 살폈다.

방마다 창문을 꼭꼭 닫아놓아서 지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현관앞에 서있는 민간인청년이 시선을 끌었다. 자그마한 여행가방을 들고 서있는 뒤모습이 어디선가 한번 본것같은 인상이었다.

어디서 만났더라?

권성태, 지혜의 4촌오빠지 하는 생각이 떠오른것은 차가 병원앞을 지나간 다음이었다.

왜 왔을가? 지혜가 부른걸가? 혹시 나를 찾아온게 아닐가? 참, 지혜가 저 사람 애긴 다시 꺼내지 말라고 했지. 분명 나를 사팔눈으로 보는 사람인데...

이것저것 떠오르는 생각에 금방 기분이 흐려졌지만 곧 머리를 내저었다. 임무수행차 급히 가는 차안에서 그런 사사로운 일에 신경을 쓰고싶지 않았다.

그 임무란 예비점검을 실시하는 일이었다. 10여일전에 새로 사단장으로 부임돼온 서인걸준장이 래주부터 각 연대를 순시해보겠다고 했다.

작년말에 실시된 전군전투준비상태종합평가때 술한 벌점을 받은 병구

네 사단을 단시일내에 우수사단으로 만들 임무를 받고 부임돼온 사단장이었다.

그는 사단에 나타나자마자 사단의 종전구호 《경계》를 《필승》으로 고치고 명실공히 필승의 사단으로 만들기 위해 우선 사단본부의 군무기강을 바로세우려고 참모장을 시켜 날마다 장교들의 출퇴근시간을 장악하고 업무수행정정도 엄격히 통제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우선 사단본부를 개변시킨 다음 각 연대들을 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예고가 있는 이상 연대에서 팔짱끼고있을 수 없었다. 멍청해있다가간 벼락이나 맞을판이다.

연대의 현 실태가 그랬다. 신임사단장의 눈에 거슬릴만한 결함들을 미리 제거하고 보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병구에게 그 임무가 부여된 것이다. 연대관하 각 대대, 중대들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책을 세우라는 임무였다.

한병구는 오늘부터 그 임무수행에 착수하여 지금 취약지구 차단군무지점에 위치한 2대대 7중대로 가는 길이다.

전연지대도로여서 길에 보이는 것은 각종 군용차량과 군인들뿐이었다.

문하사의 운전습씨가 좀 란폭했다. 짐차이건 군용승용차이건 앞의 차량들을 마구 앞지르며 차를 과속으로 몰아갔다.

경적을 연방 울리면서 앞차가 열린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문하사는 흥 하고 코웃음치며 악의에 찬 소리로 증얼거렸다.

《신작로 닦아놓으니 문둥이부터 지나간다더니 젠장, 어디 보자!》 하고 그는 경적을 더 성급히 울리면서 미친듯이 속력을 높였다.

약 100미터 앞쪽에서 미군짚차 한대가 가고있었다. 미군 XX사 주둔지역이 이곳에서 거리가 멀지만 이따금 그 미군차량들도 근처에 나타나곤 한다.

앞선 미군짚차도 제법 쾌속이었지만 문하사는 기어이 그를 앞질렀다. 그것도 일부러 그런다는 것이 뻔히 알리게 자칫 잘못하면 두 차체가 부딪칠만큼 바짝 옆에 붙어서 나가다가 쪽 앞질렀다.

《까뻔!-》

뒤떨어진 미군짚차에서 욕설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웨질 놈들!》

문하사도 후사경을 들여다보며 한마디 욕설을 퍼부었다.

병구는 그를 피땀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악의와 조소가 먹글씨처럼 그어져있었다.

근년에 와서 군인들속에 퍼지기 시작한 심상치 않은 정서를 새삼스레 확인한 기분이었다.

이런 경우 장교로서 의례 한마디 해야 하는데 병구는 《문하사...》 하고 그저 불러만 놓고 뒤말을 잇지 못했다.

《대위님!》

문하사도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말머리를 떼야 할지 몰라 그러는지 잠시 운전대만 이리저리 돌리다가 탄소리를 했다.

《저기 7중대 공급계가 옵니다.》

앞을 보니 병구에게도 낮이 익은 7중대의 박중사가 흔들흔들하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차 세웁.》

급정거하는 차바퀴밑에서 피여오르는 먼지를 피해 물려서던 박중사가 이쪽을 알아보고 손을 군모채양에 갖다붙였다.

《필승! 신고합니다. 제2대대 제7중대...》

《신고 그만! 복장 정돈해!》

박중사는 삐딱하게 제껴쓴 군모를 바로 쓰고 상의도 내리잡아당긴 다음 거수경례를 했다.

《필승! 신고합니다. 제2대대 제7중대 공급계중사 박충만 중대장님명령으로 런대본부에 가는 길입니다!》

《무슨 용무로?》

《가라반납하러 갑니다.》

또 가라반납인가!

병구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중대들에서 사병들의 개인피복과 장구품분실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모포나 내의, 군화 같은것이 많이 분실된다. 그러한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분실품의 값을 런대 군수과에 바치는데 그것을 가리켜 《가라반납》이라고 하는것이다.

《뭘 또 분실한거야?》

《3소대에서 모포 2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용무 끝나면 속히 귀대해. 중대장은 있겠지?》

《예, 중대본부에 계시는걸 보고 출발했습니다.》

귀공자같이 해맑은 중대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디서 벌써 신임사단장의 첫 순시가 곧 실시된다는것을 알아가지고 선손을 쓰는거겠지, 그건 좋아 하고 병구는 생각했다.

중대장이 미리 손쓰고 또 자기가 이제 가서 미비점을 찾아내어 보완책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사전준비를 잘하면 사단장의 지적을 면하게 될 것이다.

문하사는 앞선 짐차행렬을 앞지르며 속력을 더 높여나갔다.

차는 어느새 2대대주둔지역에 접어들었다.

좌측에 우뚝 솟은 고지너머쪽에서 총성이 울려왔다. 어느 중대에서 보충실탄사격훈련을 실시하는것같았다. 아직 7중대지역은 아니였다.

약 10분쯤 더 달려가서야 7중대지역이 나졌다.

오른쪽 산기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있었다. 산불갈지는 않았다. 훈련 나온 사병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휴식하는것같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바람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7중대의 어느 소대일가?

중대장을 만나기 전에 사병들의 야외전술훈련정형을 먼저 점검해보고 싶었다.

병구는 급히 차를 세우게 하고 뛰어내렸다.

《넌 중대본부에 가서 기다려.》

문하사에게 이렇게 이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기슭으로 올라갈 길을 찾아보았다.

가까운 곳에 길이 보이지 않았다. 잡관목이 촘촘히 자라난 산밭이였다. 그밑에 눈가루가 뽀얗게 날리면서 햇빛에 반사되어 유리알처럼 반짝거렸다.

병구는 외투없이 온것을 후회하며 경사면을 곧추 뚫아올라가기 시작했다. 우측으로 꺾 에돌면 길을 찾을수 있을것같았지만 사병들이 있는 곳까지 곧추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립춘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경사면을 뚫아오르는 사이에 이마에 땀이 내배였다.

예측한대로 7중대 3소대 사병들이 모닥불주위에 둘러앉아있었다. 장소

를 묘하게 골라잡아서 바람이 없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이었다.

병구가 오는것을 보고 부소대장이 구령을 쳤다.

《일어섯!》

장기복무하사관으로 《말뚝박고》부소대장노릇을 하는 림원국중사였다.

《차렷! 런대 작전보좌관님께 경례!》

3소대 38명이 전술훈련실시중 휴식하고있다는 보고였다.

《왜 선임하사가 책임지고 나온거야?》

《소대장님은 감기로 쉬고있습니다.》

림중사는 알콜중독자처럼 쉬고 갈린 목소리로 대답하며 입귀에 야릇한 미소를 흘렸다.

하긴 장기복무하사관들이란 의례 소대장들을 조소거리로 만들어버리려고 기를 쓴다. 데쳐서도 구워서도 못먹을 독종이 바로 그들이다.

소위나 중위보다 나이가 많고 복무년한도 길며 군의 생리에도 더 밝다는 우월감에 암상한 심술까지 잔뜩 키우고있어서 상관에겐 애군이고 부하에겐 폭군이다.

림중사의 입귀에 흐르는 그 미소엔 우리 소대장님 감기핑계로 팔자 늘어지게 쉬고있다는 심술궂은 비난이 가시처럼 박혀있었다.

《무슨 훈련 실시했나?》

코밑과 턱에 수염자리가 퍼렇게 볼따귀에 군살이 축 늘어붙은 림중사를 마뜩지 않게 쳐다보며 병구가 물었다.

《분대별로 각개전투동작훈련 실시했습니다.》

병구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5분후에 너희들의 각개전투동작을 보겠다. 그동안 휴식하라.》

《옳, 휴식 실시하겠습니다!》

림중사는 이렇게 대답하고 사병들에게 구령을 쳤다.

《앉아서 쉬엇!》

사병들이 다시 모닥불주위에 둘러앉았다.

이때 잡관목뒤에서 부스럭소리와 함께 헐떡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병구는 얼른 그쪽을 돌아보았다. 웬 사병이 포복전진으로 다가오고있었다.

《저건 뭐냐?》

《동작 그만!》



림중사는 먼저 사병에게 구령을 친 다음 대답했다.

《훈련실시중 농땡이 부려서 개별훈련 실시했습니다.》

병구는 다시 그 사병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병은 차렷자세로 마주 쳐다보았다.

운동선수처럼 쭉 빠진 몸매에 얼굴은 썩 영민하고 성실한 인상이었다. 계급은 일등병, 계급장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은 새것이었다. 갓 입대한 사병임에 틀림없었다.

《무슨 농땡이 부린거지?》

림중사에게 물어보았다.

《낮은포복동작때 엉덩이 쳐들었습니다.》

낮은포복전진은 각개전투동작 3단계에서 실시하는 옆드러기기이다. 배를 땅에 바싹 붙이고 기는 동작인데 그것을 사병들이 제일 힘들어한다. 허리가 끊어질듯이 아프고 팔굽과 무릎이 벗겨지고 목까지 뻣뻣해진다. 그래서 훈련떠날 때부터 사병들은 이런 노래를 흥얼거린다.

어머님 아버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개전투 3단계예요

높은포복 낮은포복 무릎 까진 이 아들

어머님의 참사랑이 그림습니다

그만큼 힘들기때문에 누구나 요령껏 조금씩 엉덩이를 쳐들곤 한다.

《딴 애들은 농땡이 부리지 않았나?》

《예, 그런 애들 몇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병만 개별동작시킨거지? 하고 병구는 더 캐여몰으려다가 그만두고 사병을 가까이 불렀다.

《이리 와.》

사병은 절도있는 정보로 다가왔다.

《필승! 제3소대 제2분대 소총수 일병 고명찬!》

뭐, 고명찬이라구?!

병구는 흠칫 놀랐다. 매부가 부탁한 사람이 바로 이 사병이란 말인가? 지난번 일요일에 있는 일이었다.

XX대학 교수인 매부 유경훈은 오래간만에 놀러온 처남 병구에게 책

꾸레미를 하나 주면서 말했다.

자네네 부대에 고명찬이라는 사병이 있을거네. 어느 대대, 어느 중대 소속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찾으면 알게 되겠지. 이걸 그 사람한테 좀 전해주게. 내 수제자중 하나인데 학생운동하다가 징집된 사람이네. 그런 사병들을 군에서 몹시 팔세한다지. 너무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좀 도와주게... 그런 부탁이었다.

병구는 부지중 한숨이 나갔다.

《유경훈교수를 알겠지?》

《예.》

고일병은 병구가 유경훈교수의 처남이라는것을 진작부터 알고있은듯이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짧게 대답했다.

《유교수가 너에게 보내는 책꾸레미 내게 있어. 우리 집에 후일 찾으러 와.》

이런 사사로운 말은 후에 따로 만나 해야 되는건데 하는 생각이 떠오른것은 이미 말이 나간 뒤였다.

《예.》

이번에도 고일병의 입에서 짧은 외마디대답이 나왔는데 림중사가 슬그머니 병구곁에 다가섰다.

《대위님, 알겠습니다. 녀려 폭 놓으십시오.》

《뭐라구?》

병구는 반사적으로 림중사를 께 돌아보았다.

그의 가선진 눈가에 능청스러운 미소가 피어났다. 앞으로 병구와 사적 친교를 맺을 사병이라는것을 제깍 눈치채고 그래서 잘 봐주겠다는 암시를 던지는 미소였다. 거기엔 림중사의 비굴과 아침이 느침처럼 끈적끈적하게 묻어있었다.

불쾌했다. 한마디 오금을 박아주고싶었지만 적당한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입밖으로 툭 튀어나간것은 뜻밖의 말이었다.

《오늘 너희 소대에서 누가 또 가라반납한거냐?》

림중사는 뜻밖의 질문에 놀란 얼굴로 쉬 대답을 하지 않았다.

《묻는 말 못들었어?》

《죄송합니다. 저... 사실은 고일병이 모포 두장을 민간에 내다 팔아먹었

습니다. 그래서 가라반납으로 처리했습니다.》

병구는 눈섭을 치켜올리며 고일병을 쳐다보았다.

《정말이야?》

《예.》

고일병의 대답은 흡사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듯한 어조였다.

병구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무슨 소릴 하는거야, 그걸 팔아서 뭘 했어?》

고일병의 입귀가 랭소적으로 이지러졌다. 그를 앞질러 림중사가 대담했다.

《술을 마셨다는겁니다.》

병구는 그만 어처구니가 없었다. 누구에게라 없이 배신이라도 당한것같은 기분이었다.

그를 도와주라고 당부하던 매부의 말이 귀전에 되살아났다.

그래, 이따위 녀석을 도와주라는건가. 학생운동을 했다는 녀석이니까 제판엔 리념에 사는 인간으로 자처했을것이다. 그 리념의 정당성여부는 제쳐놓는다 하자. 그러나 리념을 위해 신상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뛰던 녀석이 술에 환장해서 부대장구를 내다 팔아먹었다는것이다. 이것은 군기를 론하기 전에 도덕적타락이다.

《너절한 녀석!》

병구는 침이라도 뱉듯이 한마디 꾸짖고 돌아서버렸다. 더는 그를 상대하고싶지 않았다.

## 2

병구가 헛본것이 아니었다. 병원앞에 서있는 사람은 틀림없는 권성태, 지혜의 4촌오빠였다.

처음으로 이곳에 4촌동생을 찾아온 성태는 병원의 외형부터 살펴보았다. 바깥채와 안채가 붙어있는 단층합석집이었다. 진료실들은 바깥채에 있고 안채는 살림집으로 쓰는것같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접수구에서 위생복을 입지 않은 40대초반의 여인이 그를 내다보았다.

《어서 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신거죠? 여기서 먼저 접수하세요.》

원장 안성덕의 부인이었다. 시골의 개인병원들에서 흔히 그러는것처럼 원장 부인이 뜨개옷바람에 접수업무를 맡아하는것이였다.

《권지혜간호원을 만나러 왔는데요.》

성태의 대답에 원장 부인은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그를 찬찬히 내다보았다. 녹거리잠바에 바지는 다림발이 서지 않은 허름한것이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도시풍을 풍기는 옷차림이였다. 얼굴은 선이 굵고 야외에서 막로동을 하는 사람처럼 햇빛에 그슬렸는데도 무척 지성적인 인상을 주었다.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담은 그의 눈이 원장 부인을 겸손하게 바라보고있었다.

《어디서 오신거죠?》

원장 부인의 어조에는 약간 경계하는 기색이 어려있었다.

《지혜의 4촌오빠되는 사람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원장 부인은 금시 경계의 빛을 지우고 반색을 했다.

《우리 지혜가 반가워하겠어요. 어서 들어가보세요. 외과실에 있을거예요.》

첫번째 방문에 《외과》라는 패쪽이 붙어있었다.

두번째 방은 내과진료실이고 세번째 방은 원장실이였다. 그러니까 외과와 내과 두개 과만 있는 병원이였다.

하지만 시골병원의 상례대로 눈병이건 코병이건 지어 산부인과질환이건 찾아오는 환자는 다 봐준다.

그 전과의사노릇을 하는 사람은 외과의 채준호선생인데 그보다 더 팔방미인노릇을 하는 사람이 간호원 권지혜이다.

간호원이 그 혼자뿐이니 그럴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1인3역, 5역을 능히 할수 있는 지혜였다.

천성이 부드럽고 바지런한 그는 언제 봐야 구김살 하나 가지 않은 위생복차림으로 이 방, 저 방으로 다니면서도 문소리 한번 요란히 내는 법이 없었다. 의사가 미처 지시하기 전에 제 할바를 알만큼 눈썰미가 빠르고 환자들의 옷차림을 보고 차별하는 법도 없었다.

성태가 외과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지혜는 흠냄새를 물씬 풍기는 웬 로인의 팔에 붕대를 감아주고있었다. 채의사는 어디 잠깐 나갔는지 자리

에 없었다.

지혜는 문소리에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불꽃처럼 두눈에서 튀어나왔다.

《어머, 오빠!》

성태에게 달려오지는 않았다.

《잠깐만요.》

붕대감기를 계속하며 량해를 구했다. 서두르지는 않았다. 성태를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상처에 자극을 줄세라 조심하면서 익숙한 숨씨로 붕대를 다 감았다.

《됐어요. 모레 다시 처치받으러 오세요. 곧 나올거예요.》

의자에서 힘겨웁게 일어서는 로인을 부축해주면서 그제야 성태쪽에 시선을 돌렸다.

성태는 로인이 밖으로 나간 다음 동생결으로 다가갔다.

지혜는 성태의 손에서 자그마한 려행가방부터 받았다.

《어쩐 일이세요, 미리 기별도 없이?... 어서 앉으세요.》

석유난로앞의 의자에 성태를 앉히고 자기도 곁에 앉았다.

근 반년만에 만나는 그들이었다. 성태의 부드러운 눈길이 잠시 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새 좀 상한것같구나. 어디 아픈거 아니냐?》

《아니예요.》

지혜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병색이 도는 얼굴은 아니었다. 깨끗이 가서낸듯이 희고 동그스름한 얼굴엔 스물넷 한창나이의 젊음이 청초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있었다.

그러나 미소지은 큰 눈엔 어딘지 모르게 한가닥 우수가 비껴있었다. 길게 자란 긴 속눈썹이 그들을 드리워놓은탓인지도 몰랐다. 그 그들이 백합처럼 하얀 얼굴에까지 번져나왔다.

병구가 지혜를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슬픔에 지친 처녀같다는 인상을 받은것도 그 음영때문이었다.

《큰아버님이랑 큰어머님께서 편안하세요?》

《응, 편안하다만 늘 네 걱정이다. 그래, 하는 일은 고되지 않느냐?》

《괜찮아요. 선생님들이 좋은분들이고 환자들도 시골사람들이 돼서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오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일부러 절 찾아오

신진 아니죠?》

《이 근처 부대에 있는 친구를 만날겸 너도 좀 보려구...》

성태가 말한 그 친구란 바로 고명찬이었다. 오전에 중대까지 찾아갔지만 친척외의 사람은 면회할수 없다 해서 만나지 못했었다.

두사람은 대학동창이었다. 성태는 2학년때 학생운동에 앞장섰다는 《죄》로 제적당한 후 징집되어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바람에 3~4년 년소자들의 동급생이 되어버렸다.

그때 사귄 학우가 고명찬인데 그도 후에 시위대오의 앞장에 나섰다가 체포되어 징집령장을 받았던것이다.

둘이 동급생으로 함께 공부한 기간이 길지 않았고 서로의 연령차이도 있었지만 부정에 항거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그 뜻으로 하여 절친한 벗으로 되었다.

그래서 성태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군산쪽에 가있다가 고명찬을 찾아볼겸 지해도 만날 일이 있어서 이곳까지 온것이였다.

지혜는 어려서 랑친을 잃고 성태네 집에 와서 자란 고아였다. 성태의 부모는 그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태가 고등학교때부터 제힘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굶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고 하는것을 뵈히 보면서 조카딸에게는 간호학교를 나올 때까지 등록금이며 책값걱정을 시키지 않았다. 여느 녀학생들처럼 방학동안에 식당같은데 나가서 허드레일이라도 해서 돈을 좀 벌려 해도 처녀가 그런데 드나들면 못쓴다고 극력 말렸다.

덕분에 무난히 학업을 마치고 자그마한 개인병원에 간호원으로 취직한 지혜는 매달 월급을 타면 남들처럼 옷가게나 화장품점에 들리지 않고 봉투채로 고스란히 큰어머니에게 갖다바쳤다. 갓 취입한 간호원의 박봉이였지만 그것으로나마 늘 애육살이걱정에 쫓기는 큰어머니를 도와주는것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병원이 폐업을 한 바람에 실직되었던 것이다.

공부할 때는 학생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실업자로서 가뜩이나 살림이 곤궁한 큰아버지집에 군식구로 얹혀살기가 사뭇 괴로웠다. 매일 밭바닥에 물집이 생길 지경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새 취직자리가 나지 않았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목수일을 하는 큰아버지도 건축계의 불황을 만나 한달이면 열흘도 일하나마나했고 4촌오빠 성태까지 가정교사로 다니던 일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점심을 굶는 일이 레사로 되었고 저녁거리가 없는 날도 드문히 생겼다.

지혜에게는 가장 피롭고 송구스러운 시기였다.

그무렵 성태는 대학을 한해 쉬기로 걱정했다. 등록금준비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별수없었다. 휴학하는 동안 어디 공사판 같은데 가서 돈벌이도 하면서 근로자들의 애환을 함께 체험해보는것도 좋을상싶었다.

그는 가족들과 학우들에게 자기 결심을 알리고 한해동안 몸담고 일할 공사판을 수소문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루는 지혜가 그의 방에 들어오더니 두툼한 봉투를 내놓았다.

《오빠, 이걸로 등록금 내세요.》

성태는 봉투안의것을 꺼내보았다. 돈이었다. 등록금을 내기에 충분한 액수였다.

《이거 어디서 난거냐?!》

《취직이 됐어요. 좋은 병원같아요. 딱한 사정 말했더니 선불금 주더군요.》

《모를 소리다. 요새 선불금까지 주면서 취직시켜주는데가 어디 있다는거냐?!》

성태는 부쩍 의혹이 생겼다. 등록금이 생겨서 다행이라는 생각보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에 가지처럼 쿵 박혀들었다.

지혜는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대답했다. 선배언니의 소개로 전연지대의 시골병원에 취직했다는것이였다. 그 언니의 오빠가 그 병원 외과의사로 근무한다고 했다.

그가 원장에게 부탁해서 취직도 시켜주고 선불금도 받게 해준것이라 했다.

성태는 그 전연지대란 곳이 어디냐고 캐어물었다.

이번엔 지혜가 잠시 망설이다가 XX군 용수리라는 지명을 댔다.

《그 장교네 부대가 거기에 있지 않니?》

《예.》

동생의 대답에 성태는 금시 낮빛을 흐렸다.

지혜에게 웬 장교가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은 얼마전이였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윤미가 알려주었다. 한병구라는 육군대위가 지혜에게 반해서 열을 올리는것같다고 했다.

성태는 직감적으로 강한 거부반응이 생겼다. 장교들의 도덕적품성이 얼마나 저렬한가를 잘 알기때문이었다. 그가 사병으로 복무한 그때도 순진한 처녀들을 유혹해서 한때의 심심풀이장난을 즐기다가 싫증이 나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장교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예나 지금이나 사정은 같을것이다. 품행이 단정한 장교들이 간혹 있긴 해도 그들은 거의가 례외없이 소위 《군의 원리원칙》 하나만 내세우면서 인정세계와 담을 쌓고 사는 비정의 인간들이었다. 룽사(육군사관학교)와 3사출신들의 경우가 그랬다.

윤미의 말에 의하면 한병구대위도 3사출신인데 편대적으로 군무성적이 남달리 우수한 《모범장교》라는 평가를 받는 장교라는것이였다. 《모범장교》들이 다 그러는것처럼 그 역시 장교직업에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있다고 했다.

더우기 한병구대위의 이름이 성태의 귀에 들어온 그때 당시로 말하면 광주참변의 악몽이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있던 시기였다. 정의로운 민중봉기에 대한 류혈적탄압만행의 하수인노릇을 한 군인들에 대한 저주와 원한이 하나의 사회적분위기로 되어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태가 한병구대위라는 그 미지의 장교에게 거부반응을 느끼는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혹시 윤미가 잘 모르고 한 소리가 아닐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장교가 다른 용무로 지혜를 찾아다닐수도 있는것이다.

윤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지혜가 그에 어떻게 반응하고있는가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였다.

성태는 기회를 봐서 동생에게 조용히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하루는 일요일이어서 해종일 도서관에 앉아있다가 느지감치 집으로 향하는데 저만치 앞에 지혜가 보였다.

집동네 골목길이었다. 웬 장교와 나란히 걸어가고있었다. 둘의 어깨가 닿을듯말듯하는데 장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혜는 이따금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류다른 정감을 자아내는 모습이었다.

성태는 급히 그들에게 다가가며 동생을 불렀다.

《지혜야!》



화들짝 놀라며 돌아서는 지혜의 얼굴이 금시 새빨개졌다.

장교도 돌아섰지만 침착하고 여유작작한 얼굴이었다. 첫눈에 성태가 지혜의 4촌오빠라는것을 알아본상싶었다.

성태는 그의 군복상의에서 대위계급장을 확인하고 지혜에게 물었다.

《퇴근하는 길이나?》

《예.》

장교가 성태앞에 성큼 다가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권성태씨죠?》

《예.》

《한병구라고 불러주십시오. 지혜씨한테서 형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태는 짐짓 랭담한 표정으로 아 그렇습니까 하듯이 머리를 약간 숙였다가 지혜에게 말했다.

《얼른 들어가자. 할 말이 있다.》

한병구대위에게 그럼 실례하겠다는듯이 목례를 하고 성태는 집으로 걸음을 옮겨갔다.

그것이 무례한 행위라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어쩔수 없었다. 호감이지 않는 사람에게 거짓친절을 보이는것은 성태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장교와의 작별인사가 길었는지 지혜는 한참후에야 들어왔다.

《너희들의 이야기 나도 좀 들었다.》

성태는 이렇게 허두를 뻗었다.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애정문제에 간섭할것까지는 없겠지만 오빠로서의 의견이야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싶었다.

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채 숨을 죽이고있었다. 왼쪽으로 곧게 탄 하얀 가리마가 왜 그런지 성태의 마음을 아프게 자극했다. 오빠로서의 의견을 말할 작정인데 얼른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성태는 한참 사이를 둔 다음에야 장교들의 도덕적품성이며 특히 광주에 투입된 계엄부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지혜는 시종 변명 한마디 없었다. 오빠의 말뜻을 리해하고 장교와 교제한것을 뉘우치는상싶었다.

성태는 동생도 지각이 있는 처녀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불행은 사람들의 정신적성장을 촉진시키는 법이다. 어려서부터 고아의

설음과 고독을 안고 자라난 지혜는 같은 년배의 다른 처녀들보다 생각이 깊고 제나름의 지각도 있었다. 그러니 굳이 긴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가싶었다.

원래 성태의 성격이 증언부언하기를 좋아하지도 않아 그날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났다.

지혜가 실직한것이 그로부터 며칠후였고 그때부터 그는 취직에 여념이 없는것같았다. 한병구대위를 다시 만나는 기색은 없었다.

동생이 실직한것은 안됐지만 그 장교와의 교제가 끊어진것은 다행이라고 성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용수리에 취직해간다는것이였다. 성태는 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장교가 있는 곳에 취직해간다 그거지…》

《우연한 일치예요. 거기 병원에서 채용해주겠다 해서 가는거예요. 오빠말씀 들은 후에 다시 그 장교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지혜는 거짓말을 하는 눈치가 아니였다.

《그래두 거기 가있으면 그 장교가 또 찾아올거 아니냐.》

지혜는 호오 하고 한숨을 지었다.

《오빠.》

성태는 잠자코 동생의 말을 들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배언니가 용수리병원에 소개해줄 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떤 비극 같은것이… 아니예요. 너무 걱정마세요. 전 어쨌든 이번 기회에 오빠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게 된것이 여간 기쁘지 않아요. 앞으로도 오빠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거예요. 그것이 어려서부터 절 친자식, 친동생처럼 키워주신…》

지혜는 눈물이 글썽해지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성태는 불현듯 가슴이 뭉클해졌다. 다섯살때부터 한지봉밀에서 살아온 동생이였다. 다섯살이면 제 부모의 정을 아는 나이였다. 자다가도 깨어나 엄마, 아빠를 부르며 쿨쩍거렸다. 넉넉치 못한 살림이여서 사탕과자도 제대로 사먹이지 못했다.

동생보다 두살 손우였던 성태도 개구쟁이였다. 오빠야, 오빠야 하며 줄줄 따라다니는것이 귀찮아서 주먹으로 박아주기만 했었다.

그런데 무슨 은혜소리를 하는거냐.

되려 더 살뜰히 돌봐주지 못하고 오빠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성태는 돈을 봉투에 넣고 지혜앞으로 밀어놓았다.

《이 선불금 돌려주어라. 취직은 서울에서 해야 한다. 내 등록금걱정은 할것 없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따로 마련할거니까.》

그리고는 일부러 동생에게 등을 돌리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오빠.》

울음섞인 동생의 목소리가 그의 등을 때렸다. 성태는 못들은체하고 책장을 번졌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져서 글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동생이 소리없이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갈 때까지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내내 동생은 말이 없었다. 온 식구가 두레상에 모여앉아 식사할 때도 한번 오빠를 쳐다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에도 그랬다. 설음이 비낀 얼굴로 오빠의 눈길을 피하며 말이 없었다. 아침식사후 성태가 대학에 가려고 집을 나설 때 뭔가 할 말이 있는듯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곧 외면해버렸다.

제 성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노한게로군, 저녁때 다시 이야기해주자 하고 생각하며 성태는 등교길에 올랐다.

그런데 저녁때 집에 와보니 동생이 없었다. 책상우에 동생이 남겨두고 간 쪽지만 땡그러니 놓여있었다.

오빠.

용서하세요. 작별인사도 못드리고 떠나가요. 오빠의 당부는 꼭 명심하겠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등록은 꼭 래일 하셔야 해요. 오빠가 절 아껴 주신다면 저의 이 조그마한 성의를 꼭 받아주셔야 해요.

제가 오빠의 고마운 마음을 잘 아는것처럼 오빠도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실거라고 믿어요. 그럼 부디 몸성히 공부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동생 지혜 올림

봉투는 서랍속에 있었다.

별수없었다. 성태는 사뭇 죄스러우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동생의 그

성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는것을 끝내 거절한다면 동생을 지내 노엽히는 처사로 될상싶었다.

지혜한테서는 그후 가끔 안부편지가 왔다.

건강하다, 일은 고되지 않은데 객지에 나오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오빠의 사랑이 더욱 그림다... 그런 소리만 하고 한병구대위에 대해서는 매번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것이 이상했다. 수상쩍고 야릇한 불안을 자아냈다. 다시 서울에 데려오고싶었다. 곁에 데리고있어야 안심이 될것같았다.

마침 새로 개업을 하면서 여러명의 간호원을 신규채용하는 병원이 있었다. 성태의 대학선택중에 그 병원 서무과장과 절친한 사람이 있다는것도 알아냈다. 그 선배에게 지혜소리를 했더니 리력서를 써가지고 곧 병원에 가보라는 연락이 왔다. 그 연락을 받은것이 어제였다.

성태는 겨울방학동안 군산쪽에 가서 부업으로 부두하역작업을 하는 바람에 피곤이 몰려 신학기개학을 앞두고 며칠 쉬려 했지만 모처럼 생긴 좋은 기회를 놓칠수 없었다.

고명찬도 한번 만나보고싶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배스를 타고 용수리로 왔던것이다.

바깥날씨는 추웠지만 석유난로가 잘 피어서 방안은 제법 훈훈했다. 난로우의 주전자꼭지에서 김이 풍풍 피어오르고 진료실특유의 약냄새가 성태의 코끝을 몹시 자극했다.

시원히 환기창이라도 열어놓고싶었지만 남의 병원에 와서 그렇게 할수도 없는 일이었다.

《커피 끓여드릴게요. 우유 탄걸 좋아하시죠?》

《별로 생각이 없다.》

일어서려는 지혜의 무릎을 눌러 도로 앉히며 물었다.

《숙식은 어디서 하니?》

《안채에 제 방이 따로 있어요. 원장님 부인도 펍 좋은분이에요.》

지혜는 여러 면에서 이곳 생활에 만족해하는것같았다.

《이곳에 영 눌러앉을 생각이나?》

《글쎄요...》

《글쎄라니, 서울에 취직자리가 하나 나졌다.》

지혜는 뜻밖의 말에 놀란 얼굴로 오빠를 뵈히 쳐다보았다.

《그 일때문에 일부러 온거다. 어쨌냐, 서울 갈 생각 없니?》

지혜는 얼른 대답이 없었다. 고개만 푹 숙였다.

복도를 지나가는 무거운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오빠, 잠깐만 앉아주세요. 내과에 환자가 온것같아요.》

발자국소리만 듣고도 어떤 환자가 왔다는것을 대뜸 아는 모양이었다.

지혜가 나간지 얼마 안되어 창백한 얼굴에 근시안경을 낀 남자가 들어왔다. 서른네댓살 됐을가.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인상을 주는 얼굴이었다.

이 방 주인이군 하는 생각에 성태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계십시오. 방금 원장님 부인에게서 들었습니다. 권양의 4촌오빠라지요. 채준호라고 불러주십시오.》

채의사가 얇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손가락들이 길죽길죽한 전형적인 외과의사의 손이었다.

《권양한테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 대학분위기가 왜 그렇습니까? 묵비권행사도 아닐게구… 잠깐만.》

채의사는 기관총 쏘듯이 빠른 말씨로 말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책상에 가서 종이에 몇자 적어두고 다시 성태의 맞은편 자리에 와 앉았다.

《대학은 시대의 량심 아닙니까. 광주에 교훈이 80년대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대학의 지성인들이 왜 침묵하는겁니까? 물론 모종의 준비작업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게 너무 오랜것 같습니다. 나야 한갓 시골의사에 불과하지만…》

이런 소리 더해서 무슨 소용이람 하고 단념하듯 머리를 내젓고 채의사는 화제를 돌렸다.

《우리 권양 만나보러 일부러 오신겁니까?》

《예.》

《아주 유능한 간호원입니다. 이런 시골구석에 파묻혀있기에 아까운 아가씨지요.》

문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지혜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환자를 부축해서 들어왔다.

성태는 진료작업에 방해가 될것같아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려관에 가 있겠다고 했다.

려관방은 몹시 불결하고 설렁했다. 종업원이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

퍼넣었는데도 쉬 더워지지 않았다.

성태는 방에 려행가방을 두고 밖으로 나갔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 군인들이였다. 간혹 보이는 민간인들은 모두 어딘지 모르게 겁에 질리고 주눅이 든 얼굴들이였다.

다방간판이 보여서 들어가봤더니 거기도 군인투성이였다. 민간인들은 구석자리들에 어깨를 웅송그리고있었다.

쓰고 뺏은 커피를 두어모금 마시고 나왔다.

길가의 구멍가게며 당구장 같은 곳에 기웃거리다가 려관에 돌아갔다. 아래목에 온기가 조금 있었다. 아침부터 빠스라고 걸어다니고 해서 피곤했다. 머리속엔 지혜 생각이 착잡하게 갈마들었다.

지혜가 려관에 온것은 저녁식사시간이 다되어올무렵이였다.

지혜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녁식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다.

《네가 오면 같이 먹으려구 기다리는중이다. 여기에두 설령탕집이 있겠지?》

지혜가 어려서부터 설령탕을 류달리 좋아했다. 성태는 호주머니사정이 넉넉치 못했지만 오래간만에 동생에게 한그릇 사먹이고싶었다.

《채선생님이 저녁대접하시겠다고 오빨 모시구 오래요.》

지혜의 대답이였다.

초대는 고마웠지만 우선 채의사의 사람됨에 대해서 알고싶었다.

《그분도 원래부터 이곳에 계신 의사가 아니지 않니? 동생이 서울에 있다면서?》

《서울출신이라요. 부모님도 서울에 계시구요.》

《대학도 서울에서 다녔겠구나.》

《예. 대학때 학생운동도 하시고 류치장과 교도소에도 자주 드나드신 분이래요.》

그런 사람이 돼서 아까 만나자마자 광주의 교훈이 어찌구 하는 소리를 한게로군.

사귀어보고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서 가요. 사모님한테 미리 연락하셨대요. 제 취직문제도 해결해주신분이니까 오빠도 인사드리는데 좋잖겠어요.》

《그래야지. 아깐 그 채선생이 자꾸 자기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하는 바람에 미처 그런 인사를 못드렸다.》

《원래 성격이 그런것같아요.》

《그건 그렇구, 아까 그 애긴데… 좀 생각해봤니? 서울취직문제 말이다.》  
지혜는 고개를 푹 떨구며 한숨지었다.

뜻밖의 일이었다. 서울에 취직자리가 있다면 무척 좋아할줄 알았는데  
왜 저렇가싶었다. 문득 한병구대위 생각이 났다.

《너 혹시 그 장교와 다시 교제하는게 아니냐?》

지혜의 얼굴에서 모닥불이 확 일었다.

성태는 한숨이 나갔다. 지혜를 서울에 붙잡아두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그 장교와 무슨 약속이라도 한게로구나.》

《아니예요, 약속은 무슨…》

《그럼 왜…》

성태는 더 캐여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약속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 장  
교때문에 서울 갈 생각을 안하는것임에 틀림없는것같았다.

원래 마음이 약해서 누가 무엇을 완강히 요구하면 그것이 제 뜻에 맞  
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하는 동생이었다.

그러한 성미때문에 서울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그 장교와 절교하리라  
마음먹었지만 막상 이곳에 온 후 그가 부단히 접근해오면서 완강히 끌어  
당기자 그만 행복하고말았을것이다.

그렇다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둘것인가 아니면 한번 더 충  
고를 해볼것인가? 충고하기에 때가 늦어진것이 아닐가?

성태는 잠시 궁리해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밖에 나가자 지혜가 앞장에서 길을 안내했다.

《아직 멀었냐?》

얼마큼 따라가다가 성태가 물었다.

《저기 세번째 집이에요.》

지혜가 가리킨 그 집은 따져보나마나 채의사네 집일것이다.

《한병구대위네 집은 어디냐? 부모님과 같이 있는거냐?》

길가 구멍가게의 불빛을 받은 지혜의 얼굴이 삽시에 굳어졌다.

《하속하고있어요.》

대답소리가 모기소리처럼 가늘었다.

《내 잠깐 그 사람을 만나보고싶은데… 그 집앞에까지 안내해주렴.》

지혜는 가만히 한숨을 돌리며 상태를 쳐다보았다.

《제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걱정마. 잠깐 만나보면 된다. 여기까지 온김에 인사두 할겸 해서...》

지혜는 다시 가만히 한숨짓고 얼마큼 가다가 고살안을 가리켰다.

《저 집이에요.》

《넌 여기서 기다리던지 채선생님택에 먼저 가있거라.》

성태는 동생을 떨구어두고 병구네 하숙집으로 갔다.

대문소리에 중년부인이 나왔다. 민씨였다.

《한병구대위님 계십니까?》

《예, 어디서 오셨수?》

《병원에 있는 권지혜간호원을 아시는지, 그애 4촌오빠입니다.》

민씨가 《어머, 그러세요?》 하고 반가워하더니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대위님, 반가운 손님이 오셨어요!》

안쪽에서 곧 응답이 없었다. 민씨가 재차 소리쳤다.

《지혜아가씨 4촌오빠가 오셨어요!》

### 3

병구는 퇴근종이 울리자마자 련대본부에서 떠났다.

몇몇 동료장교들이 한잔하러 가자고 끄는것을 거절하고 곧장 하숙집으로 왔다.

민씨가 곧 저녁밥이 된다고 부엌에서 분주히 돌아쳤다.

병구는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한 다음 낮에 배달되어온 그날 조간신문을 뒤적거려보았다. 별로 흥미를 끄는 기사가 없었다.

아프리카 오지탐험대에 관한 기사가 있어서 읽어볼가 해도 글줄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정신을 집중해서 볼수가 없었다. 마음의탁인것같았다.

그날은 언짢은 일만 련속 겪은 날이었다.

야외교련장에서 고명찬일병을 만난 후 중대본부에 갔는데 이번에는 중대장 지종만대위가 아니꼽게 굴었다.

지종만은 련대적으로 몇명 안되는 룽사출신이었다. 여느 룽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다 그러는것처럼 그 역시 3사나 학도군사훈련단출신들을 정규육사과정을 마치지 않은 장교들이라 해서 여간 깔보지 않았다.

병구에 대해서도 그랬다. 같은 대위이지만 병구가련대장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장교인것만큼 응당 그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 잔뜩 코대만 높여가지고 었서려고 했다. 결합이 있다는거야 누구 눈에나 뻔히 알리는데도 3사출신의 지적은 접수하기 싫다는 태도였다. 병구가 막 화를 내며 강하게 추궁해서야 마지못해 수그러들었다.

련대본부에 돌아온 후에도 불쾌한 일을 당했다.

퇴근시간이 림박할무렵 전화종이 따르릉 울렸다.

송수화기를 들었더니 련대장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진동판을 세게 울리며 귀청을 때렸다. 전달의 각 대대별작전훈련실시정형에 대한 점검보고를 왜 여태 제출하지 않는거냐 하는 꾸중이었다.

병구는 어이가 없었다. 이미 나흘전에 그 보고서를 작전주임에게 제출했던것이다. 그날 출장떠난 작전주임이 그 보고서를 련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잊고 그냥 간 모양이다. 가끔 그런 일이 있었다. 매사에 느리고 전망증이 심한 작전주임때문에 병구가 애매한 꾸중을 들은것이다.

이래저래 언짢아진 기분으로 집에 온터에 신문이 제대로 읽힐리가 없었다. 신문을 내려놓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이때 밖에서 지혜의 4촌오빠가 왔다고 알리는 민씨의 목소리가 들썩하게 울렸다.

뭐, 누가 왔다구?

병구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작년 여름 지혜네 집동네 골목길에서 만나본 성태의 그 랑담한 얼굴이 피땀 떠올랐다.

《대위님, 손님 오셨대두요! 지혜아가씨 4촌오빠예요!》

민씨의 목소리가 이번엔 방문앞에서 울렸다.

어쨌든 날 찾아온 사람이다. 지난 일을 가지고 웅졸하게 굴거야 없지.

병구는 스스로 자신을 타이르며 미닫이를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와서 안됐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왜 기억 못하겠습니까. 찾아와주어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민씨가 그들 둘이 방으로 들어가는것을 미소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지혜아가씨두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걸...》

방에 들어가 마주앉은 두사람이 수인사를 나누고있는데 미달이가 빠르게 열렸다.

《술이라도 한병 받아올가요?》

민씨였다.

병구가 한잔할가요 하고 묻는 눈으로 상태를 쳐다보았다.

《지혜가 밖에서 기다리고있습니다. 곧 가봐야겠습니다.》

성태의 말에 민씨가 허를 찼다.

《예구, 밖에서 기다릴게 뭐람. 같이 들어올거지. 대위님, 제가 나가서 데려올가요?》

병구도 지혜의 그 처사가 조금 못마땅하게 느껴졌다.

《그만두십시오.》

민씨가 미달이를 달고 물러간 다음 방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혹시 아시겠는지, 고명찬이라구... 제 친군데 한형네 런던관하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성태가 먼저 침묵을 깨며 이런 소리를 했다.

《고명찬일병 말이지요. 오늘도 만났습니다. 같은 대학에 다녔는가요?》

《예, 한형의 매형되시는 유경훈교수님도 잘 아시는 친굽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매부를 잘 안다 그거군 하고 병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매부이야기나 고명찬이야기는 더 펼쳐놓고싶지 않았다. 그보다도 성태가 찾아온 목적이 뭔지 그것부터 알고싶었다.

《낮에 그 친구를 좀 만날가 해서 중대에까지 찾아갔더니 면회사절이 더군요.》

성태가 또 고일병소리를 했다.

《그 사람 만나려 일부러 오신겁니까?》

《지혜 일도 있어서 겸사겸사 왔습니다.》

《지혜씨 일이라뇨?》

《그애를 간호원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병원이 나저서요. 서울에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애가 좋아할줄 알았는데 와보니 형편이 달라졌더군요.》

《그래서요?》

병구는 별안간 숨이 가빠지는것을 느끼며 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한형때문에 그애가 서울 갈 생각을 안하는 눈치입니다.》

《말씀의 뜻을 알만합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지혜씨와의 교제를 끊어달라는 그런 말씀 하려는거 아닙니까?》

병구는 령소를 머금으며 일부러 앞질러 나가보았다.

《아직 피차에 무슨 약속이 있는건 아닌줄로 알고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두 우리 지혜를 계속 붙잡아둘 의향입니까?》

《왜 지혜씨를 기어이 데리고 갈 생각입니까?》

《기어이라기보다... 그애가 동의해야 가는거지요. 자신의 운명문제니까 본인이 결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병구는 담배갑을 꺼내여 성태에게 먼저 한대 권하고 자기도 불을 붙여물었다.

《지혜씨당자가 결심할 일이라면서 그 이야기를 굳이 저한테 하는 저의를 모르겠군요.》

《오빠의 립장도 있는거니까.》

성태는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뜨직뜨직 대답했다.

《어떤 립장 말인가요?》

《그걸 꼭 들어야 하겠습니까?》

《강요하는건 아닙니다만... 좋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부터 좀 하지요. 지난 일인데, 작년 여름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에 말입니다. 권형에게서 당한 그 모욕적행태가 도무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빠의 립장이겠는데 제가 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까? 제 짐작이 틀림없다면 제가 지혜씨와 교제하는걸 못마땅하게 여기시는거죠? 그 이유가 뭐죠? 혹시 절 한때의 들뜬 기분으로 순진한 아가씨들을 희롱하다가 버리는 패덕한으로 보신거 아닙니까? 이왕 이렇게 만난김에 권형의 솔직한 심정을 알고싶군요.》

병구는 짐짓 점잖게 따지고들었지만 성태를 쏘아보는 눈빛은 여간 날카롭지 않았다.

성태는 여유있는 시선으로 그 눈빛을 붙잡으면서 몇모금 빨지 않은 담배를 재털이에 꼭 눌러버렸다.

질문을 받은 이상 대답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왕 대답을 할바에야 솔직히 터놓고 말하는것이 좋다고 성태는 생각했다.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전 원래부터 장교들을 좋아 안합니다.》

《그렇수도 있겠지요. 지혜씨한테서 들었는데 전에 사병생활을 하셨다지요? 그때 조폭한 장교밑에서 몹시 고생하신것같은데…》

성태는 병구의 말허리를 꺾었다.

《아닙니다. 그런 개인적감정을 한형에게까지 연장시켜서 한 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교일반에 대한 부정적견해를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라 사실도 알아두시는게 좋을상싶습니다.》

병구는 문득 마음에 짊이는것이 있었다.

《광주사변때문에 그러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당신네 군인들이 저지른 그 야수적만행에 대해서 우리 민족은 영원히 잊지 않을겁니다.》

병구는 의식의 어느 구석에선가 검은 바람이 이는것을 느꼈다. 그 바람을 내몰기라도 하려는듯이 담배를 뻑뻑 빨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형이 광주계엄군에 가지 않았다는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한형도 군인이 아닙니까. 그것도 말단사병이 아니라 장교지요.》

《아니, 그러니까…》

병구는 얼른 뒤말을 잊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스스로도 알수 없었다. 까닭모를 곤혹감만 느껴졌다.

《량심적인 장교라면 그가 설사 광주계엄군에 가지 않았다고 해도 말입니다. 광주대학살만행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과 같은 군복을 착용하고있는것을 수치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형은 자신의 장교직업에 대해서 대단히 긍지감을 느끼고계신다더군요. 그래서 <모범장교>라는 평가를 받을만큼 군무성적도 좋군요.》

병구는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어올랐다.

《그랬으면 어쩔다는겁니까?》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건…》

이번에는 병구가 성태의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광주작전 하나를 가지고 우리 <국군>전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군본연의 임무는 <국토방위>초소를 지키는겁니다. 저도 광주사람들을 살해한 계엄군이 아니라 신성한 우리의 국토를 보위하고있는 전연부대 현

역장교입니다. 장교로서의 저의 공지와 영예감도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성태의 입가에 고소가 스쳤다.

《한형.》

《또 뭘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찾아온건 이런 론쟁이나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 난김에 몇마디 하지 않을수 없군요. 대관절 누구의 국토를 무엇으로부터 <수호>한다는겁니까? 어디서 누가 침략해오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수십년동안이나 소위 <북으로부터의 침략위협>타령인데 언제 한번 그러한 징후라도 있었습니까? 저도 한때 사병으로 군에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최전연에서 3년세월을 보냈지요. 그때도 우리쪽에서 먼저 북쪽으로 총포탄을 쏘아댄 사례가 많았지만 북에서 먼저 불질을 해본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 권형말은 그러니까 <국토방위>임무가 애당초 허위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방위>가 아니라 국토를 피로 물들게 하는것이 군 본연의 임무지요.》

성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뒤를 이었다.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고 학생운동이 고조될 때마다 류혈적으로 탄압하며 그것으로 군사파쇼통치를 보호해주는것이 바로 군 본연의 임무라는겁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제가 지혜씨와 교제하는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까?》

《예.》

병구는 얼굴이 확확 달아올랐다. 관자노리에서 피줄이 툭툭 뛰었다. 채찍에 얼굴을 되게 맞은것만 같았다.

군의 명예를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병구였다. 그에게 있어서 군의 명예는 곧 자신의 긍지이기도 했다.

광주작전을 유감사항으로 생각하는것도 대민관계의 시각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것이 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기때문이었다. 성태의 말은 군의 명예에 대한 모욕인 동시에 자기에 대한 모욕이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번졌다.

성태가 지혜의 4촌오빠가 아니라면 지독한 폭언을 마구 퍼부어주고싶었다.

《그래, 그런 소리나 하려구 절 찾아온겁니까?》

가까스로 분노를 누르며 조용한 소리로 물었다.

《아닙니다. 도중에서 이야기가 결가지를 친 바람에 그만... 지혜일때문에 의논 좀 하자구 했는데...》

《무슨 의논을 할게 더 있다는겁니까?》

《아까 한 그 말인데요. 만약 한형이 이제라도 지혜를 단념해줄수 있다면 서울로 데리구 갈가 합니다.》

병구는 눈섭을 치켜올리며 거칠게 내쏘았다.

《오관하지 마십시오. 전 원래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는걸 허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구 안하구야 저의 권리 아닙니까.》

《그럼...》

《마저 들으십시오. 저도 권형이 어떤 사람이란걸 조금은 알고있습니다. 학생운동하다가 체적도 댔다더군요. 그 반체제사상으로 우리 군과 저를 비난하는데 저도 권형의 그 사상을 얼마든지 비난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별수없군요. 서로 모욕이나 주게 될 대화를 더 계속할것 없이 여기서 그만두는게 피차에 좋지 않겠습니까?》

성태는 머리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 4

성태가 병구의 장교직업을 그렇게 비난했지만 만약 그가 장교로 복무하지 않았으면 지혜와의 인연이 애당초 맺어지지도 못했을것이다. 전연부대 장교로서 서울의 원호엽준장네 관사출입을 자주 하는 과정에 지혜와 처음으로 만나게 됐으니 말이다. 그리고 또 병구가 원호엽준장을 알게 된것이 3사시절부터였다는 사실을 두고보면 그가 3사에 입교한 그때부터 벌써 지혜와 자기의 상봉이 미리 운명지어진것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운명의 묘한 매듭들이 련속 이어진셈이었다.

병구가 3사에 입교한것은 20살때였다. 3사생활은 첫시작부터 여간 간고하지 않았다.

직선, 직각, 정보로! 이것이 3사교육구호의 하나였다.

앞을 때 상반신을 직선으로 곧추세우고 무릎을 직각으로 꺾으라, 서 있을 때도 전신이 일직선이 되게 쭉 펴라, 항상 정보로 걸어가되 방향전환시엔 직각으로 꺾고 전방을 똑바로 보면서 정보로 직선을 따라가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세와 행동상의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정신상태와 생활에서, 학과와 규율, 업무수행 등 군무 일체에서 직선, 직각, 정보를 요구했다. 직선, 직각, 정보자세로 오직 《국토방위》임무에 전심전력을 다 바치는 장교가 되라는 것이었다.

그 어떤 사소한 잡념도 허용하지 않았다. 잡념은 곧 장교정신이 곡선으로 휘어져버린 타락현상이고 사소한 군기위반도 직선, 직각, 정보자세가 허물어진 표현이라고 했다.

규율도 엄격했다. 아침기상으로부터 밤취침까지 짝 짝인 일과속에서 수천명 학생들이 기계처럼 움직이게 하고 만약 누구든지 눈빛 한번 잘못 움직여도 기합을 당했다.

학과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매일, 매주, 매월, 매 분기에 고시를 실시했다. 고시에서 세과목이상 락제점수를 받으면 무조건 퇴교명령이 내려졌다.

내무생활에서도 사소한 규율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점을 적용했고 한건의 위반사항에 5점 벌점을 주는데 벌점이 65점에 이르면 무조건 퇴교명령이 내렸다.

련병장 뒤산에 있는 《충혼비》가 또 하나 3사의 명물이었다. 교육강도가 높아서 각종 사고가 빈발했으며 산악극복강행군때 벼랑에 떨어져 죽고 도하작전훈련때 물에 빠져죽었으며 유격전훈련과 태권도교육에서도 사망자가 생기는데 그들의 혼을 위로한다고 세워둔것이 바로 그 《충혼비》였다.

병구는 처음부터 곧잘 견디어나갔다. 워낙 건강체에 머리가 총명한편이기도 했지만 은연중 경쟁심이 생겨 이를 악물고 달라붙으니 학과고시나 전술훈련때마다 5등순위권뒤로 떨어진적이 없었다. 각종 무기결합 및 해체, 사격, 기갑, 참모학, 각개전투, 통신 그 모든 과목을 다 무난히 소화했다.

그런데 딱 하나 골치거리는 취침시에 《반듯이 눕고 두손을 배우에 올려놓는다.》는 그 자세가 도무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내무생활규정에서 누구든지 그 취침자세를 위반하면 방금 잠든 구대(소대)전원을 두들겨깨워 집단기합을 가했다. 그 집단기합이란 기상구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제정된 시간내에 완전군장을 갖추고 련병장에 집합시키는 것이었다. 학과와 훈련에 지쳐서 송장처럼 자고있다가 그러한 기합을 당하는 것은 차라리 《뺏다방망이》에 두들겨맞기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것도 한번으로 그치면 몰라도 시간을 딱 채고있다가 제정된 시간내에 집합하지 못하는 학생이 한명이라도 생기면 전원에게 반복동작을 시켰다. 침상에 누워있다가 구령과 함께 일어나 소등(전등을 끈)상태에서 완전군장을 갖추고 뛰어나가 집합하는 동작이다. 그 동작을 거듭하다보면 날이 새는 경우도 있었다.

병구도 언젠가 그 취침자세를 위반해서 구대전원이 집단기합을 당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그 보복으로 이튿날 동료생도들에게서 모두매를 맞았다. 할 말이 없었다.

다시는 취침자세를 위반하지 말아야겠다고 속다짐했지만 그게 잘되지 않았다. 아이적부터 붙은 모로 누워야 잠드는 습관 탓이었다. 반듯하게 누우면 우선 뒤굴이 배기고 허리도 결려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취침상태점검을 나올 때까지 반듯하게 누워서 고르로운 숨소리까지 내며 자는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무렵 어느날 전술학 처장 원호엽중령이 각 구대에서 1명씩 대표를 선출해서 자기 방에 보내라는 명령을 내렸다. 병구도 대표로 뽑히게 되었다.

당시 원호엽중령은 이따금 특강으로 출연하는 전쟁사강의로 하여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있었다.

그의 특강은 언제나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전쟁사의 일반적흐름뿐만 아니라 매개 전쟁의 진행과정과 사령관의 전법, 군대의 화력, 승패의 원인 등 모든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명장이 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만들고 군의 포화가 력사의 판도를 변경시키며 인류문화의 흥망까지도 좌우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강의를 시작해서 끝마칠 때까지 교수안 한번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래도 백목을 쥐고 흑판을 향해 서기만 하면 콜덱스의 그 령기적인 메히프정복의 진격로며 영국과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세 나라 련합군을 타승한 프랑스의 명장 라이살장군의 작전도 심지어 고대인디아 코끼리부대의 대렬편성도까지 일목료연하게 그려보였다.



그는 화려한 수식사를 쓰거나 청강생들의 주의를 끌어당기기 위해 특별한 제스처어도 쓰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을 골라하면서 강의를 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의 명예를 수호한 명장들의 이야기를 할 때면 전에없이 흥분했다.

《같은 전략전술, 지휘능력도 그것이 자기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 바쳐져야 고귀하고 영예로운것으로 되는겁니다.》

이것은 그가 언젠가 자기의 특강을 마치면서 결론삼아 한 말이였다.

바로 그 원중령이 학생대표들을 부른것이다.

무슨 일일가? 모두들 긴장된 시선으로 중령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학교장님명령으로 제군들을 불렀다. 용무는 애로사항제기를 들어보자는것이다. 시간은 30분간!》

의외의 말에 병구는 어리둥절해졌다.

《학과교육과 체력단련, 내무생활, 뭐든지 좋다. 기탄없이 말하라. 원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해결해줌으로써 학사운영에 실리를 거두고자 한다.》

그가 이렇게 취지설명을 해도 선뜻 입을 떼는 학생이 없었다.

《군인은 솔직결백해야 한다. 속에 품고있는 의견을 말하지 않는건 장교답지 못한 행동이다.》

원중령이 약간 성난 어조로 재촉해서야 병구가 벌떡 일어났다.

《제9중대 제2구대 한병구 한가지 질문해도 좋습니까?》

《말하라.》

《취침시 <반듯이 눕고 두손을 배우에 올려놓는다.>는 자세의 효율성을 알고싶습니다.》

원중령의 눈썹이 우로 치켜올라갔다. 뜻밖의 질문에 놀란 모양이였다.

《왜, 그 자세에 무슨 잘못이 있다는건가?》

《제 개인적애로사항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로 누워 자는 습관이였습니다. 반듯이 누우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원중령이 입귀를 이지러뜨렸다. 웃음이 나오는것을 가까스로 참는 눈치였다.

《본교는 민간사회에서 붙은 일체 습관을 없애는 곳이다. 이것이 첫째고...》

원중령은 평소의 엄격한 표정으로 돌아가면서 뒤말을 이었다.

《둘째는 그 취침자세의 효율성을 의문시하는것부터가 잘못이다. 개인 적애로사항유무를 막론하고 제정된 취침자세를 엄수해야 한다. 이상, 알아!》

병구가 앉자 원중령은 여느 학생들을 돌아보았다.

《다음!》

두번째로 일어난 학생이 중령님의 특강시간을 더 늘어달라는 소리를 했다.

원중령은 그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주지 않고 《다음!》 하고 재촉했다. 모두 일곱명이 일어섰지만 신통한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다.

원중령도 학교장의 지시로 학생대표들을 부르긴 했지만 별로 큰 기대는 가지지 않은것같은 눈치였다.

그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병구가 런무장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원중령이 나왔다. 그냥 지나갈듯하던 그가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아직두 그 취침자세가 불편한가?》

미소가 어린 친근한 어조였다.

학생들과 사담을 나누는 법이 없는 그에게서 그렇듯 미소어린 질문을 받자 병구도 부지중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습관이 됐습니다.》

《좋아, 그래야지.》

원중령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후에는 다시 조용히 만날 기회가 없었다.

이러구러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전연부대에 배속된 병구는 어찌다 우연한 기회에 원호엽중령이 대령으로 승급되어 런대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3사에서 좋은 처장님을 잃었군.》

그런데 다음해에 원호엽대령이 병구네 사단 참모장으로 임명돼왔다. 신임참모장의 이름이 원호엽이란것을 알았을 때 얼른 한번 만나보고싶었으나 말단소대를 지휘하는 하급장교에게는 사단본부로 갈 기회가 아주 드물었다.

어쨌든 사단본부에 와있으니 조만간 만날 기회가 있겠지.

그 기회를 기다리던중 사단에서 위관급장교들의 사격경기대회가 열렸다.

각 대대에서 3명씩 선발된 선수들속에 병구도 끼여들었다.

경기결과 병구는 종합성적 2등을 했다.

1, 2, 3등에 상장이 수여되었는데 시상은 사단장이 하고 그옆에 참모장 원호엽대령이 서있었다.

병구는 상장을 받을 때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는 원대령의 시선을 뜨겁게 느꼈다. 반갑고 고마웠다.

원대령을 다시 만난것은 련대에서 실시된 년간교육훈련 종합평가회의날 이였다.

그 회의에 원대령도 참석했는데 병구네 소대가 모범소대의 하나로 평가받았다. 회의가 끝난 후 주임상사가 병구에게 뛰어와서 사단 참모장이 부른다고 했다.

원대령은 련대장실에 앉아있었다. 그는 병구의 도착보고가 끝나자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다.

《지금도 그 취침자세 변동없겠지?》

《예.》

《담배는 피우나?》

《예.》

《주량은?》

《반병정도 합니다.》

《매일 마시는거야 아니겠지?》

《월에 2~3회정도입니다.》

《녀자친구는?》

《아직 없습니다.》

담배와 술, 녀자 그 세가지가 3사의 금지사항이였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즉시 퇴교처분이 떨어졌다.

하지만 3사출신들은 졸업후 부대에 배속되자마자 그 강압적인 규률에 대한 보복이나 하듯이 일제히 술, 담배를 배우고 녀자들과 사귄다. 월급 봉투를 타자마자 술집에 가서 다 털어버리는것으로 호걸흥내를 내는자들도 적지 않았다. 진탕 마시고 색정에도 흥을 내자니 소위, 중위의 월급이 너무 적었다. 부족액은 사병들의 주부식이나 보급품들을 횡령하거나 밖에 내다 팔아서 얻은 돈으로 충당한다.

병구는 그것을 장교정신의 타락으로 혐오하면서 자기자신은 청렴결백한

장교로 복무하려고 노력했다.

원대령은 그의 답변에서 그같은 자세를 확인한듯 머리를 끄덕였다.

《내 이제 련대장한테서 자네 이야기 들었네. 앞으로두 3사출신장교의 명예를 지키도록 하게.》

그것으로 대화는 끝났다. 언제 한번 놀러오라는 말도 없었다.

대령이면 고급장교의 첫 위계로 된다. 몸이 나기 시작하고 동작이 굼떠지는것도 대개 대령계급장을 부착한 다음부터이다. 거수경례를 해도 규정대로 군모채양까지 손끝을 가져가지 않고 소위 장성식경례, 귀찮다는듯 마지못해 손을 조금 쳐드는척하다가 내린다. 그와 같은 외형적변화와 함께 정신적비만증이라 할가, 게을러지고 두뇌활동을 둔화시켜버린다.

대령이면 대개 련대장 아니면 사단 참모장이다. 수하에 거느리고있는 팔팔한 장교들에게 일체 업무를 떠맡겨버리고 자기는 하품이나 하지 않으면 사교에 시간을 보낸다.

군도 인간생활의 집단이라 사교가 있기 마련이다. 회식이니, 연회니, 방문이니 하고 같은 위계끼리 모이기도 하고 대령은 소장을, 소장은 준장을 방문하면서 각종 모략과 리권취득과 분배에 관한 모의도 한다. 그러다가 부대에서 눈에 거슬리는 사항이 발생하면 폭군처럼 욕설을 퍼붓고 가혹한 징벌을 가한다.

그러나 원대령의 경우는 달랐다. 3사 전술학 처장시절보다 몸이 나긴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절도있는 몸가짐에 업무수행도 기민하고 엄격히 했다. 일과를 번지는 법이 없었고 부하통솔도 원만했다.

특히 병구가 감탄한것은 원대령에 대한 추문이 없는것이였다. 청렴한 생활을 하며 여가시간에 독서도 많이 한다고 했다.

고급장교들의 부정부패와 직무태만, 무능에 은근히 불만을 품고있던 병구는 원대령이야말로 장교의 귀감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어느 시골중학교 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것도 그무렵이였다.

병구의 아버지도 몇해전 고혈압으로 사망할 때까지 벽촌국민학교 교장이였다. 같은 교육자가정출신이라는 생각이 병구로 하여금 원호엽대령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병구가 대위로 진급되고 중대장직무를 받은것은 원대령이 사단 참모장으로 있을 때였다. 새 계급장을 부착한 후 인사처에 용무가 있어 사단본

부에 올라갔다가 만났다.

《진급을 축하하네.》

전에없이 악수를 청해서 병구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그가 말했다.

《륙본(륙군본부)에 올라가게 됐네. 서울 오는 기회 있으면 우리 집에도 들리게.》

원대령은 률본 작전교육국에 올라간 후 준장으로 진급했다.

병구가 찾아가면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선배장교로서의 교훈적인 이야기도 자주 해주었다.

《국토방위》임무에 전념해야 할 장교들이 업무수행에 태공하고 사리사욕추구에 급급해하는 현상을 개탄하는 이야기도 했다.

여러번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원호엽준장이 제일 혐오하는것이 소위 《정치군인》이라는 사실을 병구는 알게 되었다.

군이 일단 정치에 개입하면 그것은 곧 군의 타락을 의미하며 군인이 정치무대에 나서면 스스로 군인의 명예를 버리고 정상배로 굴러떨어진다 는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그자체를 혐오하는 사람같기도 했다.

병구가 어쩌다 청와대의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하면 그 건 자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밀막아버렸다. 그런 때의 표정이나 어조로 미루어보아 자기도 무슨 의견이 있지만 일부러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화제에 올리는것도 피하는것같았다. 때로는 병구를 앞에 앉혀두고 오래도록 혼자생각에 골몰해있기도 했다. 그럴 때면 의분과 령소, 체념과 의혹 등 갖가지 감정이 그 얼굴에 한데 엉켜도는것같았다.

그 모든것은 병구가 전에는 전혀 모르고있었던 그의 깊은 내심의 발로였다. 만나는 회수가 거듭될수록 그에게서 새로운것을 발견하게 되는것이 병구에겐 놀라웠고 그럴수록 더 자주 그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의 관사에서 지혜를 만나게 되었던것이다.

일요일이었다. 아침빠스로 서울에 온 병구는 오전시간을 매부와 함께 보내고 오후에 원호엽준장의 관사로 갔다.

웬 낮선 아가씨와 함께 정원의 포도나무밑에 앉아있던 원준장의 딸 윤미가 먼저 그를 반가이 맞이했다. 그 낮선 아가씨가 바로 권지혜였다.

원준장이 부인과 함께 외출중이라 해서 병구는 그들과 같이 포도나무밑의 등 의자에 앉았다.

폭양이 내리찍는 날이었지만 잎이 무성하게 펼쳐진 포도나무밑은 제법 서늘했다. 해빛 한줄기 새어들지 않았고 바깥거리에서는 전혀 감촉되지 않던 미풍도 불어왔다.

윤미가 그에게 지혜를 소개해주었다. 직업은 간호원이고 녀고시절의 선배언니이며 녀고졸업후 한번도 못만났는데 오늘 우연히 거리에서 만나 집에까지 이끌고 온것이라고 했다.

지혜는 동그스름한 얼굴이 나리꽃처럼 희며 첫인상이 무척 어질고 착해보이는 처녀였다. 서글서글하게 생긴 큰 눈엔 한가닥 우수 같은것이 비껴있었다. 무슨 슬픔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것이 아닐가싶었다. 남자와의 교제경험은 전혀 없는것같았다.

병구가 레절바르게 거수경례를 붙이며 먼저 자기소개를 하자 그에 대한 답례격으로 머리를 가볍게 숙이는데 얼굴이 온통 불에 데인것처럼 새빨개졌다. 그와 대조적으로 윤미는 아주 활달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두사람의 통성이 끝나기가 바쁘게 뽀족한 턱을 약간 쳐들며 병구에게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이 땅에 꼭 70만 상비군이 있어야 하는거예요?》

군의 존재리유와 그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건가?

그것은 묘령의 아가씨들과 마주앉은 이런 자리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화제다.

병구는 머리를 약간 뒤로 제껴 록두알만큼씩 자란 포도송이들을 쳐다보았다.

《포도가 많이 달렸군요. 금년에도 달게 만들겠습니까?》

《그게 다 우리 어머니탓이에요. 포도가 달아지라고 뿌리옆에 설탕 물어줄 때 지내 많이 묻게 하는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때때로 지나친데가 있어요.》

《뒤에서 어머니 흉을 보는건 썩 좋은 품성같지 않군요.》

병구는 전일부터 자주 다녀서 윤미와 가벼운 통담도 주고받는 사이였다.

《흉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거예요.》

《진실이라... 그럼 나도 진실을 한가지 이야기할까요. 내 생각엔 포도가 자기 고유의 맛을 살려야지 거기에 설탕을 물어줄게 뭘니까. 인공적인 가미를 하지 않은 본연의 맛이 더 좋을텐데...》

병구는 말끝을 지혜에게 돌렸다.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는 또 얼굴이 새빨개지며 입술을 달싹거렸다. 긍정하는건지 부정하는건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수 없었다.

지내 수줍어하는군 하고 병구는 생각했다.

처녀의 그 남다른 수줍음이 자기의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를 안겨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들국화무늬가 있는 달린옷이 그의 다소 실직한 몸매에 아주 잘 어울려보였다. 슬 많고 윤기흐르는 머리도 아늑한 정감을 자아냈다.

《포도애긴 그만하시고 아까 내가 물은거 있잖아요, 그 대답이나 해주세요.》

윤미가 다시 병구에게 말을 걸어왔다.

《70만 상비군이 필요한가, 그 얘기 말이죠? 그런거야 나보다 윤미씨 아버님한테 물어보시죠.》

《알만해요. 모범장교님도 그 당위성을 론증할 자신이 없다 그거죠?》

윤미는 말끝을 맺으며 그렇지요? 하고 동의를 구하는 눈빛으로 지혜를 쳐다보았다.

지혜는 당황해하며 그런거 왜 나한테 묻는거야 하고 나무라듯 가볍게 눈을 흘겼다.

그날 저녁 병구는 시외빠스로 귀대하는 길에 무심히 차창밖을 내다보다가 산기슭에서 설레이는 들국화를 발견했다. 가느다란 줄기들과 잎새들 뿐이고 아직 꽃이 피기 전이었다.

거기에 불현듯 지혜의 달린옷에서 본 그 들국화꽃잎들이 옮겨와서 피

어나고 이어 그의 희디흰 얼굴이 그 꽃발을 배경으로 환히 그려졌다. 그 환각에 병구는 부지중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다시 서울에 간것은 다음달 첫 일요일이었다. 그날도 원준장은 집에 없었다. 며칠전에 군사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으로 갔던것이다.

병구는 그런줄 알면서도 관사로 갔다.

준장 부인이 그를 응접실에 맞아들이며 2층의 제 방에서 공부하는 윤미를 불렀다.

수인사들을 나눈 끝에 준장 부인이 문득 생각난듯이 제 딸에게 웃음 어린 소리로 물었다.

《내가 아는 아가씨들중에 압전하고 이쁜 처녀 없니?》

《왜요?》

《대위님도 이제 장가들어야지. 좋은 아가씨 있거든 소개해드리렴. 허허.》

윤미도 제 어머니의 요란스러운 웃음에 끌려 따라웃다가 갑자기 새침해지며 툭 내쏘았다.

《싫어요!》

《왜?》

《대위님이 지금은 썩 좋은분 같지만 이다음 우리 아버지같은 장성되면 어떡해요?》

준장 부인이 웃음어린 소리로 딸을 꾸짖었다.

《버릇없이 무슨 소리냐!》

그리고는 병구에게 꾸념을 늘어놓았다.

《때때문에 큰 걱정이예요. 전엔 안그러던게 대학생이 된 다음부터 무슨 시비가 그리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한뎀 사회부정이 어떻구 정치풍토가 어찌구저찌구하며 입방아 찼더니 요샌 버릇없이 아버지일에까지 시비를 걸구든다니까요. 내 원, 기가 막혀서... 대위님이 군대식으로 정신무장이 똑바로 되게 말 좀 단단히 해주세요.》

《전 전번날에도 론쟁하다가 지고말았는걸요.》

병구는 룡담으로 받아넘겼다.

안방쪽에서 전화종소리가 울리자 준장 부인이 응접실에서 나갔다.

병구는 윤미와 단 둘이 남게 된 기회에 문득 생각난듯이 넋지시 물었다.

《지혜씨 요새 잘 있겠지요?》

《저도 그후에 다시 못만났지만 그 언니의 4촌오빠가 우리 대학에 있



어요. 잘 있다는것같아요. 참, 그 언니 병원주소 모르시죠?》

윤미는 지혜가 근무하는 병원이름과 주소까지 대주고는 별안간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소 놀란듯한,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병구를 말뚱말뚱 쳐다보다가 깔깔 웃었다.

《호호… 모범장교님께서 첫눈에 반하셨다 그거죠! 호호…》

《실없는 소리 그만두오!》

병구는 펄쩍 뛰며 꾸짖었다.

윤미는 질겁한듯 웃음을 톡 그쳤다. 그리고는 또 무슨 말을 할듯하더니 제 어머니가 들어오자 다시 웃음보를 터뜨리며 응접실에서 뛰어나갔다.

《대위님이 무슨 통답하셨게 재가 저러는거예요?》

준장 부인이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아니, 뭐 별로…》

병구는 찢찢맸다. 어떻게 변명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었다. 자기가 남을 웃겼다는, 밀도 끝도 없이 지혜소리를 해서 웃음거리를 샀다는 생각에 거부해지기만 했다. 무심히 한 그 말을 엉뚱한 뜻으로 해석해가지고 깔깔 거리는 윤미에게 화가 나기도 했다.

어쨌든 다시는 지혜소리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 녀자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란...

그러나 이상한 일이였다. 분명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처녀의 동그스름한 흰 얼굴이 무시로 눈앞에 선히 그려지곤 하니 말이다.

더욱 이상한것은 다음 일요일이 되자 별다른 용무가 없는데도 또 서울에 가고싶어지는것이였다. 하지만 공교롭게 주변사령근무에 걸려 가지 못했다.

차라리 잘된거야. 그간 놈 서울엔 자꾸 가서 뭘 한담...

그다음 일요일은 아침부터 장교구락부에 가서 탁구를 쳤고 오후에는 TV 앞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나흘후 수요일에 공적용무로 서울에 가게 되였다. 용무는 15시 경에 끝났다. 출장보고는 래일 아침에 제출할것이니까 저녁빠스로 귀대해도 된다.

저녁때까지 뭘 한다? 누님한테나 들려볼가 아니면 영화구경이나 한다? 어디 전람회에라도 가보는건가?

그중 어느 하나에 마음이 정해지기 전에 몸은 벌써 지혜가 근무하는

병원쪽으로 급히 움직여가기 시작했다.

전날 윤미에게서 들은 주소로 찾아가는데 거의 두시간이나 걸렸다. 변두리에 있는 자그마한 개인병원이었다.

접수구에 앉아있는 혼기가 좀 지난듯한 가무잡잡한 아가씨가 권지혜간호원을 만나러 왔다는 병구의 말에 어디서 온거냐, 왜 찾는거냐 하고 잔뜩히 따졌다.

××사단에 군무하는 사람이다, 사적용무로 만나자는거다 하고 대답하니 근무시간중 사사용무면회는 곤란해요 하고 술이 성근 제 머리를 매만졌다. 미끈한 남자가 자기 아닌 딴 아가씨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질투가 좀 나는 모양이었다.

그럼 퇴근시간까지 기다리는거다.

병구는 현관밖에 나가서 서성거렸다. 퇴근시간이 몇시냐고 묻는것을 잊었다는 생각이 났지만 심술궂어보이는 그 간호원에게 다시 들어가고싶지 않았다.

숨이 콕콕 막히도록 더운 날씨였다. 그들을 찾아가있어도 밑에서 지열이 피어오르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휘감겨들었다.

더위에 지친듯 행인들의 걸음이 느리고 길모퉁이에 모로 자빠져있던 누렁개는 허바닥을 뺨물고 헉헉거렸다. 길바닥에는 찢어진 휴지며 오물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행인들은 한결같이 허름한 옷차림에 기름기가 빠진 얼굴들이었다.

맨 런닝샤쓰바람의 소년이 좌판 같은것을 둘러메고 병구에게 다가왔다. 껌을 사라는것이였다. 빼만 남은 얼굴이 새까맣게 탄 열서너살 돼보이는 소년이였다.

병구는 껌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두개 샀다. 조금 있으니 다른 아이와서 담배를 사라고 했다. 아까 이리로 오면서 한갑 산것이 호주머니에 있었지만 또 한갑 샀다.

담배를 한대 꺼내어 붙여물고 시계를 보았다. 17시 23분이였다.

용수리에 가는 막차를 타려면 시외버스정류소까지 부랴부랴 뛰어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러나 병원까지 찾아와서 지금껏 기다리다 지혜를 만나지 않고 차마 그냥 갈수 없었다.

애꿎은 담배만 뻑뻑 빠는데 또 한 아이가 다가와서 껌을 사라고 졸랐

다. 거리의 어린 장사군들속에 서로 기민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법이 있는건가. 병원앞에 서있는 장교가 아무것이나 잘 산다는 정보가 알려진것 같았다. 파자, 사탕, 손수건, 양말 심지어 복숭아며 추리 같은것까지 들고 이 아이, 저 아이가 줄지어 달려와서 매달렸다.

거리에서 뿔아빠지고 그만큼 앙큼한데도 있었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빈궁에 시달리는 가엾은 인생들이었다.

병구는 그 정상이 가공해서 이것저것 사버렸다. 강자앞에서는 언제나 승벽이 생겨 드세게 나가지만 약자앞에서는 저도 약자가 돼버리는 심성 탓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도와준것까지는 좋았는데 산 물건들을 건사할데가 없었다. 군복바지의 두 호주머니에 불룩하게 넣고도 남아서 복숭아봉지는 손에 들고있는 꼴이 되었다.

지혜가 드디어 퇴근차림으로 나왔을 때까지 그 꼴을 하고있었다.

지혜는 지독한 더위에 눈살을 찌프리며 현관앞에서 잠간 주춤거렸다. 병구를 알아본것같지 않았다.

그 심술궂은 접수간호원이 손님이 찾아왔다는것도 알려주지 않았던 모양이다.

병구는 불룩해진 바지주머니와 손에 든 복숭아봉지를 난처하게 굽어보다가 그의 앞에 성큼 다가갔다.

《안녕하십니까?》

《어머?!》

지혜는 화들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래졌다.

《출장 온 길에 잠간 들렀습니다.》

병구는 얼굴근육이 굳어지는것을 느끼며 서둘러 변명했다. 처녀를 놀라게 한것이 미안하고 반가워할지도 모르는 그앞에 불쑥 나타난 자기의 처사가 스스로 면구스러웠다.

《네, 그러세요? 전...》

지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뒤를 잊지 않고 병구의 손에 들린 복숭아봉지며 우습강스럽게 불룩해진 바지주머니들을 의아쩍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병구는 당황해서 그것들을 사게 된 경위를 더듬더듬 설명했다.

《너석들이 내가 어수룩해보였던가 봅니다.》

지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피어났다. 병구의 그 《어수룩함》에 호감을 느끼는것같았다.

《근데 이 꼴루 갈수 없군요. 헌병애들이 보면 시끄럽게 겁니다. 어디 버릴수는 없구…》

《버리긴 왜 버리겠어요. 저한테 보자기가 있어요. 인 주세요.》

지혜는 손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내어 그의 호주머니안의것까지 다 받아서 썼다.

그 조그마한 일이 서로의 놀라움과 어색함을 순식간에 해소시켜주었다.

《퇴근시간이 언제나 이때쯤 됩니까?》

걸음을 떼며 병구가 스스럼없이 물었다.

《네, 근데 오래 기다리신거예요?》

《아니 조금전에… 그 보자기 무겁지 않습니까?》

병구는 지혜가 들고있는 아까 그 물건들을 싼 보자기를 제가 들려고 했다.

《괜찮아요. 장교님이 이런거 들구다니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하긴… 일요일엔 꼭 쉬겠지요?》

《아니예요. 간호원이 부족해서… 한달에 두번 일요일만 쉬게 돼요.》

《요다음 일요일은?》

《오전만 근무할것같아요.》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혜는 의연 수집어하면서 묻는 말에 노래처럼 부드럽게 울리는 목소리로 정답게 대답해주었다. 병구가 저녁을 사겠다고 했을 때도 몇번 사양하다가 결국 응해주었다. 용수리행 마지막시외버스시간은 이미 지난 뒤였다.

료금을 좀 비싸게 주고 택시로 갈것을 각오하고 병구는 지혜와 함께 근 세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그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란 극히 평범한것들이었다. 병구는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부대생활이야기를 했고 지혜도 병원에 비쳐드는 세태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취미와 기호 같은것도 잠깐씩 화제에 올랐다.

그렇게 대화도 신통치 않았고 또 그 무슨 유별한 사연이 생기지도 않았건만 그날 밤 병구는 택시로 용수리까지 가는 동안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었다. 감미롭고 정다운 설레임이었다.

군에 입대한 후 그해 여름처럼 자주 일요일외출증을 떼기는 처음이었다.

일요일마다 그는 거의 빠짐없이 지혜를 찾아갔다. 지혜도 그가 오는것을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기쁜지 몰랐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무슨 약속도 하지 않았다.

병구가 처음으로 지혜를 찾아간 그날처럼 지극히 평범한 대화로 시간을 보냈다. 그 과정에 지혜가 어려서 량친을 잃고 백부집에 얹혀살고있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지혜는 군에서 제대된 후 복학해서 대학다니는 4촌오빠 성태이야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백부 내외분이나 4촌오빠가 아주 좋은분들이라고 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가 화제에 올리는 모든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병구에게 그렇듯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둔 병원 접수구의 그 간호원에 대해서도 지혜의 평에 의하면 이따금 까닭없이 심술을 부리긴 해도 본바탕은 아주 정직하고 선량한 아가씨라고 했다.

세상에 악하고 엉큼한 사람들이 좀 많은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애정과 선의로 보는것은 지혜의 착한 마음의탓이라고 병구는 생각했다. 그러한 처녀와 교제하게 된것이 기뻐다.

지혜의 그 착하고 순결한 마음이 군의 살벌한 풍토에서 살고있는 병구의 가슴을 따뜻이 어루만져주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은 착하고 어질기만 해서 세파의 시달림을 남달리 심하게 받지 않을가 하는것이였다. 남들도 자기와 같으려니 믿다가 박해도 당하고 속기도 할것같았다. 그럴수록 누가 곁에서 잘 돌봐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병구의 머리속에 떠오른것은 그들의 교제가 한달나마 계속되었을 때였다. 일종의 보호의식이였다. 그 누구도 감히 지혜의 깨끗한 녀과 몸을 통락하지 못하게 보호해주고싶었다.

그무렵 어느날 누이에게서 의논할 일이 있으니 급히 와달라는 편지가 날아왔다. 다음 일요일에 가봤더니 매부는 외출중이고 누이가 혼자 있었다.

《너 요새 왜 통 오지 않니?》

누이는 첫마디로 이렇게 나무람하면서 웬 처녀의 사진을 내놓았다.

《아버지는 채과도매상을 하는분이시고 본인은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데 내가 두루 알아봤다. 마음두 착하고 몸도 든든하더라. 그래 어떻냐?》

병구는 대뜸 누이의 말뜻을 알아차렸지만 일부러 시치미 떼고 되물었다.

《뭐가 어떻느냐는거예요?》

《원 애두, 제 나이두 모르냐? 이젠 장가두 가야지.》

《예- 그런 사진이군요.》

병구는 사진을 누이앞에 밀어놓았다.

《별로 마음이 없어요.》

《아니 애, 그러지 말구 한번 만나봐라.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흰하더라.》

《그만두겠어요.》

《왜, 어디 판데 봐둔 아가씨가 있어서 그러는거냐?》

《흥, 나 같은 하급장교 <군بار리>한테 어떤 눈먼 아가씨가 시집오겠다고 하겠어요.》

《원 별소릴 다한다. 사람보구 시집가지 누가 제급장보구 시집간다더냐.》

《됐어요. 그 애긴 그만하세요. 나 오늘 어디 좀 급하게 가볼데가 있어서요.》

병구는 그길로 지혜를 찾아 병원으로 갔다. 그날도 일요근무를 한다는 것은 전로부터 알고있었다.

접수구의 처녀가 또 근무중 면회사절을 내대서 현관밖에 나가 기다리는데 얼마 안되어 지혜가 나왔다. 창문으로 그가 온것을 내다보고 사적용무로 조퇴한것이라 했다.

고맙소, 그러지 않아도 급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온거요 하고 병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처녀의 보폭에 맞추어가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갔다.

드디어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도 할 생각이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누이집을 떠나왔던것이다.

변두리에도 다방은 많았다. 《은별》이라는 간판이 붙은 다방으로 들어갔다. 손님이 많지 않았다.

전축은 낱아빠진 대중가요를 불러대고있었다. 넓지 않은 홀안에서도 그중 아늑해보이는 구석자리에 가앉은 병구는 커피를 요구하고 헛기침부터 했다.

무슨 말부터 시작할가.

얼른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지혜가 오전에 벌어진 이야기를

했다. 원장이 빗쟁이와 다툰 이야기였다. 병원이 오래전부터 적자운영에 시달리고있는데 빗쟁이가 와서 빗값으로 병원건물을 내놓으라고 강박하여 원장이 몇달만 참아달라고 애걸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다.

《병원안에서 돌아가는 소문이 암만해도 곧 병원문을 닫을거라고 해요.》

지혜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어린 소리로 말했다. 얼굴엔 짙은 불안의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실직의 위험을 예감하고 불안해하는것 같았다.

병구는 가만히 한숨을 돌렸다.

실직위험에 불안해하는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해도 되는가?

자신이 없었다. 비도덕적행위로 될것같았다. 다방에서 나온 다음에도 분위기가 잘 조성되지 않았다.

지혜가 병원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지만 이번엔 병구가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허가 굳어진 사람처럼 돼버렸다. 지혜의 기분을 유도하느라고 장교생활의 포부며 전연지대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것이 말이 자주 동강나는가 하면 훌쩍훌쩍 비약을 해서 듣는 사람이 어리둥절해지게 했다.

지혜도 점차 이상한감이 드는듯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하고 문듯이 그를 의아쩍게 쳐다보곤 했다.

분위기가 다소 호전된것은 지혜네 집동네에 이르렀을 때였다. 병구가 부모님들의 유해가 묻힌 고향이야기를 꺼낸것이였다.

지혜가 술것이 귀를 기울였다. 특히 달밝은 여름밤에 강에서 고기잡이 하던 병구의 추억담을 아주 재미있게 들었다.

좋아, 이 이야기만 끝내고 내 사랑을 고백하는거다 하고 병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혜도 자기를 거절하지 않을거라고 믿었다. 수줍고 어진 처녀인것만큼 신과극의 녀주인공같은 반응은 물론 없을것이다. 아무 소리도 없이 숨소리까지 딱 죽이고 고개를 푹 숙이기만 할지 모른다. 그러나 말없는 표정에서 자기의 고백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능히 읽을수 있을것이다. 그럼 그길로 그의 집까지 가서 백부님의 허락까지 받아내는거다 하고 병구는 속다짐했다.

지혜의 집동네까지 간것은 그날이 처음이였다. 어째서 일이 그렇게 됐는지 그자신도 알지 못했다. 그동안 자주 만나면서 늘 동네밖에서 헤여지곤 했는데 그날은 어찌어찌하다가 두사람의 걸음이 거기까지 이어져갔

던것이다.

하층서민들이 모여사는 동네였다. 구식기와집들과 도끼목수들이 서둘러 지은 그러루한 집들이 비좁게 들어앉은 사이사이로 지저분한 골목길들이 거미줄처럼 여기저기로 뻗어있었다.

병구는 그 어느 골목안의 몇번지 집이 지혜네 집인지 몰랐지만 그가 어렵히 안내해주리라 믿었다.

문제는 고기잡이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본론으로 넘어가는것이였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채 끝나기 전에 뒤에서 지혜를 부르는 소리가 울렸다.

지혜가 와뜰 놀란 얼굴로 돌아보면서 입속말로 소곤거렸다.

《우리 4촌오빠예요.》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만나야 할 사람이였다.

병구는 먼저 거수경례를 붙이며 자기소개를 했다.

상대방의 반응은 천만뜻밖에도 랭랭했다. 한가닥 멀시와 반감까지 화살처럼 날아왔다.

성태는 당혹해진 병구가 미처 어쩔 사이도 없이 지혜더러 빨리 오라 하고 가버렸다. 병구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친교를 맺고저 하는 그의 의사를 거부해버리는 무례하고 모욕적인 처사였다.

병구는 이제 대관절 어찌된 영문이냐고 묻는 시선으로 지혜를 쳐다보았다.

《미안해요.》

지혜가 어깨를 웅송그리며 가볍게 떨리는 소리로 사죄했다.

《지혜씨가 잘못된 일이야 아니죠. 4촌오빠라는 저분이... 4촌오빠가 맞긴 맞습니까?》

《예.》

《근데...》

《...》

지혜는 발은 한숨만 내쉬었다.

《집이 어딴니까? 같이 갑시다. 내 암만해두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습니니다.》

지혜는 조용히 머리를 내저었다.

《꼭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것같은 인상인데 왜 그런지 알고싶습니다. 내 기분이 지금...》



《대위님!》

《왜요?》

《후에 편지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는겁니까?》

《네, 제발 부탁이에요.》

지혜의 두눈에 물기가 펴 돌았다.

순간 병구는 가슴이 찢어지고 손맥이 탁 풀렸다. 의연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었지만 처녀를 눈물짓게 한것이 흡사 자기 잘못인듯이 느껴졌다. 미안하고 막연한 뉘우침이 일었다.

《자 그럼...》

할수없이 악수를 청했다.

지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채 손을 내밀었다.

병구는 처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손도 이상하게 전보다 작아진 것같았다. 힘을 주어 꼭 잡으면 으스러지기라도 할상싶었다.

《편지 기다리겠습니다.》

처녀의 손을 놓아준 다음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어 거기에 용수리의 하숙집주소를 적었다. 잘 알아볼수 있도록 정자로 또박또박 박아쓰느라 하는데도 이상하게 글씨가 휘갈겨졌다. 딱 기록이 없는 새 수첩이어서 수첩채로 주었다.

지혜는 호오 하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고 수첩을 받았다.

병구는 허구픈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다.

편지는 쉬 오지 않았다. 한주일을 기다리고 두주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초조하고 화도 나서 서울에 뛰어가보니 지혜가 근무하던 병원은 폐업하고 없어졌다. 병원건물을 탄 용도에 쓰러는지 인부들이 모여들어 수리작업을 하고있었다.

지혜의 집동네는 알고있었지만 어느 골목안 몇번지 집이라는것도 모르고 찾아헤맬수도 없었다.

내가 속았군. 그 4촌오빠란자가 횡방을 놓은거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을 끓으며 괴롭혔다. 그럴수록 지혜가 더욱더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것은 병구의 첫사랑이었다. 일부 동료장교들처럼 심심풀이로 사랑놀이를 한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한것이였다. 다

시는 지혜 같은 처녀를 만날것같지 못했다. 그 누구도 사랑하고싶지 않았다.

한달에 두세번이나 마시던 술을 거의 매일과 같이 마시게 되었다. 그것도 반병정도가 아니라 웅근 한병씩 마셨다. 곤드레만드레 취한 상태에서도 머리속에서 지혜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깨고나도 눈앞에 맨 처음 떠오르는것이 지혜의 모습이었다.

참, 윤미가 지혜의 4촌오빠와 같은 대학에 다닌다고 했지. 윤미에게 부탁해서 그를 어디로 불러내어 왜 휘방놓는거나 하고 따져볼가. 아서라, 그건 장교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것이다. 남자답지 못한, 떳떳치 못한 짓이다.

지혜에 대한 원망도 생겼다.

4촌오빠가 말린다 해서 핵 돌아서는 그런 녀자였던가. 자신의 의지도 없다는건가. 아니, 그보다도 애당초 이 한병구라는 사람을 시답지 않게 본것인지도 모른다. 사랑 같은것은 꼬물도 생각지 않고 내가 기신기신 찾아다니니 마지못해 만나준것인지도 모른다. 정말 그런 녀자였던가. 그런 녀자인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열을 올리며 찾아다니는 나는 대관절 뭐냐?

떨어지는 결론은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자학하는 기분으로 더 술을 마셨다.

《원 세상에... 무슨 변이 생겨서 저녁마다 술이우?》

민씨가 밤마다 엉망으로 취해서 들어오는 그를 보고 혀를 찼다.

하루는 그가 왕청같은 소리를 했다.

《대위님두 들으셨수? 병원에 웬 아가씨가 간호원으루 왔는데 얼마나 착한지 모른대요. 얼굴두 환하게 생기구요.》

제나름으로 병구가 전에 없던 버릇으로 저녁마다 술냄새를 지독하게 풍기며 들어오는것이 어디서 실련이라도 당했기때문이라고 짐작하고 새로 마음 붙일데가 있다고 귀뜸해주느라 하는 소리같았다.

병구는 귀담아듣지 않았다. 그저 착하고 환하게 생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천사같은 아가씨라 해도 관심이 없었다. 지혜가 아니라면 그 어떤 처녀도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그런다고 물러설 민씨가 아니었다. 귀구멍이 넓고 입도 다사한데다가 병구걱정도 대단히 해주는 민씨였다.

《소문이 자자해요. 한번 가보시우. 어떤 장교들은 아픈데가 없으면서

두 공연히 그 아가씨 얼굴 보겠다구 일부러 병원간대요. 얼마나 싹싹한지 큰 주사 놔두 아프지 않게 놓구 전의 간호원처럼 환자들을 낮가림해서 대하는 법두 없다는거예요. 어떤 장교가 색시로 데려가겠는지 복을 탄셈이지요. 서울아가씨가 무슨 곡절루 이런 촌구석에 왔는지 몰라두 아무튼 병원에 온지 몇새밖에 안되는데 온통 그 아가씨 칭찬이라니까요.》

화제거리의 그 간호원이 다름아닌 지혜라는 사실을 병구가 안것은 그로부터 사흘후였다.

그때까지 지혜는 병구를 찾아오지 않았다. 병구의 하숙집주소까지 알고있는 그였다.

하숙집과 병원사이의 거리가 멀지도 않았다. 한동네안이니 그야말로 옆디면 코닿을 곳이었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지척에 지혜가 와있는것도 모르고있는 자기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지혜의 그 처사는 또 어떻게 된 영문인가?

병구는 편지를 기다리던 때보다 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 6

다음날 병구는 부대에서 퇴근하는 길로 병원에 갔다.

서울의 그 병원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접수구가 보였지만 사람은 없었다. 원장 부인이 잠간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복도에 올라선 병구는 《외과》라는 패쪽이 붙어있는 첫번째 방문부터 두드려보았다.

《들어오세요.》

귀에 익은 지혜의 목소리가 안에서 부드럽게 울렸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였다.

병구는 가슴이 짱 울렸다.

《들어오셔도 돼요.》

안에서 다시 지혜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면서 문이 열리고 그 문썸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

지혜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갈기도 하고 환성갈기도 한 소리가 터져나

왔다.

《왜 그래?》

방안에서 병구와 가벼운 룡담도 주고받는 사이인 채준호의사가 창문으로 비쳐드는 석양에 안경알을 번뜩이며 물었다. 그는 문밖에 엉겨주춤 서 있는 병구를 발견하자 룡담부터 던졌다.

《난 또 웬 낮도깨비가 와서 우리 천사간호원을 놀래우나 했지. 왜, 어디 다쳐서 왔소?》

병구는 그에게는 가벼운 목례만 보내고 지혜에게 물었다.

《아직 퇴근시간 멀었소?》

지혜는 미처 호흡이 진정되지 않아 대답을 못하는것같았다.

《일이 끝나면 형제버드나무있는데로 나오시오.》

병구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동구밖에 개울이 흐르는데 그것을 끼고 동쪽으로 약 300미터 가면 형제버드나무가 있다.

병구는 지혜의 대답을 듣지 않았을뿐 아니라 이 고장에 온지 며칠 안되는 그가 그 위치를 아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았지만 반드시 그곳에 나타날것이라고 믿었다.

형제버드나무란 두그루의 버드나무가 형제처럼 나란히 서있다 해서 그렇게 이름지어진것이였다. 형제처럼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좀 작았지만 두그루가 다 휘늘어진 가지들을 개울우에 드리우고있었다. 버들잎들은 벌써 황이 누렇게 들어버렸다. 개울우에 떨어져서 떠 나온 자기의 보금자리였던 나무가지들을 서글프게 쳐다보며 떠나려가는 락엽들도 적지 않았다.

개울건너 논판의 벼들도 누렇게 익어갔다. 바람결에 무르익은 가을의 훈향이 실려왔다.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흉작을 겨우 면한 해라고 하지만 그런대로 가을인것이다. 어머니대지가 이 땅 백성들을 차마 굶겨죽일수 없어서 난알들을 키워준것이다. 람스러운 벼이삭들이 깊이깊이 머리숙여 고마운 어머니대지에 작별의 인사들을 하고있었다. 그우로 저녁해살이 일년 내내 땀흘리며 일한 농군들의 로고를 치하하듯 황금빛으로 쏟아져내렸다.

산기슭의 마을들에선 저녁밥짓는 연기가 선들바람에 가볍게 휘저어지며 뭉게뭉게 솟아오르다가 대기속에 사그라지곤 했다.

겉으로 보기엔 제법 풍만하고 평화로운 가을풍경같지만 그러나 세월은

어수선했다.

미풍에 실려오는것은 날알익는 냄새뿐이 아니였다. 산너머 어디에선가 포성이 메아리쳐왔다. 그것은 이곳이 바로 특히 천연지대임을 상기시켜주었다.

병구는 마을쪽을 등지고 형제버드나무밑에 앉아있었다.

늘 보는 벌이고 늘 듣는 포성인데도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것이 어처구니없는 이룰배반의 실체처럼 느껴졌다.

3사를 졸업한 후 소위로 임관되어 소대장직무를 받은 때로부터 일생을 군무에 바치기로 결심한 병구였다. 《국토방위》초소를 지키는것이 이 땅의 남아에게 맡겨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책무라고 생각했었다. 매일과 같이 총포탄을 쏘아대며 전쟁연습을 하는것도 《국토방위》를 위한 필요불가결의 일이라고 간주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저 포성이 귀에 거슬리는것은 어찌된 일일까? 지금 여기 형제버드나무밑에서 지혜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그에 대한 생각에 골몰해있으려는 마음에 이상한 자극을 주기때문인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오늘 비로소 처음 느끼는것이 아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총포성을 듣기만 하면 일단 명령이 하달되는 즉시 북으로 진격해가야 한다는 사실에 회의랄까 공포 같은것이 생겼다.

결코 겁쟁이가 돼서 그러는것은 아니였다. 정당한 일이라면 목숨바쳐나설 용기를 십분 갖추고있건만 전쟁 그것에는 은근히 반감이 생기는것이였다.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스스로도 알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혜 생각만 하고있어야 한다. 딴 일에 대해서는 후에 생각해보기로 하자.

병구는 마을쪽을 돌아보았다.

지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최근 미국에서 새로 반입해왔다는 신형땅크가 시야를 채우며 나타났다. 포신을 거만하게 추켜든 땅크가 무한궤도소리를 소란히 울리며 굴러가고있었다.

지혜는 10분쯤 지나서야 나타났다. 시골병원에선 아직 문을 닫기에 이른 시간이지만 채의사가 먼저 내보낸 모양이였다.

지혜는 병구뒤에 와서 죄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푹 떨구었다.

《좀 걸읍시다.》

이번에도 병구는 그가 꼭 따라올거라고 믿으며 먼저 걸음을 땀다. 곧

뒤따라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내가 얼마나 목이 빠지게 편지 기다렸는지 압니까? 이 고장에 온 후에도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또 뭘니까?》

병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가면서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병구는 여라문걸음 더 가다가 돌아섰다.

《대관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한테 편지하겠다고 약속하잖았습니까. 사람을 희롱하느라고 그런거야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뭘니까? 내가 시답지 않아 그런겁니까? 싫음 싫다고 시원히 말하십시오. 나두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는 무뢰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희롱은 마십시오.》

지혜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러다가 무너지듯이 주저앉으며 두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몸이 소녀처럼 조그마하게 작아진것같았다. 얇은 뜨개옷을 입은 동그스름한 어깨가 경련적인 파문을 일으키며 떨기 시작했다.

우는건가?

병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녀에 대한 안타까운 원망은 순식간에 가뭇없이 사라지고 그대신 겁이 더럭 났다. 어찌했으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해가 두터운 구름장속에 숨어버리면서 짙은 그늘이 대지를 뒤덮어버린탓이었다. 구름장 가장자리가 보라빛으로 타고있었다.

지척에서 느닷없이 음매— 하는 송아지울음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웬 로인이 암소를 끌고 오는데 그뒤로 송아지가 달랑달랑 따라오고있었다.

개울가의 길이 좁았다. 그 좁은 길가운데에 주저앉은 지혜는 두손으로 얼굴을 가린채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 접근해온 로인이 소고삐를 단단히 잡으며 개울바닥에 떨어져서 지나갈까 아니면 젊은이들이 길을 비켜주기를 기다릴까 하고 망설이는 눈치였다.

송아지가 다시한번 길을 비키라고 재촉하듯 음매— 울었다.

지혜는 그제야 기척을 느낀듯 얼른 일어나 길옆에 비켜섰다. 병구도 그 곁에 바짝 붙어섰다.

길아래는 아직 물기가 좀 남아있는 논판이었다. 암소가 꼬리를 기세 좋

게 휘저으며 지나갔다. 그뒤를 따라오던 송아지가 돌연 무슨 장난이라도 하고싶어졌는지 지혜곁에 바싹 다가서려고 했다.

도시에서 나서자라면서 송아지의 그런 장난에 습관되지 않은 지혜는 질겁해서 뒤걸음치다가 논판에 굴러떨어지려 했다.

순간 병구가 날쌔게 그의 팔을 잡았다. 송아지가 지나가버린 다음에도 병구는 처녀의 팔을 놓지 못했다. 감전이라도 된듯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되려 손에 힘이 가해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자기에게 끌어당기게 되었다.

지혜는 이걸 놓으세요, 누가 봐요 하고 꾸짖는 눈으로 그를 힐끗 쳐다보며 몸을 약간 비틀었다. 그러나 힘이 없는 몸짓이었고 물기가 가랑가랑 맺힌 두눈에 어린 그 꾸중도 과히 완강한것이 아니었다.

다음순간 병구가 더 세게 그를 끌어당겼는지 아니면 스스로가 다가들었는지 처녀의 얼굴이 남자의 가슴에 팍 묻혀들었다.

병구는 뜨거운 불을 안은 사람처럼 흠칫하다가 두팔을 들어 처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싸안았다.

저만치 달랑달랑 뛰어가던 송아지가 또 한번 음매— 하는 목청을 뽐아올렸다.

하늘에선 때마침 구름장을 헤치고 나온 해가 환히 웃으며 금빛해살을 두 젊은이의 머리위에 소나기처럼 쏟아부어주었다.

얼마동안 그렇게 두몸이 하나가 되어있었는지 몰랐다.

지혜가 먼저 꿈에서 깨어나듯 가볍게 몸을 흔들며 뒤로 물러섰다.

병구는 처녀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높은령마루에 올라선 기분이었다.

앞이 탁 트인 전망, 저아래 계곡에 우거진 수풀, 성실한 노력과 사랑으로 삶을 이어가는 골짜기안의 동네들...

활기에 넘친 삶의 훈향이 거기에서 풍겨오는것같았다. 한없는 충만감에 병구는 가슴이 그들먹이 부풀어올랐다.

지혜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머리를 매만졌다. 뜨거운 포옹을 하고난 지점에 와서야 차마 얼굴을 마주보기가 부끄러운 모양이었다.

병구는 정다운 눈길로 처녀의 뒤모습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빠한테 내가 후에 만나서 이야기하겠소.》

《대위님.》

지혜가 그냥 등을 돌리고 선채 숨이 차오르는 소리로 가만히 불렀다.

《제발 이제 그 <대위님>소리 그만하고 이름으로 불러주요.》

《오빠애긴 다시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만나지도 마시구요.》

《그건 왜?》

《후에 말씀드리겠어요.》

4촌오빠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해두자는건가? 시간이 경과해야 오빠의 동의를 얻을수 있다는 계산인지도 모른다.

《알겠소. 지혜생각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거니까... 믿어도 되겠지?》

지혜는 몸을 돌려 병구를 쳐다보며 호젓이 머리를 끄덕였다.

×

시골에서는 언제나 소문이 빠른 법이다.

소를 끌고 지나간 그 로인외에는 병구와 지혜가 개울가에서 만나는것을 본 사람이 없고 그 로인도 두사람을 전혀 모르는터인데도 소문은 삽시에 온 마을에 퍼졌다.

소문의 내용인즉 한병구대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권지혜를 사랑했고 이제 오래지 않아 그들의 결혼식을 보게 되리라는것이였다.

그 소문을 제일먼저 듣고 또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민씨였다. 처음 하루이틀동안 그의 낮빛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가장 소중한것을 잃은 사람과도 같았다.

원래 병구시중에 정성이 대단한 그였다. 이웃아낙네들의 말에 의하면 쪼아서 파부가 된 후 늘 우울해있던 그가 다사하고 인심후한 녀인으로 된것은 병구를 하숙생으로 받아들인 이태전부터라고 했다.

병구보다 열다섯살이나 나이가 많은 녀인이니 이성으로 그를 대할리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을 공대하는 알뜰하고 극성스러운 녀인처럼 돌봐주었다. 아니, 나이찬 아들을 위해주는 어머니같다고 말하는편이 더 정확할것이다. 그런 어머니들은 흔히 아들이 애인을 데리고 나타나면 내 아들을 저 녀자한테 뺏겼구나 하는 상실감을 느낀다.

민씨의 얼굴에 비낀 그늘도 그와 비슷한 상실감에서 출발한것이였다. 자기가 돌봐주고 시중드는 남자를 독점하고싶어하는것은 무릇 녀인들의



본성이다.

그러나 민씨는 곧 자신을 수습하고 그 다사한 입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대위님, 어쩌면 그렇게두 암전하고 이쁜 아가씨를 다 호려왔어요? 내가 전에두 말하지 않았어요,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다구. 그런데두 시치미 떼구 모르쇠를 부렸지요? 소문이 지내 일찍 날가봐 그러신거죠? 그 까짓 소문이 나면 어때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젠 대위님의 색시감이라구 도장 팡 찍힌 판이니 혼레나 빨리 치르세요. 집걱정은 아예 하지 마시구요. 제격 부엌 한칸 붙여줄거니 이 방에다 신접살림을 차리면 되잖아요.》

동네방네에 돌아다니면서도 입심을 부렸다.

《우리 집 대위님이 데리구 온 그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지 알기나 하세요? 아 글썄, 서울에서두 뽕뽕거리는 부자집 아들이들 줄을 지어 따라다니던 아가씨래요. 그걸 다 마다하구 우리 집 대위님을 따라왔다는거예요. 장인장모되실 어른들두 우리 집 대위님을 딱 한번 보시자마자 이제야 우리 사위감이 나타났군 하구 무릎을 쳤다는거예요, 글썄!》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마구 섞어가며 엮어대는 민씨의 이야기가 또 가지를 치고치면서 민간인가뿐 아니라 장교들의 가정과련대본부에까지 파다하게 회자되었다.

덕분에 지혜가 일약 용수리의 명물로 되어버렸다. 어쩌다 그가 길에 나타나기만 하면 이 집, 저 집에서 호기심어린 눈들이 내다보았다. 특히 녀인들이 더했다. 태반의 녀인들이 선망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병구의 행운을 축하해주는 장교들도 적지 않았다. 하루는 본부중대의 염태훈중위가 병구를 만나자 벌쭉 웃으며 말했다.

《대위님, 제 아까 병원에 들러왔습시다.》

주근깨가 다문다문 박힌 얼굴에 체구가 우람하게 큰 염태훈도 3사출신이였다. 병구보다 2년 후배인데 그 체격에 어울리지 않게 애어린 소년처럼 순박하고 온순해서 어딘지 모르게 희극적인상을 주지만 련대본부에 근무하는 위관급들중에서 남달리 정직하고 정의감이 강한 장교로 알려진 사람이다.

《왜, 어디 몸이 안좋소?》

평생 감기 한번 걸릴것같지 않은 그의 건강한 몸집을 바라보면서 병구가 의아쩍게 물었다.

《저의 생활사전에는 병이란 말이 없는걸요.》

《그럼 병원엔 왜 갔소?》

《인사라두 올릴가 해서 피병 만들어가지구 간겁니다.》

염태훈의 얼굴에 웃음이 환히 피어났다. 주근깨 하나하나가 다 미소로 피어나는것같았다.

《인사라니, 누구한테?》

《권지혜씨지 누구겠습니까. 그렇게 멋진 서울아가씨가 우리 3사선배님의 부인으로 돼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병구는 듣기 거부해서 염중위의 어깨를 툭 쳐주고 얼른 헤어져버렸지만 그의 말이 공연한 룡담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처녀들이 전연부대 장교들에게 시집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거기에는 다른 리유도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일선장교들의 군무처가 바로 전연지대라는 사정이 작용했다. 위관급들은 령관급으로 진급해도 거의 레외없이 전연군무를 계속하게 된다. 군단이상급의 사령부에 배속돼야 소도시에 가서 살수 있는데 그러한 행운은 백의 하나, 천의 하나에 차지되는것이다. 때문에 일선장교의 안해가 되는 녀인들은 일생을 시골에서 살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것도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것이 아니다. 남편이 이 부대에서 저 부대로 이동될 때마다 이사집을 꾸리고 풀고 해야 한다.

게다가 가는 곳마다 주변에서 들리는것은 《차렷!》, 《앞으로 갔!》 하는 목썩 구령소리와 총성뿐이고 보이는것은 인간의 개성을 죽이는 시누런 군복과 무시무시한 군사장비며 화기들뿐이다.

젊은 녀인들이 성장하고 나설만한 거리가 없고 현대녀성의 예민한 생활 감각을 자극시켜주는 분위기도 없다.

이렇듯 살풍경한 곳에 대도시의 유행과 멋에 익숙된 아가씨들이 쉽사리 시집오지 않으려 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권지혜라는 서울아가씨가 불쑥 나타나 한병구대위와 결혼한다는 소문까지 난것이다.

염태훈중위가 지혜에게 고마운 인사라도 하려고 한 그 마음도 십분 리해할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모든 장교와 그들의 아내들이 다 한결같이 지혜에게 친근감을 가지는것은 아니었다.

적당한 배우자가 얼른 나서지 않지, 젊은 한시절을 망탕 즐기고싶기도 하지, 그래서 작부출신녀인이나 이런저런 불미한 과거를 가진 녀자를 데리고 림시동서생활을 하는 장교들이 용수리에도 더러 있었다.

그들의 부인들은 저들끼리 모여앉기만 하면 입을 비죽거렸다. 세상만사를 저들 나름의 시각으로 보는 그들은 우선 지혜의 그 청순한 아름다움이 눈의 가시처럼 미웠다. 지혜의 존재로 하여 자기들의 어지러운 본바탕이 더 부각되는것같아 화가 나기도 했다.

그들은 한병구대위와 권지혜의 사랑을 파탄시키기 위해 저녁마다 베개 밑송사로 남편의 귀에 거짓말을 불어넣으며 그들의 흥을 보았다.

그러면 남편이라는자들은 녀편네들의 그 가시돋힌 비난에 머리를 끄덕이고 다음날에는 부대에 나가 그 말을 퍼뜨렸다.

로골적으로 병구앞에서 험담을 퍼붓는자도 있었다. 련대 군수참모 허동팔대위가 그랬다.

어느날 병구는 련대본부 장교 7~8명과 한데 어울려 《한경옥》이라는 술집에 가게 되었다.

지혜를 형제버드나무밑에서 다시 만난 후 술을 딱 끊었는데 그날은 동료들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끌려간것이였다. 술집으로 가는 도중에 허동팔대위도 끼여들었다.

그러한 회식은 대개 참가인원 각자가 제 지갑에서 얼마씩 꺼내여 술값을 충당하는 법인데 그날은 허동팔대위가 흰목을 뽑으며 오늘은 자기가 전액 다 낼테니 실컷 마시며 놀자고 큰소리를 쳤다.

허동팔로 말하면 돈 잘 쓰고 주색잡기에 이골이 난 위인으로 소문난 장교였다. 그가 하루밤 술집에 뿌리는 돈이 대위월급의 두배, 세배가 된다고 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군수품을 빼돌려 별도수입을 올린다는 소문이였다.

그가 련대장관사에 자주 양주지함이며 가구 같은것들을 넣어주는 한편 사단보안대의 남인표소령과 자주 어울려다닌다는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있었다.

거의 매일 저녁 남인표소령과 함께 진탕 마시고 그의 뒤주머니에 두툼

한 돈봉투도 자주 찢어준다고 했다.

그 등을 믿고 허가받은 도둑놈짓을 하는 허동팔의 비행에 대해서 병구가 한번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다.련대본부 장교회의에서였다.

구체적인 물질적증거가 없어서 이름을 찍지 않고 최근 우리련대의 군수품이 사회에 류출된다는 소문이 있다, 시급히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는것이 요망된다 하고 말했다.

누구나 다 그것이 허동팔대위를 녀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것을 알아듣는 눈치였다. 허동팔당자는 일부러 태연을 가장한 얼굴로 병구를 뺨히 쳐다보았다.

련대장은 그러한 부정행위는 반드시 적발근절시켜야 한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이 끝났다.

아무도 허동팔의 부정행위를 적발근절시키지 않았다. 허동팔은 여전히 활개치며 다녔고 병구를 만나면 히죽 웃기까지 했다.

바로 그 허동팔대위가 한턱 내는 자리에 끼여들게 된것이다.

병구는 첫잔부터 입이 쓰고 기분도 불쾌했다. 자연 술잔이 비워지지 않은채로 상우에 오래 놓여있게 되였고 안주접시에도 저가락이 잘 가지 않았다.

《어- 한대위!》

건너편 자리에서 남먼저 거나해진 허동팔대위가 한턱 내는자의 거드름이 실린 소리로 불렀다.

《왜 그러나?》

《술 들어야지.》

《당기지 않네.》

더 마실 생각이 없어서 병구는 조금 뒤로 물러나 앉았다. 눈치를 봐가며 먼저 자리를 뜰 생각이였다.

허동팔이 옆자리의 강소령과 무슨 밀담인가를 하다가 또 말머리를 병구에게 돌렸다.

《정 안마시는군. 왜, 애인보러 가고싶어 그러나?젠장, 하루저녁 공친다구 누구한테 떼울가봐 걱정인가?》

병구는 돌연 심장이 후두둑 뛰였다.

《어- 허대위!》

상반신을 약간 숙구쳐올리며 허동팔을 거칠게 불렀다.

《왜?》

허동팔은 여유작작한 표정이었다.

《그따위 점잖지 못한 수작질을 아무한테나 해두 된다고 생각하나?》

허동팔은 어색한 동작으로 어깨를 으쓱 추어올렸다.

《원 사람두, 내가 뭘 점잖지 못한 소리 했다고 그러나? 여보게, 똑똑히 알아두게. 실지로 점잖지 못한건 아가씨쪽속들이네. 새침데기 꼴로 빠진다는 말두 있잖나. 겉으로 얌전하고 수줍은체하는 년치구 멀쩡한 사내 몇놈씩 망쳐먹지 않는것들이 없다 이거야. 흥, 그런줄두 모르구 순결하다, 청순하다 어찌구저찌구하는치들을 보먼...》

《닥쳐!》

병구의 날카로운 웨침이 총알같이 날아가 허동팔의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이제 한 그 말 당장 취소하고 사죄해!》

병구가 추상같이 웨쳤다.

《아니, 저치가 왜 저러는거야? 맹물에 취한거 아냐?》

허동팔은 자기를 두둔해줄 사람을 찾듯이 좌중을 두리번거리며 지껄었다.

병구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격분이 극도에 이르렀을 때 되려 덤비지 않고 저력을 깔며 여유있는 동작을 취하는것이 그의 버릇이었다.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면서 결정타의 순간으로 한초한초 다가서는 것이다.

《당장 사죄 안할테냐?》

병구가 주먹을 부르쥐며 웨쳤다.

장교임관후 지금까지 사병들에게 주먹질 한번 해본적이 없고 동료장교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러본 일이 없었지만 허동팔이 끝내 사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될지 스스로도 알수 없었다. 자신을 억제하기가 힘들 정도로 분노가 세차게 타번졌다.

허동팔도 그의 억센 기질을 모르지 않으려면 얼른 사죄하려고 하지 않았다. 비렬한들이란 깨끗이 사죄할 용기도 없는것이다.

병구는 어금이를 깨물었다. 그리고는 막 치를 떨며 허동팔에게 다가서려고 하는데 옆태훈중위가 벌떡 뛰어일어나 앞을 떡 막았다.

《대위님, 참으십쇼.》

《비켓!》

어찌나 순간적임을 강하게 썼는지 염태훈의 그 커다란 몸이 쉽게 옆으로 밀려났다. 같은 순간 허동팔의 옆자리에서 강소령이 소리쳤다.

《뭐야, 한대위! 앉아!》

여느 장교들은 아까부터 숨을 죽이고 두 대위의 거동을 지켜보고있었다.

병구는 또 팔을 붙잡는 염태훈중위를 뿌리치고 강소령에게 항의했다.

《소령님, 장교의 명예를 지키는걸 말리지 말아주십시오.》

《명예구 나발이구 앉으라면 앉아! 명령 안들을텐가?》

염태훈은 병구의 팔을 끌며 속삭였다.

《지혜씨 체면봐서라도 참아야 합니다.》

지혜소리에 병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혜일로 술집에서 대판 싸움을 벌렸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가 얼마나 불쾌해하랴.

《나갑시다, 대위님.》

지혜생각을 해서라도 참을수밖에 없었다.

《이거 소란을 피워 안됐습니다.》

병구는 좌중의 동료장교들에게 한마디 사죄하고 염태훈중위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더러워 피하는거 아닙니까. 그나저나 기분두 잡쳤는데 우리끼리 어디 가서 한잔합시다.》

염태훈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간판도 없는 술집에 들어가서 엉망이 되도록 마셨다.

지혜의 편지를 헛되이 기다리면서 매일 밤 마신 그때도 이날 밤처럼 많이 마신적이 없었다. 술소리를 먼저 꺼낸 염태훈이 그만 마시자고 하는 것도 듣지 않고 제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다.

다음날은 일요일이었다.

병구는 일요일에도 정각 다섯시면 벌떡 일어나 랭수마찰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은 여덟시가 지나서야 겨우 잠을 깼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목구멍이 타는듯이 말라붙었다.

머리맡에 물그릇이 보였다. 그것을 들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민씨가 미달이를 빠끔히 열고 들여다보았다.

《아유, 인제야 깨났네.》

민씨가 혀를 차고 부엌으로 가더니 아침상을 들고 왔다.

《얼른 일어나 이 해장국부터 드세요. 원, 세상에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신거예요? 나두 다 들었어요. 군수참모인지 국물참모인지 그 개차반 같은 사람이 벼락맞을 소리를 했다지요. 그 량반이야 술집되물을 데리구 사니까 창피하구 썸두 나서 그런 소리 지껄인거겠지요. 한쪽귀루 흘려버려두 되는건데… 하긴 남자들 성미에 그런 소리 듣구 참기가 힘들겠지요.》

역시 귀구멍이 넓구 입심이 센 민씨였다.

병구는 아무 응대도 안하고 국물을 몇술 뜨다말았다.

《왜, 국물두 받지 않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씨가 다시 부엌으로 나가더니 반의 반병쯤 되는 술을 가지고 왔다.

《술독은 술로 다스려야 한대요. 그러나 너무 마시면 또 취해요. 딱 요것만 마시세요.》

아닌게 아니라 술이 두어잔 들어가자 지독하게 쓰리던 속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아는게 많군요. 전에 애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구, 말두 말아요. 술 한말 지구 가라면 머리를 흔들어두 마시구 가라면 두말술두 마신 량반이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나이인데두 속에 잔뜩 원한이 들어차서 술마시지 않군 하루두 견디지 못하겠다면서 마신거예요.》

무슨 원한때문인지 말술을 마셨다는 남편, 그 남편때문에 어지간히 속도 썩었겠지만 그래도 남편과 더불어 살던 그 시절이 사무치게 그리운듯 민씨의 너부죽한 얼굴에 한가닥 서글픈 미소가 비졌다.

병구는 해장술에 해장국을 마신 후 다시 자리에 누웠다. 일요일이라 할 일도 없었지만 좀더 쉬고싶었다. 그러지 않아도 몸살이 나는지 뼈마디가 쭈시고 열도 좀 나는것같았다.

《어머, 감기 걸린거 아니예요?》

민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감기는 무슨…》

병구는 건성으로 대꾸하고 눈을 감았다. 곧 잠이 들었다.

그동안 민씨가 그의 이마를 짚어보고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보고 하다

가 기어이 지혜에게 뛰어갔던 모양이다.

두어시간 자며말며 하다가 일어나 벽에 비스듬히 기대여 앉아있는데 밖에서 민씨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인제야 오네. 어서 들어가봐요. 감기구 몸살이구 초기부터 푹 때야 지 병을 키워두면 야단이에요.》

지혜가 왔다?

병구는 얼른 일어나 방구석에 밀어놓은 이불을 개어서 벽장속에 넣었다.

지혜는 그의 방에 들어와본적이 아직 없었다. 여러번 권유해도 남들이 알면 흥분다고 거절했다.

하긴 뉘 집에서 채채기소리가 크게 울려도 다 알려지는 시골마을이다. 약혼도 안한 남자방에 간호원 아무개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나면 거기에 별의별 흉한 뒤통론이 덧붙여질것임에 틀림없다.

《아니, 뭘 꾸물거리구있노? 어서 들어가보래두. 못올데에 왔다. 자, 어서요!》

대청마루에서 민씨가 지혜의 등을 떠미는 모양이다.

병구가 먼저 안에서 문을 열었다. 진료가방을 든 지혜가 먼구스러운 낮빛으로 증언부연 변명했다.

《편찮으시다구 하기에… 주사라도 놔드리려구… 좀 어떠세요?》

민씨가 한마디 덧붙였다.

《병부터 때야 될게 아니우.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병은 무슨 병이라구 그래요. 참 아주머니두… 하여간 이왕 왔으니 들어오우.》

지혜는 주뭇거리며 방에 들어오더니 체온기부터 꺼냈다. 체온이 조금 높은편이었다.

주사기를 꺼내는것을 병구가 굳이 말렸다. 대신 알약 몇알만 받아두었다.

《그럼 가보겠어요.》

지혜는 곧 일어설 차비를 했다.

《좀 앉아있소, 얘기할것두 있으니.》

지혜를 놀리았히고 병구는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어제 밤 그렇듯 격분한것은 단지 허동팔의 그 몇마디때문만은 아니었다. 전로부터 지혜에 대한 너절한 거짓소문이 들려왔다. 자그만치 세번이



나 실련을 한 녀인이라느니, 한때 카바레에서 무용수노릇을 했다느니 심지어 류산도 몇번 한 녀자라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다. 병구는 그따위 험담을 조작해내는 년놈들을 잡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버르던차에 어제 밤 허동팔의 그 야지를 듣게 되어 그만 격분을 폭발시켰던것이다.

지혜도 귀를 틀어막고 살지 않는 이상에야 그런저런 소리를 듣기마련인데 그 마음이 오죽하랴. 너무도 창피하고 분해서 남몰래 울기도 할것이다. 때로는 아예 어디로 도망가버릴 생각까지 하는지도 모른다.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그자들의 구린내나는 입을 틀어막고 지혜가 수치를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전부터 자신에게 제기해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지혜와 마주앉은 자리에서 불쑥 떠올랐다.

결혼을 하는거다! 하루속히 해야 한다! 우리 두사람의 행복한 결합을 방해하려고 그 험담들을 늘어놓는것이니 우리가 결혼을 하면 더 헛소문을 만들어내지 못할것이다.

두무릎을 옆으로 비스듬히 꺾고앉은 지혜는 눈길을 내리깔고 병구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이번 일요일에 나하구 같이 서울 갑시다.》

병구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결혼을 하자면 사전에 서울의 누이와 매부에게 신부감을 소개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가 안제시는 조건에서 그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는것이 응당한 도리이다. 지혜와 함께 그의 백부에게도 찾아가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촌오빠라는 그 사람도 만나서 피차에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하고싶었다.

지혜는 서울에 왜 가려느냐고 묻는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 관계를 무한정 이대로 지속시킬수야 없잖소. 랑쪽 집안어른들한테 정식 인사도 올리고 승낙도 받은 다음에...》

그쯤 말하면 짐작하려니 생각되어 병구는 뒤말을 잊지 않았다.

지혜는 도로 눈길을 내리깔며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그거 안될가요?》

《그거라니?》

《제대하시면... 제대가 안될가요?》

《아니, 뭐라구?!... 나더러 제대하라 그거요?》

지혜는 호오 하고 조그맣게 한숨짓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대관절 어찌된 일이요?》

병구는 결혼을 하기 위해 랑쪽 집안어른들을 만나러 서울 갈 이야기를 하는 판에 왕청같이 제대소리를 꺼낸 그 저의를 알수 없었다.

《이 고장이 어쩐지...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막 무서워요. 정을 붙이고 살 자신이 없어요. 인심도 너무 험하구...》

그 악의에 찬 소문때문에 그러는건가.

그러나 지혜의 말을 듣고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였다.

《군인들도 무서워지는걸요. 군복만 봐도 가슴이 떨리구요..》

《나도 늘 군복만 입고 다니는 군인인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무서워졌다 그거요 하는 말까지 나가는것을 삼키고말았다.

애당초 장교복을 입은 나와 교제를 시작한 지혜가 아닌가. 내가 장교를 천직으로 여기고있다는것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이제 와서 내가 싫어졌다는 소리를 하기 힘들어 제대소리를 하는것이 아닐가?

형제버드나무밑에서 만난 그날 저녁의 일이 선명한 그림처럼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사랑과 믿음을 약속하던 지혜의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가? 그동안 마음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그렇게도 빨리 변심하는 여자인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미안해요.》

《아니 뭐... 솔직한 말을 하는편이 나으니까...》

그날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났다.

그후 만날 때도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병구쪽에서는 의연 제대할 의향이 없었고 가만히 보니 지혜도 제대를 바라는 생각을 버린것같지 않았다.

둘사이가 점차 어성버성해졌다. 저녁때 만나서 들길을 함께 거닐어도 자주 이야기가 동강나군 했다. 때때로 화제를 잃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침묵으로 시간을 메꾸기도 했다.

병구는 대관절 왜 군인이 무서워지고 장교직업이 싫어졌는가 하고 따지고싶었지만 어쩐지 그 말이 선뜻 입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벌리면 둘사이가 파국적국면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

다. 그것이 무서웠다.

어쨌든 병구는 지혜를 사랑하고있었다. 장교직업을 싫어하는데도 그가 미워지지 않고 그가 없이는 자신의 삶이 빛을 잃을것만 같았다.

그날도 두사람은 퇴근후에 만나서 들길에 나갔다. 손바닥만한 마을안에는 산책할데가 없었고 장교들이 옥실거리는 다방 같은데 들어갈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어제 밤에 내린 눈이 들판에 하얗게 깔려있었다. 발두렁사이의 길에도 눈이 녹지 않고있었다. 다행히 많이 내린 눈이 아니여서 파히 불편하지 않았다.

달빛이 백설의 들판우에 파르스름한 운무처럼 흘러갔다. 여기저기 서있는 나무가지에 피여난 눈꽃들에서 이따금 흰 눈가루들이 떨어졌다. 날씨마저 푸근해서 젊은이들이 산책하기에 좋은 밤이었다.

그러나 병구도 그래 지혜도 그래 마음이 무거워 아무런 흥취도 나지 않았다. 서로 간간이 주고받는 짝막한 대화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침묵이 지겨워 건성으로 해보는 그런 말에 불과했다.

산책을 끝 끝내고 마을로 돌아갔는데 병원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타락장교》라고 자칭하면서 매일 저녁 술에 취해다니는 수송장교 장하진대위와 마주쳤다.

그는 두사람앞을 막아서며 허교부라진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이거 행운아들을 만났군. 좋군,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떤 개자식들이 뭐라고 지껄여도 이 타락장교 장하진만은 당신네 행복에 만세, 만세를 부른다 이겁니다. 좋아... 이걸 놔, 놓으래두!》

그는 누가 붙잡는 사람이 없는데도 손을 뿌리치는 시늉을 하고 이야기를 비약시켰다.

《뭐, 자살? 그건 비겁한자의 최후도피책이야. 자살보다 술마시는 행위가 고상하다 이거야. 왜냐하면... 부어라 마시여라 탄식의 술잔...》

늙아빠진 옛날 류행가가락을 뽑아올리며 온몸을 휘청거리는 그를 뒤에서 덥석 안는 사람이 있었다. 본부중대의 염태훈중위였다.

《갑시다! 이게 뭐니까? 갑시다, 가요!》

술주정을 부린다 하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것으로 이름난 장하진이지만 염태훈에게는 꿈쩍 못했다.

그가 염중위에게 떠밀리며 끌리며 사라져버리자 병구가 지혜에게 말

했다.

《안됐소. 그만 들어가보오.》

장하진의 그 추태를 처녀에게 보여준것이 부끄러웠다. 군인사회의 한 내면이 드러난것만 같았다.

지혜가 병원으로 들어가는것을 보고 하숙집으로 향하는데 염태훈이 마주 왔다.

《장대위님을 보냈습니다. 어디 가서 한잔하지 않겠습니까?》

《그만두겠소.》

《이야기 좀 할것이 있는데요.》

《그럼 내 방에 가지요.》

장하진의 이야기려니 짐작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듣고싶지 않았지만 차마 거절할수 없었다.

염태훈은 방에 들어가 앉자마자 병구의 예측대로 장하진이야기를 했다.

《장대위님이 왜 자칭 <타락장교>가 됐는지 아십니까? 전에야 회식때도 서너잔 마시고 물러나 았던분 아닙니까. 저 지경으로 된건 광주사변의 후유증입니다. 그의 애인이 거리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겁니다.》

병구는 지척에서 총성이라도 울린것처럼 와뜰 놀랐다.

《아니 뭐라구, 그게 정말이요?!》

《예, 어느 회사에 근무하던 아가씨데 그 참변을 당했다지 않습니다.》

총성이 사라지고 정적이 깃들었다. 피비린내나는 정적이였다.

와뜰 놀라 후두둑 뛰던 심장이 가라앉으면서 숨이 가빠졌다. 그 어떤 압박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광주사변이야기는 전에도 자주 들었었다. 계엄군이 수많은 학생, 시민들을 살해했다고 했다. 《국군》이 국민들을 개머리판으로 때려죽이고 대검으로 찔러죽이고 총으로 죽였다고 했다.

그 《로벌작전》의 《당위성》에 대한 군고위총과 《정부》측의 설명은 여러번 들었었다. 《국가》를 보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단행한 작전이라고 했다. 체제전복을 노린 《극렬분자》들의 《란동》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고 과감한 작전을 실시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이였다.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국군》이 자기 국민을 살해한 그 작전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논거와 주장은 다 허위이며 기만이라고 병구

는 생각했다.

광주작전, 그것은 그 어떤 궤변과 역설로도 정당화할수 없는 민족반역의 대죄인것이다.

《광주참변때문에 지금 우리 군인들이 무서운 저주를 받고있습니다.》

염태훈이 꺼지게 한숨짓고 뒤말을 이었다.

《제가 지혜씨를 고맙게 생각하는것도 온 민족이 우리 군인들을 저주하는 이런 때 대위님을 사랑해주기때문입니다.》

아니요, 그 녀자가 지금 내곁에서 멀어져가고있소 하고 병구는 마음속으로 괴롭게 중얼거렸다.

지혜가 광주참변때문에 군인들을 무서워하고 싫어할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른것도 이때였다.

그렇진대 지혜의 마음을 돌릴 방도가 없을상싶었다. 광주작전의 진상을 외곡해서 군인들에 대한 그의 견해를 고쳐줄수 없을뿐더러 병구자신이 군복을 벗을 생각이 없으니 말이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저지른 대죄를 저주하면서도 자기의 장교직업에 대한 긍지는 의연 버리지 않고있었던것이다.

광주계엄군이 《국군》전체는 아니다, 광주작전이 군에 부과된 임무의 전부는 아니였다, 군 본연의 임무는 보다 영예로운것이다 하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그 《금지》를 고집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일찌기 3사교육시절부터 체질처럼 몸에 배인것이였다. 그것을 기둥으로 삼고 일생을 군에 바치기로 결심한 병구였다.

그에게 있어서 지혜가 행복이라면 장교직업은 천직이였다. 량자택일을 할수 없었다. 행복을 단념할수 없었고 천직을 포기하고싶지도 않았다. 행복과 천직을 다 한손에 움켜잡는것이 소원인데 량자가 서로 거부하고 배척하고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옳은가?

염태훈중위가 돌아간 후에도 밤새도록 생각해보았지만 출로가 보이지 않았다. ...

그것이 10여일전의 일이였다.

그동안 지혜를 다시 만나지 않았는데 오늘 그의 4촌오빠가 찾아온것을 그렇게 내쫓다싶이 해서 보냈던것이다.

지혜가 방에서 나간 다음 병구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성태는 러관방에서 하루밤 묵고 다음날 떠나갔다.

그가 떠나기 전에 지혜가 밤을 두어되박 가지고 왔다. 용수리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에 도송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밤나무가 많다고, 며칠전 그 동네에 왕진가는 채의사를 따라갔다가 사온것이라고 했다. 보관이 잘돼서 벌레먹은것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밤이었다.

지혜는 백부님에게 삶아드리라고 부탁하면서 밤을 오빠의 가방에 넣어 주었다.

불현듯 지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근 반년만에 만난 오빠와 변변히 이야기도 못해보고 헤어지는것이 여간 섭섭하지 않았다.

어제 저녁 오빠가 병구를 만나러 간 사이에 지혜는 고살어귀에서 기다리고있었다.

오빠는 10분쯤 지나서 병구의 하숙집에서 나왔다. 몹시 언짢은 기색이였다. 병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한마디도 없었다. 채선생님이 기다리시겠는데 빨리 가보자는 소리만 했다.

채의사댁의 저녁상은 제법 푸짐했다. 부인의 성의가 알리는 식탁이었다. 아직 아이가 없는 가정이어서 주인내외와 성태, 지혜 그렇게 넷이 두레상에 둘러앉았다.

식사를 하면서 채의사는 자기의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을 펼쳐놓았다.

성태는 최근의 대학가소식을 우울한 어조로 전했다. 광주봉기이후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힌 기분으로 괴로운 침묵을 지키는중이라고 했다.

채의사 부인과 지혜는 수저소리를 낼세라 조심하면서 듣기만 했다.

저녁식사가 거의 끝날무렵 채의사가 문득 생각난듯이 물었다.

《한병구대위는 만나봤소?》

채의사도 지혜와 병구의 관계를 알고있었던것이다.

지혜는 숨을 죽이고 오빠의 대답을 기다렸다. 혹시 오빠가 병구를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을까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이리로 오기 전에 잠깐 들려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는듯 성태는 이렇게 대꾸하고 곧

화제를 돌렸다.

《선생님, 제 실은 이번에 우리 지혜를 서울에 데려갈가 해서 온겁니다.》

《그건 왜요?!》

채의사가 안경알을 번뜩이며 놀란 소리로 물었다.

《취직자리가 한군데 나저서요.》

《서울에요?》

《예.》

《그래요...》

채의사가 말꼬리를 길게 끌며 지혜쪽을 돌아보았다.

지혜는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 고개를 숙였다.

이때 병원에서 원장 부인이 채의사를 찾아왔다. 린근마을에서 황소뿔에 다친 환자가 왔는데 군청에 간 원장이 여태 돌아오지 않아 야단이라고 했다.

원장이 있다 해도 외과의사인 채선생이 나가봐야 할 일이었다. 자연 지혜도 따라가게 되었다. 성태는 려관에 돌아갔다.

환자는 황소싸움을 말리다가 특골이 두개 부러지고 안면에도 상처가 심했다.

그 환자치료를 마치고나니 이번에는 위경련환자가 들이닥쳤다. 집이 이웃동네에 있는 내과의를사를 부르고 어찌구할 사이가 없어서 채의사가 또 말아나섰고 지혜가 보조작업을 했다. 두 환자를 다 봐주고나니 밤이 이슬해졌다.

지혜는 려관으로 가볼가 하다가 잠든 오빠를 깨울것같아 그만두었다.

여느날은 하루종일 가야 환자 몇명이 오나마나하다가도 어떤 날엔 줄을 지어 환자들이 나타나는데 시골병원이다.

오늘 아침에도 신석증이 발작했다, 귀가 썩서 죽을 지경이다, 허리병이 도졌다 하는 환자들이 병원문을 열자마자 려속 모여들었다.

10시경이 돼서야 의사도 간호원도 좀 숨을 돌릴수 있게 되었다.

지혜는 진료카드를 정리하는 채의사에게 청을 드렸다.

《오빠가 오늘 떠나가는데 잠깐 만나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참, 오늘 떠난다구 했지. 만나봐야지. 어서 가보요.》

《그럼 다녀오겠어요.》

채의사는 위생복을 벗어두고 진료실에서 나가는 지혜를 불러세웠다.

《권양, 잠깐만.》

지혜가 돌아서자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채선생이 물었다.

《서울 가는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소?》

지혜는 눈길을 내리깔며 가만히 대답했다.

《이곳에 남아있을가 해요.》

채의사는 안경을 벗어 들고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았다.

《그렇다… 참, 한대위가 있으니까…》

《저 사실은…》

지혜는 얼른 뒤말을 잊지 못했다. 병구때문에 이곳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그 말이 얼른 나가지 않았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병구결에 남아있고 싶기도 하고 멀리 떠나가고 싶기도 했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길 결심이 생기지 않아 갈팡질팡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동요였다.

채의사는 안경을 도로 썼다.

《하긴 장교도 사람나름이니까. 나도 장교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대위 그 사람은 량심적인 사람갈더군. 량심이 중요한거요. 부정의 체제에 매여있는 사람도 량심만 깨끗하면야 고민하구 방황하다가 종시 바른 길에 들어서는 법이니까. 물론 권양이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만… 제 마음이 깨끗하면 사람보는 눈도 밝아지기 마련이구… 이거 공연히 이야기가 길어지는군. 어서 가보오.》

려관에 뛰어가보니 오빠는 30분 후에 떠나는 배스를 탈 작정으로 세면 도구까지 가방에 다 챙겨놓고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가서 약속시간에 만날 사람이 있어서 이번 배스로 꼭 떠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곧 배스표를 떼려 매표소에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손님이 많은 날에는 늦게 나가면 표를 살수 없기 때문에 억장을 부릴수 없었다.

《오빠 천천히 나오세요. 제가 먼저 나가서 표 끊을게요.》

《뭐 그렇게 있으니. 같이 나가자.》

남매가 같이 나갔다. 요행 손님이 많지 않은 날이었다. 표는 지혜가 샀다. 시골배스정류소가 돼서 휴게실이 따로 없었다.



빈 배스가 대표소앞에 서있었다. 운전사와 차장은 보이지 않았다.

음산하게 흐린 날씨였다. 바람이 잦다.

두사람은 대표소앞에서 배스출발시간을 기다렸다.

《너 정말 이곳에 영 눌러앉을 생각이나?》

성태가 물었다.

《미안해요, 오빠.》

《아니 뭐, 미안할것까진 없구… 네가 어련히 잘 알아서 결심한거겠지 만…》

성태는 한숨어린 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빠.》

《응.》

《어제 그이 만나서 무슨 얘기들을 하신거예요?》

《내 의견을 좀 말했다.》

성태는 내키지 않은 어조로 뜨직뜨직 말했다.

《그이는데요?》

성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혜를 쳐다보았다.

《자기가 너와 교제하는걸 왜 반대하는거냐고 따지더라.》

오빠가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지 않았지만 지혜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광주참변후 군인들을 더 증오하게 된 내 심정을 솔직히 말했다. 그 사람도 내가 반체제학생이라는걸 안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 너를 단념해줄수 없겠느냐고 물었더니 펄쩍 뛰더라. 피차에 격한 말들을 좀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널 몹시 사랑하는것같더라.》

길에 군인대렬이 나타났다. 소대병력이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넘어…》 하는 군가를 악쓰듯한 소리로 부르며 지나갔다.

앞에 선 장교가 흥이 나서 어깨를 흔들며 대표소주변의 민간인들에게 공연히 눈을 흘겼다.

배스에서 부르릉— 발동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운전사가 제자리에 앉아 있었고 차장은 문을 열고 손님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너두 정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거냐?》

성태가 배스쪽으로 걸음을 옮겨가면서 물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한 끝에 호젓이 대답했다.

《예.》

윤미네 집 정원에서 병구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사랑한것은 아니었다. 그날은 그저 수줍어서 찢찢매기만 했었다. 왜 그런지 모르게 조금 무서운 생각도 났다. 그 이상의것은 없었다.

그후 그의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있었는데 그가 예고도 없이 병원에 불쑥 나타났던것이다. 저으기 놀랐고 또 어째선지 조금 겁도 났다.

그러나 거리의 아이들에게서 산 물건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난처해하는 그 우습강스러운 모습에 그만 웃음이 나가면서 긴장이 풀렸다. 그가 아주 오랜 구면인듯 친숙감이 느껴졌다.

그후 자주 찾아오는 그를 만나면 반가웠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의 억센 남성적인 기질과 함께 따뜻한 인정미도 알게 되었다.

어깨가 짙 벌어진 그와 함께 걸으면 자연 마음이 든든해지고 자기에게도 어떤 새로운 힘이 생기는것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집동네 골목길을 그와 함께 가다가 성태오빠를 만난것은 두사람의 교제가 어지간히 깊어졌을 때였다.

그날 광주참변을 상기시켜준 오빠의 이야기는 지혜로 하여금 꿈에서 깨난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실은 지혜도 광주참변소식을 듣고 치를 떤 사람이였다. 너무나 분해서 울기도 했고 금남로에 쓰러진 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봉대 한번 감아주지 못한것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병구씨와 교제하면서 그 광주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직접 광주에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해서 병구씨도 광주사람들을 죽인 그 군인들과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지 못했던가?

스스로도 알수 없는 일이었다.

성태오빠가 학생운동지도자의 한사람이라는것도 알고있는 지혜였다. 오빠의 굴할줄 모르는 투지에 사뭇 감탄했고 오빠가 정의의 길을 개척해나간다는것도 알고있었다. 지혜에게 있어서 오빠의 판단과 지향은 곧 진리였다. 때문에 오빠의 말이면 무조건 옳다고 믿었다. 오빠의 의사에 언제 한번 거역할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오빠가 병구와의 교제를 삼가할것을 바라는 의향을 보인 이상 그에 따라야 할것이였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의 심장이 병구에게 점령되어버린 후였다. 리성은

오빠의 의향에 따를것을 요구했지만 심장은 그에 엇서나갔다.

이때로부터 지혜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병구를 단념하자니 심장이 말을 듣지 않았고 그렇다고 오빠의 의향을 묵살할수도 없었다.

병구와의 교제를 끊기 위해 한동안 강심을 먹어보기도 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리는줄 뻔히 알면서도 편지 한장 보내지 않았었다. 운명의 지긋은 장난으로 용수리병원에 취직되어온 다음에도 일부러 병구에게 알리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일단 그를 만나자 저도 모르게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파물게 되었던것이다. 병구의 억센 견인력에 그만 지고말았던것이다. 아니, 지혜자신의 심장이 리성의 깨우침을 물리쳐버린것이었다.

그러나 전연지대 군인사회의 횡포와 비정이 다시금 지혜에게 오빠의 뜻을 상기시켜주었다. 찍하면 민간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구멍가게를 털며 사방에서 총질이나 탕탕 하고 피물같은 땅크를 몰고 가는 군인들을 볼 때마다 광주의 피바다가 떠올랐고 앞으로 또 어디서 민중봉기가 발생하면 병구도 계엄군으로 동원되어 그 무서운 만행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군인이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이라지 않는가.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집행하는 도리밖에 없다니까. 병구씨도 민중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총을 뽑아들것이 아닌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병구의 장교복과 직업이 무섭고 싫어지기 시작했다. 사랑이 식어버린것은 아니였다. 되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뜨겁게 그를 사랑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장교직업이 무섭고 싫어지는것이였다.

이것이 과연 진실한 사랑인가 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보았다.

사랑이란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면서 상대방의 모든것을 용납하고 존중하고 따르는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좋은데 저것은 싫다는 식으로 조건을 붙이고 사랑하는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허울을 쓴 생활적인 타산이다. 그렇다면 나도 병구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것이 아니라 생활적인 타산으로 그이와 교제하고있단 말인가? 아니다, 계산은 없다. 사랑할뿐이다. 사랑하기때문에 그의 모든것을 용납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기를 바라는것이다.

병구와 오빠가 어제 저녁 다투었으리라는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

아도 가히 짐작할수 있었다. 오빠가 정의에 사는 사람이라면 병구는 직업장교의 의무와 공지에 집착되어있는 사람이다. 서로의 상반되는 신념이 부딪쳐 불꽃을 튀기었을것이다.

지혜도 병구의 생각에 공감이 가지 않았다. 광주에서 수많은 학생, 시민들을 죽였고 또 앞으로 민주화운동이 격화될 때마다 총칼로 탄압할 《국군》이 아닌가. 그 군에 복무하는것을 왜 의무로 여기는지, 거기에 무슨 공지가 있다고 하는것인지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었다. 그것은 되려 병구의 인간적량심을 손상시키는것으로 된다고 지혜는 생각했다. 그래서 제대소리를 했던것이다. ...

《사랑한단 말이지...》

성태는 무겁게 걸음을 옮겨가면서 한숨어린 소리로 중얼거렸다.

빠스에 손님이 다 오른듯 차장이 문을 닫으려고 했다.

《자 그럼...》

성태는 두툼한 손으로 동생의 어깨를 두어번 다독거리주고 차에 뛰어올랐다. 지혜는 움직이는 차를 따라가며 손을 흔들었다.

성태가 차창을 열고 내다보았다.

《오늘 그 사람 만날거냐?》

지혜는 얼른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만나거든...》

빠스가 속력을 냈다.

오빠가 무슨 말인가 하는것같은데 거리가 멀어지고 또 차소리에 놀려들려오지 않았다.

지혜는 빠스가 시야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다가 우두커니 서버렸다. 오빠가 병구씨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한걸가?

그날 저녁 지혜는 병구를 찾아갔다.

《오빠는 떠나갔소?》

《예.》

《모처럼 찾아왔는데 저녁도 대접 못했소. 어제 저녁 이야긴 오빠에게서 들었소?》

《네, 대강...》

《서울취직건은 어떻게 하기로 했소?》

지혜는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대답했다.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고맙소.》

《저 사실은...》

《알만하오. 오빠한테 미안하다 그거지? 걱정마오. 오빠도 후에 리해해 줄 때가 올거요. 나도 어제오늘 많이 생각해봤소.》

병구는 지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우리 올봄에 결혼합시다!》

지혜도 그저 한때의 기분으로 교제한것이 아닌 이상 분명한 대답을 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또박또박 점을 찍는듯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제가 병구씨와 결혼하지 못하면 영원히 독신으로 살거예요.》

《나도 같은 생각이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병구씨가 저에게 귀중한것처럼 오빠도 여간 귀중한분이 아니예요.》

지혜는 숨이 찼다. 왜 그런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나올것같았다.

《오빠가 바라지 않는 결혼을 하기 곤란해요.》

《아니 그럼...》

《제대해주세요, 제발!》

《또 그 소리요?》

병구는 쓰겁게 중얼거렸다.

《제대하심 병구씨 마음도 편해지실거예요. 우리 오빠의 벗으로도 될게구요. 지금처럼 두분이 서로 다투시면 전... 네, 병구씨! 제발 부탁이에요!》

그러나 병구는 응대가 없었다. 실망과 노여움이 어린 얼굴로 꺼지게 한숨만 지었다.

유경훈교수는 오래간만에 찾아온 권성태와 안영일 두 학생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들 편히 앉게. 방학도 다 끝나가니 자네들이 올줄 알았네.》

둘이 다 유교수가 남달리 아끼는 수제자였다. 성태가 심중하고 리지적인 학생이라면 영일은 좀 성급하고 익살도 곧잘 부리는 다혈질이였다.

나이를 보아도 성태는 27살이고 영일은 24살이다. 전공도 달라서 성태는 역사를 공부하는데 영일은 프랑스문학을 배운다. 그렇게 여러 면에서 서로 상반되는 사이인데도 아주 절친한 학우로 지냈다. 언제 봐야 늘 불어다니고 유교수를 찾아올 때도 꼭꼭 함께 오곤 했다.

두 학생은 유교수가 권하는 방식우에 나란히 앉았다. 자주 다니는 교수의 서재여서 별로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두 벽이 천정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리워진 유교수의 서재는 채광이 좋지 않아 대낮에도 약간 어둡시그레했지만 독서나 집필에 전념할수 있는 안정감을 주었다.

유교수는 그날도 아침부터 원고를 쓰다가 제자들이 찾아온 바람에 펜을 놓았다.

《그래, 방학을 어떻게들 보냈지?》

《전 부산 삼촌네 집에 가서 매일 낮잠만 잤는데 이 친군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교수의 물음에 영일이 이렇게 대답했다.

《어디 앓지는 앓았나?》

《젊은 놈들이 앓기까지 하면 어떡하는겁니까. 선생님은 이번 류형성독 감에 걸리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영일이 대답했다.

《나도 앓을 짬이 없는 사람이란걸 알았는지 독감이 우리 집 대문밖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더군. 그런데 권군은 어디를 다녔는지 고생을 좀 한것같군.》

해빛과 바람에 그슬려 거칠어진 성태의 얼굴이 유교수의 눈길을 끌었

던것이다.

《이 친구 외가집이 군산근처라는겁니다. 외가집에서 군고구마로 기운 키워가지구 군산부두에 가서 하역인부노릇을 했대나요.》

《으음, 그랬었군. 고생이 많았겠네.》

《남들도 하는 일인걸요.》

성태가 비로소 한마디 어쭙은 소리로 대답했다.

《등록금때문에 한 일이겠지?》

《예.》

《그래, 다 마련했나?》

《한 만원정도 부족되지만 판데서 변통할 생각입니다.》

《정외과의 박세일군을 알겠지? 어제 다녀갔는데 방학동안 구로공단에 가서 견습공노릇을 했다더군. 등록금때문에 그런건 아니구 근로자들의 현장체험을 하기 위해 한 일이라느거야.》

유경훈교수는 전공이 지정학이었다. 그런 과목이여서 합동강의가 많았다. 인문계학생들이 그의 합동강의에 많이 모여들었다. 자연 아는 학생이 많았고 특히 지난날의 학생회관계자들이 자주 집에 찾아와서 자기네의 울적한 심정을 털어놓곤 했다.

《전 현장체험까진 못했지만 부산에서 한가지 기막힌 이야길 들었습니다. 저의 삼촌네 이웃에 사는 사람의 이야긴데요. ...》

이렇게 허두를 떼는 영일의 가름한 얼굴에 벌써부터 흥분하는 기색이 떠돌기 시작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는겁니다. 그래 단속에 걸리는것이 시끄러워서 재발급신청을 했는데요. ...》

영일은 주머니에서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펼쳤다.

《여기에 본인지장 찍게 돼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의 발급대장에도 같은 지장을 찍는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손가락에서 지문이 살아나지 않더라는겁니다.》

《왜?》

유교수는 담배를 한대 꺼내어 붙여물었다.

《그 사람 직업이 벽돌축조공입니다. 매일 벽돌을 다루거든요. 그바람에 지문이 다 닳아서 없어졌지요. 벽돌가루가 세서 그렇게 되는거라구 하더군요.》

《장갑을 끼구 일했으면 좋았을걸 그랬군.》

유교수가 무심히 한 말에 영일은 눈살을 찌프렸다.

《원 선생님두, 그날 벌어서 그날 먹구살기도 바쁜 사람들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장갑을 다 사쓰겠습니까. 어쩌다 한컬레 사끼면 닻새도 못가서 판이 난다는거예요. 그럴바엔 차라리 맨손으로 일하고 장갑살 돈으로 애들한테 라면이나 한봉지 더 사다준다고 하더군요.》

유교수는 무겁게 머리를 끄덕였다. 아직도 나는 우리의 슬픈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있는거다 하는 한가닥 자책감이 가슴을 허비고 지나갔다.

《이야기를 계속하게.》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적어도 한달은 벽돌을 다루지 않아야 지문이 살아난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처지에 한달이 아니라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굶을판인데 어떡합니까. 계속 일하러 다녔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줄테니 오라구 하더라는겁니다. 하지만 지문이 살아나야지요.》

동사무소 직원은 그런 사정을 보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빨리 지문이 살아나게 해가지고 와서 주민등록증에 지장을 찍으라는 재촉만 했다. 벽돌축조공도 역정이 났다.

자연 두사람사이에 좀 거친 말이 오고갔다. 그런 시비가 두세번 반복되는 과정에 벽돌축조공의 입에서 이따위 《주민등록증법》은 왜 내가지고 사람을 못살게 구느냐 하는 불평이 터져나갔다.

그러자 동사무소 직원이 펄펄 뛰며 고함을 지르다가 손찌검까지 했다. 가만히 맞아주기만 할 벽돌축조공이 아니었다.

맞받아치는 소동이 벌어졌고 코피가 터진 동사무소 직원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폭행죄》니, 《공무집행방해죄》니 하며 벽돌축조공을 파출소에 고발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우울한 얼굴로 영일의 이야기를 듣던 유교수가 뒤말을 재촉했다.

《이틀이나 구류를 살며 매까지 맞구 나온걸 보구 떠나왔는데 모르지요, 후일 또 무슨 봉변을 당했는지...》

유교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파쑈통치체제가 가져다준 슬프고 고달픈 현실의 한 삽화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 기분이 울적해지니 자연 애꿎은 담



배에만 손이 갔다.

또 한대 뽑아내어 불을 붙이려 하는데 영일이 그제야 생각난듯이 제 담배를 꺼냈다.

《선생님, 이걸 한대 피우십시오.》

유교수의 담배는 《청자》인데 그가 내놓은것은 《거북선》이었다.

유교수는 사양없이 《거북선》 한대를 뽑아물었다.

《자네들도 피우게. 안군은 방학동안에 돈벌이를 톡톡히 했나? 아니면 부친의 기업이 번창해진가보군.》

영일의 부친이 모종합상사의 계열회사에 매인 하청기업을 경영한다는것을 알고 물은 말이었다.

《아버지가 드디어 <문어발작전>에 걸려든것 같습니다.》

영일의 대답이었다.

경제계에서 은어로 통용되는 《문어발작전》이란 재벌계종합상사의 계열회사들이 중소기업체들을 흡수해버리는 경영활동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막강한 재력과 권모술수를 지닌 회사들이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대주면서 하청생산을 시키다가 일정한 시기에 가서 하청주문량을 격감하는 동시에 자금회수통고를 내린다. 그것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치명적타격으로 된다. 생산품을 사가지도 않고 자금회수만 재촉하니 말이다. 게다가 종합상사의 책략가들은 중소기업체들이 재고품을 판매할 길까지 봉쇄해버린다. 그러면 응당한 귀결로 중소기업체는 파산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것을 기다려온 종합상사에서는 재빨리 감사제도를 실시하여 대여해준 자금의 값으로 재고품과 함께 생산설비 일체를 회수하는 한편 그 기업체를 통째로 계열회사에 흡수해버린다. 이를테면 문어란 놈이 그 길다란 발로 잔고기들을 척척 감아서 제 먹이로 만드는 식이다.

그래서 《문어발작전》이라는 은어까지 생겼는데 영일의 부친이 거기에 걸려들었다는 말인가.

《어제 아버지가 절 부르더니 청하지도 않은 용돈을 50만원이나 주더군요. 50만원 아낀다고 파산을 면하는것도 아니니까 다 망하기 전에 마지막인심을 쓰느라 그러신거겠지요. 덕분에 저도 어제부터 맥주도 마시고 담배도 고급으로 사피우는겁니다.》

유교수는 말끝을 맺으며 얼굴을 돌리는 영일의 눈에서 물기 같은것을 보았다.

《영일군.》

조용히 불렀지만 교수는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위로할수도 없는 일이었다.

영일은 무슨 화풀이나 하듯이 담배를 연방 들이빨았다.

한동안 무겁게 흐른 침묵을 깨며 성태가 화제를 돌렸다.

《저의 외가집 동네에서는 모재벌총수가 제 조상들의 분묘를 호화관으로 만드는 바람에 신고를 겪고있더군요.》

우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자 하고 유교수는 성태에게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부지가 얼마나 되는건데?》

《2만평도 넘는다는겁니다. 거기에 초대형비석이며 석탑, 석등이랑 별의 별것들이 다 있는데 석등 하나에 5백만원짜리도 있단나요. 5백만원이면 공단로동자의 2년분로임에 거의 맞먹지 않습니까. 그따위 사치에 그쳤으면 또 모르겠는데 분묘주변 환경정리를 한다고 린근의 전야와 마을들을 자기네 농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겁니다.》

《농민들이 땅과 집을 순순히 내주지 않겠는데...》

《그래서 말썽이지요. 재벌측에서 거간군과 깡패들을 내세워 한편으로 회유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갈하면서 땅과 집들을 강제매입하더군요.》

유교수는 요 며칠사이에 찾아온 제자들에게서 들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다시 떠올려보았다.

한 학생은 생활고가 빚어낸 일가족집단자살참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한 제자는 광주참변때 외아들을 잃고 미친 어머니가 거리를 방황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미군병사들을 때려눕힌 동네청년들이 되려 《폭행죄》에 걸려 잡혀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고 율분을 터뜨린 학생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유교수는 심분 이해할 수 있었다.

선생님, 현실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학의 지성인들이 이 현실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하는겁니까. 언제까지 이 침묵을 지속시켜야 하는겁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물음이 그 이야기들속에 깔려있었다.

그들모두가 80년 봄 그 격동의 나날에 시위대오의 선두에서 뛰었고 오

늘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해 몸부림치는 학생들이었다.

유교수자신도 일찌기 4.19때 경무대앞에서 피를 흘린 사람이었다. 그날 총알이 뚫고 지나간 허벅다리는 지금도 날이 흐리면 저리고 쏜다. 하지만 그것은 능히 참을수 있는것이였다.

그의 마음을 참을수 없는 진통으로 괴롭히는것은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포도에 피를 뿌린 4.19 그날로부터 어언 2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 아직도 자유와 민주가 실현되지 못한 이 땅의 참경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지성인의 굴욕감이였다.

돌이켜보면 거의 해마다, 계절마다 대학가에서 자유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민주의 격랑이 거리를 매우군 했지만 매번 최루탄과 곤봉, 기관총세례에 좌절되고말았다.

신성한 학원이 계엄군의 군화에 짓밟힌적도 여러 차례였고 수백수천의 학생들이 류치장과 교도소에 끌려갔다.

유교수자신도 학생운동을 《동조》, 《지원》했다는 죄 아닌 《죄》로련행되여 취조받은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정치교수》의 딱지가 붙어 한동안 강제휴직까지 당했었다.

80년 봄은 학생운동이 절정으로 치달아오른 계절이였다. 이번에는말로 민주의 새봄이 밝아올것같았다. 그러나 5월의 광주가 피의 목욕탕으로 화하면서 모든 희망을 짓밟아버렸다. 수천수만명의 자유의 기수들이 계엄군의 총탄과 개머리판, 대검에 쓰러졌고 류치장과 교도소마다 초만원 을 이루었다.

《정권》을 가로챈 살인두목들은 학생들과 민중의 입에 피묻은 자갈을 물리고 이 땅을 통채로 자유의 동토지대로, 철창없는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켰다.

이 굴욕의 력사가 유경훈교수의 지성과 량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불의를 제거함이 없이야 그것이 무슨 량심이며 지성이겠는가. 압제와 폭압에 대항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것도 일종의 타협이며 굴종이 아니겠는가. 행동하는 지성만이 참다운 지성이다. 하지만 어떻게 행동할것인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그 칼을 들고 청와대에 들어앉은 파썸통치자의 광기는 나날이 더욱더 우심해지고있다. 미국의 팔라와 핵무기가 또한 그의 광기를 부추겨주고있다. 초보적인 인간적량심의 발현에도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며 특히 대학가에는 구석구석에 감시의 눈초리를 박아두고있다.

너무도 삼엄한 그 기세에 눌러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학생들도 생겼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참된 자유와 민주를 바라는것이 애당초 망상이 아닌가 하는 비판론을 펴는 체념파들도 없지 않다.

유교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언제나 자유의 기수로 나서야 할 대학사회에 그러한 좌절감과 비판론이 만연되면 파쑈통치자들의 전횡은 아무런 저해도 받음이 없이 무한정 지속될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최우선과제는 대학의 침묵을 깨는것이다. 불꽃이 튀고 구호를 웨쳐야 그 어떤 폭압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대학정신이 살아있음을 우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동시에 압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시위할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 불꽃이 과연 어디서 튀고 누가 그 구호를 웨칠것인가?

굴욕적인 현실을 개탄하는 학생은 많아도 자기가 그 불꽃이 되겠다고 말하는 용사는 없었다. 대학의 침묵이 지속되는 현실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자주 들렸지만 학생들을 새로운 항쟁으로 부르는 웨침은 아직 어느 구석에서도 울려나오지 않았다.

권성태와 안영일도 그랬다. 아프고 서러운 현실고발만 하는것이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말릴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픔과 서러움이 깊어질수록 어떤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면 반발이 폭발해나올수도 있지 않는가. 저들끼리 이미 모종의 행동계획을 세우고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권군은 외가집에 들린 후 군산 가서 하역로동을 하다가 올라왔군.》

유교수가 권성태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 생각으로 말을 건넸다.

《한군데 더 들렀습니다.》

《어디?》

《군에 나간 고명찬군을 만나러 갔됐습니다.》

《잘 있던가? 내가 전달에 책 몇권을 보내줬는데.》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친척외에는 사사용무 면회금지라더군요.》

《저런... 가기 전에 나한테 들렸으면 소개신 하나 써주는건데. 그 부대에 내 처남이 있네, 런던본부에. 그 사람한테 부탁했으면 됐을걸 그랬네.》

《그 사람은 만났습니다.》

《전에부터 아는 사이였나?》

《예, 조금...》

《고군 면회부탁은 안한건가?》

《그런 부탁까지 할 사이도 아니구 해서...》

성태가 말끝을 얼버무리자 영일이 뒤를 이었다.

《선생님의 처남되는 그 장교가 성태의 4촌누이동생을 그곳으로 유인해갔다는겁니다.》

성태가 곧 안영일의 말을 시정했다.

《유인해간건 아닙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예, 그런것같습시다만...》

성태는 또 말끝을 얼버무렸다.

유교수는 기분이 좀 이상해졌다. 처남이 성태의 누이동생과 교제한다는것도 초문이지만 성태의 말투로 미루어보아 그들사이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것같았다.

《권군, 무슨 거북한 곡절이 있는것같은데... 한대위 그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내 처남이네. 꼭 비밀에 붙여둘 일이 아니라면 시원히 말해주지 않겠나?》

《비밀은 아닙니다만...》

성태는 이렇게 말해놓고 또 잠시 망설이다가 작년 여름 병구를 처음 만난 일로부터 시작해서 용수리에서 그와 주고받은 대화까지 다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에서 특히 강조된것은 병구의 인식착오였다. 성태는 광주학살과 군 본연의 임무를 별개의 문제로 보는 병구의 태도에 몹시 실망했다고 했다. 학생운동을 사갈시하고 직업장교의 의무와 공지란것에 집착하는것도 그릇된 가치관에 오염된 인식착오의 소산이라고 했다.

유교수는 시종 잠자코 듣기만 했다. 성태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도 한동안 침통한 얼굴로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병구의 그 인식착오는 유교수도 이미부터 잘 알고있는것이였다. 그것을 시정시켜주려고 가끔 충고도 해주었다.

그러나 처남은 그것이 인식착오라는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되려 매부의 반《정부》적인 립장과 비판의식을 닦았다.

《그런 일이 있었군.》

유교수는 한참만에 면구스러운 기분으로 중얼거렸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공연한 소리, 자네가 사죄할 일이 아니네. 그래 누이동생일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아까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결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요.》

《나두 처남이 오면 한번 이야기해보겠네.》

아무래도 피차간에 어색한감을 느끼게 하는 대화였다.

다행히도 눈치빠른 영일이 얼른 새 화제를 내놓았다.

《선생님, 요새 사회에 반미감정이 고조되는걸 아시죠?》

《음, 광주봉기의 교훈의 하나가 그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광주봉기가 이 땅의 현대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열어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그 무슨 <원조자>로, <민주주의 수호신>으로 보던 환상이 깨졌으니까요. 광주대학살의 주범도 미국이 아닙니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압살한 파쑈통치배후조종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도 백일하에 드러났지요.》

성태도 화제가 바뀌어진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곧 영일의 말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내정간섭, 경제침략, 군사적지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의 결론은 앞으로 학생운동에서 반미구호를 들고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유교수가 하고싶은 말이기도 했다. 그 역시 이 땅에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미국의 내정간섭을 종식시키고 민족자주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유교수는 제자들과 호흡이 맞는것이 기뻐다. 제자들의 그 예리한 투시력과 높은 지성이 대견했다.

두 학생은 교수 부인이 차려준 검소한 저녁식사까지 하고 일어섰다.

성태는 대청마루까지 따라나온 유교수에게 작별인사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했다.

《아무래도 대학가의 침묵부터 깨야 할것같습니다.》

《침묵을 깨다니, 어떻게?》

성태는 대답대신 머리를 꾸벅 숙여보이고 프락을 질러 대문계로 갔다.

그의 걸음걸이가 전에없이 활달했다.

유교수는 그 어떤 예감에 가슴이 쿵 울렸다.

## 9

서울의 봄은 역시 대학가에 먼저 찾아오는가보다. 개나리가지마다에 망울이 트고 잔디밭에도 파아란 새순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뽕뽕라나무 우듬지에서는 까치들이 상쾌히 우짖고 바람결을 타고 봄의 훈향이 풍겨온다.

맑게 개인 하늘에 높이 솟아오른 태양은 또다시 교정에 모여든 젊은 지성인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주고있다.

봄의 활력과 미소는 남녀대학생들의 얼굴마다에도 넘쳐흐른다.

겨울방학동안에 뿔뿔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상봉의 기쁨이 우선 요란하다. 경상도문둥이가 전라도개땅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꺾꺾거리고 강원도뚝바우는 동급생 서울아가씨가 방학동안에 더 이뻐졌다고 추어준다.

다시 만난련인들이 구내의 오솔길을 거닐며 소근거리는 모습도 이 봄의 한 서정시같다.

등록금마련을 위해 고달픈 부업으로 방학을 보낸 이야기들도 많다. 고향소식도 쏟아져나오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동급생들의 안부도 묻는다.

저기 저쪽에선 누가 또 무슨 통담을 해서 웃음보를 터뜨려놓은걸까. 화제도 많고 웃음도 많은 새 학년도 첫날이다.

하지만 그렇게 들레고 웃고 하다가 느닷없이 우울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굽어보는것은 또 무엇때문인가?

하긴 대학가의 봄이란 의례 서로 상반된 표정과 의미를 가지고 찾아오는것이다. 방학동안에 너무나 참담한 이 땅의 현실을 다시금 투시하고 돌아온 학생들이다.

그 슬프고 굴욕적인 현실이 여기 새봄의 활력과 미소로 들끓던 교정에까지 우울한 그늘을 던져주고있다. 그리고 구태의연한 대학가의 현실-량심의 사소한 발현마저 억제하는 강압적인 학칙과 구석구석에서 감시의 눈초리를 번뜩이는 정보사찰망... 그것이 젊은 지성인들의 입에 자갈을 물

리고 손발을 얹어매고있었다.

그러니 이 봄도 속수무책으로 보내야 하는가. 5월의 광주를 벌써 잊었던 말인가. 무엇을 위한 우리의 젊은 지성들이냐!

유경훈교수도 학생들의 그러한 마음속웨침을 듣고있었다. 그들속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분출이 터져나오리라는것도 예감하고있었다. 그 예감속에서 권성태와 안영일의 모습이 커다랗게 부조되어 움직였다.

첫날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 이튿날도, 다음날도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다.

일이 터진것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점심시간에 유교수는 자연환경관앞을 지나가다가 저만치 앞에서 마주 오는 성태와 영일 두 학생을 발견했다.

영일이 연방 손짓을 하며 무슨 말을 하는것같은데 성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오며 이따금 머리를 끄덕였다.

집에 찾아온것을 만난 후 처음 보는 그들이었다.

유교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두 학생이 유교수앞에 채 오기 전에 잔디밭사이길에서 웬 녀학생이 쪼르르 달려나오더니 성태앞을 딱 막아섰다.

녀학생이 턱을 쳐들고 매섭게 쏘아붙이는것같았다.

그러자 영일이 시물시물 웃으며 비켜서고 성태는 뒤머리를 굽적거리며 어색한 동작을 취했다.

녀학생은 보통기세가 아니었다. 잠시후엔 성태를 이끌고 잔디밭사이길로 가더니 거기 백양나무밑에서 또 뭐라고 쏘아붙이는것같았다.

그들을 결눈질해보면서 웃음띤 얼굴로 이쪽으로 오던 영일이 유교수와 마주서게 되었다.

《저게 권군 아닌가.》

《예, 지금 단단히 <기합>받고있습니다.》

《<기합>을 받다니?》

의아쩍은 소리로 되물으며 백양나무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린 유교수는 그제야 그 녀학생이 영문과의 원윤미임을 확인했다.

《저애가 윤미 아닌가!》

《예, 맞습니다.》

《저애 부친이...》



유교수는 뒤말을 잊지 않았다. 언젠가 국제정치학을 강의하는 김익규교수와 같이 가다가 원윤미학생을 만났는데 김교수의 말이 윤미의 부친이 특근본부에 근무하는 현역장성이라고 했다.

그때는 그저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 저기 백양나무밑에 성태와 마주서있는것을 보니 대관절 무슨 일로 그가 성태에게 《기합》을 가하는건지 여간 궁금하지 않았다.

《선생님, 오후 첫시간에 합동강의하시는거죠?》

영일이 불쑥 물었다.

《맞네.》

유교수는 걸음을 옮기며 대답했다. 무슨 사연인지는 딱히 몰라도 젊은 남녀가 마주서있는것을 곁에서 지켜보는것이 점잖지 못한짓이라고 느껴졌기때문이다.

《저 친구 시간없는데 뭘 저리 오래 끌고있는거야!》

유교수를 따라오던 영일이 성태쪽을 돌아보며 두덜거렸다.

《왜, 둘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유교수가 물었다.

《실은 성태가... 아니, 별거 아닙니다. 그보다도 선생님.》

《왜?》

《저... 사실은... 아닙니다. 후에 아시게 될겁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영일은 유교수가 더 캐어묻기 전에 성태네가 있는쪽으로 뛰어가버렸다.

그날따라 유교수는 오후강의시간에 조금 늦어졌다. 연구실에서 시계를 보고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XX신문사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며칠전에 유교수의 수필원고를 받아가지고 간 기자였다. 어쩌다 외도라도 하는 기분으로 쓴 수필인데 기자의 말이 당장 원고를 조판에 넘기자니 원고용지 한매분량을 줄여달라고 한다는것이였다.

그것은 유교수가 제일 질색하는 일이었다.

못줄인다, 안줄이면 발표하기 곤란하다, 그럼 원고를 돌려달라 하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기자가 양보해서 전문을 그대로 내기로 락착짓고보니 통화가 5분이나 걸렸다.

그만큼 강의시간이 늦어진셈이다.

유교수는 급한 걸음으로 강의실에 갔다.

그런데 강의실문을 막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성태가 나왔다. 옆구리에 두툼한 무슨 인쇄물뭉치 같은것을 끼고있었다. 몹시 격앙된 표정이였다.

《내 좀 늦었네. ... 군은 어디루 가는거지?》

성태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저희들의 심정을 이해해주시리라 믿고 안계시는 사이에 배포했습니다.》

유교수는 그게 무슨 소린지 얼른 알아듣지 못했다.

성태는 복도로 급히 걸어갔다.

유인물을 강의실에 배포했다는 소리가 아닐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떠올라 유교수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보았다.

학생들이 저마다 무슨 종이장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모두들 심각한 얼굴에 눈빛이 반짝거렸다. 문소리에 유교수를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그 종이장에 시선을 떨구었다.

틀림없는 유인물이다, 권군이 나눠주고 간거다 하는 생각에 유교수는 전기에 닿은것처럼 온몸에 짜릿한 긴장을 느꼈다.

교탁우에도 유인물이 한장 놓여있었다. 유교수는 얼른 그것을 집어들었다.

열혈학우들에게 고향

예로부터 정의에 살고 불의에 항거하는것이 대학정신이다. 력사의 과제를 외면한 지성이 거짓지성이라는것도 우리는 알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침묵을 지속시키고있는가! 저 무등산기슭에 묻힌 영령들의 피타는 절규를 벌써 잊었던 말인가!

광주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것을 모를수 없는 우리가 아닌가!

5월의 금남로는 우리 대학인모두의 랑심과 열정이 불타오른 광장이였고 광주의 피바다는 이 땅을 피로 얼룩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만민에게 깨우쳐준 력사의 심판장이였다.

학우들이여!

침묵을 깨자! 너무나 오랜 이 침묵을 깨고 반미반파쑈구국항전의 노래를 부르자!

력사의 방향타를 돌려 자유와 민주, 민족자주의 새로운 행진을 개시하자!

굴욕속에서 절대로 살수 없는 우리 대학인들이 아닌가.

## 불굴의 대학정신 만세!

유교수는 단숨에 끝까지 다 읽었다. 매개 문단속에서 성태의 피타는 웨침을 들으며 읽었다. 아니, 그것은 권성태 혼자만의 웨침이라기보다 정의에 살고 불의에 항거하는 대학정신의 함성이다!

자기의 목소리도 그 함성속에 섞고싶었다. 유인물의 짧은 글속에 미쳐 다 담지 못한 권성태의 뜻과 지향을 자기가 대신해서 말하고싶었다. 그것으로 우울한 침묵에 잠긴 대학가에 불을 지피려는 제자를 돕고싶었다.

그러나 막상 말문을 열려는 순간 세차게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권성태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다급한 생각이였다.

얼마나 많은 열혈학생들이 광주와 서울, 부산과 인천에서 살해되고 체포되어갔는가. 래일의 항전을 위해 정의의 기수들을 더는 폭압자들에게 체포되게 해서는 안된다. 하물며 권성태야 수백수천명의 학우들을 항쟁대오에 불러내고 그들을 자유의 광장에 인도해갈 학생이 아닌가. 그렇다. 지금은 무엇보다 권성태학생을 보호할 실제적대책이 시급한 시각이다. 권군이 이 강의실에 오기 전에 딴 강의실에 먼저 들렸을수 있다. 지금은 또 어느 강의실에 가서 유인물을 나눠줄것이다. 대학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안기부 요원들이 벌써부터 권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권총을 뽑아 들고있을지도 모른다.

마음이 다급해진 유교수는 재빨리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유인물에만 정신을 팔고있었다. 두번, 세번 읽어보는것같았다.

안영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것이 유교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가 있으면 얼른 귀뜸해주련만...

유교수는 헛기침을 두어번 했다. 몇몇 학생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모두가 권성태나 안영일과 같은 저항정신을 지니고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교수는 그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권군이 지금 어디 가있지? 그쪽에서는 별일없을가?》

한 학생이 그제서야 성태의 신변이 걱정되듯 화닥닥 놀라며 뛰여일어났다.

《가자! 성태 보호해주자!》

그 학생이 웨치자 모두들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서로 앞을 다투며 복도로 뛰어나갔다. 순식간에 강의실이 텅 비어버렸다.

유교수는 두손으로 교탁을 짚고 잠시 서있었다.

얼마나 장한 학생들이냐! 대학의 지성과 슬기는 죽지 않았다는, 불사신과도 같이 살아서 자유와 민주, 민족자주의 새벽을 기어이 밝혀오리라는 확신에 가슴이 뜨겁게 부풀어올랐다.

복도끝쪽에서 학생들이 와— 와— 떠드는 소리가 울린것은 잠시후의 일이다.

유교수는 급히 뛰어나갔다.

3호청사와 연결된 복도끝쪽에 수십명의 학생들이 몰려서서 떠들고있었다. 그쪽 문을 봉쇄하고 경찰이나 안기부 요원들의 발을 묶어놓고있는것 같았다.

《유선생.》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김익규교수였다.

《선생 강의실에도 들렀던가요?》

유교수가 물었다.

김교수는 안주머니에서 유인물을 꺼내보였다.

《나도 한장 받았습시다. 그런데 저기서는 왜들 저리는거지요?》

《권성태학생을 잡으러 쫓아가지 못하게 막는거겠지요.》

《거 참! 얼음밑에서두 강물은 흐른다더니... 세상에 우리 대학생들만큼 슬기로운 학생들이 드물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두 어지러운 세상에 실망하다가도 학생들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복도끝의 정황을 지켜보고있는데 교정에서 또 와— 와— 떠드는 소리가 울렸다. 그것도 한곳이 아니라 여러곳에서 울렸다.

《아니, 권군이 그새 벌써 저기 어디에 나간게 아닙니까?》

김교수가 이렇게 묻는데 영일이 슬그머니 두 교수곁에 다가섰다.

《어떻게 된 일인가? 권군은 어찌자구 혼자 다니나?》

유교수가 그에게 다급히 물었다.

《걱정마십시오. 여기저기서 저렇게 소동을 피우면서 정보원들의 손발을 잡아두고있으니까요.》

영일은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대답했다. 모든것을 미리 다 예견하고 필요한 대책까지 세워둔 다음에 권성태가 나선것같았다.

그것이 성태와 영일 두 학생만의 기획이 아니란것도 쉬이 짐작할수 있었다.

《제 그럼 가보겠습니다.》

영일은 두 교수에게 인사하고 교정에 나가는 현관문쪽으로 뛰어갔다.

《잠깐만, 안군!》

문득 생각나는것이 있어서 유교수가 그를 부르며 쫓아가서 귀속말을 했다.

《판게 아니구, 권군 말이네... 당분간 피신해있어야 하겠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조심하라구 이르게. 그리구... 혹시 거처가 불편하거든 우리 집에 와있어두 좋네. 연락이 되겠지?》

영일의 얼굴에 희열이 확 피어났다. 유교수의 말이 너무 고마워 그만 흥분한것같았다.

그는 한참만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말씀을 성태에게 전하겠습니다.》

현관쪽에서 누군지 영일의 이름을 큰소리로 불렀다.

《어서 가보게.》

《선생님, 그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영일이 뛰어간 다음에도 유교수는 한참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복도끝의 학생들과 교정의 학생들은 좀체로 흠어질 기미가 없이 계속 떠돌고있었다. 학생수가 점점 불어났다. 복도를 분주히 뛰어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 제 2 장

### 1

고명찬일병이 병구를 찾아온것은 그들이 야외교련장에서 만난지 근 한 달이 지난 후였다.

그동안 병구는 2대대 7중대에 여러번 내려갔지만 고일병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일부러 찾지도 않았다.

그에게 전해주어야 할 책꾸레미가 벽장속에 그냥 있었지만 그것을 갖다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모포를 내다 팔아 술이나 사마시는 그런 작자와 다시 상종하고싶지 않았고 책꾸레미야 제가 어렵히 와서 찾아가지 않으리 하고 생각했다.

술에 환장해서 모포를 내다 팔아먹는 주제에 책은 가져다 무얼 하라싶은 생각도 들었다. 한달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것으로 보아 책 같은것에 통 관심이 없는 녀석인것같았다.

그런 위인에게 일부러 책자들을 보내고 잘 봐주라는 당부까지 한 때부도 눈이 멀어서 그러는것이 아닐가싶었다.

고일병이 찾아온 그날 병구는 15시경에 부대에서 나와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일요일이지만 이것저것 잡무처리를 할게 있어서 오전시간을 부대에서 보냈던것이다.

고일병은 그의 하숙집앞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아마 자기가 집에 없다는 민씨의 말을 듣고 돌아갈가, 기다려볼가 하며 망설이고있는것같았다.

그는 병구를 보자 정식 보고대신 민간인처럼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다. 군화뒤축도 소리나게 딱 부딪치게 하지 않았다.

《응, 자넹가.》

병구는 부지중 《너》대신 《자네》소리가 나갔다.

《전번에 말씀하신 그 책을 가지러 왔습니다.》

고일병은 몸가짐과 말투가 제법 자연스러웠다. 여느 사병들은 장교들앞에 나서기만 하면 잘못된 일이 없어도 공연히 주눅이 들어 찢찢매는데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

병구는 자기앞에서 사병들이 찢찢매는것을 바라지 않지만 고일병의 그 자연스러운 몸가짐과 말투가 왜 그런지 눈에 거슬렸다. 그렇다고 꾸짖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들어오게.》

어차피 주어버려야 할 책꾸레미이니 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전번 일요일에 시간내어 오려고 했는데 외출을 허락해주지 않아서 못 왔습니다.》

방에 들어서면서 고일병이 말했다.

그것은 병구도 알고있는 일이었다. 사단장의 순시가 래일부터 실시된다, 모레 내려간다 하면서 자꾸 연기되는 바람에 지종만대위가 일요일외출까지 금지시키면서 반복청소와 반복암송, 반복훈련을 시킨것이라.

그러나 오늘은 무슨 생각으로 외출을 허가했는지 모를 일이다.

《잠간 앉았다 가게. 책 찾으러 왔다고 했는데… 그래, 그것도 술값으로 날려보낼 작정인가?》

선자리에서 돌려보내기가 안돼서 자리를 권하며 이렇게 물었다.

《꼭 보고싶어서 유경훈교수님께 부탁드린 책들입니다.》

《유교수가 내 매형이란건 전로부터 알고있었나?》

《예.》

그런 경우 어느 사병이라면 술병이라도 들고 와서 제가 아무개 교수님의 제자였는데 잘 봐주십시오 하고 매달린다.

그런다고 남다르게 특별히 봐줄 병구가 아니다. 언제나 공사의 구별이 분명한 병구였다. 인적관계나 혹은 안면으로 인맥이 닿는 사람일수록 더 성실히 군무할것을 바라며 그가 원리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남보다 더 엄격히 꾸짖을것이다. 고일병이 모포 두장을 팔아먹었다는 말에 그토록 화를 낸것도 그가 바로 매부의 제자이기때문이었다.

《그래, 그 가라반납은 어떻게 된 일이지?》

이왕 만남김에 호되게 꾸짖어줄셈으로 물었다.

고일병은 그 이야기를 다시하기가 싫은듯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왜, 인제야 창피한 생각이 드나?》

《대위님, 실은 그 모포 두장은 애당초 제가 공급받지도 않은겁니다.》  
병구는 문득 마음에 짚이는것이 있었다.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장구공급표엔 저에게 공급된것으로 기재해놓고 현품은 판매 빼돌린겁니다.》

새어나갔다는 말이였다.

흔히 공급계나 부소대장들이 그런짓을 많이 한다. 군수참모들이 련대장에게 퇴물을 섬기면서 짐차로 군수품을 류출시킨다면 공급계와 부소대장들은 소대장이나 중대장에게 상납금을 바치면서 줌도적질을 하는것이다.

고일병의 표정이나 말투로 미루어보아 거짓말을 하는것같지 않았다.

《그럼 왜 그날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나?》

고일병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빈손을 꺼냈다.

《담배없나? 이걸 피게.》

그의 무릎앞으로 담배갑을 밀어주었다.

《감사합니다.》

고일병은 담배를 붙여물고 두어모금 빨았다.

《저의 모포 두장을 내다 팔아먹은 장본인은 우리 소대 부소대장입니다. 그리곤 이번에 사단장님 초도순시를 앞두고 장구검열도 한다니까 바빠났지요. 저처럼 유령공급받은 사람이 네명이나 되는데 다 가라반납하라는겁니다.》

고일병은 또 담배를 한모금 빨아서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그래, 순순히 응했나?》

《세명은 얼른 응했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소대전원에 대한 <얼차렷교육>을 가하는데 표면상리유는 기강이 해이됐다는겁니다. 그것이 절 굴복시키자는 수작이란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전 소대전원이 시시하게 모포 두장때문에 집단기합을 당하는걸 차마 볼수 없었습니다. 부소대장도 바로 그 점을 노린것입니다.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대위님도 제 립장에 놓였다면 별수없었을겁니다.》

《부소대장에게 굴복했다는건가?》

《계속 거부하면 또 집단기합을 당할것같아서 가라반납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야외교련장에서 내가 물었을 때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았나.》

《아닙니다. 만약 사실대로 대답하면 부소대장이 후에 또 집단기합으로 보복했을겁니다.》

그렇듯한 말이였다. 동료들을 위해 개인적피해를 감수하는 그의 품성을



치하해줄만도 했다. 그러한 사병도 많지는 않은것이다.

그러나 병구는 그의 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부정에 굴종하고 타협하는건 곧 새 부정을 조장시키는 행위로 되는 거네.》

고일병은 불의에 급소를 찔린 사람처럼 미간을 찌프렸다.

《황포를 부리면 굴복시킬수 있다는걸 알기때문에 립중사 같은자들이 그런 부정을 앞으로도 계속 저지를거네. 알겠나, 무슨 말인지?》

고일병은 어깨를 낮추며 한숨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그렇지만인가?》

《대위님.》

《어서 말하게.》

《제가 본의아니게 조장시켰다는 그런 부정은 극히 사말적인 사항입니다. 또 그런 부정사례야 꼽으려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다.》

《대관절 무슨 말 하려는건가?》

《이왕 부정이야기를 할바에야 근원적인 부정부터 파헤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새 광주작전얘기가...》

병구는 신경질적인 손사래로 그의 말을 막았다.

《학사사병》인 그가 광주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리라는것은 뻔했다. 병구자신이 그에 대해 비판하는 립장이지만 그렇다고 일개 사병의 말에 맞장구칠수 없는 일이고 자신의 량심을 속이며 그의 말을 부정할수도 없었다.

그러나 고일병은 아무리 말려도 하고싶은 말을 다하기로 결심한것같았다. 눈섭을 꿈틀거리며 약간 치뜨는 눈빛이 만만치 않았다.

지금까지 한병구대위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본적이 없지만 그를 일정하게 호의적으로 생각해온 고명찬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한병구대위는 어느 장교들처럼 부하들을 조폭하게 다루지 않는 장교라고 했다. 그리고 원리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부정과 타협할줄 모르는 기질이라고 했다.

그러한 소문이 고명찬의 호감을 자아냈다. 부하들을 조폭하게 다루지 않는다는것은 그의 인간적품위의 높이를 보여주는것이고 원리원칙을 엄격히 지킨다는것은 그의 정직성의 표현이며 또 부정에 타협하지 않는것

은 그가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는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장교가 드물었다.

더우기 유경훈교수의 처남이라니까 매부의 영향도 일정하게 받지 않았을가싶었다.

야외교련장에서 꾸중을 들었다 해서 주저할것이 없었다. 되려 자기의 대답을 액면 그대로 믿은 그에게 반발심이 생겼고 방금 들은 부정에 굴종하고 타협하는것이 또 새로운 부정을 조장시키는 행위라는 그의 말에서 그도 사물의 심층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는 인상까지 받고보니 기탄없는 이야기를 하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고명찬은 담배불을 끄고 말했다.

《광주사건이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준건 사실입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실례에 불과합니다. 근원적인 부정은 우리 <국군>이 미8군사령부의 통수지휘권에 매여있는겁니다. 일체 작전업무를 미군측의 사전승인과 지휘에 따라 실시하는것이 우리 <국군>의 현실이 아닙니까.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하도록 한것도 미8군사령부였습시다. 계엄군부대들에 대한 지휘권을 일시 넘겨준다는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수법으로 광주작전을 사촉한겁니다. 계엄군부대들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인수하고 대학살작전을 조직지휘한자들이 미국의 철저한 주구라는 사실도 뻔한거구요.》

고명찬은 도중에서 말이 잘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듯이 강경하고 성급한 어조로 뒤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히 군의 수치에 머물지 않는 민족적수치입니다. 안으로는 그렇게 동족살륙작전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국군>이 밖으로는 또 무슨 범죄행위를 하는겁니까? 말끝마다 <국토방위초소수호>라 하지만 도대체 누구로부터의 <국토수호>입니까. <국토방위>란 허위에 불과합니다. 대위님도 작전장교니까 북의 인민군의 배비상태가 공격이 아니라 방어전략에 기초하고있다는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겁니다. 그대신 우리 <국군>의 병력배치나 화력장비며 빈번히 실시하는 각종 훈련들은 다 북진전쟁을 위한것이 아닙니까.》

전달에 성태에게서 들은 말과 비슷한 주장이었다. 성태가 한두마디로 요약해서 한 말을 고명찬은 구체적으로 전개했다.

결국 같은 소리이지만 그것이 병구에게 준 충격은 각이했다. 성태의 말을 들은 그날은 반《정부》계렬의 학생의 악의에 찬 험담으로 간주하고 그

만 입이 쓰거워 일부러 반박을 가하지 않았다. 상대가 지혜의 4촌오빠라는 사정도 작용했다. 반박을 가해야 성태가 반론을 펼것이 뻔하고 그러면 자기 입에서 더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몹시 다투기마련인데 그러지 않아도 지혜문제로 마찰이 생긴 자리에서 그와 다툼질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지혜와의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것같아 애써 참았던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달랐다. 상대가 일개 사병이고 부하이다. 성태가 자기의 생활권밖에 있는 대학생이라면 고일병은 한련대안에 있는 사병인것만큼 응당 호되게 꾸짖어주어야 한다. 사병들이 정신무장을 똑바로 하도록 단속하는것도 장교의 중요임무의 하나인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고일병을 꾸짖을 대신 되려 자기가 한대 얻어맞은것같은 느낌이 드니 말이다.

목은 상처에 자극을 받은듯싶기도 했다. 아니, 고일병이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생각에 그만 어리둥절해졌다고 하는편이 정확할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있지도 않은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을 방지한다는 구실밑에 북진전쟁준비를 하는것이 사실이고 《국군》이 미8군사령관의 통수지휘를 받는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그럴수 있는 일로 여긴 자신의 무딘 현실감각에 스스로 어리둥절해 진것이였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발견이였다.

《그것은 다 우리 군인들이 자의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본인은 미국입니다. 백악관과 미국방성이 70만 <국군>을 미군의 용병으로 만들어놓고 파쑈폭군의 하수인이 되어 안팎으로 자기 동족을 살해하는 집단으로 되게 한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국군>의 근원적부정이 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잎도 꽃도 다 썩고 병들기마련 아닙니까. 가라반납이니 뭐니 하는 자질구레한 부정비리사실들도 그 근원적부정에서 파생되는겁니다.》

《그만해!》

병구는 갑자기 짹 소리질렀다.

마음속에 그 어떤 균열이 생기고 뭔가 허물어지고 뒤죽박죽이 되는것 같았다. 고일병의 말을 계속 듣고있다간 그 혼잡이 견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를상싶었다. 진실이건 뭐건 그것은 장교복을 걸치고있는 사람이 들어서 안되는 소리였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따위로 체제비판하는거 아냐! 정신무장 잘해야 되겠어!》

장교의 립장을 의식하며 충고를 주었다.

고명찬은 실눈을 지으며 랭소를 머금었다.

《군인은 옳고그른것을 판별하는 권리도 포기해야 됩니까?》

《자네의 그 판별기준은 군의 원리원칙에 위반되는거야.》

《어떤 원리원칙 말입니까?》

《군인수칙 있잖아!》

《그건 기계적명령집행도구가 되라는 요겁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거야.》

《그 명령이 부당한것인데두요?》

《시비질말구 무조건 집행하는게 군인의 본분이야.》

《대위님.》

《됐어, 그만해.》

《제가 말하고싶은건...》

《그만두라지 않아!》

병구는 버럭 성을 냈다. 지금까지 사병들과 무슨 논쟁을 해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제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병을 대해본적도 없었다. 시행상착오를 저지른 사병들과 맞다든 경우 한두마디 충고를 하면 곧 접수하고 시정했다. 고일병처럼 그렇게 완강히 자기를 주장하고 었서는 사병은 처음이었다.

그것이 병구의 부아를 돋구었다. 고일병의 그 무례한 고집이 불쾌했다. 사병이 장교의 지적에 반박하는것은 결코 허용될수 없는 실례였다.

동시에 일개 사병의 인식착오를 제격 시정해주지 못하고 짹짹 소리나 지르게 된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났다. 애당초 그의 말에 공감한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그것은 장교의 신념과 공지가 한순간이나마 동요한데서 시작된것이였다. 그렇게 동요했던 자기자신을 다잡으면서 병구는 말했다.

《고일병, 똑똑히 알아뒀. 군은 대학과 다른 곳이야! 원리원칙에 위반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 가차없는 징벌을 받는 곳이 군대란 말야!》

그렇다고 고일병에게 무슨 처벌을 가할 생각까지는 나지 않았다. 말끝마다 시비를 걸며 었서는것이 패썹하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게 미운은 가지 않았다.

고명찬은 어깨를 떨구며 후우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더 말해야 소용

없다고 단념하는것같았다.

병구는 벽장에서 책꾸레미를 꺼내주었다.

고명찬은 그것을 들고 일어서면서 말했다.

《오늘 실례가 많았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리라 믿고 기탄없이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릴것이 있습니다.》

《뭔데?》

《앞으로 우리 중대에 와서 절 만나도 사적인 말쑈는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건 왜?》

《전날 그 야외교련장에서 대위님이 사적인 말쑈 몇마디 하신것이 우리 부소대장의 태도를 일변시켰습니다. 전엔 사사건건 트집잡아 못살게 굴던 것이 그날부터 여간 친절해지지 않았습니까.》

병구는 그날 림중사의 가선진 눈가에 스치던 그 능청스러운 미소를 떠올려보았다.

《대위님, 알겠습니다. 녀려 폭 놓으십시오.》 하던 녀석의 말소리도 귀전에 되살아났다.

너절한 인간일수록 부하를 조폭하게 다루는 반면에 상부앞에서는 비굴해지는 법이다. 강자의 그림자만 얼씬거리려도 찢절맨다.

고일병에 대해서도 런던본부 장교의 배경이 생기리라고 지레짐작해서 친절을 베풀려고 했을것이다.

《대위님의 <뺨>덕분으로 편안해진다면 저로선 그걸 수치로 여길수밖에 없습니다. <뺨>놀음도 우리 대학생들이 반대한 현 체제가 안고있는 부정사항의 하나입니다.》

만만치 않은 친군데, 너무 당돌해.

병구는 새삼 놀라며 그를 뺨히 쳐다보았다.

시원히 넓게 퍼진 이마며 철새없이 반짝이는 눈빛, 곧추 일어난 코날 그리고 앞으로 내밀사한 아래턱...

그 모든 세부마다에 리지적인 성격으로 다져진 자존심이 뿌리를 박고 있는것같았다.

《좋아, 나두 원리원칙 위반하면서 누구를 사적으로 특별히 봐줄 생각 없는거야.》

《또 원리원칙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고명찬이 문꺼로 가다가 돌아섰다.

《사단장님 순시가 모레 있다는걸 알지?》

《예.》

《이번엔 연기 안될거야. 각개전투동작 같은것도 시켜볼수 있어. 불량 평가받지 않도록 해.》

《명심하겠습니다.》

고일병이 방에서 나가자 병구는 쓰겁게 입을 다셨다. 사단장 순시소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원리원칙입니까?》 하는 고일병의 말에 반사적으로 신경이 곤두서서 그를 불리세운것이였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하는 고일병을 꾸짖을 생각은 없었다. 그보다도 고일병의 그 말이 순차적으로 뭔가 불미한 추억을 상기시켜주는것같아서 불리세웠는데 그것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공연히 순시소리를 했던것이다.

한 사병의 모습이 눈앞에 확 살아난것은 고일병이 간지 5분쯤 지난 후였다.

## 2

병구가 초임장교로 전연사단에 배속된 직후였다.

하루는 1분대의 주영섭상병이 찾아와서 특별휴가를 달라고 제기했다. 휴가서열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아직 석달은 더 있어야 된다는 대답이였다.

그런 경우 신임소대장이면 누구나 다 그러는것처럼 병구는 엄격한 어조로 서열이 되기 전에 휴가줄수 없다고 딱 잘라버렸다.

《소대장님, 집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어떻게 사정 좀 봐주십시오.》

《안돼. 저마다 집에 애로사항있다구 서열전 휴가를 늘면 어떻게 되겠어?》

후에 1분대장을 불리 주상병이야기를 했더니 전임소대장도 그가 자꾸 집사정타령을 하면서 휴가달라고 보채여 애를 먹었다고 했다.

집사정이 실지로 어떤것인지는 몰라도 전임소대장때부터 참아온것이면 앞으로 휴가서열이 될 때까지도 참을수 있을것이라고 병구는 생각했다.

어쨌든 사적애로사항때문에 서렬위반은 할수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후 주상병이 자취를 감추었다. 취침점검때까지는 분명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기상구령을 치면서 보니 그의 침상이 비어있었다.

병구는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한 다음 주변을 수색했다. 아무데도 주상병은 없었다.

한편 중대장은 소대장직무를 받자마자 도망병을 발생시켰다고 펄펄 뛰면서 별의별 쌍욕을 다 퍼부었다. 그리고는 당장 그놈의 고향에 쫓아가서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탈주병이 생기면 어디 가서든지 잡아오는것도 소대장에게 부과된 임무 중의 하나였다. 주상병이 집사정타령을 한것으로 미루어보아 제 집에 갇으리라고 짐작되었다.

병구는 그날로 사병 한명을 데리고 부대를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 충청북도 영동읍에 있는 주상병의 집문을 두드렸다. 주상병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었다.

주상병은 없고 그의 어머니와 형이 자리를 펴고 누워있었다. 어머니는 여러해전부터 자리보전을 하고있는 간경변환자이고 형은 석달전 공사판에서 허리를 다쳐 누워있는것이라고 했다.

단칸짜리 좁은 방안에 병과 가난의 악취가 연기처럼 짙 차있었다.

주상병은 날이 다 어두워서야 땀과 먼지를 뒤집어쓴 얼굴로 나타났다. 그는 소대장이 온것을 보고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무겁게 한숨만 지었다.

어디 가있다가 인제야 오느냐고 물었더니 시장에서 샀짐을 저나르다가 온다고 했다. 라면 몇봉지가 그의 손에 들려있었다. 물어보나마나 그날 번 돈으로 산것임에 틀림없었다.

《소대장님, 일이 이왕 이렇게 된바에야 어떡하겠습니까. 집꼴이 이래서 특명휴가소리도 한겁니다만... 한 보름만 말미주십시오. 량식거리라도 좀 장만해두고 귀대하겠습니다.》

주상병이 한숨어린 소리로 프직프직 말했다.

병구는 불현듯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가 불쌍하고 그의 어머니와 형을 어떻게 도와줄 방도가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아침에 병구에게 문을 열어준 주상병의 열대여섯살 돼보이는 동생도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한 물골이었다.

병구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보았다. 전달봉급을 탄 돈이 그대로 있었다. 그것을 다 털어내어 주상병에게 주었다.

《이걸로 량식거리 사다두게. 그리고 래일 아침 나하구 같이 귀대하세.》

다른 방도가 없었다. 가정형편이 딱하다 해서 탈주병을 그냥 집에 남겨둘수 없었다. 요행 한가지 출로가 떠올랐다.

《의가사(가정사)제대대상이 될것같으니까 귀대하면 곧 수속해주겠네.》

주상병이 시커먼 눈으로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소대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대하자마자 헌병들이 달려들어 주상병을 체포했다.

병구가 주상병의 딱한 가정사정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헌병들은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되려 탈주병을 두둔한다고 욕설만 퍼부었다.

그로부터 닷새후 주상병은 헌병대영창에서 또다시 탈주하였다가 추격에 걸려 헌병들과 격투끝에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두차례나 도주한 죄로 군사재판을 받고 남한산성륙군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주상병사건은 병구의 장교생활에서 겪은 첫 시련이었다.

그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으로 해서 한동안 무거운 자책감을 느꼈다.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한 자신의 경솔성도 뉘우쳐졌다.

남한산성에서 아까운 청춘을 썩이고있을 주상병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졌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어머니와 형의 모습도 무시로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그러나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주상병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질수는 없었다. 두번씩이나 도주한 그 행위는 어쨌든 잘못이였고 도주병을 처벌하는것도 피할수 없는 군기의 요구였다. 개인적애로사항을 가지고 군기위반행위를 용서할수 없었다. 사병, 장교 할것없이 누구에게나 애로사항이 있기마련이다. 그것을 다 뒤로 미루고 견디면서 군무에 성실히 림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곧 군인의 본분이다.

주상병의 경우 그 본분을 망각한것이 잘못이었다고 병구는 생각했다. 3사때부터 모든 사항을 오직 원리원칙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하도록 교육 받았고 또한 자신도 그 원리원칙을 엄수하기로 결심한 병구로서는 결코 다르게 생각할수 없었다.

그렇다고 인정세계에 영 담을 쌓으려고 한것은 아니었다. 그도 원래는



인정에 무른 사람이였다. 고등학교때까지만 해도 학급에서 누가 병으로 결석이라도 하면 빠짐없이 문병을 다녔다. 체질이 약해서 왈패스러운 아이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학우를 누구보다도 잘 감싸주고 도와준것도 병구였다. 약자를 도와주고 강자에게 었서는 그의 성격은 이미 그 시절부터 굳어진것이였다.

입대후에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주상병사건이 있는 다음부터 사병들의 애로사항을 미리미리 알려고 노력했고 체질이 약해서 산악극복강행군이나 유격훈련 같은데서 뒤떨어지는 부하들을 여느 장교들처럼 기함으로 때려몰 대신 기운을 내고 신심을 가지도록 부추겨주며 도와주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원리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준것이였다. 원리원칙위반건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가 남달리 부하들의 애로사항에 관심하고 약자들을 잘 도와준것도 실상은 그들이 그 애로사항이나 부족점때문에 원리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나니 자연 원리원칙에 엄격한 아무개라는 소문까지 나게 되였다. 병구는 그런 소문에 대해 별로 좋게도 나쁘게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명찬일병이 《또 원리원칙입니까?》라고 한 그 말에 왜 반사적으로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고 주상병사건을 상기하게 된것일까?

병구는 자신의 마음속을 가만히 응시해보았다.

그 무엇에 대한것인지 알수 없는 의혹과 불만이 마음 밑바닥에서 꿈틀거렸다.

주상병의 운명이 그후 어떻게 됐는지, 아직 남한산성에 있는지, 석방됐다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있는지 모르고있는 자기를 누가 꾸짖는듯한 생각이 들었다. 또다시 마음속에서 어떤 균열이 생기는것같기도 했다.

《원리원칙이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소리로 중얼거려보았다. 누군지 원리원칙밖에 모르는 위인이라고 자기를 비웃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종잡을수 없는 울적하고 번잡한 기분에 잠겨 줄담배만 태우고있는데 별안간 이웃집에서 고함소리가 울려왔다.

담장을 사이에 둔 이웃은 수송장교 장하진대위가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이였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 고함은 장대위의 목소리였다.

일요일이라고 오늘은 대낮부터 퍼마시고 저 주장인가.

병구는 그의 무절제에 혀를 차다가 문득 가슴을 툭 치며 떠오르는 생각에 흠칫 놀랐다.

장대위가 광주사변때 애인을 잃고 《타락장교》로 됐다는 사실이 떠올라 놀란것은 아니었다. 그가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자기 애인을 죽인 그 광주작전을 얼마나 저주하리라는것도 이미부터 짐작한 일이었다.

방금 병구를 놀라게 한것은 광주작전도 미8군사령부의 사전동의를 받은 《국군》상층부의 명령에 의해 실시된것이라는 사실이 새삼 상기되었기때문이다.

사실이 그럴진대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살아야 할 군인들은 광주작전명령에 대해서도 시비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 하달된것이 아니고 타부대군인들이 실시한것이라 해도 군의 일체명령을 다 정당한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도 군인들이 지켜야 할 원리원칙이다.

장하진대위도 제외일수 없다. 어쨌든 장교가 아닌가. 장교이기때문에 사병들보다 원리원칙을 더 충실히 지켜야 할것이다. 그러나 광주참변에서 애인을 잃은 그가 광주작전명령이 응당한것이었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자기 애인을 죽인 그 명령을 피가 있고 심장이 있는 장대위가 어떻게 저주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원리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 명령을 저주하지 않는다면... 아니, 결코 그럴수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병구는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머리속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것같았다. 머리가 멍했다. 방안에 있기가 갑갑했다. 밖에 나가서 찬바람이라도 쐬며 생각을 정리해보고싶었다.

그래 외투를 주어입고 방에서 나가는데 장하진의 어머니 한씨가 대문간에 들어섰다.

《아이구, 마침 계시는군요.》

외아들의 주장에 곁눈어서 얼굴이 쪼글쪼글해진 한씨는 병구를 보고 대청마루앞으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왜 그러십니까?》

《에이구, 왜가 뭐유. 얼른 가서 저 주장 좀 말려주시우.》

밖에 나오니 장하진의 고함소리가 더 푹푹히 들렸다.

《너두 사람이냐?! 이 새끼 죽어봐라! 죽어버릴테다!》

누구와 다투며 주먹질을 하는것같았다.

《저리다 사람 죽이겠수!》

한씨가 사색이 돼서 재촉했다.

《누구하구 저러는겁니까?》

병구가 급히 프락에 내려서며 물었다.

《웬 운전병이라우.》

뛰어가보니 문하사였다.

장하진이 고개를 푹 숙이고있는 그의 뺨을 후려갈기고있었다.

병구는 장대위의 손부터 잡아챘다.

《이게 무슨짓인가?!》

《놔, 놓으래두!》

병구는 장하진을 방구석으로 떠밀어가며 문하사에게 소리쳤다.

《넌 내 하숙집에 가있어!》

문하사가 밖으로 나가자 장하진은 방구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병구는 방안을 열른 돌아보았다. 술상우의 안주접시가 두개나 뒤집혀  
졌고 빈 술병은 방바닥에 텅굴어있었다.

장하진은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씩씩거렸다.

《창피하지두 않아?! 사병을 제 집에서 구타하구, 영?》

병구의 꾸중에 그가 사납게 손을 뻗 내저었다.

《시끄러워! 가게 가! 다 더러운 놈들이야! 썩 꺼져버리란 말야!》

방바닥에 텅굴어있는 빈 병은 독한 위스키병이었다.

그 술 한병을 혼자 다 마셨는데도 장하진은 얼굴에 피기 하나 없고  
눈만 벌겋게 충혈되어있었다.

병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밖으로 나갔다.

한씨가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있었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방 치우구 자리 깔아주십시오. 한잠 자구나면  
제정신이 들겠지요.》

《이거 안됐수.》

병구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문하사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그  
는 전혀 취한 얼굴이 아니었다.

《앗게. 대관절 무슨 일인가?》

《죄송합니다.》

문하사는 엉거주춤 앉으며 뒤통리를 긁적거렸다.

《편히 앉게. 차를 망가뜨려먹었나?》

《차라리 그런 사고나 쳤으면 좋게요.》

《그럼 뭔가? 그냥 술주정은 아닐게구.》

《저도 장대위님이 그렇게 펄펄 뿔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큰 실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구 통사정하려고 없는 돈 써서 비싼 위스키 사갖구 갔는데 글썄… 술 한병 다 마시구 엉망으로 취했을 때 말을 꺼낸것두 잘못이었지요.》

《무슨 실수 저질렀게?》

《허바닥 한번 잘못 놀려서 코를 꺾었지요.》

더 다우쳐묻지 않아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할것같아서 병구는 잠깐 기다렸다.

《작년 망년회날에 있는 일입니다.》

문하사는 이렇게 허두를 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운전병들끼리 모여서 한잔했죠. 모두 얼근해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안인조하사란 놈이… 우리 수송과에 그런 놈 있습니다. 그 자식이 자꾸 메스꺼운 소리 하잖습니까. 뭐, <제5공화국>출범이후 고도성장해서 잘 먹구 잘 입게 됐다나요. 그까짓 허튼소리 한쪽귀로 듣구 한쪽귀로 흘려버려두 되는건데 저두 입이 험한 놈이라 한마디 했죠. 야, 당췌은 소리 작작해! 휴가때 고향 가보니 빗더미에 놀려 죽겠다구 아우성이더라, 광주사람들을 무더기루 죽이구 출범한 <제5공화국>이 가면 얼마나 가겠다구 그따위 알랑방귀냐구 싸졌지요. 근데 설 죄자마자 보안대에서 오라지 않겠습니까. 아차, 안하사 그 새끼가 고자질했구나 하구 짐작했지요.》

《그래, 보안대에 갔나?》

병구가 물었다.

《호랑이아가리에 대가리 들이미는 꼴 되겠는데 어떻게 선뜻 가겠습니까. 무슨 수가 없을까 해서 부지런히 궁리해봤더니 우리 련대 군수참모님이 보안대 남소령님과 딱친구라는 생각이 피똥 떠오르지 뭇니까. 그 즉시로 군수참모님한테 찾아가서 손이야 발이야 빌었죠. 남소령님한테 말씀 좀 잘해서 살려달라구요.》

《물론 빈손으루 간거야 아니겠지?》

《허바닥을 두손에 받쳐들구 갔습니다.》

《건 또 무슨 소린가?》

《허바닥이 사고친거니까 그 허바닥으루 수습해보려구 했습죠, 말루 슬쩍 미끼를 던졌다 이겁니다.》

《어떤 미끼 말인가?》

병구는 은근히 호기심이 동해 그의 뒤말을 재촉했다.

《군수참모님이 찍하면 서울 다닌다는거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용차가 없어서 매번 수송장교님한테 제발제발 사정해서 대기차 얻어타지 않으면 비싼 요금 물구 택시를 리용하죠. 그래서 요다음부터 제가 모는 대기차를 전용차처럼 리용해주십시오 했죠.》

《그대신 남소령에게 말 좀 잘해달라구 부탁했다 그거지, 허대위가 좋아하던가?》

《뺨만 실컷 얻어맞구 쫓겨났습니다.》

《허대위한테 초벌매를 맞구 보안대에 갔겠군. 보안대에선 남소령이 취조하던가?》

《돼지같이 생긴 중사녀석한테 걸렸습시다. 지독하게 손이 매운 놈이더군요. 묻는것도 없이 각목을 휘둘러대는데 꼭 개잡듯하지 뭇니까. 30분도 못견디구 까무러쳤지요. 얼마후 무슨 주사인지 맞구 깨나보니까 남소령이 그 중사녀석한테 뭐라 귀속말을 하구 나가지 않겠습니까. 더 지독하게 다루라는 명령준거다 하구 짐작하구 눈을 딱 감구있었죠. 근데 웬걸요. 수건 던져주면서 얼굴이랑 닦으라 하더니 남소령방에 데리구 가는겁니다. 예감이 좀 이상하더군요. 이래봐두 제가 눈치 하나는 빠르거든요. 아니나다를가 남소령이 하는 말이 방금 허동팔대위한테서 널 잘 봐달라는 전화받았다, 너 허대위 같은 장교 아는걸 최고행복으로 여기라 이러면서 나가라지 않겠습니까.》

《허대위가 자네 차 리용할 생각이 났던게로군.》

문하사는 흥 하고 코웃음부터 쳤다.

《이쪽에서 하나 하면 둘 하는 사람인데두요. 내 원, 더러워서...》

《왜?》

《시시한 심부름시키더라 이겁니다.》

《무슨 심부름인데?》

문하사는 아무도 엿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목소리를 낮추었다.

《도둑질심부름이지 뭐겠습니까.》

《군수품을 빼돌리는 그 일 말인가?》

《예, 그걸 짐차루 서울장사군한테 날라다주라는겁니다. 짐차야 우리 수송과에 많으니까 아무거나 끌구 가면 되지만 저라구 왜 량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코를 꺾었으니 별수 있어야죠. 군수참모님이 매번 그런 심부름시킬 때마다 뭐라구 하는지 압니까? 남소령님이 너의 안부 묻더라, 이러는겁니다. 뻔한 수작이죠, 말 안들으면 또 보안대 호출받게 된다는 공갈이죠. 우리 련대 수송과 운전병노릇을 하느한 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것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사단으로 전속시켜달라는 부탁하려구 술 한병 사들구 수송장교님 찾아간겁니다.》

《장대위한테 모든걸 솔직히 다 이야기했나?》

《이야기하잖구요. 얼른 말문이 열리지 않아 술 한병이 거의다 없어질 때에야 말했더니 아 글썄, 그따위 더러운 심부름하는 네놈두 사람새끼나 하면서 막 때리지 뭘니까. 죄지은 놈이라 그저 맞아주기만 했습니다만...》

문하사는 말끝을 얼버무리면서 그제야 매맞은 자리가 아파나는듯 뺨을 어루만졌다. 어지간히 맞았는지 아직도 뺨이 조금 불그스레했다.

《우리 수송장교님이 그렇게 성내시는걸 처음 봤습니다. 그바람에 실컷 매맞으면서도 왜 그런지 섭섭한 생각은 안들더군요. 참, 수송장교님이 광주에서 애인 잃었다는 얘긴 들으셨죠?》

병구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다.

그런 장교이기때문에 그따위 너절한 심부름을 하는 문하사를 때린것이라. 어쩌면 허대위와 남소령 그리고 광주작전명령하달자들을 치는 마음으로 애매한 문하사에게 손찌검질을 한것인지도 모른다.

《대위님, 제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뭘데?》

《절 어떻게 타사단에 전속시켜줄수 없겠습니까?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련대에 남아있는한 그 두사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힘들것 같습니다.》

병구는 문하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속문제는 인사장교의 관할사항이다. 인사장교에게 부탁하는것은 문하사의 직속상관인 장대위가 해야 자연스러울것이다.

《장하진대위에게 부탁했다지?》

《아까 말하잖았습니까, 말 떼자마자 뺨만 맞았다구.》

《이제 술 깨면 다시 생각해볼거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대위님도 힘 좀 써주십시오. 그러나 허대위와 남소령 몰래 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알면 인사장교님한테 압력 가해서 파투시킬겁니다. 그리고 탄 사람한테도 제발 소문내지 말아주십시오. 허대위가 뭐라구 하는줄 압니까? 남한산성귀신 되고싶지 않으면 비밀 지키라는겁니다. 허대위의 말이자 곧 남소령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참, 대위님두 조심하십시오.》

병구는 눈섭을 치켜올렸다.

《전에 언젠가 장교회의에서 허대위가 군수품을 류출시킨다고 말씀하셨다죠? 남소령도 한몫 끼어서 하는짓이겠는데 그 사람 귀에 그 말이 들어갔을게 뻔하잖습니까. 그러구 <한경옥>에서두 허대위와 다투셨다죠? 허대위를 건드렸으니 남소령을 시비한거나 같지 뭐니까. 괜히...》

이때 밖에서 민씨가 《대위님!》 하고 부르는 바람에 문하사의 말이 중단되었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프락에 지혜가 서있었다. 그도 무슨 변고가 생겨 뛰어들었는지 당혹감에 사로잡힌 얼굴이었다.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문하사가 헤덤비며 나가자 지혜가 방에 들어왔다.

성태가 다녀간 후 처음으로 찾아오는 지혜였다. 병구도 그동안 한번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제대하라, 오빠의 벼이 돼달라 하던 그의 말이 아직도 병구의 마음에 얹혀 내려가지 않았다.

결코 들어줄수 없는 요구였고 다시 만나야 또 그런 소리나 할것같아 찾아가지 않았던것이다.

그렇다고 오래간만이군, 그새 별일없었소 하는따위 소리를 하기도 멋적어서 그가 들어와 앉는것을 덤덤히 바라보고있는데 《오늘신문 보셨어요?》 하고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다.

늦은아침에 배달되어온 전날 석간신문은 책상우에 그냥 접어둔채로 있었다. 부대에서 퇴근하자마자 고명찬일병을 만났고 그를 보낸 다음에도 장대위의 술주정을 말릴라, 문하사의 이야기를 들어줄라 하면서 여태 보지 못했던것이다.

《왜, 신문에 뭐가 났소?》

《우리 오빠가… 오빠가…》

지혜는 금시 울음을 터뜨릴것같은 얼굴로 쉬 뒤말을 잊지 못했다.

《오빠가 어떻게 됐다는거요?》

《체포될것같아요.》

《체포되다니?!》

《신문에 났어요. 저도 채선생님이 대주셔서 알았어요.》

병구는 얼른 신문을 집어다 방바닥에 펼쳐놓았다.

《어디, 어디 있다는거요?》

지혜가 2면 중간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XX대학 사건기사였다.

강의실들에 반《정부》유인물이 다량출현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권성태학생은 피신했으며 경찰에서 그를 수배중이라는 내용이였다.

《아직 체포된건 아니구만.》

신문에서 눈길을 들며 병구가 말했다.

《그새 잡혔는지 몰라요. 전에도 피신했다가 이틀만에 체포됐어요. 어쩔 줄아요?》

병구는 얼른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성태가 기어이 일을 저질렀다는 불쾌한 생각이 떠오를뿐이였다. 왜 또 쓸데없는짓을 해서 동생까지 저렇게 걱정하게 만든거나 하고 탓해주고싶었다.

자기와 지혜사이를 어성버성해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성태라는 선입감의 작용도 없지 않았다.

《저녁빠스로 서울 가볼가 해요.》

지혜의 말이였다.

가봐야 소용없지 않은가. 이미 체포된 몸이라면 지혜가 간다고 석방시켜줄리가 없고 면회도 시키지 않을것이다. 어디 무사히 피신했다 해도 만나보기 어려울것이다.

《꼭 가봐야 되겠소?》

지혜가 놀란 얼굴로 그를 뵈히 쳐다보았다.

《아니 그럼… 오빠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팔짱끼고있으라 그거예요?》

《그런 뜻에서 한 말은 아니구…》

지혜의 얼굴에 실망과 원망의 빛이 짙게 깔렸다.

《알만해요, 우리 오빠가 아무렇게나 돼도 좋다는거죠? 너무해요!》

《지혜!》



《전 그래도 말로나마 걱정해주실줄 알구 찾아온거예요.》

지혜는 눈물이 글썽해진 눈으로 그를 쏘아보다가 발딱 일어났다.

《지혜!》

지혜는 들은체도 안하고 방에서 횡 나가버렸다.

그날 밤 병구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고일병과 장하진대위, 문하사 그리고 지혜의 모습이 눈앞에 차례차례로 혹은 한꺼번에 겹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나곤 했다.

그들에게서 들은 말마디들도 지척에서 요란히 울리다가 메아리처럼 사라지고 또다시 귀전에 다가오곤 했다. 그들모두가 입을 모아 자기를 비난하고 원망하는것같았다. 특히 고일병이 《또 원리원칙입니까?》 하던 그 말이 자주 들렸다. 그러고보니 그들모두가 자기의 원리원칙을 비난하는 상싶었다.

민주주의란 자유로운 토론과 구매받지 않는 의사표시의 광장이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그렇다면 고일병의 주장을 금지하는 군의 원리원칙이 과연 옳은것인가? 장하진대위가 광주시민살륙작전을 명령한 군당국에 반감을 가진다고 그것을 군의 원리원칙위반현상이라고 꾸짖어야 하는가? 문하사를 괴롭히면서 남소령과 허대위가 부정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군의 현실에 과연 무슨 원리원칙이 있는건가? 나의 경우 반《정부》유인물을 뿌리고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된 상태를 못마땅하게 여긴것도 실은 원리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장교의 립장에서 출발한 생각인데 그것이 과연 옳은것인가? 지혜를 노엽히면서까지 그 원리원칙을 끝까지 고집해야 하는가?

줄지어 떠오르는 의혹과 반문은 병구를 더욱 착잡한 혼란속으로 떠밀어넣었다.

날자가 또 연기되어 그로부터 8일후 여러명의 수원들을 거느리고 중대에 내려온 서인결사단장은 내무정돈상태만 보았다.

전술훈련이며 《정훈교육》실태는 어제 들린 판 대대에서 대체로 다 보기도 했지만 사단본부로 돌아갈 시간이 바빠서 그러는것같았다.

내무검열이란 단순하면서도 까다로운것이였다. 초보적인 정돈상태를 보는데 그칠수도 있지만 사병들의 암기사항이며 정신무장상태를 따지고들때도 있기때문이다.

사단장은 먼저 1소대 병실에 들어갔다.

병실안은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잘 정돈되어있었다. 무기고에 세워둔 《M-16》소총들이 하나같이 알른알른 윤택이 나고 비품들은 벌써 여러해 전부터 쓰는것인데도 어찌나 닳달질을 잘했는지 신품처럼 보였다. 손잡이며 문짝에도 손때묻은 자리가 하나 없었다.

내무검열때 흔히 말썽을 일으키는 련결침대정돈상태도 완벽했다. 백포들이 눈처럼 희고 깨끗한데다가 구김살 하나 간데가 없었다. 똑같은 크기로 개여놓은 침구들은 칼로 베여놓은듯이 각이 딱딱 저있었다.

그밖에도 벽이며 천정, 난로 등 모든것이 티점볼 하나 없이 깨끗했다. 련결침대들사이의 통로에 정렬해선 사병들의 복장상태며 차렷자세에도 흠잡을데가 없었다.

사단장은 첫눈에 벌써 모든것이 마음에 흡족한듯 머리를 가볍게 끄덕였다. 사단참모장과 련대장을 위시한 수원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어렸다.

련대장은 중대장 지종만대위에게 수고했다는듯이 정다운 눈짓까지 보내주었다.

그동안 부지런히 중대에 내려와 여러가지 보완책을 강구해준 병구가 수원들속에 끼지 못해 오늘의 치하는 지종만대위가 혼자서 받게 되였다.

지종만은 자신만만한 눈길로 사단장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사단장이 치하해주리라고 믿는것같았다.

그러나 서인결전장은 휘하 장교들을 치하하는데 린색한 장성이였다. 검버섯이 내돋은 깡마른 얼굴에 흡족한 빛을 띠면서도 중대장을 거들떠보지

않고 2소대 병실로 옮겨갔다. 거기에도 모든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있었다.

사단장은 그만 돌아설듯하다가 3소대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차렷! 필승! 사단장님께 경례!》

3소대장 김영수소위가 보고를 했다. 현역장교라기보다 어디 잡지사에서 교정기자노릇이나 했으면 제격일것같은 인상을 주는 그는 너무 긴장해서 얼굴근육이 푸들푸들 떨렸다.

임관후 사단장을 자기 소대에서 처음 맞이하게 됐으니 지내 긴장한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사단장은 이젠 어디서 이런 애송이가 다 왔어 하고 언짢게 여기는 기색으로 그를 가로보다가 불쑥 물었다.

《국지경계에 대해서 말해봐.》

《옛, 국지경계란 중대급에서 자체방어를 위해 전방에 경계병들을 배치하는 작전입니다. 경계병들의 위치는 아군진지로부터 전방으로 400야드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상.》

《기도비닉(기도감추기)에 대해서 말해봐.》

《옛, 아군의 기도를 적군측이 모르게 하는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화광사용금지, 음향제한, 적군측과의 접촉전 금지, 무전기 사용 금지, 적 항공기에 대한 사격금지. 이상.》

학도군사훈련단출신인 김영수소위의 대답은 일사천리였다. 한군데도 더듬거리지 않았다.

사단장은 가타부타 아무 소리도 없이 몸을 돌려 1분대의 한 사병앞에 가서 걸음을 멈추었다.

《필승! 상병 엄문수!》

《야간이동요령을 아나?》

사단장의 물음에 엄상병은 서둘러 기억을 불러내려고 그러는듯 커다란 눈을 한번 깜벅거리고나서 병실이 찌렁찌렁 울리게 큰소리로 대답했다.

《단거리를 은밀히 이동하고 음영을 리용하여 이동하며 지형지물을 리용하고 뛰지 않습니다! 철모, 군화의 착용을 금하고 가급적 개활지대를 리용합니다. 이상!》

사단장이 그제야 한마디 평가를 내렸다.

《량호!》

《상병 엄문수 암기사항 량호!》

다음은 2분대차레가 되었다.

사단장의 걸음이 고명찬일병앞에서 멎었다.

《필승! 일병 고명찬!》

고명찬은 사단장앞이라 해서 특별히 긴장하거나 주눅이 든 기색이 전혀 없었다. 자신만만하고 침착한 표정이였다.

사단장은 그것이 되려 비위에 거슬리는지 이마살을 찌프리다가 물었다.

《총검술 16개 동작 아는가?》

《옳!》

고명찬은 선뜻 대답했지만 망설이는 눈치였다. 총도 없이 더우기 병실 통로에서 그 동작을 할수 없기때문이었다.

《구령으로 해봐!》

고명찬은 차렷자세로 선채 구령을 치기 시작했다.

《찰러! 찰러! 뒤로 돌아 길게 찰러! 올려 쳐! 뒤로 돌아 돌려 쳐! 좌로 돌아 좌 비껴 찰러! 뒤로 돌아 우비여 찰러! 내려막고 베어! 길게 찰러! 뒤로 돌아 올려막고 차! 우로 돌아...》

소대장과 사병들에게 물은 그 모든것을 사단장이 여태 기억하고있을리가 없었다. 그러한것은 위관급까지나 기억했지 소령만 돼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것들이었다.

그러나 서인결준장은 전혀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과 순서는 몰라도 대답하는자의 어조며 표정에서 그가 엉터리를 부리는지, 정답을 하는지를 판별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답변이 다 정답이라고 생각한 사단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중대장을 쳐다보았다.

지종만대위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사단장앞에 한걸음 다가섰다.

《수고했소. 앞으로도 부하교육 잘하고 일단 유사시 명령이 하달되면 우리 사단의 구호대로 필승의 진격전 실시하기 위해 전투력향상에 전심전력 다하시오. 이상.》

《필승! 사단장님 훈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종만은 사단장의 치하를 받은 기쁨과 공지에 충만된 얼굴이었다.

련대장과 여느 수원들도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무슨 소원 없나?》

사단장이 사병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그럼… 중대장.》

《옛!》

《이제부터 각자 소원수리 써내도록 하게.》

소원수리란 사병들이 상급에 청원하고싶은 사항이며 지휘관들의 비행을 적어내면 그것을 건별로 심의해서 선처해주는 제도이다. 대개 사단검찰관들이 하는 일이지만 사단장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사단장일행이 돌아가자 각 소대에 용지가 공급되었다.

고명찬도 한장 받아놓았다. 별로 흥이 나지 않았다. 전에도 몇번 써낸 적이 있었지만 그 어떤 청원도 해결받은것이 없었다. 되려 보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화기소대 리상병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소대장의 비행을 고발했는데 사단에서는 그 소대장에게 주의를 주는데 그치고 그대신 리상병은 소대장의 기합에 반주검이 되었던것이다. 취지는 그럴듯해도 실속은 쥐뿔도 없는 놀음이었다.

까짓거 차라리 안쓰는거다.

고명찬은 원주필을 도로 호주머니에 넣어버렸다.

《너들 왜 우물거리는거냐, 빨리 쓰잖구?!》

소대장 김영수가 병실에 들어오면서 소리쳤다.

고일병외에도 여러명이 쓰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사단참모장님께서 기다리고있다. 너들 오늘 내무검열에서 량호판정을 받은데 대한 포상으로 쓰게 된것이니 이번엔 가급적 선처해줄거다. 그쯤 알고 각자 기탄없이 쓰는게 좋다.》

그렇다면 어디 써내볼가.

고명찬은 다시 원주필을 꺼내들었다. 자신과 관계되는 사항은 쓰고싶지 않았다. 조만섭일병 생각이 났다. 바로 옆침상인데 지금 위병근무중이어서 없다.

아무리 억울한 경우를 당해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어질어빠진 일병이다. 이런 기회에 그를 대신해서 몇자 적어내야지.

고일병은 단숨에 쪽 내려 썼다.

휴가서열을 엄정하게 지켜주기 바랍니다. 제3소대 제2분대 소총수 조만섭일병의 경우 서열상 이미 두달전에 특명휴가를 받아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아직 류보상태에 있습니다.

조만섭일병대신에 모저명인사의 친척되는 상병이 제기일도 되기 전에 휴가특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부정사례 없도록 선처 바랍니다.

### 제3소대 제2분대 소총수 일병 고명찬

그날 밤이었다. 저녁점검을 마치고 취침전 자유시간을 보내는데 주변하사가 불렀다.

《고일병, 이리 와.》

고명찬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그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짜아식! 똑똑한줄 알았더니 <고문관>이구나. 중대장실에 가봐.》

아직 미혼의 몸이어서 중대장도 병영에 자기 침대를 두고있지만 그런 시간에 사병들을 호출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고명찬은 예감이 좋지 않았다. 주변하사의 입에서 튀어나온 《고문관》 소리도 심상히 들어넘길수 없었다. 《고문관》이란 바보라는 소리였다.

내가 무슨 바보짓을 했다는건가?

중대장 지종만은 책상우에 구두발을 띄 올려놓고 책을 보고있었다. 책의 제명이 고명찬의 눈에도 보였다. 실록 《한국전쟁》이었다.

군사학에 관한 서적들을 곧잘 뒤적거리는 중대장이었다. 룡사출신들이 다 그러는것처럼 그 역시 자신의 미래에 장성계급장을 그려놓고있기때문에 군사학공부를 부지런히 하느라 하는것이다.

고명찬이 들어와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일부러 그러는것임에 틀림없었다. 고명찬은 차렷자세를 취한채 기다렸다.

약 5분이 지난 다음에야 중대장이 책을 내려놓고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용무지?》

《중대장실에 가보라는 주변하사님의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

지종만은 말꼬리를 길게 끌며 새끼손가락으로 귀구멍을 우뚝다.

《내가 무슨 용무로 불렀는지 알만해?》

《모르겠습니다.》

고명찬은 중대장실에 들어설 때 불현듯 마음에 짝이는것이 있었지만 시

치미를 뗐다.

《모르겠다...》

지종만은 그의 말을 되뇌이며 책상우에서 구두발을 내려놓았다. 용무란 바로 그 소원수리와 관련된 일이었다. 근무와 휴가, 취사 등으로 나가있는 인원을 제외한 중대전원이 다 써낸것이 151매나 되었다.

그 몽테기를 받아안은 사단참모장은 난색을 지었다.

신임사단장이 기분 한번 낸것까지는 좋은데 그 많은것을 어떻게 다 읽겠는가.

요행 참모장의 머리속에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떠올랐다.

《여보게 지대위, 부중대장도 이리 가까이 오게. 둘이서 이걸 먼저 훑어보게. 중대에서 해결가능한 사항도 있을거네. 그런건 다 뽑아내고 꼭 사단본부에서 관여해야 할것들만 나한테 달라 이거네.》

그러지 않아도 사병들이 무슨 소리를 했나 해서 사뭇 궁금하던 지대위는 얼른 읽어보기 시작했다.

주부식이 량도 적고 맛도 개판이다. 신문과 잡지를 소대별로 한부씩 더 내려보내줄수 없느냐. 오락시간을 자주 주었으면 좋겠다. 휴가기일이 짧다. 가라반납만 시키지 말고 유명공급의 장본인을 색출해내라...

거의다 그러루한 내용들이었다.

흔히들 하는 불만들이라 적당히 스쳐보던 지종만의 눈초리가 별안간 꽃꽂해진것은 고명찬이 써낸것을 보았을 때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종만자신이 중대장직권으로 조만섭일병의 휴가서렬을 뒤로 미루고 모 저명인사의 친척에게 먼저 휴가특명을 주었던것이다. 만약 그 내막이 사단에 알려지면 책임추궁을 면할수 없다.

사단에서도 그런저런 부정행위를 여반장으로 해치우지만 관하부대 장교들 특히 위관급의 비행에 대해서는 여간 까다롭게 구는것이 아니다.

지종만은 고명찬의 그 소원수리를 참모장 몰래 호주머니에 꾸겨넣었다. 그리고는 저녁점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고명찬을 부른것이였다.

《변소뒤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를 너희들이 무슨 나무라고 한가지?》

피곤에 몰린 사람같은 어조로 물었다.

《<어머니사랑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너도 어머니가 있겠지?》

《예.》

《어디에?》

《서울에 계십니다.》

지종만은 손가락을 코구멍에 넣어 코털을 탁 뜯어내어 손가락끝으로 비볐다.

《아마 지금쯤 어머니가 아들생각을 하고있겠지?》

《예.》

《좋아, 그럼 너도 이제부터 그 아카시아나무밑에 가서 어머니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거다. 그게 자식된 도리 아냐?》

《...》

《또 한가지... 내가 무슨 용무로 너를 불렀는가, 네가 오늘 잘못된것이 뭐냐, 그것도 거기 가서 생각해보라 이거다. 생각이 나면 그때 다시와. 이상.》

그 아카시아나무를 《어머니사랑의 나무》라고 부르게 된것은 고명찬이 입대하기 전부터라고 했다.

그곳은 원래 하사관들이 사병들을 끌고가서 기합을 가하던 곳이었다.

《국군》의 기합은 동서고금의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한것이다. 장교들은 사병을, 같은 사병호상간에도 입대시일이 하루만 앞서도 고참이라 해서 치고 차고 패고 하는 판이다.

기합에 그만 병신이 되거나 골병이 드는 사실이 비밀비재하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매맞아 죽을바에야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식으로 항거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총기로 상관들을 사살하고 탈영하며 그후에 또 인질극을 벌려 사회적여론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사태가 그렇게 험악해지자 사회적여론을 무마하고 사병들을 회유하기 위해 《구타금지령》을 하달했지만 몽둥이규를없이는 유지될수 없는 《국군》이다.

《기합》이라는 용어사용이 금지됐을뿐이고 《얼차렷교육》이라는 명색으로 물리적폭행이 서슴없이 자행된다.

군인정신 즉 얼이 차렷자세로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하면서 치고 차고 패고 하는 그 악행을 계속하는것이였다. 그 기합도 가지수가 부지기수이다.

아카시아나무밑에서의 기합도 그랬다. 엄동설한 야밤중 땀뜨바람에 끌



어내여 눈우에 피를 토하도록 두들겨패는가 하면 더위에 숨이 뻑뻑 막히는 여름철에는 완전군장상태로 데리고 나가 《토끼땀》이나 《낮은포복》을 시킨다. 때로는 아카시아나무가지를 1분동안에 100대 꺾어서 단을 묶으라고 한다.

아카시아나무가지란 원래 가시투성이다. 그것을 1분동안 100대 꺾어서 단을 묶자니 손바닥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다. 그 가지가지 기합을 당하는 사병들의 입에서 저절로 《아이구 어머니!》 하는 비명이 터져나온다. 그래서 누군지 그 아카시아나무를 《어머니사랑의 나무》라고 이름지어버렸다는것이다.

고명찬은 그 나무밑에 가섰다. 나무가지들이 바람을 안고 금시 꺾어질듯이 몸부림치고있었다.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고 땀이 얼얼해졌다.

분계선쪽에서 총성이 몇방 울려왔다. 움츠러들던 몸이 점차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뼈속까지 스며든 추위가 몸을 제멋대로 흔들어대는것같았다. 병실쪽에서 주변하사의 구령소리가 새어나왔다.

《소-등!》

병실창문들이 갸만해졌다. 중대장실 창문에만 불빛이 환했다. 약 10분쯤 지나자 주변하사가 변소뒤로 돌아왔다.

《야 임마, 생각나느냐고 중대장님이 물으신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짜아식, 뭔지 빨랑빨랑 생각해내란 말야! 괜히 나까지 추운데 다니게 하지 말구.》

고명찬은 그 소원수리가 빌미로 되었다는것을 아까 중대장실에 들어갈 때부터 알았지만 마지막까지 모르쇠를 부릴 작정이였다. 일종의 반발이였다.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런 소원수리를 쓴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항의해보아야 중대장은 들은체도 안할것임에 틀림없었다.

장교와 사병사이에는 애당초 리치가 통하지 않는 법이다. 일단 비위가 상하기만 하면 주먹질이 곧 장교의 의사로, 권리로 되는것이고 사병에게는 그 주먹세례를 당하는 길밖에 없는것이다. 약 5분후에 주변하사가 또 뛰어왔다.

《생각해냈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새끼, 너 나한테 먼저 피 좀 봐야 정신차릴거야?!》

주변하사의 주먹이 면상으로 날아들었다.

《한번만 더 봐준다. 이제 또다시 헛걸음시켰다간 용서없다!》

주변하사가 돌아가자 고명찬은 어금이를 깨물었다. 잘못된 일을 생각 해내라는 중대장의 명령인데 만약 자기 입으로 그 소원수리이야기를 먼저 하면 스스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는셈으로 된다. 결단코 그럴수 없었다.

엄연한 진실을 쓴 이상 그래서는 안된다. 중대장과 끝까지 의지의 싸움을 하고싶었다. 중대장이 먼저 제입으로 그 소원수리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야 의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것이다.

주변하사가 세번째로 뛰어온것은 그로부터 약 20분후였다.

《여태 생각해내지 못했겠지?》

《예.》

《짜아식, 내 그럴줄 알았다. 이제 그 갈잡은 톱고집값을 톱톡히 치르게 될거다. 가자, 중대장님이 부르신다.》

드디어 제가 먼저 입을 열셈인가.

고명찬은 랭소를 머금으며 주변하사를 따라 중대장실로 갔다.

#### 4

지중만중대장이 허리에 두손을 짚고 책상앞에 서있었다.

《여태 생각해내지 못했겠지?》

비수가 번뜩이는것같은 싸늘한 어조였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고집 하나 괜찮군. 혹시 대학때 <고집학>이란 학문을 연구하지 않았나?》

《그런 학문은 없습니다.》

《없다... 그건 그렇구, 너 신병교육 마칠 때 왜 <050>이나 보안대쪽에 주특기(급수와 비슷한 등수)받지 않았어? 필요없이 남의 뒤 캐는 소질있는걸 보니 그쪽에 갔으면 좋았을건데... 안그래, 응?》

서론이 긴것을 보니 아무래도 제입으로 먼저 그 소원수리이야기를 꺼내기가 멧적은 모양이었다.

《왜 입이 붙은거냐? 건방진 놈의 새끼!》

지종만은 말끝을 맺으면서 고명찬앞으로 다가서더니 주먹을 내질렀다.

그는 평소에 부하들에게 주먹질을 좀체로 하지 않았다. 정 화가 나는 경우에도 제 손을 어지럽히지 않으려고 소대장이나 주변하사를 시켜 《얼차렷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대리기합을 시키는것이였다.

고명찬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주변하사에게 맡겨 《얼차렷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생각이였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대신 되려 모르쇠를 부리며 엇서자 그만 자제력을 잃을 지경으로 부아가 치밀었다. 그러지 않아도 학생운동을 하다가 입대한자들을 여간 증오했오지 않은터였다. 고일병도 《학사사병》이기때문에 언제 한번 걸려만 봐라 하고 별러왔던 녀석인데 소원수리에 그따위 소리를 쓴데다가 엇서기까지 하니 치가 떨렸다.

대리기합을 시키지 않고 일단 제 주먹을 쓰기 시작하면 그 누구에 못지 않게 조폭해지는 지종만이였다. 짐승처럼 피성을 지르며 치고 차고 했다. 소원수리소리는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휴가서열을 지키지 않고 부정행위를 한것이 사실이여서 차마 그것을 구타조건으로 내세울수가 없었다. 족제비도 낮짝이 있다는 격인가.

그의 광기가 좀 수그러든것은 바닥에 쓰러진 고명찬이 거품을 물며 까무러쳤을 때였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되고 목이 탔다. 광기를 부리느라 저도 맥을 뺏던 것이다. 그래도 성이 채 풀리지 않아 책상위의 주전자에서 물을 한고뿌 따라마시고 빈 고뿌를 고명찬의 얼굴에 던졌다.

고뿌가 깨지는 소리가 쟁그랑! 하고 울렸다.

《주변하사!》

줄음이 무겁게 실린 얼굴의 주변하사가 나타났다.

《이놈 끌어갓!》

고명찬은 병실 침상에서 눈을 떴다. 첫 순간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문옆에 앉아있는 직일병의 담배불만 보였다.

《정신들었나?》

옆자리의 조만섭일병이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소곤거렸다.

고명찬은 몽롱한 의식속에서 하나하나 생각들이 잡히기 시작했다. 온몸이 쭈시고 아픈것을 의식한것도 그때부터였다.

《왜 그 지랄이래?》

조만섭이 또 물었다.

그에게 구태여 자초지종을 설명해줄 필요가 없었다. 말할 기력도 없었다.

《흥, <구타금지령>도 다 헛나발이지 뭐야.》

조일병의 저쪽 침상에서 누가 투덜거렸다. 분대장의 나지막한 구중소리가 울렸다.

《그만 지껄이구 빨리 자거나 해. 취침검열에 걸려서 또 터지지 말구.》

저도 곧잘 손찌검질을 하지만 분대원이 중대장에게 까무라치도록 구타당한것이 마음에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분대장의 목소리가 파히 사납지 않았다.

그래, 나도 좀 자는거다.

고명찬은 눈을 감았다. 쉬 잠이 오지 않았다.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가슴이 찢어나갈듯이 아팠다.

중대장의 구두발에 사정없이 채이고 짓밟힌 바람에 특골이 부러진것같았다. 숨을 쉴 때도 가슴이 딱딱 막혔다. 허리도 시큰거렸다. 얼굴이 따끔거리 만져보니 손가락끝에 유리조각이 쪼였다. 두개나 꼬집어냈는데 살속에 박힌것들은 뽑아낼수가 없었다. 이마에서는 피가 묻어났다.

억지로 잠을 청하며 눈을 감고있는데 문득 한병구대위를 만난 그날 일이 떠올랐다. 그것은 친교가 없는 장교와 사병이 주고받은 이야기치고는 파격적인 대화였다.

자기가 한 말도 그랬지만 한대위가 펄쩍 뛰며 야단치지 않은것도 장교의 직책상상례에서 벗어난것이였으니 말이다.

나중에 그가 몇마디 충고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그제야 장교의 직책을 의식하고 체면치레로 한 소리가 아닌가싶었다.

그렇다면 그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남몰래 수다한 회의와 반감을 품어온 장교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지 않는가. 정계와 군부가 안고있는 부정을 뻔히 알면서도 현 체제에 충실한 족속들도 있는것이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귀대했더니 소대장 김영수가 전에없이 흥분된 얼굴로 그를 자기 방에 불러들였다.

《외출하기 전에 이 신문 못봤지?》

책상위에 펼쳐져있는 신문을 가리키며 김소위가 물었다.

《못봤습니다.》

《여기 자네 모교소식 났네. 드디어 들구일어났다는거야.》

고명찬은 김소위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서둘러 읽어보았다.

교내에 유인물이 출현했고 권성태가 피신했다는 극히 짧은 기사였다. 유인물의 구체적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권성태가 뿌린것이라니 십분 짐작할수 있었다.

작년말에 휴가가서 성태와 영일을 만났을 때 벌써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결심을 다지고있다는것을 알았던것이다.

성태, 수고했다!

고명찬은 마음속으로 벼를 부르며 웨쳤다.

《이 권성태란 학생 잘 아는 친구지?》

김소위가 은근히 물었다.

《그러문요!》

고명찬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우리 대학 후배들도 가만있지 않겠지.》

동국대학교출신인 김소위도 학생때는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이어서 《학사사병》인 고명찬에게 곧잘 흥중의 말을 털어놓았다.

김소위는 그럭저럭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도군사훈련단교육과정도 마친 덕분에 입대와 동시에 장교로 임관되었지만 고명찬은 졸업전에 제적되면서 징집당한 바람에 사병노릇을 하고있다.

그리하여 한사람은 소대장이고 다른 한사람은 말단 소총수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벼으로 되는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둘이 다 학생시절의 정의감과 반항기질을 그냥 지니고있으면서 군대복무기간을 인생의 공백기로 간주하고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장교계급장을 부착하고있건 사병노릇을 하건 군에 복무하는 기간은 아무런 보람도 없는 인생의 공백기였다. 본격적인 생활은 의무복무무년한을 마치고 사회에 나간 다음부터 다시 시작되는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대장님.》

고명찬이 기사를 본 첫 순간의 격동이 사라진 다음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학친구들이 생각나는군요.》

김소위는 머리를 끄덕였다.

《좀 미안한감도 드는군요. 대학에선 벌써 들구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우린 이거 뭘니까...》

군의 부정과 비정을 두눈 뜨고 뻔히 보면서도 공백기를 하는 일없이 채워나가고있는 자신의 생활방식이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졌다.

《허송세월 보내는것이 안됐다 그거지?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네. 하지만 이놈의 군대란데가 정의와 진리에 대한 논의조차 할수 없는 실정이다. 사람들의 개성과 자존심도 여지없이 묵살당하지.》

《그러니까 깃소리말구 그저 참고 또 참으며 견디어나가는수밖에 없다 그거군요.》

김소위는 꺼지게 한숨만 지었다.

고명찬도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야기를 더 진척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중단돼버린 그 대화가 기합을 당하고 잠들지 못하는 이밤에 다시 떠오른것이다.

정말 깃소리말구 참고 또 참는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그것이 과연 옳은 처사일가?

석연치 않은 의혹에 잠겨있는데 한병구대위의 말이 귀전에 되살아났다.

《부정에 굴종하고 타협하는건 또 새 부정을 조장시키는 행위로 되는 거네!》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가라반납같은 일을 넘두에 두고 한 지적이려니 했지만 오늘은 그것이 군인들의 일반적 복무자세를 두고 한 말이 아닐가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니, 한대위가 꼭 그러한 뜻에서 한 말이 아니라 해도 실제 군의 현실을 두고볼 때 모든 사병, 장교들이 상부의 명령과 요구에 무조건 복종한다면 그것은 곧 군의 부정과 비리를 더 조장시키는 행위로 될것이 아닌가. 그대신 모든 사병, 장교들이 자기가 처한 상태에서 정의감을 살려 무조건 복종을 거부한다면 부정의 명령이 결코 집행되지 않을것이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자기가 오늘 중대장과 의지의 싸움을 벌리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것이 잘한 일이 아닐가싶었다. 모진 기합에 비록 몸은 만신창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것이다.

어쨌든 한대위를 다시 만나고싶었다. 이번에는 더 기탄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것같았다. 어떤 가능성을 찾을것같은 예감도 들었다.

《좋아! 다시 만날 기회 있겠지.》

고명찬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저도 모르게 앓! 하고 가볍게 비명을 질렀다.

어떤 가능성을 찾을것같은 예감에 은연중 흥분하면서 몸을 조금 움직이자 또 흉부에 찢어질듯한 통증이 왔던것이다.

조일병이 다시 담요속으로 손을 들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어서 자게.》

고명찬도 잠을 청했다.

한대위를 다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것인지, 어떤 가능성이 생기겠는지...

그에 대해서는 후에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했다. 피곤하기도 했다.

자는동안마는동안 하는 사이에 어느덧 창밖이 희뵈해지더니 기상구령이 떨어졌다.

송장처럼 깊은 잠에 푹아떨어져있던 사병들이 기상동작 굼뜨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헤덤비며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다.

먼지가 뽀얀 빈 병실에 남은것은 고명찬 혼자였다. 전날에 아무리 지독한 기합을 받고 쓰러졌어도 다음날엔 기상구령과 함께 뛰어일어나는것이 내무생활규정의 하나였다. 고명찬도 그것을 알고있었지만 일어날수 없었다.

밤을 새고나자 온몸 아프지 않은데가 없어서 꼼짝 움직일수 없었다. 수설 때마다 특골부위가 터질듯이 아프고 허리도 결렸다.

밖에서 아침점검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부소대장 림중사가 뛰어들어왔다.

《이 새끼, 왜 자빠져있는거야?!》

《못일어나겠습니까.》

《말 다했어?》

림중사가 금시 먹살을 잡아일으킬듯한 기세로 다가왔다.

《의무대에 좀 가봐야겠습니까.》

《뭘, 뭐라구?》

《의무대에 좀 가봐야겠습니까.》

고명찬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착하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것이 금시 완력을 쓸것같이 덤비던 림중사를 제지시켰다.

《어랍쇼, 이 새끼 못하는 소리 없네.》

이때 김소위가 들어왔다.

《소대장님, 이 새끼가...》

김소위가 림중사의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넌 나가봐!》

림중사를 내쫓아버린 김소위는 고명찬의 머리맡에 와서 측은한 눈매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안됐네.》

침통한 얼굴로 한마디 했다.

소대장실이 따로 있긴 해도 같은 건물안이어서 간밤의 일을 다 알고있었지만 중대장이 하는 일에 관여할수 없어 그 폭행을 말리지 못한것에 대한 사죄의 말같았다. 십분 이해할수 있는 일이었다. 그를 원망할 일이 아니었다.

고명찬은 《소대장님이야 뭐.》 하며 구태여 다 말하지 않아도 될것같아 뒤를 잊지 않았다.

《몹시 아픈가?》

《예, 의무대에 가봐야겠다고 부소대장에게 말했습니다. 중대장에게 가서 전하겠지요.》

고명찬은 그것으로 다시한번 중대장과 의지의 싸움을 벌릴 결심이였다. 그것도 군의 부정, 비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김소위는 그의 그 말속에 숨은 뜻을 생각해보는지 잠시 말없이 서있다가 머리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 아침도수체조 구령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이어 세면과 아침식사... 그렇게 일과가 흐르는 동안 고명찬은 그냥 침상에 누워있었다.

아침식사는 조만섭이 날라왔다.

《소대장님이 시켜서 가져왔어. 아프더라도 밥은 먹어야 된다구 했어.》

그래, 기운을 내기 위해서도 먹어야지.

고명찬은 침상에 누운채 몇술 떴다.

그날도 오전일과는 야외전투훈련이였다. 교련장으로 가기 전에 김소위가 다시 고명찬에게 들렀다.

《중대장이 승인했네, 병원가는걸.》

그도 중대장에게 가서 말한것같은 눈치였다.



고명찬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한차례 중대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한것이다!

《외출증은 이제 림중사가 가져올거네. 흥, 림중사와 같이 용수리병원에 가라나. 속이 뻘히 들여다보이는 수작이지.》

고명찬도 대뜸 짐작이 갔다. 사단의무대로 가면 자연 구타사건이 알려지기마련이고 고발이 제기될수도 있다. 고발이 제기되면 가해자를 오라가라 할것임에 틀림없다. 그걸 피하기 위해 림중사를 감시병으로 붙여 민간병원에 가라고 한것이라.

림중사로 말하면 전달에 한병구대위앞에서 고일병을 잘 봐주겠다는 뜻으로 《넘려 폭 놓으십시오.》라고 했지만 원래부터 중대장의 심복이었다.

련대작전보좌관 한병구대위는 가끔 중대에 내려오지만 지중만은 매일 만나는 중대장이고 그의 입김이 언제나 몸가까이에서 풍기고있으니 그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림중사는 잠시후 외출증을 떼가지고 왔지만 출발은 10시에 하자고 했다.

한두시간 늦게 간다고 죽을병도 아니여서 10시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고있는데 문득 지혜 생각이 났다. 용수리병원에 가면 그를 만나게 될것이다.

고명찬은 입대전부터 성태네 집에 자주 놀러다니면서 지혜와도 면식을 익혔었다. 그가 어떻게 되어 용수리에 왔고 또 성태가 자기 동생이 한병구대위와 교제하는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사실도 알고있었다.

하지만 자기가 관여할 일이 아니여서 이따금 길에서 지혜를 만나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하고 성태소식이나 묻곤 했다. 오늘도 성태안부를 물어볼 생각이다. 그도 그 신문기사를 보았을게고 오빠의 그후 소식도 알고있지 않을까싶었다.

10시가 되자 병원으로 가자고 림중사가 불렀다.

고명찬은 몸을 제대로 움직일수가 없었다. 우선 침상에서 일어나다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도로 쓰러졌다. 허리가 결리고 가슴이 예리한 쇠붙이에 찢리는것만 같았다. 어금이를 깨물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일어서는데 한참 걸렸다.

림중사는 엄살 떨지 말고 빨랑빨랑하라고 호통만 쳤다. 부중대장이 보다못해 중대서기를 붙여주었다.

그의 부축을 받으며 큰길까지 가까스로 나가니 마침 빈 찻차가 한대 보였다.

림중사가 길 북판으로 뛰어나가면서 손을 번쩍 쳐들었다. 급정거를 하는 차안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림중사도 마주 욕설을 퍼붓다가 어떻게 구슬렸는지 저만치 비켜서있는 고명찬에게 소리쳤다.

《얼른 와서 타게. 알고보니 아주 마음좋은 친구야. 병원까지 태워다 주겠다는거야.》

덕분에 용수리병원까지 차를 타고 갔다. 중대서기는 중대에 돌려보냈다.

두사람이 뼈격거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접수구앞에 서있던 지혜가 돌아보았다.

《어머?!》

지혜는 첫눈에 고명찬을 알아보고 달려왔다.

그의 커다란 눈에 짙은 수심이 어려있었다. 오빠일때문에 걱정하는것 같았다.

고명찬은 림중사가 옆에 바짝 붙어있어서 성태소식은 물어보지 못하고 수인사만 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어쩐 일이세요? 몹시 불편한것같군요.》

림중사가 앞질러 대답했다.

《훈련중에 좀 다친겁니다.》

《마침 외과선생님이 계셔요. 근데 어떡하죠, 진료권을 먼저 떼셔야 하는데?》

고명찬은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휴가때 집에서 가지고 온 돈이 얼마간 남아있었다. 진료권값이 얼마냐고 묻고 몇장 세주었다.

지혜가 진료권을 떼주었다.

외과진료실에서 채의사가 환자를 맞이했다. 그는 지혜의 부축을 받고 들어서는 고일병을 일별해보더니 첫눈에 무슨 환자라는것을 간파한듯 이마살을 찌프렸다.

훈련중에 다치셨대요 하는 간호원의 말에 흥 하고 코웃음을 치고는 고일병더러 상의를 벗으라 했다.

《기합을 당했군, 젠장… 나도 한때 <군바리>노릇해봐서 알지요. 그놈의 기합이 사람 죽인다니까. 우리편 그걸 P.T체조라고도 했는데 그 종류가 자그만치 50가지도 넘었지…》

원래 입이 좀 험한 채의사였다. 고일병의 상체며 얼굴을 꺾꺾히 살피며 계속 입심을 부렸다.

《요새 더하겠지요. 뭐 <얼차렷교육>이란 이름 붙었다지요. 사람 웃기는노릇이지. 이러나저러나 강권만능주의란 논리적타당성의 결여에서 비롯되는건데… 원, 여기에도 타박상 입었군. 가만, 얼굴 다시 봅시다. 눈 감고… 알만합니다. 누가 얼굴에다 유리고prav를 던졌군. 귀밑에도 유리쪼각이 하나 박혀있어요. 무지하게도 굴었군. 쫓쫓… 요새 장교들이란…》

고명찬을 따라들어온 림중사가 잔뜩 인상을 구기며 두덜거렸다.

《여보슈, 의사선생. 병이나 볼거지 무슨 군대시비가 그리 많소!》

채의사는 고개를 돌려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누구요? 진료에 지장있으니 나가시오! 권양!》

지혜가 냉큼 뛰여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이 환자 데리고 온 사람인데 왜 쫓아내려는거요?》

림중사가 항의했지만 채의사는 더 날카롭게 소리쳤다.

《밖에 나가서 기다리시오!》

소대에서는 호랑이노릇을 해도 병원에서는 의사의 요구에 따를수밖에 없었다. 림중사는 교실에서 쫓겨나는 악동처럼 불이 부어서 복도로 나갔다.

채의사는 핀셋으로 고일병의 얼굴에서 유리쪼각을 집어냈다.

《가만, 움직이지 말구… 여기 하나 더 있군.》

지혜가 그 자리를 알콜로 소독해주었다.

《이마 터진덴 반창고 붙이면 될게구… 가만, 그건 나중에 하구 흥부다시 봅시다. 이제 그 친구 계급장 보니 부소대장노릇하는 꼴인데… 군에선 기합만능주의고 사회에선 권력만능주의니 세상은 갈데까지 다 간셈인가. … 여기가 몹시 아프지요? 숨 크게, 더 크게… X선 비쳐봅시다.》

시골병원이라 고철이 다된 기계이고 기사도 따로 없어서 채의사가 직접 비쳐보았지만 그런데도 특골이 한대 부러진것이 확인되었다.

채의사는 고일병을 데리고 외과진료실로 돌아오면서 자신있게 말했다.

《너무 걱정마십시오. 특골이 한대 부러졌지만 잘 붙어요. 타박상도

차차 나올겁니다. 특골때문에 당분간 안정해야 하지만 중대에 가면… 옷을 다시 벗으시오. 권양은 나가서 그 중사를 좀 들어오라고 하시오.》

림중사가 들어오자 채의사는 고일병의 상체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짐짓 엄한 어조로 말했다.

《보시오. 이것, 또 이것… 다 구타당한 자리요. 타박상이 아주 심하오. 그리고 갈비대가 석대나 부러졌소, 석대나!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오. 만약 안정시키지 않아서 병이 악화되는 경우엔…》

여기서 채의사가 잠간 말을 끊고 고일병을 돌아보았다. 뭔가 암시를 주는 표정이었다.

고명찬은 그의 말에 과장이 있다는것을 알았다. 특골 부러진것만 해도 분명 한대라 했는데 림중사앞에서 석대라고 강조하는것이다.

재미있는 량반이군. 의대 나온지 몇년이나 됐을가. 대학때도 저렇게 구변이 좋아서 반《정부》시위때 열변을 토했는지 모르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 환자의 병이 악화되는 경우…》 하고 채의사는 다시 림중사 쪽에 안정반사경을 보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시끄러운 말썽이 생길수도 있겠는데 부대주둔지역 의사라 나도 그쪽은 짐작할수 있지만 그건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하여간 이 환자는 당분간 잘 안정시킬것을 의사로서 각별히 당부하는것이니 알아서 선처하시오.》

그 정도로 예들러치는 말에 쉬 수그러들 림중사가 아니었다. 뒤꼍목의 사나이들처럼 어깨를 으쓱 추어올리며 반격을 가했다.

《여보슈, 남의 일에 쓸데없는 걱정할것 없이 그 허바닥이나 조심하는게 좋겠소. 세치 허바닥때문에 룡척 몸덩이가 시키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국군> 룡군중사 림원국이 당부하는바요.》

너무나 야비한 소리라 채의사는 역겨웁다는듯 손을 뻗 내젓고 돌아앉아 버렸다.

의사로서 할 일, 할 말을 다했으니 그따위 무뢰한을 더 상대할 필요가 없기도 했다.

《저… 이쪽으로 좀…》

두사람의 대화를 흥미있게 듣고있던 고명찬은 지혜의 목소리에 얼굴을 돌렸다. 그가 이마의 상처에 붙일 반창고조박을 들고있었다. 특골이 부러

진 흥부에도 반창고를 넓게 세겹으로 붙였다.

그동안 림중사는 문을 탕 후려달으며 복도로 나갔고 채의사는 안경을 벗어두고 닦았다.

고명찬은 옷을 입고 채의사에게 인사했다.

《선생님,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채의사는 안경을 쓰고 고일병과 지혜를 번갈아 보았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요?》

《네, 저의 4촌오빠의 대학친구분이세요.》

지혜가 낯빛을 조금 붉히며 대답했다.

《그렇군...》

고명찬은 지혜에게 가만히 물었다.

《오빠소식은 알구있겠지요?》

《네, 서울 갔다 어제 왔어요.》

《오빠를 만나봤어요?》

《못만났어요.》

지혜는 호젓이 한숨지으며 대답했다.

《벌써 체포된거야 아니겠조?》

《안영일씨 만났더니 무사히 피신해계신다고 하더군요.》

《너무 걱정마십시오. 쉽사리 잡히지 않을겁니다.》

문이 벌컥 열려서 돌아보니 림중사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치료 끝났으면 빨랑빨랑 나올것이지 뭘 꾸물거리고있어?》

고명찬은 영일의 소식이랑 더 듣고싶었지만 림중사의 재촉이 시끄러워 채의사와 지혜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 5

사단에서 각 편대본부 장교들의 회의를 소집한 날이었다. 한병구도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단본부로 갔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회의를 소집한 사단장과 참모장이 없었다. 군단사령부에서 긴급호출령이 떨어져 그리로 갔다고 했다.

주로 어디에 파견되는 임무만 맡아 수행한다 해서 《주특기과견》이라는 별명이 붙은 부사단장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에겐 회의집행권한이 위임되지 않은것같았다. 16시가 다돼서야 참모장이 혼자 돌아왔다.

사단장은 군단사령부에서 또 육군본부의 호출을 받고 서울로 갔다고 했다. 참모장이 회의를 집행했다. 신입사단장의 순시과정에 발로된 우결함사항들을 분석평가하는 회의였다.

순시가 끝난지가 20여일 되지만 차일피일 미루던 끝에 오늘에야 그 회의를 하게 되었다. 순시과정에 량호평가보다 불량평가를 더 많이 받았다고 했다.

참모장이 그 불량사항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채찍으로 후려치듯 날카로운 어조로 질책했다. 보통때는 두리몽실하게 지내다가도 한번 성이 나면 무섭게 독을 쓰는 참모장이었다.련대장들과 참모들을 차례로 불러 세워놓고는 진땀을 빼게 만들었다.

병구는 개별적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따지고보면 불량평가를 받은 그 사항들이 모두 어제오늘에 발생한 결함이 아니었고 앞으로 시정될 가망이 보이지 않는것들이었다. 참모장도 그렇다는것을 전혀 모를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불의에 발견된 결함인듯이 떠들어대고 또 단시일내로 시정하라고 요구하는것이다.

불쾌하고 지루한 그 회의를 마치고 련대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위가 어두웠다.

여느 장교들과 같이 한차를 타고 외등이 환히 켜진 병영문안으로 들어가는데 면회자대기실에서 뛰어나오는 사병이 있었다.

차창으로 피륙 내다보니 고명찬일병이었다.

나를 찾아온건가? 아니면 딴 볼일이 있어서 왔나?

그가 특공이 부러져 병원에 다녀왔다는것은 김영수소위에게서 들은바 있었다. 특공이 제대로 붙었다지만 자유롭게 나다니기에는 좀 이른것같은데 왜 련대본부에 왔는지 저으기 궁금했다.

차에서 내린 병구는 위병소에 나가볼가 하다가 자기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퇴근전에 래일의 업무내용을 확인해보기 위해서였다.

고일병이 정말 자기를 찾아온것이라면 위병소에서 전화가 올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나다를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전화종이 따르릉 울려 송수화기를 들어보니 위병소에서 오는 전화였다. 2대대 7중대의 고명찬일병이 그를 기다리고있다는 내용이었다.

면회시간이 지났으니 돌아가서 래일 다시 오라 해도 급한 일이라며 버티기를 한다고 했다.

무슨 용무냐고 물었더니 본인에게 확인해보는듯 잠시 사이를 두고있다가 대답이 왔다.

《대위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급한 일입니다.》

그가 아무리 급하다고 보해도 래일의 업무내용을 확인해보기 전에 나갈수 없었다. 약 10분후에야 정문으로 나갔다.

《대위님, 야단났습니다!》

면회자대기실에서 고일병이 뛰어나오면서 소리쳤다.

거수경례도 없이 헤덤비는 꼴에 우선 좀 못마땅했다.

《덤비긴... 불난 호떡집 주인두 아니구...》

《지혜씨가, 지혜씨가 지서에 련행돼갔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병구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이 친구가 어디 잘못된게 아닐가싶었다.

지혜가 련행돼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애당초 경찰에 끌려갈 그 무슨 비행을 저지를 지혜가 아닌것이다.

《지혜가 어쨌다구?》

지내 흥분해있는 그를 진정시킬셈으로 일부러 조용한 소리로 물었다.

《지혜씨가 련행됐다니까요! 병원에 들렀다가 그 소식 듣고 대위님한테 알려드리려고 온겁니다.》

고일병은 목소리가 푹푹하고 얼굴도 왕청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헛소리를 하는 사람같지 않았다.

《아니 그럼...》

《리형사란 놈이 련행해갔답니다. 빨리 가봅시다!》

《자세히 말해! 어떻게... 된 일이야?》

지나가던 수송장교가 의아쩍게 쳐다보는것도 모르고 고명찬의 팔을 와락 잡아흔들며 소리쳤다.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저도 병원에서 들었는데요.》

고일병이 병원에 간것은 16시경이었다. 그동안 부러진 특골이 제대로 붙은듯 이따금 조금 뜨끔거리는 정도였는데 허리는 시원치 않았다. 자주 시큰거리고 특히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면 무엇을 붙잡지 않고는 일어설수 없었다.

소대에 기합의 후유증으로 그러한 허리아픔을 겪어본 상병이 하나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뼈까지 상하지 않아도 매맞은 자리에 어혈이 저서 생긴 아픔같지만 그래도 X선은 한번 해보는것이 좋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소대장에게 부탁해서 외출증을 떼가지고 용수리병원에 갔는데 외과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앞에서 서성거리고있던 채의사가 대뜸 급한 소리로 물었다.

《소식 듣고 왔소?》

《무슨 소식 말입니까?》

어리둥절해서 되물으니 지혜가 련행되었다는 대답이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10시경에 서울시경찰국 형사라고 하는 사람 둘이 지혜를 찾아와서 4촌오빠 권성태가 오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지혜는 오빠가 전달에 다녀간 후 다시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 장소에 채의사도 있어서 지혜의 말을 보증해주었다.

사람 다루는데 이골이 난 형사들 같았다. 사납게 인상을 구기거나 큰 소리로 울러메는 법도 없이 성태의 성격이며 이곳 시골병원형편에 대해서 이것저것 잔잔히 물었다.

대답하는 지혜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고 가끔 채의사의 얼굴에도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러한 유도심문으로 지혜가 거짓말할줄 모르는 처녀라는것을 확인한듯 앞으로 4촌오빠가 나타나면 곧 지서에 알리라는 당부 를 하고 돌아갔다.

《어떡하죠?》

지혜는 불안에 떨며 채의사에게 물었다.

《걱정마오. 어디 깊숙이 숨어있을거요.》

채의사는 그렇게 위로했지만 그 역시 불안했다. 수배자체포가 지연되는 경우 가족친척들을 괴롭히는 경찰의 야비한 수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체의사도 대학때 운동대오에서 뛰었을뿐 아니라 졸업후 XX대학 부속 병원에 근무할 때도 《인턴(실습생)과동》의 앞장에 섰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권고사직을 당하고 인천과 룡인쪽에 잠깐씩 가있다가 이곳 시골에까지 흘러왔지만 대학때의 그 정의감 하나는 여전히 간직하고있었다.

지혜는 오전 내내 안절부절 못했다.

《너무 걱정말래두. 오빠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소. 어련히 알아서 안전하게 피신해있을거요.》

체의사가 위로해도 소용이 없었다.

《아니예요, 우리 오빠... 차라리 제가 체포되고 오빠가 무사해질수 없을가요?》

《무슨 소릴, 권양이 왜 체포된다는거요? 공연한 생각이요.》

《어쩐지 예감이 좋잖아요. 오빠도 저도 꼭 무서운 봉변당할것같애요.》

그의 예감이 공연한것이 아니라고 증명해주려는듯이 잠시후 지서의 리형사가 와서 지서까지 좀 가자고 했다.

지혜가 얼굴이 새파래지며 왜 그러느냐고 묻자 4촌오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것이 있다고 했다.

사흘전에 그가 용수리에 나타났다는 정보가 있다, 그가 오래전부터 월북을 기도한 위험인물이라는것도 경찰에서는 알고있다, 전번에 용수리에 온것도 월북통로를 탐색하기 위해서였다고 리형사는 덧붙였다.

지혜가 그런 일 없다, 사흘전에 온 일도 없다고 말해도 막무가내였다.

기어이 지서까지 가자고 했다. 걱정할것 없다, 잠간 뭘 알아보고 돌려보내겠다며 달래기도 했다.

체의사가 나서서 죄없는 사람을 왜 련행해가려는거냐고 항의했더니 되려 공무집행 방해말라고 역습했다.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죄없는 사람은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권양이 지서에 못가겠다고 정 버티면 지은 죄가 있기때문이라고 볼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 말에 지혜가 넘어지고말았다. 그래서 결국 리형사를 따라나섰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이에 두사람은 용수리를 벗어났다. 지서가 있는 면소재지까지는 시오리길이였다.

《지혜가 잡혀간것이 정확히 몇시였나?》

《채의사 말로는 13시경이었다고 합니다.》

병구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야광침이 21시를 가리키고있었다. 그러니까 8시간동안이나 구금되어있는셈이었다.

길이 몹시 어두웠다. 군용차의 불빛들이 어둠을 찢며 지나갔다. 손을 들어도 세워주는 차가 하나도 없었다.

《대위님!》

정신없이 뛰는 병구를 가까스로 따라가며 고명찬이 헐떡거리는 소리로 불렀다. 허리가 결리고 가슴도 뜨끔거리 아무래도 병구를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또 뭐가?》

《만약 지혜썰 벌써 본서에 넘겼다면 어떡하실겁니까?》

경찰서가 있는 군청소재지까지는 60리길이였다.

《본서 아니라 치안본부에 넘겨도 거기까지 갈거다. 자넨?》

병구는 걸음을 멈추며 명찬을 돌아보았다.

《자넨 돌아가게. 나 혼자 가도 돼.》

《그래두요...》

《돌아가래두!》

병구는 버럭 성을 내며 소리치고 다시 줄달음을 놓았다. 거치장스럽게 누구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다.

지혜야 어쨌든 내 사람이 아닌가. 내가 가서 데려오면 되는거다!

리형사란 نوم앞에서 오들오들 떨고있을 지혜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다.

자신의 무죄를 당당히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저 찢찢매기만 할것이다. 따귀를 치면 맞고 큰소리치면 또 와플 놀라거나 하고... 지혜란 본시 그런 녀자인것이다. 그래서 서울의 밤거리를 함께 거닐 때부터 그 보호의 식을 느꼈었다.

너무도 착하고 순박해서 남달리 세파의 시달림을 심하게 받을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욱 그를 보호해주고싶었다. 그 보호의식에서부터 사랑이 싹터던것이다. 그가 그 어떤 고통이나 팔세를 당하지 않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호해주려고 했던것이다.

그런데 지혜가 지금 어디에 가있는가! 거기에서 어떤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있는가!

제대하라면서, 제 오빠의 벗이 되라면서 애를 먹이던 지혜였다. 그 신문기사를 본 날엔 또 얼마나 새침해져서 돌아갔던가.

서울에 갔다온 후에는 한번 찾아오지도 않았다. 절교라도 할것같은 기세였다.

병구도 슬그머니 부아가 치밀었다. 어디 두고보자 하고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다. 그의 노여움도 바야흐로 극한점에 이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지혜가 지서에 련행돼갔다는 말을 들은 순간 그 모든 노여움이 가뭇없이 다 사라져버렸다. 다만 무서운 곤욕을 당하고있을 그를 한시바삐 구원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피가 끓었다.

(지혜!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리오! 조금만!)

마음속으로 웨치며 정신없이 뛰어갔다.

뒤에서 차경적소리가 뱅뱅 울렸다. 이윽고 바싹 다가온 차에서 누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대위님! 한대위님!》

고명찬의 목소리였다. 차가 그의 옆에서 급정거를 했다.

《대위님, 어서 타십시오!》

운전석에서 문하사가 내다보며 소리쳤다. 고일병은 뒤좌석에 앉아있었다. 그가 설명했다.

《마침 이 찰 만나서 뒤쫓아왔습니다.》

둘이 전로부터 서로 아는 사이갈았다. 병구는 운전병 옆좌석에 뛰어오르면서 소리쳤다.

《빨리!》

《고일병에게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리형사란 놈 아주 악질입니다. 작년에도 애매한 농민을 하나 <빨갱이>로 만들어서 뭐 상금까지 탔다나요. 경찰이란 다 그렇구 그런 놈들이라니까요. 우리 고향 지서놈들두 먹구 하는것이 그저 죄없는 사람들을 들볶는 일뿐이지요.》

역시 말이 많은 문하사였다. 어둠속을 과속으로 차를 몰아가면서 입은 쉴새없이 놀렸다. 드디어 지서앞에 당도했다.

병구는 차가 미처 서기 전에 뛰어내렸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두 사병을 차에 남겨두고 혼자 들어가는데 정문보초가 앞을 막아나섰다.

《무슨 용무입니까?》

《비켜라!》

꽤 소리지르니 비실비실 물러섰다.

지서안에는 웬 사복경관 하나밖에 없었다. 여느 야간근무자들은 다 관할구역순찰을 나간것같았다.

책상에 엎드려 뭔가 쓰고있던 사복경관이 병구가 들어서는 문소리에 고개를 쳐들었다.

《당신이 리형사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리형사가 일부러 그런다는것이 뻔히 알리는 정중한 어조로 되물었다.

《보면 모르겠소? 부대에서 왔소.》

《좀 앉으십시오. 무슨 용무로 이 밤중에 왔습니까?》

《당신이 권지혜란 녀자를 잡아왔다지요?》

병구는 책상앞에 바투 다가서며 다우쳐물었다. 속에서 격분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는데도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려나갔다.

《그 병원 간호원 말입니까?》

리형사의 얼굴빛이 약간 이지러졌다.

《그렇소. 그 녀자를 잡아온 리유가 뭐요?》

《아, 그거야 대위님이 상관할 일 아니잖습니까. 우리 경찰에서 하는 일인데... 보안상기밀도 있는거구...》

《흥, 보안기밀 좋아하는군. 정 대답하기 힘들면 내가 대신 말해주지. 권지혜가 당신네 경찰에서 수배중인 권성태학생의 4촌누이동생이란건 사실이지만 그 대학생이 요새 다시 제 누이동생한테 오지 않았다는것도 사실이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 녀자를 런행해왔소. 왜 그랬는가? 그 녀자를 심문하면 무슨 단서를 잡을가 해서요. 그게 안되면 제 오빠가 왔다갔다는 허위자백이라도 받아서 런루자검거실적을 올리려는거요. 안그렇소?》

리형사는 급소를 찔린 사람처럼 오만상을 찌프리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오해요. 나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소. 분명 그 녀자한테 4촌 오빠가 찾아왔소.》

《어느 놈이 그따위 허위정보를 당신 귀구멍에 불어넣었소?》

《그런것까지 당신한테 말해야 할 의무는 없소.》

리형사는 여유를 보이느라 담배를 붙여물었지만 손끝이 바르르 떨렸다. 입으로는 큰소리를 치지만 속은 떨리는 모양이었다.

아닌게 아니라 떨지 않을수 없는 일이었다. 이곳은 전연지대, 후방과는 환경이 다르다. 마을마다, 골짜기와 산등성이마다 군인들이 깔려있다. 전연지대 군인들의 기질인 조폭성이 일종의 생활풍습처럼 만연된 곳이다. 구멍가게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수틀리면 두들겨부시고 마을청년들이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게 나와도 군화발로 걷어차고 때려눕힌다. 경찰이라고 레외로 치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관들을 더 아니꼽게 여긴다.

입대전에 이런저런 일로 경찰의 시달림을 받은 그 앙갚음을 하는 기분 탓도 있으리라. 트집질이 생기기만 하면 행패질이다. 심지어 분대, 소대 병력이 끌어와서 지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

전달에도 이웃면의 지서형사가 웬 하사관을 서둘러 잘못 건드렸다가 별 때처럼 몰려온 군인들에게서 집단구타를 당했다.

리형사라고 왜 그런 현실을 모르겠는가. 지혜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것도 알고있었다.

서울에서 온 형사들도 범인색출에 귀신같은 민완가들이겠는데 그 녀자에게 혐의가 없기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간것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지혜를 데려와서 심문해보면 무슨 단서가 잡힐수 있다고 귀뜸 해준것도 없다. 다만 권성태 그놈이 후에라도 용수리에 나타날지 모르니 당분간 그 녀자주변을 감시해보는것이 좋다는 의견만 주었다. 그 의견을 확대해석해서 지혜를 련행심문한것이다.

소득은 없었다. 위협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뺨도 치고 머리채를 잡아흔들기도 했지만 모른다, 아니다 하는 대답뿐이었다. 그러면서 울기만 했다.

그렇다고 물러설것인가? 아니다, 이왕 손댄김에 기어이 자백을 받아내여 이 시골지서에도 민완형사가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백서》를 미리 만들어놓고 야밤에 그년을 다시 끌어내여 곤죽이 되도록 팬 다음 지장을 찍게 하면 되는것이다.

리형사는 바로 그 《자백서》를 미리 만들다가 병구가 뛰어드는 바람에 붓을 놓은것이다.

상대가 만만치 않은 장교같아 은근히 겁이 났다. 그 녀자와 애인쯤 되는 사이라는것도 쉬 짐작할수 있었다. 따지고드는 잡도리며 얼굴에서 푸

들푸들 떠는 분노가 꼭 무슨 일을 칠것같았다. 이런 때 이쪽에서 약세를 보이면 더 기승을 부릴것이다.

별수없이 허세로 내밀어보는 도리밖에 없다고 리형사는 판단했다.

뒤가 시끄러워지면 사단보안대의 남인표소령의 힘을 빌면 될것이다. 남인표소령과는 가끔 술자리에서 만나는 사이였다.

저 장교가 여기서 제아무리 큰소리쳐도 보안대앞에서야 꼼짝 못할것이다. 좋다, 어디 한번 배심을 부려보자.

리형사는 짐짓 어깨를 솟구며 큰소리를 쳤다.

《도대체 당신 무슨 권리로 경찰업무를 방해하며 이 소동이요?》

그리고는 정 화가 나서 못견디겠다는듯이 방금 피워문 담배를 마루바닥에 팽개쳤다.

병구는 숨을 크게 들이키며 랭소를 지었다.

《무슨 권리냐구?》

책상을 에돌아 리형사앞으로 다가서면서 뒤말을 이었다.

《권리는 바로 이거다!》

말끝을 맺는것과 함께 리형사의 관자노리를 후려갈겼다.

불의의 강타에 휘청거리고 돌아가는 얼굴에 두번째 주먹을 먹었다. 미처 피할 틈도 주지 않았다.

《이거다! 개자식, 이게 내 권리란 말야!》

리형사가 마루바닥에 쓰러지자 구두발로 마구 차고 짓밟았다.

밖에서 보조를 서고있던 순경이 뛰어들어와 병구를 란폭하게 떠밀며 소리쳤다.

《손들엇! 꼼짝말앗!》

순경의 손에 총이 쥐여있었다.

병구는 손을 드는척하다가 발길을 내질렀다.

순경이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 사이에 병구가 마루바닥에서 버둥거리는 리형사의 꿈무늬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총 버렸! 안버리면 쏠테다!》

순경이 총을 버리자 다시 구령을 치듯 웨쳤다.

《일어섯!》

정통으로 강타를 당한 배를 어루만지며 순경이 엉겨주춤 일어섰다.

《그 너잘 데려왔!》

《어느 여자 말입니까?》

순경의 겁에 질린 물음에 마루바닥에서 리형사가 대답했다.

《병원 간호원!》

권총까지 뺏아들고 금시 방아쇠를 당길것같은 병구의 무서운 기세에  
들이 다 얼이 빠진 꼴이었다. 순경이 류치장으로 가더니 곧 지혜를 데  
리고 왔다.

지혜의 모습을 본 첫 순간 병구는 그만 아연해졌다.

사람이 몇시간사이에 저렇게도 달라질수 있겠는가!

마치 가시덤불속에서 수없이 태질을 당하고 나온 사람같았다. 언제 봐  
야 단정히 빗어넘겨져있던 머리가 마구 헝클어지고 군데군데 피까지 엉켜  
붙어있었다. 얼굴도 멍들고 부어오르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내배였다. 손  
가락에 처맨 형짚에 피빛이 보이고 다리까지 다쳤는지 걸음이 절룩거렸다.

병구는 일순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쳐오르는것같았다. 지혜가 당  
한 굴욕과 고통이 송두리채 자신의 몸으로 옮겨와 가슴을 찢고 살점을  
뜯어내는것만 같았다.

미칠듯한 분노에 사로잡혀 어금이를 깨물며 총권 손을 사격자세로 쳐  
들고 리형사에게 돌아섰다.

이놈! 이번엔 네놈 차례다!

《병구씨!》

막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에 지혜가 그의 팔을 잡았다.

순간 총구에서 불이 번쩍 일었다. 그러나 지혜가 팔을 잡아챈 바람에  
총알이 빗나가 마루바닥에 박혔다.

《병구씨!》

지혜가 그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며 겁에 질린 소리로 불렀다.

병구는 피땀 처녀를 돌아보았다. 눈물이 그렁하게 고인 그의 눈이 제  
발 진정해요 하고 애원하고있었다.

그에 병구는 좋소, 갑시다 하고 무언의 눈빛으로 대답해주고 리형사에게  
권총을 던졌다.

《이건 도로 가져라.》

책상우에 있는 보나마나 지혜에 관한 조서같은 종이장들도 집어서 갈  
기갈기 찢은 다음 리형사에게 팽개쳤다.

《똑똑히 들어. <국고>의 돈으로 사다준 권총 휘두르면서 또 죄없는

사람 잡아다 괴롭히면 말야, 그땐 정말 네놈 가슴팍에 맞구멍 뚫어놓을 테다!》

지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니 바로 문옆에 고일병과 문하사가 서있었다. 안에서 병구에게 불리한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뛰어들어가려고 거기서 대기하고있었던것같았다.

병구는 그들에게 아무 소리도 안하고 차있는데로 갔다. 문하사가 한발 먼저 뛰어가서 차문을 열어주었다.

《천천히 몰게.》

병구는 문하사에게 당부하고 옆에 가지런히 앉은 지혜를 돌아보았다. 차안이 캄캄해서 동그스름한 얼굴륜곽만 보였다.

병구는 가슴에 저릿한 아픔을 느끼며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지혜.》

처녀의 어깨가 가볍게 떨렸다.

《지혜.》

처녀는 경련을 일으키듯 어깨를 세차게 들먹이더니 병구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병구는 뭔가 그에게 사죄하고싶은 심정이였다. 그러나 얼른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용수리에 다 갈 때까지 한마디도 못했다.

## 6

윤미는 또 일기장을 꺼내어 책상우에 놓았다. 성태가 자취를 감춘 그 날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다. 마음이 산란해질 때마다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자신과 이야기해보는 습관도 그후에 생긴것이였다.

뚜껑을 번지고 첫장부터 천천히 읽어보았다.

×월 ×일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는 기분이다.

성태씨가 지금 어디 있을까? 장소만 알면 지금 당장 뛰어가 사죄하고 싶다.

성태씨가 얼마나 슬기롭고 용맹한 사람인줄도 모르고 감히 그앞에서 거



만을 떨었던것이다. 나의 그 경솔에 그가 얼마나 경악했을가. 그래도 꾸중 한마디 안한 그에 비해볼 때 윤미 나는 얼마나 지각머리없는 계집애냐!

성태씨, 죄송해요! 후일 만나게 되면 백번 사죄하겠어요!

×월 ×일

뜬눈으로 밤 새우고 등교했더니 게시판앞에 학우들이 새까맣게 모여있었다. 또 뭐가 나붙었을가 하여 얼른 학우들의 어깨짚으로 들여다보았다. 대자보가 하나 붙어있었다.

《침묵은 드디어 끝났다! 성조기를 불태우라! 광주대학살의 원흉 양키들을 징벌하자!》

이런 내용이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주먹처럼 살아서 움직이는것같았다. 영애가 나에게 가만히 속삭였다.

《성태씨가 저걸 보면 얼마나 기뻐할가!》

내 얼굴이 새빨개졌다. 왜 그런지 모르게 기쁘고 부끄러웠다.

×월 ×일

두번째 강의후의 휴식시간에 영일씨를 만났다.

《성태 그 친구 인사 전하더군. 뭐 미안하다나. 사실은...》

나는 그의 말허리를 자르며 부르짖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제가 잘못된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눈에 눈물이 펴 돌았다.

《이러지 마. 누가 보겠어.》

영일씨가 주위를 살피며 나를 달랬다.

아래층에서 TV소리가 요란히 울려서 윤미는 일기장에서 눈길을 들었다. 또 련속극시간이 된것같았다.

피- 어머니 창피한줄도 모르구!

련속극시간만 되면 음향을 잔뜩 높여놓고 그 치졸한 희로애락에 심취돼 버리는 어머니의 저속한 취미가 윤미에겐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다.

윤미는 TV소리가 듣기 싫어 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다시 일기장을 번져보았다.

×월 ×일

확실히 대학분위기가 달라졌다. 어제도 게시판에 이색적인 대자보가 하나 나타났다. 청와대의 폭군이 《광주대토벌작전전과보고서》라는것을 미 8군사령관에게 바치는 모습을 회화적으로 그린 만화말에 《우린 이이상 더 미국의 식민지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글이 적힌것이였다.

휴식시간만 되면 여기저기 삼삼오오로 모여서 광주이야기, 《한》미관계이야기들이다. 《식민지통치》, 《경제침략》, 《민족적수치》라는 말들이 자주 들린다.

×월 ××일

2호청사앞에서 유경훈교수님을 만났다. 인사올렸더니 교수님이 잠깐 측은한 눈매로 날 바라보시다가 《자식두...》 하시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주셨다. 교수님도 그 일 아시는게 아닐까?

×월 ××일

오늘은 내가 바보같은 실수를 한 날이다.

대학에서 돌아와보니 어머니가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가》를 읽고계셨다. 난 헤밍웨이를 썩 좋아하는편은 아니지만 TV연속극만 보던 어머니가 어쩌다 책을 들고있는것을 보니 기뻐다.

갑자기 어머니에게 때늦은 응석도 부리고 뭔가 털어놓고싶어졌다. 그래서 불쑥 성태씨애길 했다. 그의 인품과 슬기, 용맹에 대해서 찬양했고 그를 오해하고 비난을 퍼부어댄 그 거만과 경솔을 뉘우치는 내 마음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펄 놀라는 기색으로 내 말을 주의깊게 듣더니 화를 내며 꾸짖었다.

《다신 그 학생놈 생각하지 말아!》

《왜요?》

《왜가 뭐냐! 그런 몸쓸 학생과 교제하는거 아냐, 알겠니?》

《몰라요!》

난 토라진 소리로 한마디 내쏘고 어머니방에서 뛰어나왔다. 약이 올랐다. 성태씨를 《몸쓸 학생》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야속스러웠다.

윤미는 다시 일기장에서 눈길을 들고 생각에 잠겼다.

그가 성태를 알게 된것은 썩 오래전부터였다. 같은 대학에 다니니까 자연 서로 얼굴도 알게 되고 만나면 서로 목례도 주고받곤 했다. 그저 그 정도였다. 그의 이름이며 취미나 성격 같은것은 몰랐다.

그런데 그게 어느날이었던가. 그래그래, 드보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 연주회에 갔다온 다음날이었다.

락엽이 깔리기 시작하는 양지쪽 교정에 그 연주회구경을 갔다온 몇몇 학우들이 둘러앉아 《신세계》에 흑인들의 민요를 도입한것이 썩 좋았다는니, 드보르자크음악의 선율미와 구성미의 특색이 어떻다는니 하며 아는 소리, 모르는 소리들을 한창 주고받았다. 드보르자크의 실내악에 대해서 까지 아는체하면서 자기의 유식을 시위해보는 학생도 있었다.

거기에 성태도 끼여있었는데 한 학생이 그에게 너도 어제 밤 연주회에 간거 아니냐 하고 물었다. 졸다가 온거냐, 아니면 음악을 통 모르는거냐 하고 비꼬는 저의가 깔린 어조였다. 성태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꼬는것같았다.

성태는 그를 뻔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두들 근사한 말들을 하는데 난 이런 생각이 드는거야. 음악이야 원래 언어로 표현할수 없는 경지의 예술이 아니냐. 그래서 말야, 서둘러 말재간을 부리다간 음악고유의 진가를 훼손시킬수 있지 않을까 싶어.》

추상적인 말이었지만 윤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기 모인 학우들중에서 성태가 누구보다도 음악을 옳바르게 리해하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피똥 쳐다보니 제법 준수하고 높은 지성미를 풍기는 얼굴이었다. 전에도 가끔 본 얼굴인데도 오늘은 그 표정이 류달리 깊은 사색과 정서를 지니고있는것같았다.

그의 이름을 외우게 되고 그가 한때(그때는 윤미가 대학에 들어오기 전이었지만) 총학생회 간부로 활약하다가 징집되어 《국군》에 입대했고 제대후 다시 복학한 사실을 알게 된것은 그후의 일이었다. 뒤늦게 공부하는 학생치고는 공부도 썩 잘하는 수재형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관심하고 호감을 표시할 필요는 없었다. 그가 제 아무리 수재중의 수재이고 뛰어난 패남아라 해도 윤미에게는 그저 학우들중의 한사람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루는 성태가 좀 엉뚱한 소리를 했다.

《오후에 시간 좀 낼수 없겠어?》

《왜요?》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청수다방 알지? 16시에 그리루 좀 나와줘.》

무슨 얘긴데 하필 다방에서 한다는거예요?

윤미는 의아쩍은 시선으로 그를 뵈히 쳐다보았다.

성태는 흡사 동의를 받은 사람처럼 《그럼 기다릴게.》 하고 가버렸다. 피, 싱겨워라.

윤미는 입을 비죽거렸다. 그에게 다방에서 만나자느니, 요다음 일요일에 어디 등산가자느니따위 소리를 하는 남학생이 한둘이 아니었다.

윤미의 미모에 반해서 공연히 치근거려보는 수작들이었다. 윤미는 지금까지 한번도 그에 응한적이 없었다. 상대가 누구건 남학생과 단 둘이 만나는 놀음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것이 윤미의 생활신조의 하나였다. 성태도 예외로 될수 없었다.

때문에 그날 오후 그 청수다방이란 곳에 가지 않았는데 다음날 등교길에서 성태를 만났더니 뜻밖의 소리를 하는것이였다.

《어젠 미안했어. 오래 기다린거야? 갑자기 급한 일 생겨서 못갔어.》

윤미는 발끈 부아가 치밀었다. 어제 그 다방에서 장시간 기다리거나 한 것처럼 부아가 났다.

《뭐예요? 시시하게 남자가...》

《그래서 사죄하는거 아냐. 오늘은 꼭 갈거야. 같은 시간이야.》

윤미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고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날도 다방에는 가지 않았다. 성태를 다시 만난것은 그로부터 사흘후였다.

《덕분에 한시간동안 기다렸어. 일부러 끌탕먹이려고 그런건가, 아니면 무슨 급한 사정이 생긴건가?》

약간 빈정대는 말투였다. 윤미가 일부러 다방에 안왔다는것을 뵈히 알고 하는 말같았다. 그는 윤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 가버렸다.

윤미는 조금 무안한감을 느꼈다.

성태가 남들처럼 녀학생들에게 함부로 치근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긴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었을것같았다.

그게 뭘가?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구태여 따져묻고싶지 않았다.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라면 저절

로 알게 되리라고 믿었다. 자기쪽에서 안달이 나서 묻고 어찌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성태쪽에서도 다시 다방소리를 안했고 가끔 만나도 종전처럼 가벼운 목례나 주고받곤 했다.

하루는(그해의 첫눈이 부실부실 내리는 날이었다.) 좀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밖에 나가보니 구내길가의 의자우에 성태가 앉아있었다. 사위는 이미 어두워져서 구내등이 켜졌고 하얗게 눈이 쌓인 길엔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어둠속을 소리없이 내리는 눈이 성태의 어깨와 머리에 하얗게 쌓이는데 그는 두손에 머리를 싸권채 화석처럼 굳어져있었다. 이상야릇하고 지어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자세였다.

윤미는 불현듯 어느 영화에선가 본 웬 로인이 공원의자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장면이 떠올랐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까닭모를 공포에 오들오들 떨며 성태에게 조심조심 다가갔다.

《어쩐 일이세요?》

성태는 대답이 없었다. 분노와 고뇌에 이지러진 얼굴에 물기가 흐르고 있었다. 눈송이가 녹아서 흐르는 물이 아니었다.

《왜 그래요? 무슨 사고라도...》

《...》

성태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냥 두손으로 머리를 싸권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있었다.

윤미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그의 머리와 어깨에 눈송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자기를 상대하지 않으려 하는 성태의 랭담한 태도에 화가 나고 섭섭했다.

《왜 그러는거예요? 말하지 않음 나 안갈테예요!》

성난 소리로 쏘아붙였다.

그제야 성태가 통곡하는듯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영조가 죽었어, 영조가...》

《어머, 영조가 누구예요?》

《<삼청교육대>에 잡혀간 친구야. 거기서 매맞아 죽었다는거야, 군인놈들한테. 아까 그 소식을 들었어.》

윤미는 숨이 떡 막혔다.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삼청교육대》란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몰랐지만 가장 친근한 사람이 그 참변을 당하기라도 한듯이 비통한 슬픔에 휩싸였다.

《삼청교육대》가 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을 잡아가두고 무시무시한 기합과 강제로동으로 죽이고 병신으로 만드는, 《국군》이 관할하는 수용소라는 사실을 안것은 잠시후 성태가 다소 진정되었을 때였다.

성태가 분노에 찬 어조로 그 내막을 알려주었고 거기서 매맞아 죽은 영조란 사람이 사대학을 졸업한 후 인천쪽에서 새로운 민주화투쟁준비를 하던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부실부실 조용히 내리던 눈송이들이 공중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바람을 안고 몸부림쳤다. 가지끝에 매달렸던 눈꽃들이 락엽처럼 흩날렸다.

《내 반드시 복수할테다!》

돌연 머리를 쳐든 성태가 허연 입김을 헉헉 내뿜으며 웨쳤다.

윤미는 급기야 뜨거운 열풍에 휩싸인듯이 온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성태가 창졸간에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버린듯싶었다. 일단 결심만 하면 뭐든지 해낼 무한대의 담력과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사람같아보였다.

아무 말도 더할수 없었다. 어쩐지 말을 걸기가 무서웠다.

성태는 눈송이들이 태질하며 맴도는 허공을 쏘아보다가 불쑥 일어서더니 어깨와 머리에 흰눈을 뒤집어쓴채 교문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들이 다시 교정에서 만난것은 10여일후였다.

성태는 그새 중병이라도 치르고난 사람처럼 무척 수척해진 얼굴이었다.

《어디 편찮으셨어요?》

《앓긴...》

《그새 보이지 않네요.》

《응, 영조네 집에 갔던거야. 판데도 좀 들리구.》

윤미는 마음속에 뭔가 무거운것이 매달려드는것을 느끼며 가만히 물었다.

《가족도 계신분인가요?》

《응, 부인과 두살짜리 딸애가 남았어.》

《어머, 얼마나 상심했을가.》

《부인이 남편소식 듣더니 까무러치더군.》

윤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전달에 윤미를 다방에서 만나자고 한거 있지? 사실은 그때 영조의 부인이 서울에 와있었어. 남편이 <삼청교육대>에 잡혀간것같은데 좀 알아봐줄수 없느냐고 하더군. 그래서 윤미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알아낼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나자고 한거야.》

《어머, 그런줄도 모르고... 미안해요, 정말.》

《괜찮아, 딴 사람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어.》

《진작 그걸 알았으면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그분을 <삼청교육대>에서 빼냈을거예요!》

성태는 눈살을 조금 찌프리며 랭소를 머금었다. 윤미의 말을 끝이듣지 않는 눈치였다.

《정말이에요!》

그의 그 불신의 빛이 불쾌해서 윤미는 어성을 높이며 소리쳤다.

《정말이라... 솔직히 말해서 난 그날 윤미를 만나자고 하면서도 윤미 아버지가 그 친구의 소재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은 잘 들어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딴 사람이 나서니 저한테 부탁하는걸 포기했군요.》

《응.》

《아니예요! 아니예요! 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질 움직여 그를 구원 해냈을거예요!》

성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윤미를 그윽히 바라보는 눈길에 한가닥 놀라움이 어렸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윤미를 믿지 않은게 큰 실수였다 그 말인가?》

《그러문요!》

윤미도 여느 남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사회정치적현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대학교등학생시절에 미처 몰랐던 갖가지 부정부패현상들이 정의와 진실을 지향하는 량심을 자극했고 외세의 간섭과 청와대폭군의 폭압통치에 대한 비판의식이 점차 강하게 자라났다.

첫눈이 내린 날 성태의 그 절규를 들은 후 사회에 대한 그의 반항심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가두고 살해하는 폭압자들에 대한 분노로 치가 떨렸다.

성태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그의 그 복수심에 공감에 갔고 미구에 그가 뭔가 엄청난 일을 단행할것같은 예감이 들었다. 다시는 그의 앞에서 거만을 떨 엄두를 내지 않았고 그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학우들끼리 모여앉아 학술상문제나 사회정치적문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때 성태가 자기 이론을 펴면 전에없이 유심히 귀를 기울이었다.

그때부터 성태는 《대학정신》이니, 《시대의 량심》이니 하는 말을 즐겨 썼다.

윤미는 그것이 곧 그의 정신이며 량심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어 성태가 연단에서 주먹을 높이 추켜들면 자기도 그의 호소에 따라 교내집회건 가두시위건 적극 참여할것같은 예감마저 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모두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 기다리는 기분들이었다. 녀학생들도 그랬다.

하루는 같은 영문과에 다니는 영애가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토론회 같은것을 하자는 말을 꺼냈다.

그에 동조해나선 몇몇 녀학생들이 영애네 집에 모였다. 윤미도 거기에 참석했다.

《오늘의 시대적현실과 학생들의 자세》라는 주제를 내걸고 토론들을 해보자고 했다.

토론이 잘되지 않았다. 그저 단마디명창격으로 파썸폭압을 방임하는건 대 학생의 수치가 아닌가, 력사의 치욕을 씻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소리나 했다.

게다가 웃음이 헤픈 녀학생들의 모임이라 누가 제판의 논리를 전개하려다가 실언이라도 하게 되면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리거나 했다.

결국 우리끼리는 안되겠다는 결론에 떨어졌다. 무게있는 주제발표를 해줄 상급생을 한명 초청하는것이 좋겠다, 그럼 누구를 초청할가 토론하다 권성태씨가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럼 누가 성태씨에게 우리 뜻을 이야기하는거지? 윤미, 네가 하렴.》 하고 영애가 말했다.

윤미는 뭐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어 승낙했다.

다음날 등교길에서 성태를 만난 그는 방과후에 좀 만나요, 16시까지 청수다방에서 기다릴거예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16시반이 되도록 기다렸는데도 성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젠 미안했어. 급한 일이 좀 생겨서 못간거야.》

다음날 성태에게서 들은 변명이었다. 지난해 가을의 그 말과 비슷했다. 윤미는 조금 우습고 알미운 생각이 들었으나 애써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거기서 기다리겠어요. 꼭 와야 해요.》

거기서 녀학생들의 뜻을 전하고 곧바로 영애네 집으로 안내해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성태는 또 나타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어제 일이었다.

윤미는 발끈 약이 올랐다. 작년 가을의 그 일이 다시 상기되었다.

그때 내가 다방에 가지 않았다고 그에 대한 복수로 이번에는 자기가 일부러 나타나지 않은걸가? 성태씨가 그렇게 웅졸한 남자란 말인가? 혹시 내가 자기에게 반해서 어쩌는것으로 오해하고 공연히 비싸게 굴어보는게 아닐가? 천만에, 오판하지 말아요!

아무튼 두번이나 다방에서 허탕친것이 여간만 분하지 않았다. 그가 제 아무리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슬기의 소유자라 해도 그러한 무례한 행위를 결단코 용서할수 없었다.

윤미도 자존심이 강한 처녀인것이다. 자존심이 강한만큼 자기에 대한 무례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윤미였다.

그는 오늘 아침 등교길에서부터 성태를 만나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만나기만 하면 단단히 쏘아줄 작정이었다. 녀학생들의 모임에 그를 초청하는 일은 어제 벌써 단념했었다.

어제 저녁에 만난 영애도 같은 의견이었다. 판 상급생을 초청하기로 했던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성태를 만나 단단히 면박을 주는 일이었다.

아침부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그가 윤미앞에 불쑥 나타난것은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무렵이었다.

영일과 둘이서 오는것을 자연환경관앞에서 만났다.

《저 잠깐 만나요!》

매섭게 눈총을 쏘며 그를 잡아끌고 그 백양나무밑으로 갔다.

《너무 잘난체하지 마세요! 작년 가을 그 일로 복수하느라고 두번이나 골탕먹인거죠? 그건 제가 이미 사죄한 일 아니예요. 남자가 왜 그리 웅졸해요!》

《아니 그런거 아냐, 어제도 정말...》

당황해하며 변명하는 성태의 말을 자르며 계속 쏘아붙였다.

《시시해요! 제가 뭐 차나 한잔 얻어마시자고 만나자고 한줄 아세요? 독불장군 없다는 말 몰라요? 우리 녀학생들을 깔보는거죠? 왜 시대적사명감을 녀학생들도 갖고있다는걸 모르세요?》

윤미는 몇몇 녀학생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가지려 한 일을 실토하면서 두번씩이나 다방에 나타나지 않은 성태의 그 무례한 행위를 맏째게 비난했다.

성태는 무척 놀라며 무안해하는 기색이었다.

《정말 안됐어. 그런 초대인줄 모르구... 실은 나두 어제오늘 몹시... 후에 다 알게 되겠지만...》

중언부언 변명하는 그의 말을 채 듣지 않고 윤미는 핵 몸을 돌려 뛰어가버렸다. 그의 말을 더 듣고싶지 않았고 더 상대하고싶지도 않았다.

《아니 잠깐만!》

성태가 부르며 쫓아가려 했지만 곧 영일이 뛰어와서 그를 붙잡았다.

누군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나서 윤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얼른 일기책을 서랍속에 넣고 내다보니 가정부였다.

《손님 찾아왔어요.》

《손님?》

《예. 처음 오신 남자분이세요. 같은 대학에 다니시는분이래요. 응접실에서 기다리고계세요.》

성태씨가 오신게 아닐가?

윤미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서둘러 옷매무시를 살핀 다음 머리를 매만지며 아래층 응접실에 내려갔다.

안영일이 안락의자에 태평스레 앉아있었다. 그가 성태의 단짝친구라는 것은 윤미도 알고있었다. 성태를 만난것처럼 반가웠다.

《어머, 성태씨 지금 어디 있어요?》

《담배 피워도 되겠지?》

영일은 응접실을 둘러보며 판전을 피웠다.

윤미는 응접탁자위의 재털이를 눈으로 가리켰다.

《그건 장식품으로 놓은거 아니예요.》

영일은 담배를 붙여물고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성태가 보내서 온거야.》

윤미는 두손을 가슴에 모아잡았다.

《그날 성태를 무섭게 다몰아댔다지?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런 법 어디 있어.》

윤미는 명치끝에 찌릿한 아픔을 느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성태가 그 유인물배포준비를 위해서 다방에 오지 못했으리라는것은 그날 유인물을 받아본 후에야 알았었다.

성태는 영문과 강의실에서 윤미의 책상우에도 유인물을 놓으면서 한순간 그의 얼굴에 시선을 박았었다.

그 순간 윤미는 모든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얼마나 예리한 아픔으로 자신의 경솔을 뉘우쳤던가!

《미안해요. 성태씨 만나면 제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해주세요.》

《후에 사죄할짓을 애당초 왜 한거야?》

영일은 짐짓 엄격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꾸짖고는 뒤를 이었다.

《좋아, 그대로 전해주지. 근데 너학생들이 뭐 토론회한다구 했다면 서?》

《네, 그래서 성태씨 조용히 만나자고 한거예요.》

《실은 그 일때문에 온거야. 성태야 지금 마음대루 나다닐수 없는 몸아냐. 그래서 내가 성태대신으로 그 토론회에 가기로 했어. 언제 어디로 가면 되지?》

그것은 영애와 다시 의논해보아야 답변할수 있는 일이었다.

《래일 알려드릴게요.》

《그럼 점심시간에 도서관 복도에서 기다릴게.》

영일은 담배불을 끄고 일어섰다.

윤미는 그를 정문까지 바래주고 자기 방으로 뛰어올라갔다.

가슴속에 웅이처럼 박혀있던것이 탁 풀려나가는듯싶었다.

영일을 보내준 성태의 그 마음이 고마웠다. 역시 지혜롭고도 도량이 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호소, 그 유인물의 호소에 호응하여 자기도 부정에 항거하는 싸움의 길에 나서고싶었다.

또 누군지 계단을 구르며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어머니였다.

《아까 그 학생 누구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면서 묻는 말이 첫마디부터 노기가 어려있었다.

《우리 대학 다니는 학생이예요.》

《유인물 뿌리고 도망쳤다는 그 학생놈 아니냐?》

《어머니두 참... 피신해있는 학생이 대낮에 어떻게 함부로 나다니겠어요.》

《그럼, 그놈하구 같은 패지? 내 아까 응접실 문밖에서 너희들이 하는 소리 들었다. 토론회가 어찌구 한게 무슨 소리냐?》

윤미는 억이 막혔다.

《어머니 뭐예요? 남의 말 엇듣구,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년! 어미보구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윤미는 가볍게 몸서리를 치며 어머니를 쏘아보았다.

《어미를 쏘아보면 어쩔테냐?》

딸자식이 어머니를 어쩔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윤미는 어머니의 그 태도와 말을 참을수 없었다. 버릇없는 폭언이 터져나가는것을 참기 위해 피가 터지도록 입술을 깨물고있다가 피아노앞에 다가가 건반을 탕 두드렸다.

《두구봐라, 아버지한테 일러바치지 않나!》

어머니는 발을 구르며 으름장을 놓았다.

## 7

토요일인데도 원호엽준장은 날이 다 저물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어디 좀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 안해가 현관에 나와서 그의 가방을 받았다.

차에서 내리면서 올라다보니 2층 딸방에도 불이 환히 켜져있었는데 딸은 얼씬하지 않았다. 여느날엔 차소리만 나면 계단을 쿵당쿵당 구르며 뛰여내려오던 애가 웬 일인가싶었다.

《윤미는 어디 앓소?》

구두를 벗고 복도에 올라서면서 안해에게 물었다.

《앓긴요.》

《그럼?》

《후에 말씀드려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다시 물었다.

《애가 어째… 토라진거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어서 미세한 감정의 파동에 대해서까지 관심하게 되는것이다.

《저녁은 어떻게 하셨어요?》

《응, 좀 먹어야겠소.》

퇴근시간이 늦을 때는 의례 외식을 하는 법인데 그날은 좀 례외였다. 얼굴에 울적한 그늘이 비낀것도 전에 없던 일이었다.

안해는 남편이 저녁상을 물린 다음에야 고자질을 시작했다. 전날 딸에게서 권성태라는 학생의 말을 처음 들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낮에 딸의 방에서 벌어진 모녀간의 말다툼에 이르기까지 죄다 이야기했다.

호엽은 시종 잠자코 듣기만 했다.

안해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도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무겁게 몸을 일으켜 서재로 건너가버렸다.

안해의 고자질을 듣지 않아도 원호엽자신이 근간에 딸의 의식구조가 달라지고있다는것을 대강 알고있었다.

원호엽의 견해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체제비판에 열을 올리고 학생운동에 휩쓸려드는것은 젊은 한때의 열병과도 같은것이였다. 그것을 일종의 멋으로 여기는 성향도 없지 않고 통치권자의 시행착오에 저주를 퍼붓고 교내집회나 가두시위에 참가하지 않으면 학우들에게서 빈축을 사기때문에 그런 멋을 부리는 학생도 없지 않았다.

자기 딸 윤미도 그러ру한 부류에 속해서 기껏해야 파썸폭압이니, 자유와 민주주의니 하고 입방아나 찧을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해의 말을 듣고보니 사정은 다른것같았다. 유인물을 뿌리고 피신한 《불온학생》을 존경하고 오늘도 누가 와서 심상치 않은 쑥덕공론을 했는지 않은가.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원호엽은 단단히 신칙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무리 응석받이로 키운 외동딸이라 해도 엄중한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는 이상 방임해둘수 없는 것이다.

《윤미가 지금 제 방에 있소?》

식후 커피를 가지고 들어온 가정부에게 물었다.

《예.》

《한잔 더 갖다주게.》

커피라도 같이 마시면서 딸과 이야기할 심산이었다.

그러나 잠시후 가정부가 커피 한잔을 더 가져왔지만 생각을 돌려 딸을 부르지 않고 혼자서 마셨다.

아까 식사도 별로 입에 당기지 않더니 커피도 이상하게 전에없이 쓰거웠다. 같은 솜씨로 끓인것인데도 오늘따라 왜 그런지 알수 없었다.

혹시 기분탓이 아닐까?

아닌게 아니라 오늘은 동작동에 있는 《국군》묘지에 들렀다 왔으니 《동작동병》을 앓는 날이다.

그곳 동작동 《국군》묘지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다.

대학때부터 형인 자기의 충고를 한사코 듣지 않고 반《정부》집회에 뛰어들고 가두시위도 하면서 말썽만 일으키던 동생이었다. 류치장출입이 잦았고 휴학처분도 받았다. 그바람에 4년제대학을 6년만에 겨우 졸업했는데 학생군사훈련학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졸업후 입대시엔 남들처럼 소위로 임관되지 못하고 하사관이 되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어서 무척 아끼고 걱정해주었는데 동생은 가는 곳마다에서 말썽만 일으키려고 했다. 군에서도 또 무슨 엉뚱한짓을 저지를 것같은 기세였다.

그무렵 동생이 속한 부대에 월남전선에 출동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파병장병명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직후에 동생이 형을 찾아왔다.

《형, 우리 부대 장교들중에 룡사동기들이 있다고 했지요?》

《있구말구. 근데 그건 왜 새삼스레 묻는거냐?》

《월남에 가기 싫어서 그래요. 형, 어떻게 손을 좀 써서 빼돌려줄수 없어요?》

그것은 형의 신조에 어긋나는 청이었다.

《안돼!》

《왜요?》

《난 절대로 그런짓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구 월남에 가기 싫다는 너의 그 태도도 좋지 않은거야!》

《형도 그러니까 내가 딸라에 팔린 용병으로 미국놈들의 총알받이노릇

을 해야 한다는 말이군요.》

원호엽은 그만 억이 막혔다. 월남전선에 《국군》장병들을 파견하는것을 전제로 1억달러의 《원조금》을 받기로 《한》미당국자들사이에 협약이 체결된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동생처럼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월남파병은 어디까지나 《자유세계수호》를 위한 출전이고 총알받이로서가 아니라 미군의 《동맹군》으로 싸우러 가는것이니 말이다.

《너 보자보자하니까 못하는 소리 없구나.》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형한테야 소에게 경 읽기겠쥬. 좋아요. 탈영해서라도 월남엔 절대로 안갈테니 그리 아세요.》

그래도 어쨌든 동생이었다.

원호엽은 여러가지로 타일러보았다. 호되게 꾸짖기도 했다.

그러나 동생은 한마디도 귀담아듣지 않더니 나중엔 의자를 차고 일어나 인사도 없이 자기 부대로 돌아가버렸다.

호엽은 뒤쫓아가려다가 그만두었다. 동생을 뽑아내기엔 이미 때가 늦었다는것을 알았기때문이다. 파병부대의 경계가 심해져서 탈영이 불가능해진 시기였던것이다. 그는 다만 전화로 부대의 출국날자만 확인해두었다.

그 부대가 출발하는 날 호엽은 부산부두에서 동생을 만났다. 의외로 동생은 담담한 표정이였다. 모든것을 체념한 사람같았다. 그것이 형의 가슴을 아프게 자극했다.

승선구령이 떨어지자 동생을 짹 껴안았다. 목이 메였다. 뜨거운것을 삼키며 당부했다.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해!》

동생은 대답이 없었다. 형의 포옹에서 벗어난 다음에도 말없이 부두에 운집한 환송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해전에 작고한 어머니가 거기 어디에 와있지 않나 하고 찾아보는듯한 눈빛이였다.

너고생들의 《아리랑》합창소리가 구슬프게 울렸다. 리별의 아리랑고개 넘어 죽음의 싸움터로 가는 수천명 사병들에게 살아서 돌아오라고 기원하며 애어린 너고등학생들이 비오듯 쏟아지는 눈물에 얼굴을 적시며 노래를 불렀다. 환송객들도 울었다.

병신파도 좋으니 제발 죽지만 말아라고 웨치며 어머니들이 울었고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갈테예요 부르짖으며 안해들도 흐느꼈다. 전쟁이 무엇이

고 죽음이 어떤것인지 모르는 애기들도 엄마등에서 울음보를 터뜨렸다.

수송선이 닻을 올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송선도 수천명 생명을 죽음의 싸움터에 실어가는것이 서러워서 그러는가 부웅— 하고 올리는 배고동소리가 목메인 통곡소리처럼 들렸다.

점점 멀어져가는 수송선을 바라보던 호엽은 불현듯 까닭모를 울분과 설움이 북받쳐 어금이를 깨물었다.

어쩐지 그것이 동생과의 마지막리별처럼 느껴졌다. 동생을 파병부대에서 뽑아내주지 않은 딸이의 무정한 처사를 꾸짖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며 몸부림치는 환송객들속에서 울려나오는것같았다.

자기도 저 수송선을 타고 가서 동생에게 날아오는 탄우를 제몸으로 막아주고싶었다.

그로부터 3개월후 그자신도 파병장병들의 일원으로 웰남으로 가게 되었다. 소령으로 진급하여 부대대장직무를 받은 직후였다.

웰남전선에 투입되자마자 동생의 위치를 수소문해보니 멀지 않은 린접에 있었다.

시간을 내어 한번 찾아가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린일 전투가 계속되는데다가 참전 열흘만에 대대장이 전사한 후 대대지휘를 맡게 되면서 더욱 대대에서 잠시도 떠나기가 힘들었다. 동생네 대대장에게 전화로 동생의 안부를 자주 확인하는것으로 만족하는수밖에 없었다. 그쪽 대대장이 1년 먼저 룡사를 나온 선배여서 전화를 자주 거는데 대해 시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 대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동생이 치명상을 입어 시간을 다투는중이라고 했다.

아군진지에서 멀지 않은 민간인마을에 남부웰남해방군 전투원들이 잠입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한개 중대를 파견해서 은밀히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다가 지뢰밭에 걸려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동생도 거기에서 치명상을 입었다는것이였다.

원호엽이 뛰어가보니 동생은 마지막숨을 거두기 직전이였다. 그래도 용케 형을 알아보고 입술에 경련을 일으켰다.

《형... 형... 나...》

그 세마디 소리를 겨우 내지르고 입술이 굳어졌다. 동공도 굳어지고 숨소리도 끊어졌다.



호엽은 한동안 동생의 주검앞에서 꼼짝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의 심장도 고동을 멈추고 싸늘하게 식어버리는것같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하늘이 무너져내리고 땅이 갈라지는것같았다. 차라리 자기도 동생과 함께 머나먼 저승길로 가고싶었다. 가면서 동생과 할 이야기가 많을것같았다.

고등학교시절까지만 해도 무척 순박하고 어질고 정직한 소년의 표본과도 같던 동생이었다. 형을 따르고 존경하는 마음도 지극했다. 형의 장교생활을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형의 신념과 리상에 공감했다. 대학생이 된 다음에도 언제나 형에게 엇선것은 아니었다. 리념의 차이를 론하지 않을 때에는 소년시절처럼 사뭇 형을 따랐다. 형의 결혼초기 군무에 바빠서 집안살림을 돌볼 틈을 내지 못할 때 형수를 도와 장판을 새로 해주고 부엌선반을 만들어준것도 동생이었다. 형 없이는 못살것같이 굴었고 형도 언제나 동생을 자기 육신의 한 부분처럼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애가 지금 어떻게 된거냐? 죽었다는게 사실이냐? 잠시 눈을 붙이고있는게 아니냐?

《호영아! 호영아!》

다급히 동생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피가 엉겨붙은 동생의 입에서는 숨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한 위급장교가 와서 원호엽의 팔을 잡아당겼다.

《소령님, 부패되기 전에 시신처리를 해야겠습니다.》

동생이 분명 죽었다는 사실이 크나큰 슬픔의 실체가 되어 형을 비애의 심연속에 밀어넣었다.

동생의 시체는 그후 화장터에서 재로 변하였다. 그 재를 담은 조그마한 상자를 호엽은 가슴에 안고 귀환했다.

미혼의 몸으로 전사한 동생에게는 해마다 남의 나라, 남의 전쟁터에서 쓰러진 그날을 잊지 않고 동작동 《국군》묘지에 찾아와 울어줄 미망인도, 자식도 없었다. 오직 형만이 그 기일이 되면 동작동으로 찾아가서 머나먼 저승길에 가있는 동생을 마음속에 되살려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맨 먼저 떠오르는것이 《형... 형... 나...》 하던 동생의 그 마지막 세마디 말이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형, 왜 날 파병부대에서 빼돌려주지 않았나요, 형도 나처럼 될수 있을거야 하는 그런 말을 하고싶었던것이 아

닐가?

원호엽이 자기자신과 군의 실태며 청와대의 시책과 《한》미관계에 대해서 의혹과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것도 그 동작동 《국군》묘지에 다니면서부터였다.

여러가지 불쾌한 사항들 특히 미군측과의 접촉과정에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이런저런 굴욕적인 일들이 의식의 표면에 떠올랐다.

우리 《국군》이 언제까지 미군사령관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여야 하느냐, 군의 통수권상실은 곧 민족자결권의 상실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냐. 청와대의 정치가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대신 통치권자의 영구집권을 위한 폭정이라는것도 사실이다. 그런줄 뻔히 알면서도 현 체제수호임무를 수행하는 군에 복무하는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

마음이 울적해지고 가슴이 답답했다. 혈압이 오르고 때로는 협심증발작처럼 심장에 예리한 통증이 와서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갔다.

원호엽은 스스로 그 증상을 《동작동병》이라고 이름지었다. 혼자만 앓고 혼자만 아는 《병》이었다.

오늘도 그 《동작동병》을 앓다가 퇴근한것이다. 마음이 괴롭고 몸도 무거웠다. 그러한 형편에서 딸을 불러야 이야기를 제대로 해낼것같지 않았다.

그래서 래일 저녁에나 만나기로 작정하고 담배를 피우고있는데 딸이 제발로 내려와 문을 열었다.

《들어가도 좋아요?》

약간 새침기를 띤 긴장한 얼굴이었다.

그 학생 이야기를 제입으로 먼저 할 작정인가.

원호엽은 자기 옆자리를 눈으로 가리켰다.

《종장구, 이리 와 앉거라.》

딸은 안방쪽을 힐끗 살피고 조용히 들어와 앉았다.

《요새두 공부가 바쁘냐?》

《예.》

《그래두 너무 책벌레가 되지 마. 가끔 교외에두 나가보구...》

《교외엔 아버지하구 같이 가기로 약속하잖았어요.》

《참 그랬지, 래일 나가볼가?》

윤미는 가볍게 머리를 저었다.

《왜, 싫으냐?》

《태일은 판데 가볼데가 있어요, 아버지.》

《음-》

《제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서 온거예요. 어머니한테서 미리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원호엽은 딸이 무릎우에 엎어놓은 두손을 깎지끼는것을 보았다. 애처롭게 보일 정도로 가느다란 손이었다.

《대강 들었다, 방금.》

《그럼 구체적인 사연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군요.》

《나도 오늘은 너하구 그 이야기를 안할려구 생각했다만...》

《왜요?》

원호엽은 《동작동병》이야기를 할수 없었다. 그것은 가족들에게도 실토하기 싫은 《병》이었다.

《좀 피곤해서 일찍 쉬려구 한거야.》

윤미는 아버지의 안색을 피딱 살펴보았다.

《어디 편찮으신것같아요. 안색이 좀...》

《아니 괜찮다.》

딸의 봉긋한 입술사이에서 호오 하고 가벼운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왕 내려온거니까... 뭐지? 하고싶은 말 해라.》

딸은 얼른 말문을 열지 않았다.

원호엽은 문득 떠오른 생각을 입밖에 내여 말했다.

《너 혹시 그 학생을 사랑하는거 아니냐?》

《아니예요, 절대로! 그런거 아니예요!》

딸이 펄쩍 뛰었다. 그 어조며 표정으로 미루어보아 거짓말이 아닌것같았다.

《그럼, 리념상공감이나?》

《그러문요!》

딸의 깎지낀 손에서 손가락마디를 꺾는 소리가 났다. 몹시 흥분했을 때 하는 버릇이다. 다 큰 처녀가 사내애들처럼 흥하게 그게 무슨짓이냐고 제 어머니에게서 여러번 야단맞고도 그 버릇을 떼지 못한다.

《애야.》

원호엽은 딸을 조용히 부르고 담배불을 켰다.

《저더러 반체제학생운동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실거죠?》

딸이 앞질러 나왔다.

《물론이지.》

원호엽은 또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니예요! 그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예요!》

딸이 세차게 머리를 저으며 부르짖었다.

《본심이 아니라니?》

원호엽은 머리를 조금 기웃했다.

《아버지도 현 체제의 부정을 모르실수 없어요. 뻔히 아시면서 일부러 눈감고계시는거예요.》

원호엽은 고개를 약간 젓히고 천정을 쳐다보았다. 문득 동생의 얼굴이 색이 바랜 사진처럼 흐릿하게 그려졌다.

그때 동생을 파병부대에서 빼돌려주지 않았던것이 정말 큰 실수였던가? 아니 그래서는 안되는 일이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장교가 그런짓을 해서는 안된다 하고 원호엽은 얼른 자신을 변명했지만 그러면서도 뭐라 딱히 짚어 말할수 없는 당혹감이 느껴졌다.

무겁게 몸을 일으켜 창가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았다. 눅눅한 바람이 쓸어들었다.

《나 오늘 너의 삼촌묘에 갔다왔다.》

외등이 켜진 정원을 내다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너의 삼촌이 전사한 날이다.》

《그런줄 알았으면 저도 같이 갔을걸...》

《너의 삼촌도 입대전에는 학생운동에 열을 올리던 사람이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딸에게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였다. 그 이야기를 왜 불쑥 하게 되였는지 원호엽자신도 알수 없었다.

《어머, 그래요?!》

딸이 가볍게 환성을 올리며 발짝 뛰어일어났다.

원호엽은 몸을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생기가 도는 얼굴이였다.

《살아있었으면 네편을 들게다.》

《그러문요! 우리 가문에도 그런분 계셨다는건 큰 자랑이예요!》

《아니 나는...》

원호엽은 뒤말을 잊지 않았다. 실지 더 할 말이 없었다.

《동작동병》은 하루이틀 지나면 나을것이다. 해마다 그러는것이다.

딸과의 이야기는 며칠후에 다시하는편이 좋을상싶었다. 딸도 더 할 말이 없는것같았다.

《아버지, 그럼 편히 쉬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딸은 활달한 걸음걸이로 방에서 나갔다.

## 제 3 장

### 1

수행장교 5명을 대동하고 전연사단들에서의 작전훈련실시상태를 점검하러 내려온 원호엽준장은 전에 자기가 참모장으로 근무했던 사단에도 들리게 되었다.

이번 점검은 《한》미련합사령부의 명령으로 실시하는것이지만 실지로는 미8군사령부의 요구에 의한것이였다.

그렇수밖에 없는것이 《한》미련합사 사령관이자 미8군사령관이고 미8군사령부의 중요참모들이 《한》미련합사의 참모직을 다 차지하고있기때문이었다. 미8군사령부의 《국군》에 대한 통수지휘권행사도 《한》미련합사령부를 통해 실시되고있었다.

《한》미련합사령부에 들어가있는 《국군》장교들은 미군사령관과 참모들의 보좌역에 불과했다.

미8군사령부측에서 《국군》 전연사단들이 작전교육을 불원만하게 실시한다는 의견이 제기된것은 얼마전이었다. 그 의견을 접수한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은 저으기 난처해졌다. 전연사단들에서의 작전훈련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에서 일괄적으로 하달하는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것이고 그 계획도 사전에 미8군사령부—《한》미련합사령부의 동의를 받은것이였다.

계획하달에 그친것이 아니라 매월 1, 3군사령부들에서 종합하여 육군본부에 올려보내는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사단들에서 그 계획에 따라 작전훈련을 실시하고있었다.

물론 우열의 차이는 있었다. 하달된 계획을 정확히 실시한 사단들이 있는 반면에 계획을 미달한 사단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아 다 원만히 실시된다는 평가를 내릴수 있었다.

그에 대해서도 《한》미련합사령부—미8군사령부에 제때에 보고되였다. 그런데도 불원만하게 실시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던것이다.

미8군사령부에서는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급히 현황을 파

악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것을 요구했다. 요구이자 곧 명령이었다.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에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조사단을 전연에 파견하여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로 한것이다.

조사단은 서인결준장휘하 사단에 오기 전에 두개 사단을 먼저 점검해보았다. 점검결과 육군본부에 올려보낸 군사령부의 보고가 엉터리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우선 육군본부에서 하달한 훈련계획을 100% 실시한 편대가 한두개 편대밖에 없고 나머지 편대들은 70~80% 심지어 겨우 50%정도 실시한 편대도 있었다. 그나마 태반이 전성으로 실시된것이었다.

조사단의 한 성원이 X사단 X편대 X대대에서 육본훈련목표로 정해진 시간내에 완전군장 10키로미터 주파(달려서 끝까지 돌파)구보능력을 측정 한바에 의하면 합격자가 30%밖에 되지 않았다. 실탄사격을 시켜보아도 명중률이 형편없이 낮았다.

장교들의 부하통솔력도 낙후했고 군무기강해이현상이 사처에서 나타났다.

원호엽준장은 저으기 놀랐다. 전로부터 육군본부에 올라오는 1, 3군사령부의 보고가 다 정확한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전연사단들의 실패가 그렇게까지 낙후한줄은 미처 몰랐던것이다.

원호엽자신이 전연사단 참모장직무를 수행할 때까지만 해도 형편이 지금 같지는 않았다. 몇해사이에 사태가 아주 악화된것이다.

또 한가지 원호엽을 몹시 놀라게 한것은 육군본부에서도 구체적으로 모르고있는 전연사단들의 그러한 실상을 미8군사령부측에서 이미 알고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육군본부를 통해 보고받는외에 딴 통로를 가지고있는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런저런 일로 해서 사뭇 저하된 기분으로 이곳 서인결준장휘하 사단에 온것이다.

서인결준장은 원호엽과 같이 육사13기를 나온 오랜 구면이었다. 그러나 졸업후 서로 배속부대가 달라서 자주 만날수 없었고 단 둘이 조용히 마주앉을 기회가 극히 드물었다.

이번 상봉은 원호엽이 공적용무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루어진 옛 동기생과의 상봉이어서 피차에 몹시 반가웠다.

원호엽은 수행장교들을 다 숙소에 가서 쉬게 하고 사단장실에 남았고 서인결사단장은 교환대에 전화를 연결시키지 말라고 일렀다. 공적용무를 뒤로 미루고 옛 동기생으로서의 시간을 즐길 생각이였다.

두 장성은 안락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그런 경우 누구나 다 그러는것처럼 그들도 먼저 서로 상대방의 건강상태며 부인과 자녀들의 안부를 묻고 사방에 흩어져있는 동기생들의 근황도 화제에 올렸다. 쏘아보니 근 200명의 동기생들중에서 지금 현역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다. 제대로 많이 했고 병으로 혹은 군무중 사고로 저승에 간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일찌기 5.16의 선풍을 타고 약삭바르게 정계에 진출하여 쟁쟁한 중진으로 활약하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다. 이민보파리를 꾸려가지고 머나먼 이역땅에 가버린 후 소식이 끊어진 동기생들에 대한 추억에 잠시 숙연해지기도 했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청와대측근에 가붙어서 호통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구누구는 벌써 2성장군이 됐는데 여태 대령급에서 머물거리는 지각생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세월을 거슬러올라가 룩사시절과 하급장교시절의 잊을수 없는 나날도 더듬어보았다.

둘이 다 소령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웰남파병이야기가 나오자 원호엽은 남의 나라, 남의 전쟁에서 죽은 동생 생각이 나서 일순 가슴에 예리한 통증을 느끼었다.

서인결사단장이 곧 화제를 돌려주어 다행이었다.

추억은 곧 인생의 년륜이다. 추억이 많은 그만큼 오랜 세월을 살아온 그들이다. 하긴 20전후의 홍안으로 룩사에 입교한 그들이 준장으로까지 진급한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그리하여 그들의 머리에도 벌써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원호엽은 자기가 이 사단에서 군무하던 때의 이야기도 몇마디 했다.

당시 함께 군무하던 아무개 소령이 지금도 있는가, 누구누구는 건강이 안좋았는데 요새는 좋아졌는가 그런 소리를 하다가 한병구대위의 군무성적에 대해서도 한마디 물었다.

서인결의 검버섯이 내돋은 얼굴이 여기서 별안간 굳어졌다.

《그녀석의 말은 하지두 마시오.》

노기가 서린 음성이었다.

《왜 그러시오?》

원호엽이 의아쩍게 물었다.



《장교자격이 없는 녀석이요!》

원호엽은 얼른 믿어지지 않았다.

《한병구대위는 내가 3사교관으로 근무할 때부터 잘 아는 장교요. 내가 여기서 참모장을 할 때도 아주 성실히 근무했는데.》

서인결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에 가더니 서랍에서 종이장 하나를 꺼내가지고 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구 이거나 보시오.》

《이거 뭔데 그러오?》

원호엽이 그것을 받으며 물었다.

《한병구 그녀석이 나한테 써보낸 항의편지요. 건방진 녀석같으니라구!》  
길지 않은 편지였다.

사단장님께 아뢰니다.

본관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시말서를 쓸수 없습니다.

본관은 또한 본관에 대한 이번 조치에 일부 장교들의 사감이 있다고 확신하며 그 사감의 배후에 숨어있는 부당한 동기에 대하여 상부에 제소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장님 면접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했기때문에 부득불 이 서신으로 면접을 허락하여주실것을 거듭 상신하는바입니다.

×월 ×일 제×련대 작전보좌관 대위 한병구 올림

원호엽이 편지를 읽는 사이에 서인결은 책상앞의 자기 자리에 가앉았다.

병구이야기가 나오면서 두 장성사이가 느닷없이 뿔뿔해짐을 주었다.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군요. 시말서를 쓰라고 한것같은데 무슨 사교라도 친거요?》

원호엽이 병구의 편지를 책상우에 놓으며 물었다.

서인결은 부아가 치민 소리로 거칠게 내쏘았다.

《<간첩>의 누이한테 반해서 미쳐날뛰었으니 그게 어디 제정신있는 녀석이요?!》

성태를 경찰에서 수배중인 《간첩》이라고 사단장에게 보고한것은 남인

표소령이었다. 그는 병구가 지서에 가서 한 행동에 대해서도 과장해서 보고했다. 즉 지서에 뛰어 들어가자마자 권총으로 당직형사를 위협하다가 발사했으며 그의 왼쪽팔에 관통상을 입힌 다음 제 4촌오빠의 《간첩》활동에 협조한 죄로 구금중인 처녀를 강제로 탈취해내어 어디엔가 은닉시켰다고 했다.

만약 서인결사단장이 사물을 다면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남인표소령의 말을 즉석에서 액면 그대로 믿기 전에 한병구대위가 《간첩》련루자로 경찰에 구금된 처녀를 완력으로 탈취해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상식을 초월한 행위였다는 점을 간파했을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자살행위와도 같은 만용이다. 대위가 아니라 대령이나 대장이라도 그런짓을 하면 즉시로 보안대에 체포될것이니 말이다.

한병구가 미친놈이 아니라면 결코 그런짓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것이 응당하다. 설사 그가 그와 같은 자살적인 만용을 부린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남인표소령이 왜 당자를 즉시 체포하지 않고 사단장에게 보고만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서인결이 생각해보아야 했었다.

남인표소령이 한병구대위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덧붙인 의견이 있었다. 그런 장교를 사단에 남겨두면 여느 장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뿐 아니라 사단의 권위까지 손상시킬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서인결은 남인표가 그러한 의견을 제기하는 저의에 대해서도 깊이 따져보지 않고 한병구를 징벌할 생각만 했었다.

《<간첩>의 누이관건 또 누구요?》

원호엽은 그런저런 사정을 몰라서 또 이렇게 물었다.

서인결은 그제야 남인표에게서 들은 사항을 그대로 전하고 자기의 결심까지 이야기했다.

《그런 녀석을 어떻게 사단에 그냥 두겠소. 당장 불명예제대시켜서 내쫓을 생각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넘기려구 시말서 쓰라 했더니 그것 두 안쓰구 이따위 편지질이요. 교양 녀석같으니라구. 기어이 내쫓아버릴테요!》

서인결은 원래부터 부하들을 잘 믿지 않고 아끼지도 않는 사람이였다. 언제나 험한 욕설과 엄한 징벌로 부하들을 통솔하고 복종시켰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간다는 식으로 실책을 저지른 부하가 나지면 타이르고 시정시켜줄 대신 징벌부터 가했다. 조폭한 사람들이 항용 그러듯이 그도 자

기의 그러한 통솔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믿었다. 그에 대해서 남들이 어떤 뒤소리를 하고 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가 하는데 대해서 몰랐고 알고고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것을 악용하는자들이 있는데 바로 남인표가 이번에 자기의 그 단순한 성격과 정벌일변도식통솔방법을 악용하려고 한다는것을 감감 모르고있었다. 그것을 전혀 모르는 점에 있어서는 원호엽도 같았지만 그대신 서인결의 말을 액면그대로 믿지는 않았다.

《그 처녀가 제 오빠의 <간첩>활동을 협조했다는건 확실한가요?》

《혐의가 있으니까 경찰에서 잡아갔을게 아니요!》

서인결은 뻔한것을 가지고 왜 자꾸 꼬치꼬치 묻느냐고 짜증을 내는 말투였다.

그러나 원호엽은 끝까지 해명하고싶었다.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장교라고 믿어온 병구였다. 모든 위관급장교들이 병구만큼 두뇌가 명석하고 군무를 잘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에 대한 친근감도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남달리 그를 내세워주고 떠밀어주고싶기도 했다. 특히 이 사단에서 참모장으로 군무할 때 그러한 충동을 자주 느꼈었다. 그러나 그에게 배경을 믿는 습성을 키워줄가봐 삼가했었다.

병구가 참모장과의 친분관계를 내두르지 않으려 하는것을 보고 더욱 그를 기특하게 여겼다.

육군본부에 전속된 후에도 가끔 관사에 찾아오곤 하는 그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똑똑하고 성실한 장교라고 내심으로 감탄했다.

이젠 그를 돌봐주어도 될것같았다. 래년쯤 그가 소령으로 진급하면 미국류학을 갈수 있게 주선해줄 계획이였다. 그런데 그가 《간첩》의 누이를 사랑하고 그러한 망동을 부렸는지 않는다.

아무래도 진실같지 않았다. 보안대의 보고에 뭔가 과장이 있는것같고 원래 단순해서 다각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서인결사단장이 지나치게 성급한 속단을 내린것이 아닐가싶었다.

특히 병구의 그 편지가 원호엽으로 하여금 서인결의 말을 쉬 믿지 않게 만들었다.

원호엽으로서는 사단장이나 보안대의 말보다 병구의 말을 믿고싶었다.

《보안대 말이 사실이라면 한병구대위가 <간첩>련루자를 강제로 탈취해서 빼냈다는것으로 되는데 그거야 보안대에서 취급할 사건이 아니

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니 여태 구금되지 않은것같은데 그건 어찌된 일  
이요?》

《남소령 말로는 좀더 두고 감시해보다가 손을 쓸 작정이라오.》

그렇다면 왜 불명예제대를 시키려고 하는가 하고 원호엽은 생각해보았다.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현역장교들속에서 보안사범혐의로 체포  
된자가 나타나면 그것은 곧 사단의 불명예로 된다. 부하들속에 그런 장  
교가 있는줄을 모르고 지낸 사단장도 난처해진다.

그러한 불명예와 난처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안대가 손쓰기 전에 사  
단에서 내쫓아버리자는것이라.

역시 서인걸다운 지능계수가 과히 높지 못한, 지내 단순한 타산이다.

원호엽은 조용히 머리를 내저었다. 사단장의 그러한 처사가 못마땅하  
게 느껴졌다.

《아까두 말했지만 한병구대위는 내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장교요. 필  
요하다면 내가 보증설수두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없겠소?》

《조사단에서 그런 일까지 관여하게 됐소?》

사단장은 언짢은 기색으로 되물었다. 자기 결심으로 처리하려는 일에  
원호엽이 간섭해들려고 하는것이 불쾌한 모양이었다.

나이가 많아지면 성질이 느긋해지고 생각도 깊어지는것이 보편적인 현  
상인데 례외적으로 성급해지고 괴팍해지는 사람도 간혹 있다. 서인걸사단  
장의 경우가 바로 이 후자에 속했다.

원호엽은 그의 마음을 돌리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렇다고 병구의 운명이 함부로 처리되는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수 없  
었다.

《물론 우리 조사단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요. 그러나 한 장교의 운명  
문제인것만큼...》

방음장치가 된 문이 열리는 바람에 원호엽은 하던 말을 중단했다.

《뭐야?!》

방안에 들어서는 전속부관을 보고 사단장이 껍 소리질렀다.

《한병구대위가 사단장님을 만나뵈겠다고 또 찾아왔습니다다.》

《쫓아버렷! 징계위원회에서 부를 때 오라고 해!》

핵 돌아서 나가는 전속부관을 원호엽이 불러세웠다.

《중위, 잠깐 기다리오.》

사단장이 실눈을 지으며 그를 건너다보았다.

《내가 한대위를 좀 만나보겠소.》

원호엽의 말에 사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전속부판에게 소리쳤다.

《그를 들여보내!》

잠시후 한병구가 들어왔을 때 사단장은 원호엽의 자리와 마주한 반대편 벽밀의 의자에 자리를 옮겼다.

원호엽이 하는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흥미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쪽에 가앉은것같았다.

병구의 도착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서인걸이 중도에서 끊어버렸다.

《할 말 있으면 원준장님한테 해!》

원호엽은 병구를 자기앞에 가까이 불렀다.

오래간만이였지만 수인사를 주고받고 할 계제가 아니여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자네가 사단장님에게 올린 편지를 나도 보았네. 시말서 쓰기를 거절한 이유가 뭐지?》

병구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부터 준비해온듯 서슴없이 말한다.

《제가 <간첩>련루자를 지서에서 강제로 빼냈다고 하는데 그 녀자의 오빠는 <간첩>이 아니라 서울 XX대학교에 다니는 권성태라는 학생입니다.》

《아니 뭐라구?》

원호엽은 권성태라는 그 이름이 귀에 익었다. 딸 윤미에게서 들은 이름이였다. 딸이 존경하는 그 학생의 이름이 권성태라고 했다.

그런데 반체제유인물이나 뿌리고 피신한 학생을 누가 갑자기 《간첩》으로 둔갑시켰는가?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 학생의 동생이 지서에 간혀있을 까닭도 없지 않나. 애인을 지서에서 빼내왔다는것도 부인하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구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사실이 이런데도 조작된 죄를 뒤우치는 시말서를 쓰라 하기때문에 거절한것입니다.》

원호엽은 서인걸사단장쪽에 시선을 돌렸다.

사단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병구의 이야기를 믿

지 않을뿐만 아니라 뻔한것을 가지고 따지고 캐고 하는 원호엽의 처사가 못마땅해서 그러고있는것임에 틀림없었다.

원호엽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병구를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한 그 말이 진실이라는것을 장교의 명예를 걸고 맹세할수 있나?》

《예, 맹세합니다!》

병구는 가슴을 쭉 펴며 힘차게 대답했다.

《한가지 더 묻겠네. 자네 생각에는 남소령이 자네에게 그런 혐의를 씌우는 이유가 어디 있는것같은가?》

병구는 먼저 허동팔대위와 남인표소령의 군수품횡령건을 가지고 자기가 련대장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일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 후 그 두 장교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다는것까지 이야기한 다음 자기의 억측을 말했다.

《저에 대한 이번 모해는 그들의 보복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녀자가 틀림없는 <간첩>련루자라면 저를 체포하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물증이 없어서 체포는 못하고 그대신 사단장님에게 그러한 허위보고를 하면 제가 불명예제대를 당할거라고 타산했을겁니다.》

정확한 추리같았다. 원호엽은 그냥 창밖을 내다보고있는 서인결에게 한마디 했다.

《어떻소, 좀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소?》

서인결은 돌연 몸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획 돌렸다.

《에잇, 이 비렬한 놈!》

침을 탁 내뱉듯이 꾸짖으며 서인결이 벌떡 일어섰다.

《네놈한테 무슨 장교의 명예가 있다구 그따위 소리 지껄이는거냐! 제 잘못을 감추려구 남들까지 모해하다니, 엉? 군수참모가 뭘 어쨌다는거냐? 우리 사단엔 그런 부정행위 없어! 네놈이야말로 아무 물증도 없이 남을 모해하는 비렬한이다! 그래두 장교라구? 당장 그 계급장 떼놔!》

서인결은 제손으로 병구의 계급장을 떼낼듯이 사나운 기세로 다가섰다.

이때 책상우에서 전화종이 요란히 울렸다. 조금전에 분명 전화를 련결하지 말라고 일러두었는데도 무슨 긴급정황이라도 생긴듯 연방 다급히 울렸다.

서인결이 잔뜩 화가 댄 얼굴로 책상에 가서 송수화기를 들었다.

《뭐냐? 내가 전화 넣지 말라구 하잖았어! 뭐 관사에서 급한 전화라구?젠장, 련결해!》

부인에게서 오는 전화같았다. 서인결은 송수화기를 다른 손에 바꿔쥐며 의자에 앉았다.

《응, 나요. 무슨 일이요? 크게 말하오, 뭐라구? 아니... 가정부가? 응, 응... 아니 여보, 그게 정말이요? 당신 눈으로 확인했다구... 그년도 실했단 말이지... 누구? 보안대 남소령이?!...》

통화는 약 5분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동안 서인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사람처럼 눈섭을 푸들푸들 떨다가 지독한 모욕이라도 당한듯 참혹한 얼굴이 되기도 했다. 때로는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하다가 돌연 의자에서 뛰어일어나면서 씩씩거렸다.

드디어 통화가 끝난 다음에는 넋나간 사람처럼 천정을 멍히 쳐다보았다.

《택에서 무슨 사고라도 생긴게 아니요?》

원호엽이 넋지시 물었다.

《사고?》

서인결은 원호엽을 뵈히 쳐다보다가 병구에게 불쑥 물었다.

《아까 뭐라구 했지? 보안대 남소령과 군수참모가... 아니 됐어, 자넨 돌아가게.》

병구는 일순 주춤거렸다. 그렇듯 심한 폭언을 듣고 그냥 돌아갈수 없다는 심산같았다.

원호엽이 엄격한 눈빛으로 어서 가라고 꾸짖었다. 병구는 입술을 깨물며 두 장성에게 인사하고 나갔다.

서인결은 쓰러지듯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저 남의 가정사에 상관하는것같아 안됐소만 혹시 보안대 남소령이란자가 부인을 모욕한거 아니요?》

원호엽이 또 이렇게 묻자 서인결은 주먹으로 책상을 탕 쳤다.

《처가 아니라 바로 나를 모욕했소. 남소령 그놈이! 우리 집 가정부를 매수해서 침실에다 도청장치를 했다는거요. 그걸 집사람이 발견했는지 않소!》

보안대가 장교들의 동태를 감시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중령급이상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가, 어디로 갔는가, 몇호

차를 리용했는가, 몇시 몇분에 출발했고 언제 귀대했는가 하는것을 엄밀히 감시하고 기록한다. 그의 성격과 취미, 가족사항과 주량, 교육관계, 여자관계까지 조사장악한다.

하지만 사단보안대 장교가 사단장관사의 침실에 도청장치를 했다는것은 너무 지나친것이다. 부부침실이란 인간생활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이다.

특히 서인걸의 경우 10여년전 본처와 리혼하고 지금의 안해와 재혼했는데 연령차가 15년이나 된다.

로년기에 이른 남자와 완숙기의 불길에 휩싸인 녀인의 부부생활이다. 조화를 못이루는 쌍이라 부부싸움이 자주 벌어지기마련이고 그 싸움에서 패자로 물리는것은 언제나 남편이다. 온갖 잔소리와 행악질이 벌어지고 젊은 안해를 감당하지 못하는 늙은 남편의 추하고 가련한 물골이 드러나는 곳도 침실이다.

남인표소령이 바로 그 침실의 비밀, 서인걸의 부끄러운 내부를 몰래 엿보았다는것이였다.

《취새끼같은 놈! 내 그놈을… 그놈새끼를 그저…》

서인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웨치다가 고개를 푹 떨구었다. 책상위에 팔굽을 짚고 두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머리도 빠지기 시작해서 술이 많지 않았다. 이마가 거의 정수리까지 벗어져올라갔다. 염색을 미쳐 못해서 하얗게 드러난 귀밑머리가 로년기에 이른 그의 나이를 채삼 강조해주었다. 몹시 처량해보였다.

만여명 부하들을 호령하며 지휘하는 장성의 도고한 기상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굴욕감에 찌그러진 불쌍한 초로의 사나이가 거기 책상위에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다. 별안간 그의 몸집도 머리도 작아진것처럼 보였다.

《남소령이라면 아까 한병구대위가 말한 그 장교같은데…》

서인걸이 손을 힘없이 내저어서 원호엽은 하던 말을 중단했다. 그 장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아무 말도 듣고싶지 않다는 손짓같았다.

충분히 리해할수 있는 심정이였다. 원호엽자신도 지독한 모욕을 당한것만 같았다.

한병구의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고 또 서인걸을 위로할 말도 없었다.



차마 낮을 들수 없는 그의 처참한 기분도 십분 이해할수 있었다. 이런 때는 혼자 있게 해주는편이 차라리 좋을것이다.  
원호엽은 무겁게 몸을 일으켜 방에서 나갔다.

## 2

병구가 사단장실에 다시 나타난것은 그로부터 사흘후였다.

방에 사단장은 없고 원호엽이 혼자 있었다.

《내가 불렀네. 여기 와 앉게.》

원호엽이 그를 자기 옆자리에 앉혔다. 사흘전 그날 사단장과 나란히 앉아있던 그 안락의자였다.

사단장의 책상은 종이 한장 없이 반반했다. 전엔 언제나 각종 계획서며 보고서, 통계표 같은것들이 무드기 쌓이고 펼쳐져있던 책상이었다. 지금은 여러대의 전화기들도 숨을 죽이고있었다.

의자뒤에 세워둔 장성별을 하나 그러붙인 기발이며 그 뒤벽의 지도들도 주인을 잃은 물건들처럼 불안간 초라해진것같았다.

《사단장님께서 편찮으시다더니 좀 차도가 있습니까?》

병구가 넋지시 물었다.

《사단장님이 앓는다는 소리는 누구에게서 들었나?》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으음...》

원호엽은 채머리를 흔들었다. 그가 데리고 온 조사단의 한 성원이 조금전에 와서 사단장관사 침실도청사건과 관련한 소문이 어떻게 퍼지고있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과장과 억측이 덧붙여진 소문이었다. 도청장치뿐만 아니라 비밀촬영기까지 설치해놓고 사단장 사모님의 라체사진도 몇장 찍었다느니, 보안대 하사관들이 그 사진으로 딱지치기를 한다느니, 침대에서의 피성도 록음으로 잡았다느니, 사모님이 사단장 몰래 웬 중령을 끌어들여 재미보는 장면도 렌즈로 잡았다느니... 별의별 소문이 다 나돈다고 했다.

남인표소령의 《협조자》노릇을 한 가정부에 대한 소문도 있었다.

사단장 부인이 그의 머리를 잡아채며 뺨을 치자 적반하장격으로 군보안

업무에 협조한 사람을 왜 때리느냐고 대들면서 부인의 팔을 물어뜯다가 어디론가 도망쳐갔다는 것이었다.

그바람에 사단장 부인은 앙앙 울면서 서울 친정집으로 갔다고 했다.

부인이 떠나간 후 서사단장은 남인표소령을 불러다놓고 펄펄 뛰면서 야단치다가 졸도하여 응급치료를 받고 현재 관사에 누워있는데 혈압이 터져 반신불수증상이 왔다는 소리도 나돈다고 했다.

지저분한 그 가지가지 소문이야 마이동풍으로 흘러버리면 그만이지만 남인표소령은 아무래도 그대로 둘수 없었다.

원호엽은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어제 육군본부조사단 단장의 자격으로 그를 불러 사단장관사 도청장치문제에 대해서 추궁했다. 조사단 단장이라 해서 보안대의 업무에 대해서까지 간섭할 권한은 없었다.

사단보안대들에서 그러한 도청공작을 하는것을 보안사령부에서 묵인, 장려한다는것도 원호엽은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탄로될 때는 인권침해측면에서 항의를 제기할수 있다.

그것이 곧 보안대 요원들의 서툰 숨씨가 빚어낸 일이기때문에 보안사령부에서도 건성으로나마 《유감》을 표시하고 사단장을 모욕한 장본인을 《문책》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원호엽은 이번에 자기 조사단이 검열한 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인 것만큼 육군본부와 보안사령부 그리고 미8군사령부에 진상보고를 할 예정이다. 대관절 어찌하여 그런 사건이 발생했느냐 하고 남인표소령에게 위협적으로 추궁했다. 한병구대위문제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뭐냐고 따졌다.

남인표는 그러한 추궁이 있으리라는것을 예상한것같았다.

원준장이 묻자마자 흡사 암기사항을 외워바치듯이 사단장관사 침실에 도청장치를 한것은 우리 보안대의 박아무개상사의 소행입니다, 저도 대장님도 몰랐습니다, 사단장님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사는 오늘 직위해제시키고 타부대로 전속시켰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말단요원을 희생물로 바치고 자기는 발뺌하는 수작이었다.

한병구대위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답변할 말을 준비하고있은듯 거침없이 엮어댔다.

《저희들도 경찰지서에서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즉시로 사단장님에게 보고한 다음 재확인하기 위해 어제 다시 지서형사를 만났더니 <간첩>이라는 확정적인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권성태 같은 학생

이 <간첩>으로 리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경우 한병구대위도 거기에 휩쓸려들수 있기때문에 예방책을 세우고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간첩>소리를 했다는것입니다. 저도 군보안장교로서 한병구대위에 대한 혐의가 해소된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면서 원호엽은 사흘전 병구가 《...그런 혐의를 제기하면 제가 불명예제대를 당할수 있다고 타산했을것입니다.》라고 한 말을 상기했다.

병구의 말이 옳은것같았다. 사단장의 손을 빌어 그를 불명예제대시켜 버리려 했을것이다.

원호엽은 남소령의 어리석은 잔꾀가 가소로웠고 그의 잔꾀에 넘어가 애매한 부하장교를 내쫓으려고 한 서인걸의 경솔성에 쓴웃음이 나갔다.

원호엽은 그렇게 쓴웃음을 짓는것으로 그칠수 있었지만 서인걸은 사정이 달랐다. 직접 모욕을 당하고 조소거리가 된 당사자인것이다.

남소령 그놈을 그냥 둘수 없다, 상부에 제소하겠다, 당장 사단에서 내쫓고말겠다 하고 벌렸지만 보안대장교를 제손으로 어찌는 방법이 없었고 더우기 남소령이 그렇게 슬쩍 발뺌을 하고 물러선 바람에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게다가 부인이 창피해서 못살겠다고 서울 친정집으로 가버렸으니 혈압이 오를수밖에 없었다.

원호엽도 불쾌했다.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어찌는수가 없게 된 서인걸의 일이 남의 일같지 않았다.

뭔가 근원적인 맹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것같았다. 가장 중요한 사항을 망각하고있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것은 한병구의 애인이라는 그 처녀가 《간첩》련루자가 아니라라는 말을 들은것이였다. 한병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딸 윤미를 위해서도 천만다행이였다.

만약 그 처녀가 《간첩》련루자라면 그의 오빠인 권성태가 틀림없는 《간첩》으로 되는것이고 그러한 경우 그 학생을 존경하고 어찌고 하는 딸 윤미에게도 불미한 후환이 미쳐올것일테니 말이다.

그러나 병구를 다시 만나지 않고 떠나갈수 없었다. 한두가지 충고를 줄것도 있었다.

책상우에서 전화종소리가 두어번 울리다가 잠잠해졌다. 오늘도 사단장

이 자기 방에 없다는것을 깜빡 잊은 교환병이 실수를 한것같았다.

방이 조금 더웠다. 비라도 한줄기 쏟아부으려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구름이 두텁게 끼여있었다.

《사단장님은 혈압이 좀 올라서 쉬고있네. 래일쯤부터는 출근하실거네. 그러구 내 어제 남인표소령이라는 그 작자를 만났는데…》

원호엽은 어제 남인표에게서 들은 말을 한병구에게 대강 알려주고 뒤를 이었다.

《그 처녀에게서 <간첩>련루자협의를 벗어났것은 좋은데 지서에서 란동을 부린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네. 자네가 그따위짓을 하다니, 천만 뜻밖이네.》

《준장님!》

《변명말게.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그건 장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네. 자네가 처음부터 그 처녀의 무죄를 확신했다면 그것을 증명해서 처녀를 구원해냈어야 하는거네.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담당형사를 때려눕히고… 그게 뭔가? 장교의 특권을 악용한 만용이다 그거네.》

그 누구든지 자기에게 부여된 특권을 악용해서 폭력을 휘두르는것을 제일 혐오하는 원호엽이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현 《정권》의 폭압통치도 그것이 아무리 《안보》니, 《국체보위》니 하는 미명하에 감행되어도 본질은 《대통령》개인의 영구집권을 실현하기 위한 폭력행위였다. 민의를 무시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면서 《대통령》개인의 권위와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리기 위한 폭력정치인것이다.

원호엽은 그러한 통치수법, 정치폭력에 결단코 동의할수 없었다. 현역장성이라는 직업적위치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놓고 로골적으로 비난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불만과 반감은 항상 품고있었다.

물론 병구의 지서사건은 그와는 성질이 다른것이였다. 그러나 장교라는 특권을 악용해서 군인들앞에서 약자로 되는 지서경관을 폭력으로 때려눕히고 자기 뜻을 관철시킨 그것이 원호엽에게는 못마땅하게 느껴졌다.

병구는 원호엽의 꾸중에 잠시 머리를 숙이고있다가 답변했다.

《충고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그런 방법으로 그 처녀를 구출해내지 않고 또 만약 사단장님관사 도청사건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사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당한 리유와 주장이 파쑈적폭압에 묵살되고 탄압당하는것이 이 땅의 정치풍토가 아닙니까.》

하긴 그렇다. 그것이 독재정치의 생리이며 속성이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정치풍토인것이다. 죄없는 사람도 어쩌다 수사기관에 걸려들기만 하면 《죄인》으로 둔갑돼버린다.

이런 판국이니 병구말대로 만약 그가 경찰지서에서 완력행사를 하지 않고 또 우연한 기회에 사단장관사 도청사건이 탄로되지 않았다면 그 처녀를 구원해내지 못했을뿐 아니라 한병구까지 《간첩》련루자로 몰렸을것임에 틀림없다.

원호엽은 그만 입이 쓰거웠다. 안락의자의 등받이에 상반신을 기대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정치풍토라...》

《정치풍토도 그렇지만 우리 군의 연혁사와 현실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원호엽은 무슨 문제지? 하고 묻는 시선으로 병구를 돌아보았다.

《준장님.》

《어서 말하계.》

《우리 <국군>의 통수권소재문제입니다. 그것이 최근 일부 장병들의 논의거리로 되고있습니다.》

그것은 병구자신의 일이기도 했다. 고명찬일병을 만난것이 하나의 계기로 된것같았다. 펍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해있던 회의와 반감이 고일병의 그 의아스러운 말에 자극되어 의식의 표면에 부상돼오르기 시작했던것이다.

게다가 이번 지서사건과 남인표의 모해 그리고 서인걸사단장이 당한 모욕이 또한 《국군》의 도덕적타락상을 재삼 발견하도록 했고 그의 근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했다.

미8군사령부에 예측된 군대라는 그 근원적인 부정, 그 원천적타락에서 이러저러한 부정부패현상들이 파생된다는 고일병의 말이 백번 옳다고 생각했다.

참으로 창피하고 불쾌한 일이었다. 상처입은 자존심의 발작처럼 가슴속에 예리한 아픔을 주는 충격이 자주 생겼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국군》이 대관절 어찌하여 이러한 예측적현실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의혹이 생겼다.

과거가 있어 오늘이 있는 법이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이다. 자연

《국군》연혁사를 더듬어보게 되었다.

맨 처음 머리에 떠오른것이 《국군》연혁사의 시발점으로 된 미군정청의 《법령》이었다. 그 《법령》에 의하여 1945년 11월 13일 미군정청에 국방부가 발족되고 부장직을 맡은 미군대좌가 《〈한국〉인들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던것이다.

군대를 조직하자니 지휘장교들이 필요했다. 미군정청은 그해 12월 5일 서울 서대문구에 군사영어학교를 개설하고 여기에 주로 과거 일본군과 만주군에 복무했던 장교들을 수용하여 그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했다. 미군정청의 명령을 정확히 접수, 집행하는 장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군사영어학교에서 소정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 각련대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국방경비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한것은 각련대에 배속된 미군 고문관들이었다. 그들의 명령과 사전승인이 없이는 《한국》인지휘관들이 작전, 훈련, 통신, 보급업무 일체를 집행할수 없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과도기간 잠정적군사 및 행정협정》에 따라 남조선에 주둔한 미군사령관이 《〈한국〉 국방군을 조직, 훈련, 장비할 권리를 계속 보유》하며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기로 했던것이다.

그리고 1950년 7월 리승만과 미국동군 총사령관 맥아더사이에 교환된 서한이 또한 《국군》을 계속 미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군대로 되게 했고 정전후에 체결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에 관한 〈한〉미의사록》도 미군사령관에게 《국군》을 계속 지휘할 권한을 부여해주었다.

근년에 《한》미연합사령부를 새로 발족시킨것도 《국군》에 대한 미 8군사령관의 통수지휘권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게 처음부터 미군에 의해 조직되고 훈련되고 장비되었고 미군측의 명령과 승인없이 대대병력 하나도 움직일수 없게 된 《국군》이었다.

사단수를 늘이고 화력장비를 증강한것도 미 8군사령부와 미국방성의 동의와 《원조》를 받고 한것이였고 50년대의 조선전쟁과 월남전쟁에서 《국군》부대들을 지휘한것도 미군사령관들이었다. 군정과 군령의 모든 사항이 미군의 지휘봉에 따라 실시된 그것이 바로 《국군》의 연혁사였다. ...

병구는 지금 원준장앞에서 그 굴욕적인 연혁사를 얼핏 상기했고 그래서 《군의 연혁사와 현실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던것이다.

거기에 통수권소재문제가 논의거리로 되고있다는 소리까지 덧붙였으니 원준장이 자기의 심정을 대강 짐작할것이라고 병구는 생각했다.

아닌게 아니라 원호엽은 병구의 입에서 연혁사소리가 나오자 부지중 이마살을 찌프리며 으음— 하고 입안의 신음소리를 냈다.

병구가 무슨 뜻으로 연혁사소리를 하는지 대뜸 짐작이 갔고 그 연혁사의 갈피마다에 얼룩져있는 갖가지 불미한 사항들이 시커먼 연기처럼 눈앞에 어지럽게 흘러갔다.

홍안의 청년으로 특사에 입교한 후 30여년동안 군적에 몸담아왔으니 《국군》연혁사는 곧 그의 일생이기도 했다. 그런것만큼 병구보다 더 심한 굴욕감을 느끼기마련이었지만 그에 대해 짐짓 푸념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지고보면 《국군》이 통수권을 상실했다는데만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었다. 이 땅의 《정부》라는것도 애당초 미국의 의사에 의해 생겨났고 그 《정부》의 모든 시책들도 백악관과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의 지령과 《합의》하에서 실시되는것이다. 그러한 《정부》의 군대인것만큼 미8군사령부에 예속될수밖에 없다고 원호엽은 생각했다. 《정부》를 존속시키고 《국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휘와 《원조》를 받는것이 불가피하다고 간주했다. 일종의 필요악(피할수 없는 사회악)이라고 할가.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때가 많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현역장성의 직책이 그 필요악을 수용하고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 시비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원호엽도 애써 군의 통수권소재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병구가 느닷없이 그런 소리를 한데 대해서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거냐고 꾸짖어줄 대신 부지중 이마살을 찌프리며 입안의 신음소리만 내고말았던것이다. 《동작동병》증상과도 비슷했다. 아니 그보다도 더 괴롭고 수치스러운 느낌이 가슴 밑바닥에서 뒤번졌다.

《준장님께서 방금 지서사건으로 장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꾸중하셨지만...》

병구가 원호엽의 얼굴을 힐끗 살피고 천천히 말했다.

《기탄없이 말씀드리는걸 용서해주십시오. 전 통수권을 상실한 우리 <국군>의 예속적실태가 저와 준장님을 포함한 모든 장교들의 명예심을 손상시키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옳은 말이 아닌가. 하지만 원호엽은 아무 응대도 안하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래서?》

한참만에야 눈을 뜨며 호엽이 물었다. 병구는 얼른 대꾸할 대신 고개를 푹 떨구었다. 원준장의 물음이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하는 뜻인줄을 알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이 없었기때문이다. 남달리 믿고 존경하는 사람이기때문에 울적한 심정을 털어놓았을뿐이었다.

현실의 굴욕을 고발하고 분격한다 해서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무겁게 울적해졌다.

원호엽도 대꾸할 말이 없는 그의 심중을 꿰뚫어본듯싶었다. 생각에 잠긴 얼굴로 창밖을 우두커니 내다보기만 했다.

이때 출입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서인결사단장의 전속부관이 들어왔다.

《준장님, 군단사령부에서 전화왔습니다.》

《나한테?》

《예, 미8군사령부에서 내려온 험프리중좌가 준장님을 찾습니다.》

험프리중좌란 미8군사령부 작전국소속 장교이다. 《국군》 특군본부와의 협조업무담당자여서 원호엽과도 몇번 만난 일이 있었다.

《무슨 용무로 찾는다구 그러던가?》

《자세한 말씀은 없고 그저 군단사령부에서 기다리겠는데 몇시까지 그리로 오실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더러 그리로 오라구?》

《예.》

원호엽은 쓰겁게 입을 다셨다. 일개 중좌가 장성을 호출하다니, 미8군사령부에 예속된 《국군》의 치욕을 새삼스레 체험하는 기분이었다.

《전화 끊지 않고 왔나?》

《예.》

《그럼 가서 전하게, 나한테 용무있으면 이리루 오라구.》

《예.》

전속부관이 나가자 원호엽은 가볍게 채머리를 흔들었다.



찢차가 옆에 와서 멎더니 문하사와 고명찬이 뛰어내렸다.

《안녕하십니까, 대위님? 7중대 가는 길입니다. 이 친구 서울 왔다는데 면서 버스에서 내리는걸 봤거든요. 도보로 가려면 저녁점검전에 도착 못 해서 맞아터질것같애 인심 한번 쓴겁니다.》

문하사의 말이였다.

《서울엔 왜 갔나?》

병구가 고일병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연락이 와서요.》

고일병의 대답이였다. 용수리에서 5리쯤 떨어진 곳이였다. 지혜가 왕진 갔다는 학성리가 저만치 오른쪽에 바라보였다.

병구는 근간에 자주 우울증에 사로잡혔다. 군의 예측적현황과 그러한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사뭇 우울해졌다.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어떤 운명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생활을 더 지속시키는것은 스스로 자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닐가 하는 생각까지 났다.

하지만 그 결단이 어떤것이어야 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울적해졌다. 화가 나기도 했다. 지혜와의 관계도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지혜는 지서사건후 중병을 앓고난 사람처럼 훌쩍해졌다. 지서에서 모진 곤욕을 당했던 일이 무시로 악몽처럼 살아나서 밤잠도 제대로 못잔다고 했다. 게다가 오빠적경때문에 늘 가슴을 조이고있으리라는것도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그 무서운 곤욕의 여진과 시름겨운 걱정이 가뜩이나 말수더구가 적은 그를 더욱 과묵하게 만들어놓아서 병구와 만나도 별로 말이 없었다.

병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듣지 않고 자기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듯한 얼굴을 하고있다가 호젓이 한숨짓기가 일쑤였다.

어떻게 보면 병구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사람같았다. 그러지 않아도 제대하라, 성태오빠의 벼으로 돼달라며 병구를 노엽히고 괴롭히던

그였다.

경찰지서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병구의 그 결단성있는 행동도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듯싶었다.

만약 병구쪽에서도 그럼 좋다, 갈테면 가라 하고 등을 돌려버릴수 있다면 사랑이고 뭐고 간단히 끝날것이겠지만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지혜를 단념한다는것은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었다.

실상 병구에게 있어서 지혜에 대한 사랑은 무슨 신앙과도 같은것이였다. 지서사건이 있는 후 그 신앙이 더욱더 열렬해졌다. 특히 마음이 울적해질 때마다 지혜를 만나고싶어졌다. 막상 만나봐야 그 호젓한 한숨소리에 섭섭해지곤 했지만 그런대로 울적한 기분이 다소나마 진정되는것도 사실이였다.

오늘도 그랬다. 할 일이 없는 일요일이라 더욱 마음이 울적해져서 오후에 병원으로 가봤더니 환자가 많았다. 일요일 오후는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서 쉬는것이 상례인데 오늘따라 복도에서 기다리는 환자만 해도 네댓명이나 되였다.

병구는 하숙집에 돌아갔다가 해질녘에 다시 가보았다. 환자도 없고 지혜도 보이지 않았다. 채의사가 혼자서 병원을 지키고있었다.

지혜는 내과의 박선생과 같이 학성리에 왕진을 갔다고 했다. 채의사의 말에 의하면 박선생이 원래 애주가인데 왕진간 그 동네에 술친구가 있어서 진료가 끝나면 저는 그 술친구네 집에 남고 지혜를 혼자 보낼것이라고 했다.

병구는 그길로 학성리를 향해 떠났다. 왕진이 늦어지면 지혜가 밤길을 혼자 올라봐 걱정스러웠다. 학성리까지 가서 그와 함께 돌아올 생각이였다. 그래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겨가다가 문하사와 고명찬을 만난것이다.

《부친께서 몹시 편찮으신가?》

고명찬에게 물었다.

《좀 차도가 있더군요..》

《무슨 병인데?》

《고혈압입니다.》

병구가 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문하사가 그에게 물었다.

《대위님, 제가 부탁드린 그 일 어떻게 됐습니까?》

《타사단에 전속시켜달라는 그것?》

《예.》

《그후엔 댄 일 없었나?》

《또 한탕했습니다.》

《장대위에게 말했네. 앞으로 기회봐서 어떻게 해줄거네.》

《고맙습니다. 참, 어디까지 가실겁니까? 타십시오. 모셔다드릴게요.》  
병구는 학성리쪽을 가리키며 사양했다.

《저 동네 가는 길이니까 그냥 가게.》

《거기에 들렀다 가두 됩니다.》

《괜찮대두. 저 지름길루 가면 돼.》

고명찬이 그 지름길을 보더니 차에서 자그마한 러행가방을 들어냈다.

《나두 여기서 내리겠네. 수고했어.》

《갑자기 황천왕동이가 되려나?》

문하사가 자기의 성의가 무시되는것이 섭섭한듯이 언짢은 기색으로 이 죽거렸다.

《암만해두 차타구 중대까지 가는게 거북해서 그래. 일병주제에 너무 호강한다구 남들이 웃을거야.》

병구는 그냥 타고 가라고 권하려다가 그만두었다. 명찬이 자기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것이 아닐가싶은 생각이 들었기때문이다.

《종도록 하계. 대위님, 제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문하사가 차를 몰고 떠나가자 병구는 걸음을 땀다. 곧 학성리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나졌다.

고명찬도 말없이 가방을 다른 손에 바꿔들며 병구와 함께 그 길에 들어섰다. 약 300미터쯤 가니 길이 산기슭을 끼고돌았다.

《여기 좀 앉았다 갈가?》

고명찬을 돌아보며 물었다.

《예.》

길에서 조금 벗어난 산기슭에 돌이 나란히 앉았다.

《서울 가서 성태씨 만나봤나?》

《아뇨,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병구는 머리를 기웃했다. 성태를 만나보고 그 이야기를 하려는것인줄로 짐작했던것이다.

그럼 대관절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건가?

잠시후 고명찬이 전혀 예상외의 소리를 했다.

《대위님이 사단장실에 갔다는 소문 저도 들었습니다. 룩본에서 내려오신 원호엽준장님 덕분에 불명예제대를 겨우 면하셨다더군요.》

병구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프렸다. 그런 얘기를 듣기가 불쾌했고 더우기 원준장 덕분에 어쩐다는 소리가 비위에 거슬렸다.

사실은 사단장에게서 모욕적인 폭언을 들은 일이며 원준장을 따로 만난 이야기는 여태 아무에게도 한적이 없었다. 공연히 궁금해하며 물어보는 동료장교들도 있었지만 일부러 화제를 돌려버리곤 했다. 엉뚱한 억측과 과장이 덧붙여진 소문이 돌고있다는것도 알고있었지만 굳이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일병에게서까지 그런 오해를 받기가 싫었다. 그에게만은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고싶었다.

《남인표소령의 모해로부터 말썽이 생긴거네.》

이렇게 허두를 떼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다.

고명찬은 제가 먼저 꺼낸 화제인데도 별로 귀가 솔깃해서 듣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한대위가 원준장에게 군의 통수권소재문제에 대해 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별안간 긴장해졌다.

명찬은 오늘 아버지의 입원실에서 만형을 만났다. XX신문사 정치부 기자인 만형은 반《정부》적인 경향이 강한 언론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전으로부터 만형을 사뭇 존경하고 따르는 고명찬은 그에게 감추는것이 없었다.

형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버지의 병상결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내고 병원을 나선 고명찬은 그길로 형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다. 형수가 시동생을 위해서 제법 푸짐한 점심을 차려주었다.

점심을 다 먹은 다음 소원수리건으로 중대장 지종만대위와 대결을 한후 머리속에 떠오른 그 어떤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형에게 이야기했다.

그의 형은 주의깊게 듣고나서 자기 의견을 말했다.

《우선 네가 했다는 그 대결이란 주먹으로 바위를 친 격이다. 너도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부하겠지만 중대장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거다.》

《그럼, 무조건 죽었소 하고 있어야 한다는겁니까?》

형은 능청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언제는 군복무기간을 인생의 공백기로 간주하겠다구 하더니?》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능성을 찾았다는 말같은데… 내 생각엔 말이다. 일대일의 대결을 하는건 바람직한 가능성이 못될것같다. 학생운동도 그렇지 않니. 한두사람의 반항만으로는 아무 일두 치지 못한다. 중요한건 벼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손잡는거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기어이 반항해야 되겠느냐,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지향하여 투쟁해야 할것이냐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결심과 의지가 중요하기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것이다. 사상 감정과 의지가 인간적힘의 원천이기때문에 더욱 자신의 정의감과 투지의 진실성과 그 무게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것이다. 한번 반항의 길에 나서면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싸워나갈 각오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군의 예속적실태와 파쑈폭군의 군위병노릇을 하는 치욕을 청산하고 학생운동과 민중항쟁의 지원자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도 투철해야 한다. 광주대학살만행에서 여실히 드러난것처럼 《국군》은 자기 동족을 살해하는 범죄집단이다. 이러한 군인집단을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학생운동과 민중항쟁에 대한 탄압병력이 아니라 그를 지원하는 민중의 군인집단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싸우는것이 오늘 량심적군인들앞에 나서는 과제이다. 그것은 결코 혼자서 할수 없는 일이다. 어느 개별적지휘관이나 상관의 비행을 폭로규탄한다 해서 군의 체질과 좌표가 달라지는것도 아니다. 뜻을 같이하는 벼들을 찾아내어 그들과 손잡고 진정한 민족의 군대, 민중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 …

형은 이러한 의견을 말한 끝에 책 몇권을 꺼내주었다.

《부대에 가져가서 읽어보아라. 거기서두 남들한테 들키지 았구 볼수 있겠지?》

《예, 리념서적들입니까?》

《그렇다. 현시점에서는 우선 공부하는것이 최우선과제이다. 네가 말하는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자면 무엇보다먼저 리념무장이 중요하다.》

고명찬은 서울을 떠나 용수리로 오면서 형의 말을 두고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다. 모두다 수궁이 가는 충고였다. 일개 장교와의 대결이 아니라 군의 체질과 좌표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에 나서고싶었다.

그러나 얼른 떠오르는 벼이 없었다. 형의 충고가 아니라도 혼자서는 용빼는수가 없는것이다.

김영수소위의 얼굴이 피땀 떠올랐지만 그는 아직도 인생의 공백기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대학때 정의감을 가졌다 해서, 또 군의 부정을 혐오한다 해서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속단할수 없다. 비판의식이 강하면서도 실지 행동선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것이다.

어쨌든 그와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또 누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수리까지 왔고 문하사를 만나 그의 차에 타고 오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다가 한병구대위를 만났던것이다.

우선 반가웠고 그리고 이왕 만난김에 그에게 자기의 뜻을 비쳐볼 생각이 났다. 그러지 않아도 언제 한번 다시 만나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싶던 한대위였다. 지서사건과 남인표소령의 모해로 하여 그의 심정이 요새 더 복잡해졌고 어쩌면 그 역시 군의 근원적부정에 분격하고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하사를 먼저 보내고 그를 따라나섰는데 뜻밖에도 그에게서 군의 통수권소재문제에 대한 말을 듣고보니 한가닥 신심이 생기면서 은연중 긴장해졌던것이다.

《대위님.》

《응.》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에 타협하면 또 새로운 부정을 조장시킨다구.》

《기억이 나네.》

그가 책구레미를 찾으러 온 날에 그런 말을 했던것이다.

《제 생각엔 우리가 군의 근원적부정에 타협하는것으로 아주 무서운 범죄행위를 묵인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어떤 범죄 말인가?》

《군이 국민교살자노릇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학생운동과 민중투쟁이 격화될 때마다 류혈적탄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게 뻔합니다. 미국에 예측된 용병으로 파썸폭군의 근위병노릇을 하기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병구는 손을 내저으며 고명찬의 다음 말을 밀막았다. 듣지 않아도 그

가 무슨 말을 하려는것인지 알수 있었다.

다시는 민주화투쟁을 탄압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자유와 민주를 위한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미군의 예측에서 벗어나고 민중학살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려는것이리라.

병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자기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있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꼭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 최근의 그 우울증과 반감의 밑바탕에 그러한 생각이 깔려있은것이 아닐가싶었다.

그야 어쨌든 초보적인 량심과 지각이 있는 군인이라면 응당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것같았다.

이야기를 중단당한 고명찬은 한동안 묵묵히 땅바닥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린 어차피 군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행위가 자기와 상관없다고 할수 없으니까요. 군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조건에서는 어느 개별적군인의 량심도 깨끗해질수 없습니다. 제가 제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할수 있는 기본징표의 하나가 인간적량심을 소유한데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량심을 잃으면 그것은 곧 스스로 인간이기를 거부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전 대위님도 누구보다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분인줄로 알고있습니다.》

고명찬은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그러나 붙여물 생각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대위님의 량심이 우리 군의 예측적현실과 반민족적좌표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것도 전 알고있습니다.》

병구는 수일전 원호엽준장을 만났던 일을 뇌리에 떠올려보았다. 만약 그날 원준장이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자기가 어떤 말을 더했을가. 지금 고일병이 하는것과 비슷한 소리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물론 군대가 대학사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군대복무기간을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인생의 공백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정의와 량심을 실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 가능성이 보인다는 말이지 하고 생각하며 병구는 고개를 조금 뒤로 젖혔다.

큰길 건너편 산마루에 저녁해가 걸려있었다. 그우로 노을이 불길처럼

타버졌다. 구름들도 주황빛으로 물들며 서서히 움직이고있었다. 그 어떤 거대한 힘이 그 하늘가에 몰려드는것같았다.

《자네 말뜻을 알만한데...》

병구는 뒤말을 잊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일병의 말에 십분 공감 이 갔지만 선듯 맞장구를 칠수가 없었다. 솔직한 심정을 톡 터놓고 말하는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마음 한구석에 매달려있었다.

고명찬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사실은 그자신도 생각이 다 정리된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한것은 아니였다. 안타까움과 막연한 욕망이 앞설뿐 이지 구체적인 타산과 론리가 서있지 않았다.

이이상 참을수 없는거다, 군에서도 어떻게 저항을 시작해야 하는거다 하는 생각에서 말문을 연것인데 병구대위가 그저 듣기만 하니 이야기를 더 진척시키기가 힘들었다. 그나마 버럭 고함을 지르거나 꾸짖지 않는것이 다행이였다. 무언중에 자기 말에 공감을 표시해준것이 아닐가싶었다.

그도 이제 더 깊이 생각해보겠지. 다음 기회에 만나면 자기 속을 열어보일것이다.

《시간두 늦었는데 그만 가보게.》

잠시 흐른 침묵을 깨며 병구가 말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고싶지 않았다.

최근 너무 복잡한 일을 겪었던것이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본 다음에 고일병을 다시 만나고싶었다. 그러지 않아도 지혜 마을을 가는 길인데 고일병과 더불어 너무 오래 있을수 없었다. 이제 곧 어두워질것이다.

고명찬은 다소 미련이 남은 얼굴로 인사하고 떠나갔다.

병구는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자박자박 다가오는 발자국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지혜였다.

《어쩐 일이세요?》

《응, 학성리에 왕진갔다는 말 듣구 마중가다가... 박선생은 그 마을에 떨어졌소?》

《예.》

지혜는 한숨어린 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 눈물자국 같은것이 보였다.

《좀 쉬었다 가겠어요.》



치마를 여미며 땅에 내려앉는 모습도 몹시 피곤해보였다.

《무슨 환잔데? 몹시 힘들었던가보군.》

처녀의 곁에 나란히 앉으며 물었다.

지혜는 호젓이 한숨만 지었다.

《오빠소식은 더 없지?》

일부러 화제를 돌려보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왜 그러오? 오빠가 잘못됐소? 오늘 무슨 소식이라도 들었소?》

《아니예요.》

《근데 왜 그러오?》

《오늘 치료한 환자가 살지 못할거예요.》

지혜는 흐느끼는 소리로 대답했다.

《어떤 환자계?》

지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그 환자이야기를 했다.

야간학교 공부라도 하겠다고 서울 가서 녀공생활을 하던 처녀였다. 나이는 스물한살, 애인도 있었다. 같은 야간학교에 다니는 총각이었다. 총각은 탄 공장의 수리공이었다.

낮에는 서로 떨어져 힘겨운 로동을 하지만 저녁마다 같은 야간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들은 꿈이 많았다. 야간학교를 졸업한 후에 결혼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졸업증을 타기 전에 처녀가 공장에서 감원조치로 해고되었다.

처녀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인신매매단의 마수에 걸렸다.

일이 깨끗하고 수입도 좋은 직장이라 해서 따라가보니 색주가였다. 역이 막혔다. 뛰쳐나오려 하다가 잡혀서 골방에 감금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비운의 첫걸음이었다.

몇달후 그곳에서 다시 도망쳐나오다가 또 잡혔는데 이번에는 골방에 감금할 대신 《양공주춘》으로 팔아넘겼다. 그곳은 인생의 막바지함정이었다.

처녀는 거기서 서울의 애인에게 편지를 썼다. 어떻게 되어 불행의 심연에 굴러떨어졌다는 사연을 알리고 자기를 찾지 말고 깨끗이 잊어달라고 했다. 총각이 행여나 자기를 찾을가봐, 죄지은 자기때문에 공연한 수고를 할가봐 쓴 편지였다. 몸은 비록 처참하게 어지럽혀졌지만 처녀의 마음은 깨끗하고 순결했다.

얼마후 총각의 회답이 왔다.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왜 자살하

지 못한거냐, 내 한때나마 너 같은 머저리를 사랑한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였다.

다음날 처녀는 그곳에서 도망쳤다. 이번에는 잡히지 않고 학성리 고향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집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있었다.

처녀는 어머니의 무릎위에 엎드려 울면서 모든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도 딸과 함께 울었다.

그러나 오빠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며 이 바보야, 공장에서 해고됐으면 집으로 올거지 무슨 놈의 취직을 또 한다고 돌아치다가 그 꼴이 됐느냐, 이제 고향사람들앞에 어떻게 낯을 들고 살겠느냐 하며 꾸짖었다.

처녀는 불안간 울음을 딱 그치고 오빠를 멍히 쳐다보았다. 서러운 마음으로 뭔가 결심하는것같은 표정이였다.

그로부터 이틀동안 처녀는 집안의 묵은 빨래를 다하고 부엌의 그릇들도 깨끗이 닦았다. 대문밖으로는 한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늙은 어머니가 미처 손보지 못한 집안일을 했다. 이따금 일손을 놓고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는 또 일손을 잡곤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오빠는 들일을 나가고 어머니도 이웃마을에 볼일이 있어서 간 후 처녀는 유서 한장을 남기고 양재물을 마셨다.

그 유서를 지혜도 보았다.

...내가 머저리, 바보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세상 남자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서 제 누이와 애인들이 술집작부로, 양갈보로 팔려가는것을 막지 못하느냐. 그런 머저리, 바보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명이나 된다는 걸 알기나 하느냐. 그들의 오빠와 애인들은 욕질하는것으로 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거냐.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남자들이나...

대개 그런 내용의 유서였다.

처녀의 어머니는 박의사와 지혜를 붙잡고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시골의사의 힘으로 살려내기엔 환자의 상태가 너무 위독했다.

절반 제정신이 나간 오빠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큰길을 지나가는 택시 한대를 끌고 왔다. 그 차에 환자를 싣고 서울로 가는것을 보고 박의사는 화술을 마시겠다고 그 마을의 친구를 찾아가고 지혜는 용수리를 향해 그 집을 떠났던것이다. ...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초승달이 떠올라 싸늘하고 푸르스름한 빛으로 누리를 비쳤다. 어디선가 소쩍새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왔다.

이야기를 마친 지혜는 달그림자속에 묻힌 큰길 건너편 산골짜기를 이  
윅토록 바라보았다. 달빛을 받아 약간 푸르스름하게 변한 처녀의 얼굴에  
빼아픈 설음과 원한이 진하게 덮여있었다.

또 어디선가 포성이 울렸다.

한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지혜가 가자는 소리도 없이 일어났다.

어둠에 묻힌 지름길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에 사무친 원한과 분노가  
응결되어있는것같았다. 그 원한과 분노가 어둠속을 말없이 걸어가는상  
싶었다.

병구는 그뒤를 천천히 따라가다가 우뚝 멈춰섰다.

어디 가까운 곳에서 고명찬일병이 《대위님, 그 아가씨가 바로 우리  
군인들을 머저리, 바보라고 저주한겁니다!》 하고 웨치는 소리가 울리고  
있는것같았다.

#### 4

대학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피신한 성태는 한동안 서울시내에 잠적해  
있었다.

애당초 계획은 그날로 멀찌감치 춘천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자기가  
뿌린 그 유인물이 대학분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차마 떠나갈수 없었다.

서울의 은신처는 영일이 알고있었다. 그가 자주 그곳에 와서 련일 새  
로운 충격적인 대자보가 나타나고 학우들의 반항기세가 급격히 앙양되  
고 있는 대학소식이며 또 자기가 윤미를 찾아가 만났고 녀학생들의 토론회에  
갔었다는것까지 알려주었다.

좋다, 그럼 당분간 지방에 가있자 하고 성태는 흡족한 기분으로 서울  
을 떠났다.

춘천에는 영일의 6촌형이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안한  
준이라는 선생인데 전에도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지명수배에 쫓겨  
온 학생들을 여러번 숨겨주었다고 했다. 부인도 좋은 녀자이고 은신처도  
꼭 안전했다.

그러나 성태는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학우들이 그림고 그후의

대학소식이 또 궁금해서 전갈수가 없었다. 유인물이나 뿌렸다고 할 일을 다했다고 자부할수 없었다. 그것은 첫출발에 불과했다.

학생운동을 하루속히 활성화시키고 그 전위로 싸우기 위해서 학우들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서울에 다시 온 성태는 얼마동안 이곳저곳으로 거처를 옮기며 지내다가 유경훈교수댁으로 갔다.

자기 집에 와있어도 좋다는 유교수의 말을 이미 영일을 통해 전해듣기도 했지만 지명수배에 쫓기는 학생이 같은 대학의 교수댁에 피신해있다는 것은 경찰에서도 쉽사리 상상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것만큼 유교수댁이 안전한 피신처로 되리라 믿고 찾아갔던것이다.

유경훈교수의 집은 옛날 조선은행에 근무한 선친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구식기와집이었다.

유교수가 선친에게서 들은바에 의하면 선친도 그것을 조부에게서 물려받은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낡은 집이었다.

유교수가 가주로 된 후 대보수를 두번이나 했고 그때그때 잔손질을 한것은 부지기수였다. 손질이 많이 드는것이 시끄러워 차라리 팔아버리고 아파트에 옮길 생각으로 집을 복덕방에 내놓아보았지만 집값을 너무 녹거리로 불렀다. 집을 팔아야 아파트값의 절반도 될것같지 않았다.

아파트이사를 단념하고 이 집에 영주하려면 깨끗이 헐어버리고 새집을 지어야 할 형편이었으나 유교수에게는 그만한 재력이 없었다. 그런대로 그때그때 급한 대목을 메꾸는 식의 소보수나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한 집인데도 방이 많은것 하나는 좋았다. 안방과 유교수가 서재로 쓰는 건너방외에 방이 세칸이나 더 있었는데 녀고생 딸과 중학 3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각각 한방씩 쓰고도 방이 하나 남았다.

그 방이 성태에게 제공되었다. 좋은 방은 아니였다. 부엌뒤에 붙어있는 방이여서 채광이 좋지 않고 오래동안 비워둔탓에 곰팡내가 났다. 전에 창고처럼 쓰던 방이라고 했다.

성태를 그 방에 들이기 위해 낡은 가구며 여러가지 잡동사니들을 부랴부랴 치우긴 했으나 대돌이며 시루, 나무그릇이나 제사에 쓰는 그릇 같은 것들을 판데 갖다들데가 없어서 그 방에 그냥 남겨두기로 했다.

그 물건들때문에 유경훈부부사이에 가벼운 언쟁이 벌어졌다. 언쟁은 유

교수가 그것들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잔뜩 이마살을 찌프려가지고 안해를 나무란데서 시작되었다.

《아니 여보, 저런것들은 왜 여태 집안에 뒹두고있소? 남에게 주던지 어디다 내버릴게지.》

《원 당신두, 구멍가게 두부보다 집에서 매돌에 콩을 갈아 만든 두부가 좋다구 하시던분이 오늘은 웬 일이에요?》

자그마한 몸집에 야무지게 생긴 부인의 반박에 유교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뻥해있다가 시루를 턱으로 가리켰다.

《저런거야 없어두 되지 않소?》

《점점 더하시네. 시루떡이야 당신과 애들이 좋아해서 가끔 찌는거 아니예요.》

《시장에서 사오면 안되나?》

《왜 자꾸 저러실가. 언젠가 시장에서 사왔다고 역정내신게 누군데요?》

후에 알고보니 그 그릇들도 유교수가 증조부때부터의 유물이라고 아끼는것이였다. 사람이 죽은 다음 혼이 남아서 제사받아 잡수시러 온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자손들이 조상들의 기일(제사날)을 잊지 않고 제사받드는것은 민족재래의 좋은 풍습이니 그것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제사때 쓰는 그릇들도 사기나 유리보다 나무로 만든것이 소박한 민간예술품의 하나로 볼수 있다면서 아끼는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에게 그런 소리를 한것은 그것을 판데로 옮길수 없는 사정을 알고 한 공연한 투정질이였다.

남편을 나무라긴 했어도 교수 부인 역시 남편의 제자를 들일 방에 그런 물건들을 남겨두는것을 몹시 미안해하는 눈치였다.

이윽고 그들부부는 한가지 해결책을 찾아냈다. 성태를 아들방에 들이고 아들을 그 방에 옮기게 하자는 안이였다.

그 제의를 성태가 반대했다. 우선 막녕이중학생의 방을 뺏는것이 미안했다. 그다음 이유는 그것이 결정적인 조건으로 된것인데 부엌뒤에 달린 자기가 있는 방의 퇴창에서 이웃집담장으로 기여올라갈수 있다는 사실이였다.

교수집이라 해서 100%로 안전성이 보장될수 없었다. 수개처럼 냄새 잘 맡는 형사들이 어떻게 기미를 알아차리고 이 집으로 달려들지 모른다. 그런 경우 이웃집담벽을 타고 뛰면 될것이다.

성태는 자기의 그 계획을 교수부부에게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대돌이며 시루, 제사그릇들이 있는 방에 있고싶다는 말도 했다. 조상들의 체취랄가 민족적정취 같은것이 스며있는 그것들과 한동안이라도 친숙해지고싶었다. 교수부부도 그의 의향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거처가 정해지자 성태는 교수 부인이 팔걷고 나서는것을 한사코 만류하고 제손으로 청소부터 깨끗이 했다. 장관 찢어진데에 땀질도 하고 창문 유리도 닦고 제기에 앉은 먼지까지 털어냈다. 간단할것같은 일에 품이 많이 들어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후에도 잔손질을 하고나니 21시가 되었다.

성태는 그제야 영일에게서 받은 편지를 꺼내보았다. 신문에서 유인물배 포사건기사를 보고 서울에 온 지혜가 성태의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간 편지였다. 그것을 오늘 아침 성태네 집에 들린 영일이 가지고 왔던것이다.

성태는 신문기사를 보고 서울로 달려온 누이동생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곁봉을 뜯었다.

그리운 오빠.

너무도 놀라고 걱정돼서 올라와봤어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도 얼마나 걱정하고계시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오빠가 어련히 잘 알아 하시겠지만 제발 함부로 나다니지 말고 조심하세요.

만약 오빠가 체포된다면...

아니예요! 아니예요! 절대로 그런 일 있어선 안돼요!

...

바작바작 속을 태우며 걱정하는 동생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오르게 하는 편지였다.

건강이 어떠냐, 식사는 제때제때 하느냐, 빨래시중은 누가 해주느냐... 그러루한 걱정도 적혀있었다.

그다음에 지혜자신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잖아도 제일때문에 오빠를 한번 만나고싶었어요. 오빠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하겠어요. 한병구씨 문제예요.

오빠가 그때 용수리를 다녀간 후 그이가 결혼소리를 하지 뭐예요. 전

그이더러 제발 제대해서 오빠의 벗이 돼달라고 간청했어요. 그이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몹시 노하고 실망한 기색이었어요.

이번에 오빠소식 듣고 서울 올라올 때도 좀 다투었어요.

제 마음은 앞으로든 변함없을거예요. 그이를 사랑하지만 오빠의 벗으로 되지 않는 그이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는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이가 사랑이라면 오빠는 진실이에요. 진실을 외면한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저라고 왜 모르겠어요.

그럼 오빠, 부디 몸조심하세요. 하고싶은 이야기 많고많지만 그 이야기 다하자면 편지지 백장을 써도 모자랄것같아서 이만 붓을 놓겠어요.

×월 ×일 동생 지혜 올림

같은 봉투속에 아버지가 쓴 편지도 한장 들어있었다.

성태 보아라.

인편이 쉬 달지 않아서 펍 오래전에 써두고 간 지혜의 편지를 오늘에야 보낸다.

그애가 용수리에 내려간 후 경찰지서에 잡혀간것을 한병구대위라는 그 사람이 그날루 빼내왔다더라.

지혜를 거기 병원에 소개한 처녀 있지 않니, 그 처녀가 제 오빠 만나러 거기 갔다와서 우리 집에 들러 소식을 전해주더라.

그 처녀 말이 제 오래비한테서 들었는데 한병구대위라는 장교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는거다.

그런데 네가 그 장교를 좋지 않게 보아서 지혜두 그 사람한테서 멀어진다구 하더라. 꼭 그래야 할 일이나? 장교두 사람나름이 아니겠느냐. 집 걱정은 할게 없다. 네 어미가 네 걱정애 심화병을 앓는다만 너만 무사하다면 차차 낫겠지...

성태는 불현듯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아버지의 편지를 끝까지 다 읽지 못했다.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운 생각이 예리한 아픔으로 가슴을 허뼛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벌써 여러해전 지명수배를 피하다니던 끝에 체포되었을 때 경찰서 면회실에 찾아온 어머니의 그 공포와 걱정애 이즈러

진 모습이 금시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마디도 아들을 꾸짖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아들을 무조건 믿고 아들이 하는 일이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였다. 다만 아들이 쫓기고 잡히고 매맞는것이 무섭고 걱정스러울뿐일것이다.

아버지도 겉으로 내색은 안해도 속으로는 여간 걱정하지 않으리라. 이번에도 가택수색을 온 형사들이 란장판으로 만들어놓은 아들의 방에 우두커니 앉아 밤새도록 줄담배를 피웠을것이다.

피로운 상념과 함께 여러가지 의혹과 뉘우침도 자아내는 편지였다.

지혜가 왜 경찰지서에 잡혔을까? 《오빠의 벗으로 되지 않는 그이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지혜의 그 생각이 과연 옳은것인가? 장교도 사람나름이 아니냐고 한 아버지의 말속에 나에 대한 나무람이 섞여 있는것이 아닐까?

광주계엄군의 야수적만행장면이 새삼스레 눈앞에서 얼른거리기도 하고 4.19때 시위학생들이 계엄군의 탱크를 타고 청와대로 육박해갔다는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기도 했다.

학생운동이 고조될 때마다 탱크와 총검으로 대학가를 짓밟개버리는 계엄군을 저주하는 한편 만약 저 군인들이 우리 학생운동을 지원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생각한적도 있지 않았던가. 지혜말대로 한병구대위가 나의 벗으로 된다면 학생운동지원자로 될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현역장교라 해서 덮어놓고 백안시하고 거부하려 했던것이 지내 편협한 소행이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혜를 괴롭히고 유경훈교수까지 거북해지도록 한것이라면...

한병구대위와 지혜 두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확대되어 떠올랐다. 뭔가 할 말이 많은것같은 얼굴이다.

《그래, 다시 만나자. 용수리에 가보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입밖에 내어 중얼거리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곧 문이 열렸다.

《방이 지내 차지 않나? 낮에는 따듯해도 밤기온은 아직 선선했데.》

유경훈교수가 방으로 들어와서 방바닥을 짚어보며 물었다.

성태는 얼른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으면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오래 비워둔 방이라서 가스가 켜가봐 련탄을 피우지 않고 나무만 조



금 뺏다구 집사람이 걱정하구있네.》

밖에서 또 인기척이 났다.

미리 약속이 있던듯 유교수가 문을 열어주자 교수 부인이 홍차와 당과류를 담은 다반을 들고 들어왔다. 부인은 다반을 내려놓고 아까 남편이 그랬던것처럼 손으로 방바닥을 만져보았다.

《새벽이 되면 방이 식겠는데 미리 나무 몇가치 더 땔가요?》

《아 아니, 일없습니다. 전 원래 조금 선선한데서 자 버릇했습니다.》

《그럼 어서 식기 전에 드시면서 말씀들을 하세요.》

부인이 나간 다음 성태는 유교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제발 너무 이르지 마십시오. 전 원래 밤에 군것질하는 습관도 아니구… 자꾸 이렇게 너무 걱정해주시면 송구해서 어떻게 견딥니까.》

유교수는 그제 무슨 당치않은 소리냐고 나무라는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싱긋 웃었다.

《내 아주 요긴한 생활요리 하나 가르쳐줄가?》

《예.》

《이전 이다음 장가간 후에 색시한테 써먹던지 총각시절이나 결혼후에 남의 집에 손님으루 갔을 때도 활용할수 있는 기술이네. 미리 알아둘것은 여자들한테 서툰리 잔소리하다간 얻어먹을것두 못얻어먹는다는거네. 그러지 말구 이거 맛있군, 당신 요리솜씨 최고야, 아주머니손이 보배손이군요 하구 자꾸 추어주어야 하네. 친구를 초대해서 대접한 후에도 여보, 어제 그 친구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구 오늘 또 인사하더군, 이렇게 추어주라는거네.》

여자들이란 원래 찌그러진 호박같이 생겨두 보름달같이 환하다구 추어주면 푼수없이 좋아하는 법이거던. 여자들의 그 속성을 리용해서 칭찬 잘해주면야 효과 만점이지. 가게부계산까지 무시하면서 별의별 요리를 다 해낸다 이거네.

그러니까 자네두 우리 마누라에게 공연히 사양하지 말구 맛있게 먹었다, 이거 별미군요 하는 소리를 자꾸 하란 말이네. 알겠나?》

성태는 빙긋이 웃었다. 책과 강의밖에 모르고 생활감각이 둔할것같은 유교수에게 그런 능청스러운 구석이 있다는것이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선생님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 그런 술책을 쓰지 못

하겠습니다.》

《글쎄, 내 말대루 하라니까. 그래야 나두 자네 덕분에 별식을 더러 얻어먹지. 이제 자네만 잘하면 시루떡두 해줄거네. 우리 마누라 시루떡 찌내는 솜씨 하나는 기 딱 막히다네. 자네두 시루떡 좋아하겠지?》

《좋습니다. 선생님말씀대루 하겠습니다. 그대신 후에 사모님한테 다 실토는 할겁니다, 선생님이 시켜서 한것이라구.》

《예끼, 이 사람!》

유교수도 웃고 성태도 웃었다.

《어서 식기 전에 마시게.》

성태에게 홍차를 권하며 유교수가 물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

《선생님덕 신세를 지는 동안 선생님의 장서들을 료정낼 생각입니다.》

《그게 전부인가?》

성태는 유교수가 무엇을 더 알고싶어하는지를 대뜸 짐작했다. 굳이 감출 필요가 없었다.

《리념소조를 조직할가 합니다.》

대학의 분위기가 들끓기 시작한것만큼 하루속히 리념소조를 하나 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 앞으로 총학생회가 부활되는 경우 소조성원들이 총학생회에도 진출하고 학생운동을 이끌고나갈수 있다는것이 성태의 생각이였다.

영일을 비롯한 몇몇 가까운 학우들도 같은 의견이였고 그 소조를 어떻게 조직하여 운영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과 합의를 보았었다.

성태는 자기들의 그 구상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가 끝날무렵 밖에서 또 인기척이 났다.

유교수가 문을 열고 내다보며 좀 못마땅해하는 억양으로 물었다.

《왜 또 왔소?》

《김익규교수님한테서 전화예요.》

부인의 대답이였다.

《야밤에 왜 그런다오?》

《모르겠어요. 그저 바꿔달라구만 하시던대요.》

《원, 사람두.》

유교수가 일어섰다.

《내 잠깐 갔다오겠네.》

무슨 전화인지 10분도 더 지난 다음에야 돌아왔다.

《낮에 <한일합방>때 자료 하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했더니 그 이야기였네. 자기의 자료철에서 찾아냈다고 이밤중에 알려주누만.》

성태는 무슨 자료인지 궁금했지만 교수들사이의 이야기에 끼여드는것이 실례가 될상싶어 묻지 않았다.

《아까 그 이야기 계속하게. 자네가 이렇게 숨어있는 조건에서 소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은 누가 하는거지? 학내에서 말이네.》

유교수가 물었다.

성태는 안영일과 두 학생의 이름을 대주면서 가능한한 잘 도와달라는 부탁도 했다.

유교수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성태를 쳐다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알겠네.》

《한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또 뭐가?》

《소조를 조직하면 그 성원들에 대한 의식화가 최우선과제로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지.》

《그 의식화를 위한 교재를 하나 써주셨으면 합니다.》

유교수는 얼른 대답할 대신 과일칼로 사과를 절반 쪼개여 한쪽을 성태에게 주었다.

《사과는 껍질채 먹는게 더 좋네. 집사람이 깨끗이 씻었을테니까 걱정말구 그냥 들게.》

겨울을 난 과일이어서 물기는 좀 적어졌으나 대신 달아서 좋았다.

유교수는 자기 몫의 반쪽을 다 먹은 다음에야 물었다.

《리념서적을 만들겠다는거겠지?》

《예.》

《어떤 내용이 필요할가?》

《저도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습니다만 광주참극과 현 <정권>의 범죄적 속성 그리고 미국의 책임에 관한것이 어떨가 합니다.》

유교수는 다 식은 홍차가 조금 남아있는 잔을 들어 한참 들여다보았다.

《요새 학생들속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론적과악과 역사적고찰은 부족합니다.》

《알겠네, 내 좀 생각해보기루 하구 오늘은 일찍 쉬게.》

유교수는 다음날 밤에 다시 성태의 방에 찾아왔다.

《내 좀 생각해봤는데 광주대학살만행과 현 <정권>의 범죄적속성을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고 미국의 책임을 추궁하는것이 아주 긴요한 일일것갈네. 그것을 <한>미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선에서 폭로하면 더 좋을 거네. <한국>의 력대 <대통령>이란 례외없이 다 미국의 대<한>정책의 집행도구노릇을 해왔으니까. 광주참변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해서 학생운동이 반미반파쑸민주화구호를 들고나가야 할 시대적과제에 비추어볼 때 운동대렬의 의식화사업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것이 아주 바람직한 일일거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가? 오늘 이 땅의 민중과 청년학생들이 당하고있는 모든 고통이 반미반파쑸민주화투쟁 그것만으로 다 해소된다고 보아야 할가?》

유교수는 자문자답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국토분단의 비극은 어찌할것인가? 리산가족들의 고통과 불행도 크지만 분단장벽이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통일적으로 개발리용할수 없게 하지 않는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소비하는 군사비며 인력낭비가 또 얼마나 많은가. 그 모든것이 민족의 번영에 지장을 주고 매 가정, 매 개인의 생활에 이루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주고있다는거야 내가 굳이 장광설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거네.

그런데 이 땅의 위정자들은 한사코 분단현실을 고착시키려고 하네. 그것도 따지고보면 미국의 대<한>정책의 한 산물인데... 미국은 8.15직후부터 우리 나라의 남쪽 절반땅을 저들의 아시아전초기지로 틀어쥐려구 했네. 그래서 위정자들을 사촉해서 통일운동의 장성을 억제하고 반복선전을 강화하지만 우리 민중은 이미 60년대초에 <우리는 리념의 차이에 앞서 한 피줄을 나눈 동포형제들이다!>라고 웨치지 않았나.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동질성을 우선시켜 통일을 성취하자는것은 외세에 의한 분단비극이 강요된 초시기부터의 우리 민족지상의 념원이었네.

그리구 자네두 광주의 피바다속에서 올려나온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알겠지?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민족적절규였네. 때문에 학생운동대오에서도 당면과제로 반미반파쑸민주화를 위해 싸우면서 거족적속원인 통일문제를 잊지 말아야 하네. 이렇게 조국통일이 우리 민족지

상의 과업으로 된다고 전제할 때…》

바깥의 인기척이 유교수의 이야기를 중지시켰다. 교수 부인이었다.

어제처럼 다반을 들고 방에 들어온 부인은 눈치가 빨랐다. 심각한 이야기가 진행중이라는것을 제격 눈치채고 곧 나가버렸다.

《같은 동족이 살고있는 이북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우리의 무식을 수 치로 여겨야 하지 않겠나.》

유교수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다.

《반목과 대결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돼야 통일을 하겠는데… 그러자면 이북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배울것은 배우고 따를것은 따라야 할게 아닌가.

내 전에 캐나다에서 발간되는 교포잡지를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한 교포학자의 이북방문기가 실려있더군. 이북의 정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정치다, 이 세상 모든것의 주인은 인간이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것이 인간을 위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은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것도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위주의 시각과 립장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구현되는 곳이 바로 이북사회다. …

대개 이런 내용이였지. 그에 대한 생동한 현실적사실들도 많이 소개했더군.

솔직히 말해서 내 그 방문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네. 할수만 있다면 나두 이북에 가서 그 놀라운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구 주체사상에 대해서두 배우고싶었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주체사상과 그것이 구현된 이북현실을 배우기 위해 줄을 지어 평양으로 간다더군. 그런데두 우리는 한지맥으로 이어진 땅에서 살면서두 이북에 가지두 못하구 거기 현실을 알지두 못하구있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성태는 지금까지 유경훈교수의 강의와 사서에서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았지만 이때처럼 큰 감동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다. 제자들의 진로와 민족의 운명을 두고 가장 진지하게 사색하는 참다운 스승을 비로소 발견한것만 같았다.

경탄과 감사의 정으로 가슴이 뜨겁게 부풀어올랐다. 이처럼 참다운 스

승, 진실한 학자가 있다는것이 대학사회의 자랑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내 말은 앞으로 반미반파쇼민주화투쟁에서 하루속히 승리하기 위해서두 그렇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두 이북의 진실을 배우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거네.》

《선생님, 제 오늘 참으로 많은걸 배웠습니다.》

《나두 아직 초보적인 생각을 하는 단계네.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부두 하구 연구두 해볼 계획이네.》

《우선 지금 말씀하신것을 좀더 전개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가, 그제?》

《필요하구말구요. 일종의 서설로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부탁드린 의식화교재로 그걸 써주십시오.》

유교수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듯 잠시 생각에 잠긴 얼굴을 하고있다가 그럼 써보겠다고 대답했다.

## 5

《나도 들었네.》

수송장교 장하진대위가 방에 들어오면서 말했다.

병구는 의자에 몸을 조금 뒤로 제낀 자세로 앉은채 그를 멍히 바라보았다.련대장실에서 해임처벌을 통고받고 돌아온지 10분도 채 되기 전이었다. 불명예제대처벌을 면한 대신 작전보좌관직에서 해임되고말았던것이다.

공무집행종인 경찰관을 구타했으며 그의 권총을 탈취하고 발사까지 한(비록 명중되지는 않았지만) 그 《란동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고 했다.

래일 사단본부에서 전직돼오는 아무개 대위에게 작전보좌관업무를 인계하고 대기하라고만 했다.

《자네야 모르구있었겠지만 소문은 며칠전부터 돌았네.련대장님도 기어이 처벌해야 한다구 계속 상신했다는거네.》

장하진이 책상앞의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병구는 아무 응대도 안하고 책상우에 펼쳐진채로 있는 래달 각 대대별 훈련계획서를 보았다.련대장실에 불러가기 직전에 완성한것이였다.

《지서의 그 리형사놈을 내 어제두 술집에서 만났네. 남소령과 허대위 하구 같이 처마시더군. 그 세 작자들의 작간이 틀림없네. 남소령은 사단 장님에게 허위보고를 하구 허대위는 련대장님을 쏘서대구 또...》

《거 문하사문제는 어떻게 됐나?》

병구가 그의 말허리를 자르며 화제를 돌렸다. 그의 말을 듣기가 거북했다.

일부러 찾아와서 처벌받은 자기를 위로해주는 그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런 말은 듣기 싫었다.

장대위는 그의 심정을 이해한듯 곧 의자에서 일어났다.

《응, 인사장교가 좀더 기다려달라구 하더군.》

문계로 가던 그가 돌아섰다.

《이거 객적은 소린지 모르겠지만 지혜씨 만나면 너무 실망시키지 말게. 자기때문에 자네가 처벌받은걸로 생각할수도 있지 않나. 잘못이야 애당초 리형사 그놈한테 있는거지. 그따위 놈은 백천번 때려눕혀서라도 제 사람을 빼내와야 하는거네.》

장대위는 두눈이 흐릿하게 어두워졌다. 완력을 사용해서라도, 후에 처벌을 받는한이 있더라도 구출해낸 살아있는 애인을 가지고있는 병구에 대한 선망의 정과 함께 광주의 피바다속에서 잃은 애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오르는 모양이었다.

그가 나간지 얼마 안되어 본부중대의 염태훈중위가 들어왔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숨을 쉼쉴거리며 막 화를 냈다.

《대위님이 잘못된게 뭐라구 처벌입니까! 이제 두구보십시오. 남소령과 허대위 그 두 량반 가만 놔두지 않을겁니다. 회식 같은거 할 때가 있게 아닙니까. 취한체하구 아예 목사발 만들어놓을겁니다!》

병구는 어깨가 짝 벌어진 그의 커다란 체구를 새삼스레 아래우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런 기운 있으면 아껴두었다가 다음번 태권도시합때 써먹소.》

지난 1월에 실시된 장교태권도시합때 1등후보자로 물망에 올랐던 그가 3등권내에도 들지 못한 그 일을 상기시키며 한 말이였다.

《원, 대위님두.》

《요다음엔 자신있소?》

《이거 왜 자꾸 이러십니까?》

병구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염중위, 걱정해주어서 고맙소만 나 지금 좀 혼자 있고싶소. 처벌이야기를 듣기 싫기두 하구...》

《알겠습니다.》

염태훈도 문책로 가다가 어깨를 슷구쳐올리며 돌아섰다.

《대위님, 혹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제힘이 필요되면 언제라도 찾아주십시오.》

《고맙소.》

병구는 그가 나간 다음 문을 안으로 걸고 의자에 가앉았다.

그제야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번지기 시작했다. 모종의 처벌조치가 취해지리라는것을 전혀 예측 못한바는 아니였다. 남인표소령의 모해에서 면하긴 했으나 경찰지서사건은 그것대로 문제시될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장교들의 기강확립문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되는 시기인것만큼 이번 처벌을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할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지서에서 지혜를 탈취해온것을 뉘우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애당초 잘못은 죄없는 지혜를 잡아간 리형사 그놈에게 있었던것이다.

아니, 리형사 개인만을 비난할 일도 아니다. 말단지서의 형사까지 그런 비행을 하도록 사촉하는 경찰행정, 폭압적인 정보사찰망을 산지사방에 그물처럼 늘어놓고 죄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괴롭히는 이 땅의 정치체제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허대위의 부정행위가 묵인되고 보안대의 횡포가 용인되는가 하면 적어도 장성인 준장이 미8군사령부 중좌의 호출을 받아야 하는 《국군》의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병구의 분노는 바로 그 정치체제, 군의 현실에서 비롯된것이였다. 그 정치체제, 군의 현실이 자기에게 처벌을 가한것이라는 생각에 반발심이 불길처럼 타번졌다.

복도에서 퇴근종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이 방, 저 방에서 쏘여나온 장교, 하사관들의 군화소리가 병구의 방앞을 지나갔다.

병구도 책상을 치우며 퇴근준비를 하다가 의자에 도로 앉았다. 제시간에 출근하고 제시간에 퇴근하고 일과규률을 엄수하는 자기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불쑥 치밀어올랐다. 다시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출입문옆의 벽에 상반신이 비치는 거울이 하나 걸려있었다. 그앞에 가



서 거울속의 자기를 들여다보았다.

치쁜 두눈과 잔뜩 찌프린 이마에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울분이 엉켜붙어있었다. 이즈러진 입술사이에서는 이 못난 인간아, 이 방엔 왜 남아있는거냐, 여긴 벌써 네 방이 아니다 하는 말이 새어나오는것같았다.

그렇다, 난 이미 작전보좌관이 아니다. 좋다, 더 이 방에 있고싶지도 않다.

병구는 얼른 책상우의것들을 대강 치우고 방에서 나갔다.

다행 마당이 텅 비어있었다. 얼굴을 마주치고싶지 않은 장교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사병들만 몇명 여기저기서 서성거리고있었다. 그들도 벌써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병구를 보자 얼른얼른 얼굴을 돌려버렸다.

급한 걸음으로 정문을 빠져나간 병구는 용수리로 넘어가는 다리앞에서 잠깐 주춤거렸다.

아직 날이 채 저물지 않아서 마을에 들어서면 여기저기 색주가며 다방, 오락장 같은데로 몰려가는 장교들과 만나기마련이다. 그들중에서 또 누가 처벌받은 이 한병구를 《동정》하는자가 나타나 한잔하러 가자고 끌면 시끄럽다. 애당초 맞다들지 말아야지.

병구는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 강둑길에 접어들었다. 뚝길에 민간인들은 더러 다녀도 군인들은 하나도 없었다.

얼마큼 가다가 잔디밭에 앉았다. 거기서 사위가 캄캄해질 때까지 시간을 보낸 다음 마을에 들어갔다. 술집과 오락장에 들어간 장교들이 아직 거리에 쓸어나오기 전이었다.

병구는 시끄러운 《동정자》를 하나도 만나지 않고 하숙집까지 갔다.

대문은 전에없이 안으로 걸려있었다. 의아적인 생각이 들어 황황 두드리며 민씨를 불렀다.

《예- 이제 나가요!-》

안에서 민씨가 달려나와 대문을 열어주었다.

《오늘은 웬 일입니까, 대문을 다 걸구?》

《그럴 일이 있어서요.》

대문을 닫고 또 빗장을 걸며 민씨가 소근거렸다.

《지혜아가씨 4촌오빠 오셨어요.》

병구는 자기 귀를 의심하며 큰소리로 물었다.

《누가 왔다구요?!》

《췌, 조용하세요. 숨어다니는분이 돼서 혹시 알아요. 그래서 대문을 걸었어요.》

병구는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유인물, 지명수배, 리형사, 그러한 낱말들이 뇌리에 번개치듯 스쳤다.

필림이 거꾸로 돌아가는 영화화면이라도 본것처럼 뭔가 잘못되고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 닥뜨린듯한 당혹감이 엄습해왔다.

《어서 들어가보시래두요.》

민씨가 등을 떠밀듯한 소리로 재촉했다.

병구는 천천히 프락을 질러갔다. 그의 방문이 열리며 내다보는 사람이 있었다.

《인제 오십니까?》

성태였다.

《이거 주인없는 방에 들어와 앉아서 미안합니다.》

병구는 얼른 방에 들어가며 물었다.

《어떻게 갑자기... 지명수배가 벌써 풀린겁니까?》

《웬걸요.》

성태가 싱긋 웃으며 자기의 옷차림을 눈으로 가리켰다. 회색신사복에 줄무늬넥타이까지 맨품이 지난겨울에 왔을 때의 그 허름한 옷차림과 판판 달랐다.

양복이며 와이샤쯔, 넥타이가 시골사람들의 눈을 지내 자극시킬 정도로 최고급품들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돈푼이나 만지며 살다가 잠깐 고향에 내려온 청년신사같은 인상을 주었다. 얼굴모습도 어딘가 좀 달라진것 같았다. 테가 굵은 안경을 쓴데다가 눈썹이 펴진해졌고 머리도 장발로 풍성하게 기른것이 다 이전과 달랐다.

미리 누가 와있다는것을 알고 들어온 덕분에 첫눈에 알아보았지 만약 바깥거리에서 만나면 모르고 지나쳐버릴상싶었다. 요란스레 여기저기 손질하지 않았는데도 변장이 제법 근사했다.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지혜를 지서에서 빼내주셨다더군요. 뭐라 감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품도 지난겨울과 달랐다. 그때는 속에 품고있는 반감을 가까스로 참으며 말하는 억양이었지만 오늘은 그러한 기미가 전혀 없었다.

《그 일때문에 한형이 후에 시끄러운 일 당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

를 꺾 원망하신거죠?》

미소어린 얼굴로 이런 소리도 했다.

《그래, 어떻게 오신겁니까?》

병구는 굳어진 표정을 풀지 못한채 물었다.

《지체도 불검 한형도 좀 만나고싶어 왔습니다.》

《무슨 용무인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녀도 일없습니까?》

《등잔밑이 어둡다지 않습니까. 제가 설마 동생을 찾아다니랴 하겠지요.》

병구는 지내 대담한짓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한형, 제 이번에 사죄 좀 하려구 일부러 온겁니다.》

《저한테요?》

《예.》

병구는 머리를 기웃했다.

성태가 자기에게 사죄할 일이 있다면 지난겨울에 왔을 때 퍼부어댄 그 비난밖에 없을것이다. 그 비난은 그의 신념에서 나온것이였다. 또 그 신념이 그로 하여금 반《정부》유인물을 뿌리고 지명수배에 쫓기게 했다는 것도 알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레 나에게 사죄한다는건 무슨 소린가? 그 신념을 포기했다는 말인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권형이 자기 신념을 쉬 바꾸는분이 아닌 줄로 알았는데요.》

《제 말을 오해하시는것같은데… 전에 왔을 때 한 그 말을 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관절 뭘 사죄한다는겁니까?》

《제 잘못은 <국군>에 대한 통념을 가지고 한형을 처음부터 거부한겁니다. 애당초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지금은 이해한다는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 한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로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싶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사람의 금새로 매겨보겠다는 수작인가?

《권형, 미안하지만 말을 자꾸 빙빙 돌리지 말구 직바로 하십시오. 전에 지혜씨한테서 들은 말이 있는데요, 저더러 제대해서 형씨의 벗이 되

라는겁니다. 결혼조건처럼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형씨도 그런 시각에서 절 료해해보겠다 그건가요?》

《저두 그애가 그런 소리 했다는걸 알구 왔습니다.》

《알구 왔다니 더 좋습니다. 미리 말하는데 전 제대할 생각도 없구 더 우기 우리 장교들을 원쑤처럼 사갈시하는 형씨같은분의 벗으로 될수 없습니다.》

《결론을 지내 앞세우는군요. 전 한형이 꼭 제대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장교도 사람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린 처남매부로 될 사람들이니 선입감이나 결론을 앞세우지 말구 피차간에 오해가 있으면 풀고 한뜻으로 사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병구는 쓴웃음을 머금었다.

《알겠습니다. 나를 깨우쳐주겠다는 말 같은데 대관절 무얼 깨우쳐주겠다는겁니까? 미리 당부하지만 저에게 뭘 설교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제가 무슨 인식착오를 하는게 없다구 자부하구있으니깐요. 설사 잘못 인식한게 있다 해두 그걸 나 자신이 찾구 고칠겁니다. 타인의 장난에 놀아나는걸 좋아하지 않는 성미니까요.》

성태는 일순 난색을 지었다.

같은 순간 병구도 속으로 아차했다. 이미 입밖으로 쏟아져나간 자기 말에 스스로 역증이 났다. 허세를 부리고 거만을 떠는 자신을 발견한것이다.

사실은 인식착오가 많았다. 그릇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시행착오를 저지른것도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소리를 했던가? 처벌을 주고 직무를 쫓는 처사에 대한 분격을 채 삭이지 못해서 공연히 애꿎은 성태에게 화풀이를 해본것인가? 짓밟힌 자존심의 반발이 엉뚱한데서 터져나간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인식착오를 스스로 찾고 시정하겠다는건 옳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학생운동에 대한 종전의 그 오해도 한형자신이 스스로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성태가 조심스럽게 그의 기색을 살피며 뒤를 이었다.

《그리고 군의 좌표와 임무에 대한 인식에서도...》

여기서 병구가 신경질적으로 손을 뻗 내저었다.

《그만두시오! 때늦은 충고요! 난 오늘 처벌받구 해임됐단 말이요. 앞

으로 제대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라구요?!》

성태가 와틀 놀라며 소리쳤다.

병구는 속에서 시커먼것이 치밀어올랐다.

《왜 놀랍니까? 형씨와 지혜씨가 바라는데로 될수도 있는데.》

둘이 이야기에 열중해있는 사이에 또 대문흔드는 소리가 나서 민씨가 나가서 열어주었다. 지혜가 온줄 알았는데 처음 보는 군인이었다.

《한병구대위님 계시지요?》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트랙을 질러 병구의 방문앞에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

무례한 그 거동에 겁을 먹은 민씨가 황황히 뒤쫓아가며 큰소리로 불렀다.

《대위님, 손님 왔어요!》

방안에서 병구가 문을 와락 열었다.

웬 하사관이 방에서 비쳐나오는 불빛에 눈살을 찌프리며 손을 군모채 양에 천천히 올려다볼였다.

《사단보안대에서 왔습니다.》

병구는 돌연 등골이 선했해지는것을 느끼며 성태를 돌아보았다. 그의 자리가 구석쪽이 돼서 보안대 하사관의 눈에 뵈것같지 않았지만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져버렸다.

《무슨 용무야?!》

병구는 밖으로 눈길을 돌리며 성난 소리로 물었다.

《남인표소령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지금 <한경옥>에 계시는데 그리로 와달랍니다.》

《한경옥》이란 전에 허동팔대위와 다투었던 그 술집이다.

《나 술생각없다고 전달해.》

《만약 대위님이 안오면 소령님께서 이리로 오시겠다고 합니다.》

《건 왜?》

《그런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사관이 짜증이 섞인 소리로 대답했다.

보안대 하사관들이란 원래 위관급장교쯤은 우습게 아는 족속들이었다.

《소령님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그가 대답을 재촉했다.

어쨌든 남소령이 이리로 오게 해서는 안된다.

병구는 이제 곧 갈테니 그렇게 전달하라고 대답했다.

## 6

성태는 이번에 용수리로 오기 전에 자그마한 외과병원을 경영하는 양재형이라는 사람을 만난 일이 있었다.

그를 알게 된것은 지난해 봄 일요일이었다. 그날도 학비보탬을 위해 아침부터 공사판에 가서 일공로동을 하다가 어디서 떨어진것인지 알수 없는 벽돌장에 다리를 맞았다. 뼈가 좀 상한것같았다.

같이 일하던 노동자들의 부축을 받아 집에까지 겨우 갔는데 다음날부터 다리가 붓고 뼈속까지 아파서 꼼짝 움직일수 없었다.

때마침 영일이 와서 그것을 보더니 밖으로 뛰어나가 택시를 잡아왔다. 그 택시를 타고 간 곳이 양재형외과병원이었다.

영일의 외가갸으로 촌수가 좀 먼 아저씨벌이 된다는 양재형원장은 온후하게 생긴 40전후의 사람이었다. 조카의 친구라고 해서 그러는지 성태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성태의 상처는 집에서 다니면서 치료받기가 곤란한 정도였지만 양재형 외과병원에는 입원실이 없었다.

영일이 제 아저씨에게 어느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을수 없는 성태의 형편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다.

양재형원장은 한참 가난한 고학생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기 집 서재를 임시입원실로 쓰라고.

그 서재에 장서가 여간 많지 않았다. 의학서적은 얼마 안되고 대부분이 력사와 문학, 정치학, 경제학책들이었다. 좀체로 구해보기 어려운 희귀본들도 있었다. 인류문화의 넓고 깊은 대해를 만난것만 같았다.

성태는 환성을 지르며 그 바다에 뛰어들었다. 시간을 맞춰 약을 먹는 것까지 잊어가면서 배달민족의 먼 조상들을 만나보았고 로마홍망사의 발자취를 더듬어보았다.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단두대의 이슬

로 사라진 투사들이 남긴 명언들도 외워보았고 백인 《개척자》들에게 쫓겨 눈물의 미씨씨피강을 건너간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피맺힌 한숨소리도 들어보았다.

보고싶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가 24시간밖에 안되는것이 막 안타까웠다. 전에도 독서를 즐긴편이었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가지고있는 책도 많지 못했다.

밤을 밝혀가면서 독서에 열중하는 그를 양재형원장이 가끔 가볍게 꾸짖었다. 공부하는것도 좋은데 지금은 우선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것이 중요하다.

성태는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다음날 또 밤을 새웠다.

양재형원장은 몇번 꾸짖다가 그만 단념했다.

어떤 날엔 영일과 더불어 양재형원장과의 대화로 밤시간을 보냈다.

양재형원장은 제 말을 하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더 즐기는 사람이었다. 생각에 잠긴 눈으로 두 대학생을 바라보면서 수난의 력사에 사는 젊은 지성인들의 원한과 울분의 토로를 주의깊이 들었다. 극히 드물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태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에 탄복했다.

서울의 정계와 재계, 군부에 대해서 모르는것이 없었다. 시국의 추이에 대한 투시력과 비판적시각도 경탄할만큼 예리하고 정확했다. 그와의 교제는 치료가 끝나 퇴원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성태와 영일이 자주 그를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두 대학생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학생운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피력했다.

성태가 80년대 학생운동은 반드시 광주의 경험과 교훈에서 출발해야 하며 당면한 최우선과제는 운동대렬의 의식화, 조직화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것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를 새겨보는 과정에 이루어진것이였다.

그는 대학가의 분위기도 소상히 알고있었다. 성태와 영일을 통해서 듣는것외에 딴 소식통을 가지고있는상싶었다.

성태가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신한지 며칠만에 영일이 그를 찾아가보았더니 벌써 그 일을 알고있더라고 했다.

권군이 지금 안전한 곳에 피신해있느냐, 내가 뭐 도와줄것이 없겠느냐

하는 걱정도 하더라고 했다.

하루는(성태가 용수리로 오기 며칠전이었다.) 성태와 영일이 그의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학내 리념소조조직을 준비하는 학우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여기까지 왔다 그냥 갈거냐, 들렀다 가자 하고 영일이 성태의 팔을 잡아끌었다.

양재형원장은 여간만 반가워하지 않았다. 부인을 시켜 음식을 받아와서 점심대접까지 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양재형은 성태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어디 앓지 않느냐고 물었다.

의사의 물음이라 성태는 정직하게 대답했다. 최근 이상하게 속골이 쏘고 가끔 현훈증도 난다고...

식사후에 양재형이 청진기를 여기저기 대보고 맥도 짚어보고 혈압도 재보더니 특별한 병은 없는데 자주 신선한 바깥공기도 쐬고 밤잠도 제대로 자면 나아질것이라고 했다.

성태가 오래동안 방안에 들어박혀있었고 밤에도 사색을 한다, 책을 본다 하며 제대로 자지 않은것만은 사실이었다.

양재형은 어디 시골 같은데 가서 며칠 푹 쉬라는 권고를 거듭했다.

성태는 수일후 용수리에 갈 예정이어서 이제 곧 시골에 간다고 말했다. 그때 문득 떠오른것이 채의사 생각이였다. 양재형원장보다 나이는 펍 아래지만 혹시 같은 의대출신이 아닐가싶어 지난겨울 용수리에서 채의사를 만난 이야기를 그에게 했다.

양재형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사람 내 후배야, 이번에 가서 만나면 내 안부도 전하라고 했다.

성태는 오늘 이곳 용수리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채의사댁으로 갔다. 전번에 왔을 때 얼굴을 익힌 채의사 부인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부인도 이미 신문기사를 보아서 성태가 지명수배에 쫓기는 처지라는것을 알고있는상싶었다. 반가워하면서도 조금 놀라며 겁을 내는 기색이였다.

부인은 성태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잠시후 채의사가 들어왔다. 그 역시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성태는 지혜와 병구를 만나러 왔다는 말을 하고 양재형원장의 안부도 전했다.



채의사는 왜 그러는지 양재형소리를 듣자 새삼스레 성태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손을 쑥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양재형원장의 안부는 묻지 않았다. 다만 자기가 불원간 서울에 옮겨가서 그의 병원에서 일하게 된다는 말만 했다. 그리고는 여기서 일을 보는 동안 려관에 드는것이 위험하니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하라고 했다.

그는 지혜가 지서에 잡혀갔던 일이며 한병구대위가 그를 지서에서 구출해낸 일로 해서 어떤 시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는 지서사건후 병구와 지혜사이에 미묘한 저기압이 생긴것도 알고있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고 병원에 나가더니 저녁때 지혜를 데리고 들어왔다.

지혜도 오빠가 용수리에 불의에 나타난 사실에 몹시 겁을 냈다. 서울에서 형사들이 왔었다는 소리도 하면서 경찰의 눈에 띄면 어떡하느냐, 내가 전에 서울 가서 써둔 그 편지 보고 일부러 온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면서 여간 걱정하지 않았다.

성태는 그러는 지혜를 진정시켜놓고 병구를 찾아갔다.

병구와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될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지난겨울의 일도 있고 해서 자기가 또 그런 소리나 하려고 찾아온줄로 곡해하리라는것도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야기도중에 보안대원이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다. 남소령의 이름은 낮에 채의사에게서 들어서 성태도 알고있었다.

헌데 자기에게 《간첩》감투를 씌우고 병구까지 모해하려고 했다는 남인표가 병구를 술집에 초대한것이다.

병구가 그 초대에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그리로 간 리유는 짐작할만했다. 안가면 남소령이 찾아온다고 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 갔을게다. 알수 없는 수수께끼는 남소령이 왜 그를 초대했는가 하는것이였다.

이제 술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것인가?

성태는 예감이 좋지 않았다. 불길한 의혹을 그림자처럼 달고 채의사네 집으로 왔다.

지혜는 병원으로 가고 없었다.

《모를 일이군, 둘은 술친구두 아닌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채의사가 머리를 기웃하며 중얼거렸다.

《괜찮을가요, 선생님?》

《한대위가 그리로 가면서 무슨 말이 없었소?》

《아무 소리도 앓더군요. 기분은 썩 좋아보이지 앓았습니다.》

《그렇다. … 어디 좀 생각해봅시다.》

채의사는 안경을 벗어서 천천히 닦기 시작했다.

《선생님, 괜찮을까요? 만일의 경우 한대위 그 사람이…》

성태는 말끝을 얼버무렸다. 한대위가 아무개 학생이 용수리에 나타났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생겨 입을 연것인데 어쩐지 그것을 내놓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채의사가 안경을 도로 쓰고 그를 건너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을 뻔히 들여다보는듯한 눈빛이었다.

《나두 그 사람의 성격을 좀 아는데 절대로 비렬한짓을 할 사람은 아니요.》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채의사는 성태의 말을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앓고 아까부터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불안한 얼굴로 듣고있던 안해에게 《여보, 거 장기관 좀 내놓소.》 하고는 성태에게 물었다.

《장기들줄 알겠지?》

《장…기요?》

뜻밖의 소리에 성태는 뻥해진 얼굴로 되물었다.

《떡두 제대로 못보는 수준 아니요?》

《아직 누구한테 저본적은 앓습니다.》

《학생들끼리 해본거겠지. 나두 대학때는 그랬소. 졸업후에는 의사들속에서 저본적이 앓었구. 그러니 내가 차, 포를 떼구 해야 될것같은데…》

채의사의 안해가 벽장에서 장기관을 꺼내어 두사람사이에 놓았다.

《선생님, 이거 정말 장기두실겁니까?》

《걱정말구 두자니까. 내 예감이 틀림없을거요.》

《좋습니다.》

걱정해야 더 어찌는수가 앓는것이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 지금 당장 이 마을을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곧 병구에 대한 로골적불신의 표시로 된다. 병구가 남인표에게 아무 소리도 앓하고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심한 모욕을 느낄것이다. 차마 그런 모욕을 줄수 앓었다.

일단 그와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하기 위해 온 이상 그를 끝까지 믿고 존중하는것이 응당한 도리일것이다.

성태는 머리를 세차게 내저으며 불길한 예감을 털어버리고 장기관에 달라붙었다.

## 7

남인표소령도 3사출신이였다. 그는 병구보다 1년 먼저 졸업하고 《050 특과》를 받고 헌병장교로 군무하다가 보안대로 전속되였다. 초기에는 2군관하 부대에서 군무했다. 병구네 사단보안대로 전속돼온것은 3년전이였다.

《어 이거, 취침자세가 불편한 우리 후배님이 여기에 있었군. 반갑소!》 사단에서 처음 병구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였다.

3사때 원호엽중령방에서 병구가 취침자세소리를 한것이 상급생들에게도 알려져 가벼운 룡담거리로 되였었다.

병구와 남인표는 그때부터 서로 풋낫이나 아는 사이였다. 학교때는 별로 친하게 사귀지 않았어도 졸업후 어디서 다시 만나면 몹시 반가워하는 법이다.

남인표의 경우가 그랬다. 사단본부나련대본부에서 병구를 만날 때마다 친근한 벗처럼 룡담도 곧잘하였다.

병구는 그에게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웃는 낯에 침을 뱉을수도 없는 일이였다. 룡담을 걸어오면 같은 룡담으로 응수하면서 지냈다. 3사때는 그런줄 몰랐는데 한사단에서 자주 만나면서 보니 남소령은 비교적 룡담이 많은편이였다. 룡담을 즐기는 사람들이 항용 그러듯이 늘 눈웃음을 치며 다녔고 언행도 거칠지 않아서 일반군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여느 보안대 성원들과 다른 인상을 주었다. 게다가 술집출입이 지내 찾아서 어떻게 보면 보안업무에 전념할 대신 마시고 놀아나기에 이골이 난 장교같기도 했다.

그날 밤에도 병구가 방에 들어서자 룡담부터 했다.

《인제야 오는군. 근데 선배가 후배를 초대하는 변칙을 왜 만드는거요?》

《한경옥》의 별실, 언젠가 허동팔대위와 다룬 그 방이였다.

《그거야 소령님이 자의로 만든 변칙 아닙니까.》

병구는 가볍게 받으며 술상앞에 마주앉았다.

상에는 안주접시 대여섯개와 위스키 한병이 놓여있었다.

남인표는 이미 술을 여러잔 마신듯 얼굴이 불그스름했지만 술병은 마개를 따지 않은것이었고 안주그릇에도 저가락을 댄 흔적이 없었다.

《우선 목부터 좀 추기구.》

남인표가 잔에 술을 따랐다.

《천천히 마시지요.》

《왜?》

《무슨 용무로 부른건지 맑은 정신으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이야긴 천천히 하구 잔이나 비우오.》

《난 이런 독한 술을 두어잔만 마셔두 취하는데요.》

《당신 주량을 내가 모르는줄 알구 그런 소리요?》

《보안대에서 장교들의 주량까지 조사한다는건 나두 알지만 그 조사가 언제나 정확할수야 없지요.》

남인표는 싱긋 웃었다.

《웁은 말이요. 보안대라구 왜 실수가 없겠소. 그건 그렇구, 오늘 유감스러운 일 생겼다며?》

《무슨 일 말입니까?》

병구는 시치미 떼고 되물었다.

《처벌받은 그 일 말이요.》

《그거야 응당한 일 아닙니까.》

병구는 랭소어린 소리로 받았다.

《허, 이거 단단히 노했군. 우리 후배님이 나한테까지 유감이 있어서 그러는거 아니요?》

《글쎄요. 소령님이 무슨 작용을 한게 있다면야...》

병구는 한번 더 이죽거리보았다.

《여보, 그런 소리 하지두 마오. 나두 당신이 처벌받았다는 소리 듣구 마음이 안좋았소. 왜 진작 날 찾아오지 않았소? 지서것들이야 우리 말이면 듣기마련인데 미리 나에게 부탁했으면 그런 만용 부리지 않구두 애인을 빼냈을거 아니요. 우리야 선후배사인데. 응, 섭섭하다 이거요.》

병구는 실소가 나가는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하여간 지서것들을 서뽐리 건드려와서 일이 복잡해졌지 뭐요. 권성태라는 학생이 당신 애인의 4촌오빠라더군. 그 학생이 <간첩>이다, 지혜씨가 제 오빠의 <간첩>활동을 협조한 련루자다 하는 소리까지 나왔으니 말이요. 후에 내가 지서형사를 불러다 해명하지 않았더라면 당신까지 루명쓸번했다니까.》

병구는 더 참지 못하고 피식 웃고말았다.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소리를 거리낌없이 하는 남인표의 어리석은 수작이 가소로왔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보안업무를 어떻게 제대로 수행하랴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내 단순한 판단이었다.

남인표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군보안업무가 현임《대통령》의 통치체제를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것을 철저히 인식하고있을뿐 아니라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수행에 제나름의 열성도 발휘하고있었다. 동시에 제 리속을 차릴줄도 알았다.

그래서 허동팔대위의 부정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상납금을 받아먹는데 그것은 단순한 치부욕에서 발로된 행위가 아니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통치권자의 존재란 영구불변한것이 아니었다. 종신《대통령》으로 행세할상싶던 리승만도 4.19의 회오리바람속에서 멸망하지 않았는가. 막강한 힘의 상징같던 박정희도 어처구니없게도 수하심복의 총에 맞아죽었다.

현임《대통령》이 또 언제 무슨 변고로 운명의 종말을 고했지 모른다. 통치권자의 빈번한 교체는, 그것도 원한과 반발의 결과로 인한 통치권자의 잦은 교체는 사실 이 땅의 정치체제가 안고있는 그 어떤 치명적맹점에서 연유된것인지 모른다.

그러지 않아도 세월은 갈수록 뒤숭숭하다. 광주의 피바다속에 모조리 짓뭇개버렸다고 생각했던 반항기세들이 또다시 머리를 추켜들고있다. 심지어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해온 미국에 대한 비난도 터져나오고 더욱 놀라운 일은 군인들속에서 군의 광주작전을 비판하고 또 《국군》에 대한 통수권행사자인 미국을 증오하는 기운까지 움트고있는것이였다.

그러한 불순요소들이 자라나면 통치체제가 전복될 위험도 없지 않다. 만약 사태가 그렇게 급변하는 경우 보안장교의 운명이 어떻게 될것인가는 뻔한노릇이다. 구체제의 총복이였다 해서 호된 징벌을 가할것임에 틀림없다.

보안업무수행에서 항상 복선을 치는것처럼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예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계저물들과 군부고위층들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외국에 재산을 도피시켜두면서 일단 유사시 출행량을 칠 계획을 세우고있는 판에 보안장교라고 속수무책으로 있겠는가.

돈만 있으면 될것이다. 일본으로 뛰든지 미국으로 날아가든지 돈만 있으면야 얼마든지 뽕뽕거리며 살수 있다.

남인표의 예금액수를 올려주는것은 허동팔 혼자뿐이 아니였다. 작년부터 동생을 시켜 대전에 기업체 하나를 차려놓고 거기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벌어들이고있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파국적인 유사시에 대처한 준비를 하는중이였다.

그는 치부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을 사람이였다. 만약 대우재벌재산의 절반, 아니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을 준다면 나라도 팔아먹는것까지 서슴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그런 거액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고 또한 이 땅의 현 체제가 권세를 휘두르며 돈벌이도 짹짹하게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때문에 《체제수호》를 위한 보안업무에 열을 올리는것이다.

수사관으로서의 그의 특징은 육감이 남달리 예민한것이였다. 그는 자기의 그 장기를 믿고 뚜렷한 물적단서가 없어도 육감에 알리는것이 있으면 대담하게 수사에 착수하는데 성공률이 높았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러는것은 아니였다. 육감적으로 알리는것이 있어도 두고두고 관심하고 감시하면서 물적단서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때도 있었다.

한병구대위의 존재가 그의 육감을 은연중 자극하기 시작한것은 좀 오래전부터였다.

사단보안대에 보관된 그의 신상카드의 기재사항에는 오점이 하나 없었다. 근무태도나 언행에서 흠잡을데도 없었다. 모든 면에서 거의 완전무결한 《모범장교》라고 할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믿음이 꼭 가지 않는가?

남인표는 한동안이 지난 다음에야 그 리유를 찾아냈다. 거의 완전무결할 정도의 《모범장교》라는 바로 그 사실이 되려 의혹을 자아냈던것이다. 그러한 부류의 장교들은 다 철두철미 현 체제에 충실하지만 개중에

는 결사적으로 반항하는자들도 있다.

남인표가 2군관하 부대에 근무할 때 비밀결사를 모의하는 장교를 한명 적발했는데 그도 외형적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장교였다.

한병구대위도 모종의 음모를 꾸미기 위해 《모범장교》로 가장하고있는 것이 아닐가?

그렇게 의혹점이 명백해지자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부터 한대위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소한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허동팔대위의 군수품부정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와 다투기도 했다는 정보가 입수됐지만 안보적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었다.

한대위도 허대위를 건드리면 자기의 눈밖에 나게 된다는것을 계산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가 정말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장교가 틀림없다면 보안장교의 눈밖에 날것을 할리가 없다. 음모가들이란 언제나 수사요원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극력 조심하는것이다.

지서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볼수 있는 일이었다. 만약 한병구대위가 위험인물이라면 자기에게 수사기관의 주의가 쏠리게 할 그런짓을 했을리가 없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한번 건드려보고싶었다.

그래서 사단장에게 그런 보고를 했었다. 사단장의 우직하고 과격한 성격을 리용해서 한대위에게 자극을 주고 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사단장이 한대위를 불명예제대를 시킨다 해도 자기에게는 별로 손해될것이 없었다.

단서가 쉬 잡히지 않으면서 계속 신경을 자극하는 시끄러운 인간을 하나 자기의 업무권밖으로 내쫓아버리는셈으로 되는것이다. 제대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지랄을 하든지 투신자살을 하든지 자기가 상관할바가 아니다.

그러나 사단장관사 도청장치사실이 드러난 바람에 개판이 되어버렸다. 되려 혹 떼려다가 하나 더 붙인 격으로 한대위가 허동팔대위의 군수품 횡령건에 대해서 떠들어대서 조금 우습게 됐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때 그것 역시 한대위가 보안장교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것이였다.

남인표는 한병구대위문제를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리성의 목소리는 그에게 이번의 육감은 헛된것이라고 귀뜸해주었다. 공연히

헛다리를 짚고있지 않을까싶었다.

그러면서도 한가닥 의혹이 찌꺼기처럼 마음속에 계속 달라붙어서 좀체로 떨어져나가지 않았다. 지금까지 먼발치에서만 한대위를 관찰하고 감시해온것이 잘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아직까지 직접 한번도 그를 상대해서 떠보고 찢어보지 않았던것이다.

그것이 실책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떠오른것은 오늘 저녁 여기 《한경옥》에서 허대위와 마주앉아있었을 때였다.

허대위의 말에 의하면 한병구대위가 처벌조치를 통고받은 후 오만상을 켜고 그 누구와도 상대하지 않고있다는것이였다. 기분이 최고로 울적해졌을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화김에 아무 소리나 할수도 있다.

됐어, 어디 한번 직접 건드려보자, 뜻밖의 단서가 잡힐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허대위와의 대작을 끝내고 술상을 새로 차린 다음 한병구대위를 불렀던것이다.

정식호출이 아니고 술집초대가 돼서 한대위가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가 나타나자 속으로 패재를 불렀다. 오늘은 일이 제대로 될상있었다.

선배가 어쩌구 후배가 어쩌구 한 소리는 한대위가 믿지 않을줄 뻔히 알면서 일부러 해본 너스레였다.

나를 머저리로 여기겠으면 여기라지. 그편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머저리로 여기고 방심해져서 입단속을 잘 안할수도 있다.

한편 한병구는 남인표의 그 엉큼한 속셈을 전혀 몰랐지만 이왕 그와 맞다든 기회에 하고싶은 말이 있었다.

《소령님, 나보고 자꾸 후배, 후배 하는데 후배로서 한두마디 말해두 좋겠지요?》

《좋다마다. 그러나 우선 한잔 들구. 당신이 안마시니 나두 못마시지 않소.》

까짓지, 못마실것두 없다.

병구는 자기앞의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독한 위스키가 목구멍을 태웠다. 얼른 고기 한점을 집어 씹었다.

《내가 말하고싶은건 우리가 3사때 배운거 있잖습니까, 장교는 언제나 청렴결백해야 한다는것.》



《암, 그야 물론이지.》

남인표는 병구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 궁금해하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우리 련대 군수참모 허동팔대위의 군수품횡령에 왜 한몫 끼여드는겁니까? 그건 3사출신장교의 불명예가 아닙니까.》

남인표는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병구의 말을 받았다.

《내 그러지 않아도 당신이 공연히 허대위 시비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소.》

《공연한 시비가 아닙니다. 군수품이 계속 밖으로 새나가면 그만큼 부대의 전투력향상에 지장줍니다. 그것이 넘겨되어 문제를 제기한겁니다.》

《그건 옳은 말ियो. 그런 비행은 응당 근절해야 하오. 그러나 안보적 시각에서 볼 때는 말ियो, 군수물자 몇점이 없어지는것보다 불순세력의 준동이 더 위험하오.》

《내 생각엔 부정행위가 만연되어 군기가 해이되면 불순세력이 그 틈을 리용할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도 없지 않겠지만 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소. 부정행위를 두고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시비질하는 장교들의 소위 정의감을 불순분자들이 리용할수 있다 그지요. 그런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체제전복을 해야 된다고 선동할거란 말ियो.》

이때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이젠 들어가도 되는가요?》

진한 밤화장을 한 접대부가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다.

《좀더 기다려.》

접대부가 남인표의 대답에 화가 난듯 문을 탕 닫았다. 옆방의 손님들이 갑자기 폭소를 터뜨리며 떠드는 소리가 울려왔다.

《저것들은 또 뭐야!》

남인표가 짜증을 내며 투덜거렸다. 병구는 끊어진 대화를 이어놓았다.

《아까 이야기 계속인데요. 소령님의 견해는 지나친 신경과민 같습니다. 특히 나를 녀두에 두고 그런 말 한거라면 더욱 헛다리 짚은 격이구요. 그보다도 내가 제기한 그 질문에 대답주시시오.》

《나한테 뭘 물었드라?》

《소령님이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줄 몰랐군요. 허대위의 부정행위에 왜

한몫 끼어드느냐, 그걸 묻잖았습니까.》

남인표는 대꾸할 말을 찾는듯싶더니 갑자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습니까?》

《나한테 건강증이 심하다면 당신은 착각증세가 심하군. 젊은 사람이 그게 뭐요?》

《무슨 착각 말입니까?》

《당신이 그 문제를 제기한 후에도 허대위가 아무런 제재도 안받고있지 않소. 그건 뭘 말하오? 그에게 부정행위가 없기때문ियो. 당신도 그걸 모를리 없소. 그러면서 내가 뭐 어쨌다구, 그거야말로 착각 아니구 뭐요?》

병구는 그만 실소하고말았다. 어쩌면 그렇게도 뻔뻔스러울수 있으랴싶었다. 증인으로서 문하사의 이름을 달수 있었지만 그가 후에 또 무슨 복수를 당할가봐 그만두었다.

《좋습니다. 난 수사관이 아니니까 본인이 부인하는걸 계속 추궁할 생각 없습니다. 그대신 한가지만 더 알고싶습니다. 방금 소령님이 착각소리해서 생각난건데요. 권성태를 <간첩>이라 하고 그의 4촌누이동생에게까지 <간첩>활동을 협조한 련루자감투를 씌운것도 무슨 착각이었습니까?》

《아니 여보, 그거야 내 아까 미리 말하지 않았소. 지서것들이 허튼소리해서 일시 오해생긴걸 내가 바로 해명해주었다구.》

《별수없군요. 소령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 그럼 날 부른 리유나 말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한 이야기야 다 서론 아닙니까.》

남인표생각에도 서론이 지내 길었던것같다.

막상 병구를 불러다놓긴 했지만 단방명중식으로 쿵 찢러볼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아 실없는 소리를 하다가 되려 병구에게 말꼬리를 잡혀 공상스러운 변명으로 굶뻔느라 땀을 뻘것이다.

《무슨 특별한 용무가 있겠소. 당신이 처벌받구 우울해있을것같아서 한잔 나누자구 부른거요.》

《공연한 걱정했군요. 뭐 특별히 우울할것두 없습니다.》

이때 남인표의 머리에 번개치듯 스치는것이 있었다. 그래 지나가는 소리처럼 한마디 물었다.

《그 사람 언제 떠나가겠다는 말 없었소?》

《누구 말입니까?》

《권성태!》

이새말로 내뱉으며 병구의 기색을 예리하게 살폈다. 그것은 남인표가 혐의자를 취조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었다.

하찮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상대를 방심시켜놓다가 불의에 급소를 찌르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혐의자는 의례 당황해하며 모른다, 못봤다 하는 따위 대답을 한다. 그 당황해하는 표정과 대답하는 어조에서 그것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느닷없이 권성태가 용수리에 와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번개치듯 떠올라 해본 질문이었다.

이제 병구의 입에서 무슨 대답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대답과 그 어조 그리고 그의 표정의 변화에서 권성태가 이곳에 와있는지, 와있지 않다 해도 그가 권성태와 모종의 연계를 가지고있는지 아닌지를 초보적으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병구는 얼른 대답하지 않았다. 날카로운 눈초리로 남인표를 쏘아보기만 했다.

남인표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의외의 소독이 생길것같은 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권성태가 이곳에 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점차 확신으로 굳어져갔다.

그 믿음이 꼬리를 늘어 한병구대위가 불온학생과 이미 오래전부터 불순한 연계를 가지고있다, 권성태가 이곳에 나타난것은 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다, 한대위 혼자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협조자들이 몇명 있다, 그놈들까지 모조리 한그물에 잡을수 있다 하는 억측과 타산이 연방 떠올랐다.

옆방에서 별안간 《어머머, 더 못벗어요!》 하는 교태어린 비명과 와와 떠들며 박수치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왔다. 화투치기로 접대부들의 옷벗기기장난이라도 하는 모양이다.

그 소음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병구가 불쑥 입을 열었다.

《래일 첫 뺨스로 떠나겠다더군요.》

남인표는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부지기수로 많은 혐의자들을 다루어보았지만 그런 대답을 듣기가 처음이었다.

《아니, 뭐라구?!》

《권성태가 언제 떠나갈거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래일 아침 첫 배스로 떠나가겠다구 하더군요.》

《아니 그럼, 그 학생 만나봤다는거요? 지금 어디에 있는거요?》

혹시나해서 다우쳐물었다.

《이제 곧 이리로 올겁니다. 자기도 소령님과 사귀고싶다나요. 더 물을거 없습니까?》

남인표는 자작으로 또 한잔 마셨다. 입이 쓰거웠다.

병구가 이쪽의 속심을 뻔히 들여다보고 역습을 가해온것임에 틀림없었다. 한대 얼어맞은 기분이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면 더 엉뚱한 대답이나 들을것같았다.

《알만하오. 그 얘긴 그만합시다.》

《왜요? 이 한병구가 언제부터 불순세력과 야합했는지 그런것까지 물어야지요.》

《그건 묻지 않아도 아는거니까.》

《그럼 나도 더 대답할것이 없군요.》

병구는 긴장이 탁 풀렸다.

권성태가 언제 떠날거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랐다. 정말 성태가 와있다는것을 알고 물은게 아닐가싶었다.

그러나 설사 다 알고 묻는 말이라 해도 완강히 부인하려고 마음먹었다. 권성태를 보호해주고싶었다.

그와 함께 남인표에 대한 반발심이 불길처럼 타번졌다.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잡아다 병신으로 만들고 감옥에 보냈다는것을 너무나 잘 아는 병구였다.

소문에 의하면 거의 모두가 죄없이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했다. 우연한 기회에 채수없이 걸려들어 아무런 물적증거도 없는 《용공분자》가 되고 《북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이 되었으며 《체제전복을 준비한 불순군인》이 되어 남한산성귀신이 되었다는것이였다.

그들중엔 병구가 잘 아는 장교도 한명 있었다. 학도군사훈련단출신인데 병구가 처음 중대장복무를 할 때 소대장으로 데리고있는 리장운중위였다.

그가 저지른 《죄》란 휴가때 고향인 인천에 가서 일문판 좌익서적 한권 얻어가지고 와서 읽어본것이였다.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중대에 박혀있는 보안대 끄나불에게 발견되고 후에 남인표에게까지 보고되었다고 했다.

병구가 보기에 리장운중위는 절대로 간첩이 아니였다. 다방면적인 지식

을 섭렵하기 위해 책이라면 닥치는대로 구해다 읽는 장교였다. 일요일에도 일부러 서울까지 가서 여기저기 고서점들을 뒤지다가 희귀본이 눈에 띄기만 하면 값을 깎는 법이 없이 산다고 했다.

그 독서광을 남소령이 《총련계공작원과 련계된 간첩》으로 만들어 군사재판에 회부해서 20년 언도를 받게 했던것이다.

이제 성태를 체포하면 그를 또 그 어디와 련결된 《간첩》으로 몰기 위해 갖은 악형을 가하고 나중에는 교도소로 보낼것이다.

어림두 없다! 절대로 성태는 못다친다! 하고 병구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성태가 지혜의 4촌오빠라 해서 단지 그 조건때문에 그를 보호하려는것은 아니었다. 사람잡이에 이끌이 난 수사기관의 횡포에 도전하고싶었다.

병구에게도 직감이 전혀 없지 않았다. 그 직감으로 남인표가 실제로 성태가 와있다는것을 모르면서 한번 떠보는 수작질을 한다는것을 간파했다.

그런 경우 모른다, 안왔다 하는 대답을 하면 또 판 각도로 찢어보고 건드려보고 할것같았다. 한두마디 대답으로 그가 스스로 헛탕을 쳤다는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역습적인 효과를 노리고 매일 아침 첫 뺄스로 떠난다, 이제 끝이리로 온다는 대답을 했던것이다.

그것은 공연히 남을 떠보는 남소령의 어리석은 수작에 대한 야유이기도 했다. 효과가 좋았다.

남인표는 제가 되려 한대 얻어맞은 꼴이 됐다는것을 깨달은듯싶었다. 놀라다가 당황해하고 난색을 짓는 그의 얼굴표정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병구는 그를 보기 좋게 때려눕혔다는것을 확신했다.

그러자 그만 긴장이 탁 풀렸다. 엄혹한 격투를 한차례 치르고난것만 같았다. 하긴 한 인간의 운명을 두고 벌린 암투였다.

어쨌든 이제 남소령이 자기를 부른 까닭도 알았고 그를 멋지게 속여넘겼으니 더 앓아있을 필요가 없었다. 병구는 술 한잔을 더 따라마시고 일어섰다.

《왜, 벌써 가겠소?》

자신의 실패를 자인한 남인표는 더 붙잡아둘 기색이 아니었다.

《오늘 대접 잘 받았습니다.》

병구는 시치미를 뻑 따고 한마디 덧붙였다.

《후에 무슨 애로사항 생기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안개가 자욱히 낀 밤이었다.

《한경옥》의 외등이 안개에 파묻혀 공중에 매달아놓은 수수떡같았다. 고살은 안개바다속에 잠겨있었다. 지척을 가리기 어려운 어둠이 눈앞을 가로막았다.

바깥에 나온 병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갔다. 짙은안개에 얼굴이 금시 이슬비를 맞은것처럼 눅눅해졌다.

누군지 앞에서 마주 오는 사람이 있었다. 발자국소리는 들리는데 사람의 형체는 잘 보이지 않았다. 서로 마주칠 지경으로 접근해서 보니 중년남자였다.

《무슨 놈의 안개가 이래! 이마를 찡어두 모르겠군.》

중년사내는 병구와 부딪칠번한것에 화가 나는듯 성난 소리로 두덜거렸다.

보이지 않는 비말의 파도가 쉬임없이 얼굴을 때렸다. 습습한 물비린내가 끼얹어왔다. 숨쉬기가 답답했다.

또 누군지 급히 달려오는 기척이 났다. 보폭이 좁은 녀자의 발자국소리였다.

부딪치는 실례를 피하기 위해 미리 비켜서는데 저쪽에서 병구를 알아보고 소리쳤다.

《병구씨 아니예요?》

지혜였다. 민씨가 뛰어와서 대위님이 보안대 남소령의 호출을 받고 《한경옥》에 갔다는 소리를 해서 급히 찾아오는 길이었다.

《어딜 가오?》

《어떻게 하신거예요?》

《어떻게 하다니?》

《보안장교 만나신 일 말예요.》

《보안장교한테 오빠가 와있다는 소릴 할가봐 뛰어왔소?》

《예.》

지혜는 숨소리를 딱 멈추며 병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런 오해를 받다니...

병구는 처녀의 어깨를 조금 거칠게 잡아흔들었다.

《그래, 만약 내가 그 소릴 했다면 어쩔 작정이요?》

지혜가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말씀하신거예요, 안하신거예요?》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소리 했겠소.》

지혜의 입에서 호오 하고 안도의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둠속에서 지혜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것같았다.

《만약 내가 오빠말을 했다면 뺨이라도 한대 후려칠 작정이었소?》

《아니예요.》

《그럼?》

지혜는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말씀 안하실거라고 믿었지만 만약 말씀하셨다면... 결심했어요. 병구 썰 타하기 전에 저자신을 벌하겠다고.》

《자신을 벌하다니?》

《차라리 자살해버리려고 한거예요. 사람을 잘못 보고 사랑한 그 죄를 자살로 벌하려고요.》

병구는 다시 처녀의 어깨를 잡아흔들며 소리쳤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제정신있소?!》

지혜는 쓰러지듯이 풀썩 주저앉으며 두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병구는 후우 하고 더운 입김을 내뿜으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안개가 점차 실비로 변했다.

이마가 축축히 젖고 땀으로 물기가 흘러내렸다. 무릎을 꿇고 쪼그리고 앉은 지혜의 까만 머리도 실비에 젖어 번들거렸다.

안개가 걷히면서 시야가 점차 넓어졌다. 길가집들의 창문불빛도 환해지기 시작했다. 저쪽 고갈모퉁이를 돌아서 나오는 사람들의 형체가 보였다.

《누가 보겠소, 갑시다.》

지혜는 어린애처럼 얇전하게 일어섰다.

병구가 앞서 걸으면서 안타깝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한거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지혜는 두손을 앞에 모아잡고 따라가면서 가만히 대꾸했다.

실상 지혜자신도 어찌하여 그렇듯 모진 마음을 먹게 되었는지 딱히 알 수 없었다. 다만 자기의 마음이 모질어졌다는것만은 분명히 알고있었다.

순결한 마음은 본성적으로 악을 거부하는 법이다. 그것이 늦게 되거나 이르게 되거나 어차피 악에 항거하게 되는것이 순정의 법칙이다.

지혜의 깨끗한 순정도 드디어 악에 대한 반발을 일으킨것이다. 처음에는 몽둥이에 얻어맞고 구두발에 채이면서도 항의 한마디 하지 못했던 자신을 저주했었다.

지서에서 풀려나온 후의 일이었다. 착한 마음 하나만 믿고 살아온 자기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무뎡한 녀자로 보였다. 죄없는 사람들을 팔세하고 괴롭히는 이 세상에 대한 원망도 자라났다.

학성리에 왕진간 날에 본 그 유서가 또한 그로 하여금 선량하고 불쌍한 녀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이 세상의 부정과 사악에 치를 떨게 했다.

그러한 뉘우침과 분노와 함께 생겨난것이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다르게 살기 위해 우선 자신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세상의 사악도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만약 병구가 오빠를 밀고했다면 그를 잘못 보고 사랑한 자신의 실수를 자살로 징벌할 결심까지 한것이다.

비발이 점점 굵어졌다.

《오빠가 지금 어디 있소?》

병원앞에 가서 걸음을 멈추며 병구가 물었다.

《채선생님댁에 계실거예요.》

《그럼 수고스러운대로 얼른 오빠한테 가서 빨리 여기서 떠나가라고 하오.》

《왜요?》

지혜가 뜨아한 소리로 물었다.

병구는 남소령과 주고받은 대화를 대강 알려준 다음 자기의 억측을 말했다.

《그놈이 뭔가 마음에 짝이는것이 있어서 불쑥 그런 소리 한건지 모르오. 또 한가지,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실수한것이 있소. 보안대 하사관이 집에 왔을 때 엉겁결에 오빠쪽을 돌아봤단 말이요. 오빠가 그놈 눈에 띄진 않았지만 그놈이 후예라도 내가 방구석쪽을 돌아본것을 생각해낼수 있지 않소. 알겠소, 무슨 말인지?》



《수사를 벌릴수 있다는거죠?》

지혜의 목소리가 가볍게 떨렸다.

《꼭 그럴거라는 말은 아니지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잖소. 빨리 오빠한테 가서 내가 그러더라구, 몸을 피하는게 좋다고 하오.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이야기하려구 하는지 내 다 안다구, 나두 더 생각해볼테니까 후에 다시 만나더라두 지금은 빨리 떠나라고 하오.》

《예. 그렇게 전하겠어요.》

점점 더 굽어지는 비탈속을 달려가는 지혜의 뒤모습을 지켜보며 병구는 후우 하고 모두숨을 내쉬었다.

## 8

윤미가 전자복사기를 자기 방에 끌어들인것은 천연지대출장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얼마 안있다가 부산쪽에 또 출장을 떠난 다음날이었다.

복사기를 운반해왔을 때 어머니가 집에 없었다. 어머니의 외출시간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 시간을 리용했던것이다.

가정부가 보긴 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오금을 박아두었다. 원래부터 윤미의 말을 잘 듣는 가정부는 비밀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복사작업을 할 때 울리는 그 소음만은 어쩔수가 없었다. 문을 꼭 닫고 작업을 해도 그 소리가 어머니방에까지 울려갈것이 뻔했다.

어머니가 외출할 때만 작업할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차피 어머니에게 들리기마련이었다.

드디어 하루는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2층의 딸방에 올라왔다.

《이제 뭐냐?》

《영인복사기라는거예요. 회귀본책도 복사하고 강의 빠졌을 때 친구들의 노트 얻어다 복사하는데 쓰려고 빌려왔어요.》

윤미는 그런 경우를 위해 이미 마음속에 준비해둔대로 천연스레 대답했다.

리념서적원고를 복사하고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런줄 모르고 기계만 유심히 살폈다.

《일본제같구나.》

《그래요. 나도 한대 사줄래요? 국산제는 자주 고장이 생겨서 못 써요.》

《아주 비싼 물건 같은데 꼭 사야 하니?》

《그러문요! 란희도 갖고있구 차영애도 곧 산대요. 그리고 영숙이랑 희주랑...》

윤미는 생각나는대로 아무 이름이나 마구 주어댔다. 그중에서 어머니가 아는 이름은 란희뿐이고 그들이 다 복사기를 가지고있거나 산다는것은 거짓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다음에 의논해보자.》

《부락해요, 엄마!》

어머니가 내려간 다음 윤미는 신이 나서 작업을 계속했다.

복사기는 안영일이 어디서 구한것이고 복사작업은 미대학생네 집에서 시작했는데 하루는 영일이가 윤미를 보고 기계를 어디 옮겨야 하겠다는 소리를 했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미대친구네 집 꼬마들이 복사작업하는것을 보고 동네개구쟁이들에게 자랑을 퍼뜨려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럼 우리 집에 옮겨와요.》

《일없을가?》

《우리 집엔 꼬마들도 없고 이웃에서 드나드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들은?》

《그건 제가 알아서 어떻게 할게요.》

복사기는 이튿날에 옮겨왔다. 복사기와 함께 원고도 넘겨받았다.

16절지에 활자체로 토박토박 박아쓴 원고였다. 제목은 《80년대 학생운동의 과제》인데 성태가 쓴 원고라고 했다.

윤미에게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다.

권성태의 그 유인물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가. 안영일을 참가시킨 녀학생들의 토론회에서도 많은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어쨌든 전에는 그때그때의 즉흥적인 기분으로 체제비판을 하고 미국의 고자세를 비난하는데 그쳤다면 지금은 적극적행동을 하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녀학생으로 되었다.

행동하는 지성만이 참다운 지성이라는 말의 참뜻을 깨달았고 이 시대의 정의와 대학정신을 구현하는 투쟁에 뛰어들고싶은 열망에 휩싸였다.

무엇인가 격동적이고 의의있는 일을 하고싶었고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안타까이 기다렸다.

성태를 버스안에서 우연히 발견한것이 그러한 열망이 한창 자라나게 한 계기가 되었다.

다음 정류소에서 내릴 사람처럼 앞문옆에 웬 녀자와 나란히 서있었는데 변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처음에는 그가 바로 성태인줄을 몰랐었다.

윤미는 다음 정류소에서 내리려고 손님들속을 뚫고나가다가 성태옆에 서있는 처녀와 먼저 눈길이 마주쳤다.

같은 대학 국문과에 다니는 공부 잘하고 노래 잘하고 정구도 잘 치는 것으로 소문났을뿐 반《정부》적인 성향을 통 나타내지 않던 차선주였다. 그도 변장하느라고 대학을 갓 졸업한 후 직장에 나갈 대신 한가하게 놀러다니는 멋쟁이가가씨같은 옷차림에 화장까지 얹게 했는데 성태는 그러루한 아가씨를 끼고 다니는 청년신사차림이었다.

차선주 역시 대뜸 윤미를 알아보았지만 뜻있는 눈짓을 보내고 곧 외면해버렸다.

한편 성태는 전혀 윤미를 보지 못한듯 창밖의 거리풍경만 안이한 눈길로 살피고있었다.

성태가 어디로 가면서 위장과 호위를 위해서 차선주를 동행자로 선택했다는것을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차선주가 언제부터 성태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을까?

윤미는 저으기 놀랐다.

한가닥 의혹이랄가, 질투랄가 야릇한 그 무엇이 가슴을 쿵 찢었다.

그것이 며칠을 두고 내려가지 않아 안영일을 만났을 때 그들 두사람을 버스안에서 보았다는 소리를 했더니 그의 대답이 또 뜻밖이었다.

《응, 성태도 봤다더군.》

《저를요?》

《응.》

《어머, 그런데두 아예 못본체했군요.》

《일부러 그런거야. 윤미가 자기를 보고 알은체 안한걸 고맙게 생각하더군. 그러구 인사 전하랴구 부탁하면서 후에 신세질 일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거절하지 않을줄 믿는다나.》

《제 신세를 저요? 무슨 일이게요?》

윤미는 호기심이 부쩍 동해서 성급히 물었다.

《차선주처럼 동행자로 따라다녀줄 일 말야.》

《어머,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구! 성태 그 친구 நா다닐 일이 많거든. 그럴 때 윤미같은 미인이 동행해주면 좀 좋을라구.》

《어머, 놀리지 말아요!》

윤미는 자기를 미인이라고 추어주는 바람에 눈을 흘겼지만 권성태가 자기를 믿고 가장 가까운 벗으로 간주하고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의 인품을 더욱 높여준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사람을 믿는다는것은 곧 높은 인품의 표시인것이다.

권성태네들이 대학안에 리념소조를 조직하는 활동을 시작했다는것까지는 아직 모르고있었다. 그리고 미대학생네 집에서 찍은 그 리념서적이 유명훈교수가 쓴 원고에 토대해서 만든것이라는 사실도 윤미는 아직 모르고있었다.

그러나 그 책을 이미 보았고 또 불원간 권성태와 동행하게 된다는 생각이 윤미로 하여금 자기도 그의 가까운 벗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

《그럼 믿어도 되겠지?》

영일이 다짐을 놓듯이 가만히 물었다.

《아니 그럼, 여태 절 안믿은거예요?》

윤미가 눈을 흘기며 되물었다.

《그런건 아니구...》

《성태씨 만나면 얘기하세요. 저도 차선주만큼 변장도 할줄 알고 누굴 만나도 못본체 시치미 뻔줄도 안다구.》

《좋아, 그렇게 전하지.》

그러한 대화가 있는지 얼마후에 영일이 복사기문제를 제기했던것이다.

윤미는 복사작업이 성태와 동행해다니는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높은 긍지감을 가지고 복사작업을 시작했더니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랐다.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좀 서툴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어머니가 올라와서 본 그날까지 첫 한부를 찍어냈다.

57페이지나 되는것을 정히 간중그러서 서류매개로 눌러 책형태를 만들어

놓고보니 23시였다.

복사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고를 한번 읽어보긴 했지만 책으로 다 만 들어놓으니 다시 보고싶었다.

윤미는 밤이 새는줄도 모르고 한줄한줄 더듬어나갔다. 그것은 피를 흘리며 60년대와 70년대를 헤쳐온 학생운동의 간고한 로정을 돌이켜보면서 80년대의 새로운 전환을 호소하는 권성태라는 한 젊은 지성인의 뜨거운 심장의 목소리였다.

아니, 권성태 한사람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기를 비롯하여 수난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젊은이들의 량심과 열정이 거기에 깃들어있는것같았다. 매 문장마다에 백만학도들의 뜨거운 숨결이 맥박치는것같았다.

모두 50부를 제작할 계획이었다.

영일은 지내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하라고 당부했지만 윤미는 하루라도 빨리 일을 끝내고싶어 다음날부터 여느날보다 일찍 대학에서 돌아와 기계를 돌렸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련일 계속 기계소리를 내자 어머니가 또 딸의 방에 올라왔다.

이번에는 무슨 희귀본인데 그렇게 매일 복사하는거냐고 물으며 기계옆에 무드기 쌓여있는 인쇄물을 집어서 읽어보았다.

윤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어머니가 보는것을 뺏을수도 없었다. 뺏는다고 안볼 어머니도 아니었다.

인쇄물내용을 알아낸 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아니, 이게 뭐냐?! 너... 너... 제정신있냐? 이게 대관절... 응?》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고 화가 나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윤미는 어머니를 진정시켜보려고 했다. 어머니를 속인것을 사죄하고 그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학생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며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주 유익한 일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어머니는 한동안 얼이 나간 사람처럼 딸을 멍멍히 바라보기만 했다. 딸의 말은 하나도 귀담아듣는것같지 않았다.

그래도 윤미는 열심히 이야기했다.

《전 어머니의 딸이면서 민족의 딸이에요. 민족공동체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는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시대의 기수로서...》

《듣기 싫다!》

어머니가 껍 소리질렀다. 윤미는 입술을 깨물며 어머니를 흘겨보았다.  
어머니는 굳덕이 처진 얼굴을 푸들푸들 떨다가 아래층을 향해 가정부를 불렀다.

《애, 옥숙아!》

《옥숙은 왜 불려요?》

《이걸 다 밖에 내다 불살라버리려구 그런다!》

윤미는 얼른 문에 달려가 쇠를 걸어버렸다.

《아무도 거기에 손대지 못해요!》

어머니를 쏘아보는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어나왔다. 이윽고 가정부가 올라와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넌 내려가있어도 돼!》

윤미가 소리질렀다.

《이년이 감히 어머니에게… 응, 이년!》

어머니는 너무 분해서 눈물을 찔끔 흘렸다.

윤미는 쇠를 벗기고 문을 활짝 열었다.

《어머니도 내려가세요, 남의 일에 간섭말구.》

모녀간의 싸움이 다음날도 벌어졌다. 승부가 나지 않는 싸움이였다.

혼자힘으로 딸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어머니는 육군본부에 전화를 걸어 딸이 중병에 걸렸는데 아버지에게 속히 연락해줄수 없느냐고 부탁했다. 아버지의 출장예정일이 일주일이나 남아있었던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릴수 없어서 전화한것인데 뜻밖에도 준장님이 모레 돌아온다는 대답이였다.

어머니는 당장 딸의 방에 올라가 모레 아버지 오신다, 단단히 혼날줄 알아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원호엽이 돌아온것은 이틀후 해질무렵이였다. 차소리를 듣고 안해가 달려나갔다.

《윤미가 좀 어떻소?》

원호엽은 차에서 내리면서 첫마디로 이렇게 물었다.

《여태 안들어왔어요.》

《않는다더니?》

《차라리 병에나 꼭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년이 무슨짓하는지 올라가 보세요.》

원호엽은 묵묵히 안해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한발 앞서 올라간 안해가 딸의 방문을 활짝 열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안해는 금시 놀란 소리를 질렀다.

《어머, 그게 어디 갔어?!》

방에 뛰어들어가 여기저기 살펴도 그 전자복사기가 없었다.

《뭘 그러오?》

뒤따라들어온 원호엽이 언짢은 기색으로 물었다.

《아버지 오시는걸 알고 미리 어디다 빼돌린거예요.》

안해는 딸의 침대에 무너지듯이 주저앉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호엽은 피아노의자에 앉아서 묵묵히 들었다. 놀랍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비밀책자제작을 하다니, 내 딸이 어느새 그렇게까지 변했는가!

그러지 않아도 청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들어온 원호엽이었다. 머리가 멍했다.

《나쁜 학생놈의 추동질받고 한짓이 틀림없을거예요. 그놈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원호엽은 안해를 뻔히 쳐다보다가 담배를 붙여물었다.

《윤미를 살살 얼리면 그놈이 숨어있는데를 알아낼수 있을거예요. 경찰에 그놈 주소를 알려줄 땐 윤미 몰래 해야 해요. 그년은 내가 데리고 제주도나 온양온천에 가겠어요. 한달이구 두달이구 마음 돌릴 때까지 붙잡고있을 생각이에요. 학교야 몇달 쉬면 뭐래요. 한해 휴학시키는데 한이 있더라도 그년 마음을 돌려세워야지 신세 망치면 어떡해요.》

딸의 방이어서 재털이가 없었다.

원호엽은 피아노 옆의 창턱에 있는 만수국이 화사하게 핀 화분에 담배재를 털려다가 그만두었다. 거기에 재를 털면 딸이 싫어할것같았다. 화사하게 핀 그 꽃에 딸의 넋이 깃들어있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화분옆에 무슨 화학비료 같은것이 조금 담긴 접시가 있었다.

거기에 담배재를 털며 안해에게 말했다.

《내려가있소.》

혼자 있고싶었다. 안해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입술까지 조금 청홍색이 되도록 저녁화장을 얹게 한 안해의 얼굴이 전에없이 보기가 역겨웠다.

《왜 그래요?》

안해가 뜨아한 소리로 물었다.

원호엽은 담배연기를 깊이 들이삼켰다가 후우— 내뿔었다.

《윤미일은 어떡하실거예요?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니까요. 지금도 어디서 그 학생놈을 만나 시시닥거리고있을거예요.》

《내려가있으라지 않소!》

원호엽의 목소리에 가까스로 참는 역정이 실려나왔다. 안해는 남편을 흘려보다가 발딱 일어나 방에서 나갔다.

문이 닫기는 소리가 나자 원호엽은 방금 피워문 담배불을 접시에 꼭 눌러 끄고 무심히 피아노건반을 짚었다. 뚜껑이 열려있었던것이다.

둔중한 저음이 한숨처럼 울려나왔다.

원호엽은 음악이라는 예술과는 거리가 꽤 먼 직업군인이지만 딸의 방에서 울려오는 피아노소리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일종의 향수와 같은것인지도 몰랐다.

중학생시절엔 그도 한때 바이올린을 들고다녔고 친구네 집에 있는 피아노건반도 두드려보았던것이다. 네댓개의 악곡을 피아노로 치고 바이올린런 습곡도 켤수 있게 되자 장차 음악가가 될 꿈을 끈적도 있었다.

넌 음악에 소질있어 하고 실없이 주어주는 친구도 없지 않았다.

딸의 방에서 울려나오는 피아노소리를 들을 때면 세파에 때묻지 않은 허황한 공상과 순정으로 살던 그 시절이 떠오르곤 했다.

한숨소리같은 저음이 잦아들자 고음쪽을 짚어보았다. 환희로운 밝은 음향이 울려나왔다.

그것은 지금 원호엽의 마음속에서 뒤편지는 우울한 기분에 어울리지 않는 음향이었다. 다시 저음을 짚었다.

문득 자기도 벌써 50대의 초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5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던가? 내 인생의 공과는 어떤것들인가? 이제 무엇으로 여생을 보낼것인가?

생각이 번거로웠다.

파란많은 인생여로에 지친 사나이의 한숨소리와도 같은 피아노소리를 반주처럼 들으면서 추억의 단상들을 더듬어보았다.



직업장교의 명예심과 긍지로 충만했던 위관시절, 월남전쟁에서 겪은 포화의 세례, 3사교관생활, 미국류학, 전연사단에서의 참모장근무...

추억의 내용은 다 군인생활이었다. 그러나 그 군인생활을 오늘로 끝마치게 되었다. 그것은 원호엽자신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어제 부산출장지에서 래일 오전중으로 꼭 올라오라는 전화명령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또 무슨 탄 용무가 제기되어 부르는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륙본청사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참모총장이 불러서 갔더니 《원준장, 좀 쉴 생각없소?》 하고 묻는것이였다.

무슨 뜻인지 몰라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있는데 총장이 짤막하게 설명했다.

《8군사령부 의견두 있구 해서... 제대청원서 써놓는게 좋겠소.》

장성급에서도 상관의 말은 곧 명령이고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원호엽은 자기 방에 돌아가서 곧 제대청원서를 썼다. 그리고 이 벼락명령의 배후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8군사령부 의견이란 말이 맨 처음 머리에 떠오르고 전연지대출장시 미8군사령부 중좌의 호출을 묵살해버렸던 일이 생각났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지. 어디 잘 생각해보자. 무슨 일이 또 있었는가? 그래, 작년 가을 미8군사령부의 로버트대좌와 가벼운 논쟁을 한 일이 있었다. 그보다 나흘전엔 연회석상에서 미대사관 군사아파쎄를 만나 현대지성인은 다른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존중할줄 알아야 한다는 소리를 했지.

그 말속에 숨은, 이 땅의 풍습과 문화를 너무 무시하는 무릇 미국인들에 대한 비난을 감촉한듯 군사아파쎄는 쓰겁게 입을 다시며 외면해버렸다.

미군부의 기관지 《성조기》 기자 웨드쉬리를 만난것은 또 언제였더라? 새파랗게 젊은 그녀석의 질문이 아주 엉뚱했다.

《준장님은 우리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비판적시각이 아주 날카로운분이라는 평판인데 그게 사실입니까?》

원호엽은 조금 당황했다. 미8군사령부의 입김이 너무 세계 풍겨오고 군사상위계까지 무시되는 미군과 《국군》사이의 모순과 불평등에 대해 마

뜩잖게 생각해온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입밖에 낸적은 없었다.

웨드쉬리가 미8군사령부 첩보계통의 협조자노릇을 하는 위인이라는것은 《국군》장성들사이에 쉬쉬 돌아가는 뒤소문으로 알려진지 오래다. 그래서 그가 인터뷰를 요청해오면 무슨 시험이라도 치는 기분이 되곤 했다.

원호엽도 그날 웨드쉬리기자의 질문에 속심을 내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미8군사령부 의견》이라는것이 이미 그때부터 생겨난것임에 틀림없었다.

《정치군인》들을 혐오하는 기질이여서 군인이 정치하는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는 말도 언젠가 술자리에서 한적이 있지만 근본화근은 《미8군사령부 의견》이었을것이다.

서인결사단장실에서 미8군사령부 중좌의 호출을 목살해버린것이 도화선이 됐는지도 모른다.

후에 알고보니 그 미군중좌도 《국군》전연부대들의 전투준비상태를 점검해보기 위해 군단사령부에 내려간것이라고 했다. 그가 미8군사령부에 올라가서 아무개가 어찌더라고 지껄인거겠지. 그러자 이전의 일들까지 다 상기하고 종합하여 그 《미8군사령부 의견》이란것을 통고했을것이다.

그것으로 제대청원서를 써내게 된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

원호협은 조금 허구픈 생각이 들었다. 30여년을 몸담아온 《국군》이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생을 바쳐왔던가? 내판에는 나라를 위해 복무하느라 했는데 결국 《미8군사령부측의 의견》때문에 군복을 벗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이룰배반인가!

서인결사단장실에서 들은 한병구대위의 그 말마디들이 귀전에 다시 울렸다. 그때 자기가 머리속으로 더듬어본 《국군》연혁사의 장들이 차례차례 상기되었다.

그것이 피할수 없는 《국군》의 현실이라고 인정하고 그에 타협하고 적응해온 결과로 정년전 제대를 하게 된 오늘의 수치를 당한것이 아닐가?

착잡한 상념에 잠겨있는 사이에 방이 어두워졌다.

원호엽은 불을 켜 생각은 않고 또 담배 한대를 꺼내여 물다가 문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니 딸이 들어서고있었다. 윤미도 스위치를 넣을 생각을 안하고 문지방에서 주춤거렸다

《인제야 오느냐? 불을 켜거라.》

불을 켜고 딸이 물었다.

《어떤 일이세요?》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있는 아버지에게서 그 어떤 심상치 않은것을 느낀것같았다.

《응... 너 정말 그새 어디 좀 앓은것같구나.》

아버지의 눈에 딸의 얼굴이 핼썅해진것같아보였다.

《아니예요.》

《네 어머니한테서 다 들었다.》

《저도 알아요. 몹시 놀라고 노하신거죠?》

《그럼! 아주 되게 욕해주려구 널 기다리던중이다.》

딸은 문지방에서 얇전하게 걸어서 책상앞의 의자에 앉았다.

《저도 각오하고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냐?》

《아버지가 가엾어요, 어머니두.》

조금 애수에 잠긴 목소리였다.

원호엽은 피아노의자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위선에 사는거예요. 모르고 사는것도 위선이예요. 인간의 진실을 모르신다 그거예요.》

원호엽은 딸에게 다가가서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발랄하고 생소한 그 얼굴 어딘가에 진지하고 사색적인 무게가 깃들어있었다.

《그래, 인간의 진실이란 뭐냐?》

딸의 의자와 대각선위치에 놓인 침대에 걸터앉으며 물었다.

《저도 아직은 다 몰라요. 그렇지만 인간이란 원래 아름답고 고상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곧 아름다움이라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때문에 악행을 하는거예요. 그건 스스로 자신을 모욕하는짓이예요. 사람들이 생활을 창조하고 진실을 탐구하며 그걸 실천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건설하는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예요. 공장의 근로자들이나 농민들이 땀흘려 일하는건 고통스러워도 그들이 인간생활의 재부를 만들고 가꾸어내는 그 창조행위는 아름다운것이예요. 인간을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것도 그들이 모든것에서 자유롭고 모든것을 창조할수 있는 의지와 권리와 능력의 소유자이기때문이예요.

그런데 외세와 파썸통치가 그 의지와 권리와 능력을 유린하면서 그걸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선전하고있으니 얼마나 추악한 위선이에요. 근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니예요, 아니예요!》

윤미는 돌연 머리를 세차게 내흔들며 자리에서 튀어일어났다.

원호엽은 딸의 눈에서 물기가 반짝이는것을 보았다. 분노인지 련민의 정인지 알수 없는것이 그의 가슴을 굵었다.

윤미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다가 피아노의자에 앉으며 두손으로 건반을 탕 때렸다.

둔중한 저음과 쇠된 고음이 한꺼번에 울리며 좁은 방안을 짹 메웠다. 이윽고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는 불협화음이 한순간 소란을 피우더니 그것에 항거하듯 아름다운 고음이 날개치며 솟아올랐다.

조화롭고 다정한 화음이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갔다. 불협화음이 점차 뒤전에 밀리고 아름다운 화음이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봄날의 전야에서 우짚는 못새들의 노래소리와도 같았다. 생활의 환희와 사랑의 속삭임 같기도 했다.

갑자기 저음이 심술궂은 괴성을 지르며 그 사랑의 노래소리를 짓눌러 버리려고 악을 썼다.

그러자 윤미의 오른손가락끝에서 항거의 웨침이 날카롭게 울려나왔다. 격렬한 싸움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드디어 심술궂은 방해군이 쫓겨가고 다시 환희와 사랑의 속삭임이 흥겨웁게 고조되었다. 유쾌한 무도곡같기도 했다.

높이 개인 푸른 하늘아래 오곡백과 만발한 전야, 거기 어디선가 수백 수천의 남녀청춘들이 서로서로 손에 손을 잡고 원무를 추는것같았다. 젊은 남자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아름다운 처녀들의 달콤한 속삭임소리가 간간이 울려나왔다.

원호엽이 처음 듣는 곡이었다. 악상의 의미도 똑똑히 알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뜨거운 감흥이 차오르는것을 느끼며 피아노를 치는 딸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다.

두손을 좌우로 날쌔게 움직이는데 따라 어깨가 흥겨운 툄동을 일으키고 길게 자란 술많은 머리가 어깨우에서 춤을 추었다.

별안간 피아노소리가 푹 멎었다.

원호엽의 모르는 소견에도 곡은 아직 끝난것같지 않았다.

딸은 두손을 아래로 축 늘어뜨리고 화석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만 지쳤는가, 아니면 가슴에 차오르는 그 어떤 걱정에도 못이겨 손을 뻗건가?

딸은 한동안이 지난 다음에야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 무엇을 원망하고 애원하고 호소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원호엽은 어쩐지 그 눈빛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애야.》

《네?》

원호엽은 한숨어린 소리로 말했다.

《내 오늘 제대청원서 써냈다. 오랜 군인생활에 종지부를 찍은셈이다.》

《아버지!》

딸이 새된 소리로 부르며 달려와서 두팔로 아버지의 목을 그러안고 매달렸다.

원호엽도 팔을 들어 딸의 등을 쓰다듬어주었다. 아버지도 딸도 말이 없었다. 이윽해서야 윤미가 팔을 내리며 아버지를 뻘뻘 쳐다보았다.

원호엽은 딸의 눈에 물기가 어리는것을 보았다.

《너 몹시 섭섭한게로구나.》

《아니예요! 아니예요!》

딸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원호엽은 채 묻지 않고 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아버지, 나 말예요... 아버지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걱정도 했구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대된게 기쁘다는거냐?》

《그러문요!》

물기어린 윤미의 눈에 미소가 반짝거렸다.

호엽은 허거운 미소를 머금으며 중얼거렸다.

《자식두...》

《정말이에요!》

《너 같은 말팔랭이딸은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사람들은 흥불거다, 정년전 제대를 한 패자라구.》

《아니예요. 왜 자꾸 패자라구 해요. 아버지진 이제부터 새 생활을 시작하시는거예요!》

윤미는 열렬히 부르짖었다.

《흥, 말은 좋다. 이 나이에 어떻게 인생궤도수정을 한다는거냐?》

《할수 있잖구요! 전 믿어요! 아버지자신이 꼭 새로운 인생궤도를 찾으실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설사 불가능하다 해도 제대된것은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원호엽은 생각했다. 얼마나 오랜 기간 허위와 위선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왔던가. 늦게나마 그 늪에서 빠져나온것이 시원했다.

딸은 기쁨과 믿음에 찬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고있었다.

## 9

병구가 병실을 다 돌아보고 식당쪽으로 가는데 고명찬이 취사장에서 뜨물통을 들고나왔다.

그는 병구를 보자 얼른 뜨물통부터 내려놓고 격식을 갖춘 인사를 했다.

《필승! 제3소대 제2분대 소총수 일병 고명찬 취사당번근무중입니다.》

학성리로 가는 지름길에서 헤여진 후 처음 만나는 고일병이었다.

《오래간만이네. 그새 별일없었나?》

병구는 고일병의 격식차린 인사에 규정대로 거수경례로 답례할 대신 손을 쭉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우리 사병들이야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고명찬이 그의 손을 두손으로 잡으며 대답했다.

《소식 들었겠지?》

《예, 중대장으로 오신다는 소식 듣구 무척 기다렸습니다.》

《그래... 그럼 수고하게.》

병구는 고일병을 보내고 식당에 들어갔다. 식당근무사병들이 헤덤비며 신입중대장을 맞이했다.

병구는 각자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이르고 혼자서 식당안을 돌아보았다.

사단장순시를 앞두고 자주 내려와본 그때보다 형편없이 불결했다. 창유리에 먼지가 뽀얗게 끼였고 식탁우에는 음식찌꺼기들이 지저분하게 널

려있었다.

취사장은 더 엉망이었다. 파리가 어찌나 많은지 꼭 파리들의 원무장같았다. 게다가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러서 구역질이 났다. 바닥에는 물이 질펀했다. 이런데서 만드는 음식을 어떻게 먹으랴싶었다.

병구는 아무 소리를 안하고 식당에서 나왔다. 부임 첫날부터 욕을 하기가 싫었다. 눈에 거슬리는것은 식당뿐이 아니었다.

식당에 오기 전에 둘러본 병실의 정돈상태도 아주 불결했고 병실밖의 주변에도 여기저기 오물이 널려있었다.

오늘은 실태를 알아보고 중대꼴이 왜 이 지경으로 됐는가를 규명해본 다음 시정대책을 세울 생각이었다.

식당에서 나와 창고쪽으로 돌아가다가 또 고일병을 만났다. 쌀자루를 메고있었다.

취사근무로 나와서 주로 이것저것 버리고 날라오는 일을 맡아하는것같았다. 그에게 뭔가 다정한 말을 해주고싶었다.

《권성태를 안다구 했지?》

《예.》

고일병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얼마전에 또 왔다갔네.》

고명찬이 얼른 주위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만나보셨습니까?》

《잠간 이야기하다가 헤어졌지. 며칠 목을 예정으로 왔는데 보안대것들이 눈치챈것같아서 다음날로 떠나보냈네.》

《무사히 갔겠죠?》

《응.》

《후에 한번 조용히 만나뵙겠습니다.》

《알겠네. 어서 가보게.》

고일병을 보내고 중대장실에 가보니 지중만대위가 휘파람을 불면서 각종 서류철을 책상우에 꺼내놓고있었다. 중대장직무를 인계하기 위해 꺼내놓는 서류들이었다. 그는 사단본부대대 3중대장직무를 받았다.

작달막한 키에 이마가 밝은 부중대장이 책상우의 서류철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병구를 쳐다보았다.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느냐고 묻는 시선이였다.

병구는 그냥 당신이 하라고 눈짓으로 대답해주고 창문가의 의자에 가 앉았다.

그가 지종만대위의 후임으로 중대장이 된것은 어제였다.

직무가 없는 대기상태에서 지겨운 나날을 보내는 동안 장교생활을 걷어 치우고 제대해버릴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처벌받은 장교로 군복을 벗 으면 어떤 의미에서 패자로 될것만 같아 싫었다. 자기를 처벌한 군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엿서 봐야 직성이 풀릴상싶었다.

련대본부에서 새 직무를 받을 생각은 없었다. 저마다 련대장에게 잘 보 이려고 아침경쟁을 하는 련대본부의 분위기가 싫었다. 그래서 중대장임명 서가 떨어지자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했다.

인계를 마친 지종만대위는 본부대대 중대장자리가 끄적이도 좋은지 흡 사 훈장타러 가는 사람같이 들뜬 얼굴로 떠나갔다.

《소대장들한테라도 인사하고 떠나갈거지 뭐가 그리 급하다구 서둔담. 조금만 기다리면 다들 돌아오겠는데...》

부중대장이 그를 바래주고 들어와서 혼자소리로 투덜거렸다. 야외전투 훈련날이어서 소대장들은 다 교련장에 나가고 없었다.

부중대장도 3사출신인데 병구보다 3년 후배였다. 부대에 와서야 서로 얼굴을 익힌 사이였다.

그는 3사선배라 해서 그러는지 병구가 중대장직을 받고 내려온것을 무 척 반가워하는 눈치였다.

《점심시간에 중대가 다 들어오면 집합시킬가요?》

책상우에 쌓인 서류철들을 제자리에 정돈해넣으면서 그가 물었다.

《왜, 무슨 일 있소?》

《훈시말씀 하시잖겠습니까?》

《내가?》

《예.》

《특별히 할 말이 없소.》

부중대장은 지종만대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것같다. 중대실태에 대해 서 병구에게 이야기해주는 과정에 자주 지대위 비난을 했다. 부하통솔 을 잘못해서 사병들속에 불만이 많았다고, 소대장들도 중대장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야외교련장에서 돌아오는 중대가 패도며 흑판따위를



둘러메고 모여들었다.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부중대장이 또 물었다. 혼시하지 않겠느냐는 소리였다.

《소대장들만 불려주오.》

부중대장이 밖으로 뛰어나가자 병구는 전화로 대대장을 찾아 중대장직 무수행에 착수한다는 보고를 했다.

《말썽없이 잘하오. 애로사항 없소?》

처벌받은 장교가 자기 휘하에 온것이 못마땅해서 그러는지 대대장은 몹시 무뚝뚝한 소리로 물었다.

《없습니다.》

《매일 보고하는걸 알겠지?》

《예.》

《난 허위보고를 질색하는 사람ियो.》

《명심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낸지 얼마 안되어 부중대장이 소대장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전에 자주 중대에 내려와봐서 네명 다 안면이 있었다.

1소대장부터 차례로 직무와 성명을 대며 인사들을 했다.

병구는 말없이 차례로 그들의 손을 잡았다. 모두 반가워하는 표정들이었다. 특히 김영수소위는 병구의 손을 이윽도록 놓아주지 않았다. 좁은 어깨에 목이 가느다란게 약골로 보이는 사람이 손아귀힘은 여간 세지 않았다.

병구는 우리 서로 합심해서 잘해보자는 당부만 하고 소대장들을 내보냈다.

오후일과는 《정훈교육》이었다. 관례대로 하자면 응당 중대장이 출연해야 하는것이지만 부중대장에게 부탁하고 중대장실에 혼자 남아있었다.

시간보내기가 무료해서 사병들의 신상카드철을 꺼내어 뒤적거려보았다. 특기란에 적어넣은것들이 많았다. 모두 지종만대위의 수표가 붙어있었다. 거의 전부 부정적평가였다. 특히 고명찬일병에 대한 평가가 혹독했다.

《학사사병》으로 류비(류언비어)통신노릇을 한다. 군무에 성실치 못하다. 군에서 무슨 소요를 일으킬 모의를 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다.

제일 좋게 평가한것은 2소대 부소대장 립원국중사였다. 부하통솔 잘하고 신망이 높으며 일과규를 엄수하고 원리원칙을 어기는 법이 없고…

그러루한 내용을 읽다가 병구는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머금었다.

고일병에게서 들은 그 가라반납건만 가지고도 림중사의 사람됨을 알고 도 남음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왕청같은 소리냐. 당장 뻑뻑 그어 버리고싶었다.

밖에서 사병들이 와아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왜들 저러나 해서 내다보는데 부중대장이 들어왔다.

《휴식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이였다.

《근데 왜들 저러오?》

《〈정훈〉교재를 읽어줄 땐 모두 턱방아 찼으며 졸다가 휴식만 주면 저야단들입니다. 누가 또 희극을 노는 모양입니다. 이런 교재 갖구는 〈정훈교육〉 암만해야 소용없을겁니다.》

부중대장은 교재를 책상우에 팽개쳤다.

《이건 뭐요?》

병구는 그에게 림중사의 신상카드 특기란을 가리켰다.

그것을 본 부중대장이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백프로 엉터립니다. 제 심복이니까 이렇게 썼을겁니다. 이 새끼가 보안대 끄나불노릇도 하는것같습니다.》

병구는 고일병의 신상카드를 번져 밀어놓았다.

《이건 사실이요?》

부중대장은 그것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여기 날자 보십시오. 사단장님 순시받은 다음날 써넣은거 아닙니까. 고일병이 그 전날 소원수리에 지대위 비난을 적어넣었다가 맞아터졌거든요.》

창문밖에서 여럿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여기저기 흩어져 쉬던 사병들이 중대장실옆의 1소대 병실앞으로 오면서 웃고있었다. 거기 그들이 좋은것같았다.

바깥날씨가 몹시 더웠다. 하긴 초복이 래일모레다.

그들에 앉은 사병들이 주고받는 말소리가 중대장실에까지 들려왔다.

《제-기, 신병마칠 때 주특기 13 받아가지고 포병에 갈걸 잘못했다니까.》

《짜아식, 포병이 뭐가 좋다구.》

《포병은 3보이상 승차하는데 우리 보병은 3보이상 구보 아냐.》

《모르는 소리, 포병애들은 자기들을 골병드는 <골병대>라고 한대.》  
부중대장이 병구의 눈치를 살피면서 물었다.

《시끄러운데 쫓아버릴가요?》

《와두오, 그늘에서 쉬는데.》

병구는 오래간만에 사병들이 두덜거리는 소리를 듣고싶기도 해서 귀를 기울였다.

《야 핀세트(위생병), 페니실린 두대만 달라.》

《지금 없어.》

《약은 어디다 다 팔아먹은거야?》

《야, 룡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김새게.》

《까짓거 약은 없어도 작업복 줄 때 구멍난 헌옷이나 안줬으면 좋겠다.  
새것들은 어디다 다 빼돌리는지 원.》

《저 김상병 봐라. 렬외참모(작업과 훈련에서 자주 빠지는 사병)가 취사장에 다 나갔네. 해가 서쪽에서 났나?》

《지대위에게 착 붙어서 알랑방귀 뀌더니 앞으론 안될걸.》

은어를 섞어가며 주고받는 사병들의 대화가 여기서 맺는가싶더니 누가 또 운을 뗐다.

《누구 7센치(담배) 없나? 또 모였하기 전에 한대 꼬실려야지.》

《옛다, 기생에게도 안준다는 마지막 한대다.》

《난 말야, 제대말년이 까마득한데 훈련받기 힘드니 어떡하지?》

《누군 뭐 헐한줄 아냐. 누군 뭐 정말 군대 충성하러 나왔나? 요령껏 하는거지.》

《암, 지당한 말이야. 군대에서 땀흘리면 3대까지 빌어먹는다더라. 충성하는건 머저리야, 머저리!》

《이번 중대장은 전번 지중대장처럼 찍하면 량심불량(거짓말하는것)한다고 <일차렛교육> 하잖을가?》

《두구보면 알겠지.》

《난 만날 <정훈교육>만 했으면 좋겠더라.》

《건 왜?》

《한쪽귀로 들으면서 끄덕끄덕 조는 재미 있잖아.》

또 하하 웃음이 터졌다.

《정훈교육》의 내용은 주로 《멸공필승의 정신무장강화》를 위해 복을 비난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찬양하는것이다.

방금전까지 《정훈교육》을 실시했던 부중대장이 바깥을 내다보며 껍 소리질렀다.

《거기서 무슨 허튼수작들이야?!》

사병들이 곧 잠잠해졌지만 병구는 조용히 머리를 내저었다.

누가 호통을 친다 해서 사병들의 그 야유와 불만들이 없어지겠는가. 첫 중대장복무시절에도 사병들이 그렇게 두덜거리는 소리들을 더러 들었지만 오늘은 그것이 전예보다 더 심한 불평불만의 분출같았다.

저러한 사병들로 구성된 《국군》에 대한 어떤 위기감 같은것이 느껴졌다.

《제 그럼 나가서 <정훈교육> 계속하겠습니다.》

《잠간만.》

밖으로 나가는 부중대장을 불러세우고 물었다.

《고일병이 소원수리에 쫓다는 그 사병이름 뭐요?》

《조만섭입니다.》

《휴가 보내주었소?》

《지대위님이 보낼게 뭍니까.》

《래일 당장 수속해주시오.》

《예.》

병구는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가라반납건수를 조사하라는 지시도 준 다음에 부중대장을 내보냈다.

사병들이 또 끄덕끄덕 졸지 않으면 먼산만 바라본 모양인지 부중대장은 30분도 채우지 않고 사병들을 해산시켜버리고 자기 방에 갔다.

잠시후 문하사가 벌쭉 웃으며 중대장실에 들어왔다.

장하진대위가 수송장교를 어떻게 잘 구슬려왔는지 그도 병구가 중대장이 된 어제 중대 작전차 운전병이 되었다.

《차정비했는데 한동안 쓸만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오늘 퇴근하시겠죠?》

퇴근할 때 차를 타고 가라는 소리였다. 아닌게 아니라 용수리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가기엔 너무 멀었다.

《당분간 중대에서 자겠네.》

《아니 그럼… 아침저녁으로 신나게 모실가 했는데요.》

《후에 고생할 일 많을거네.》

《중대장님을 태우구 다니는거야 무슨 고생이겠습니까. 그럼 가보겠습니다.》

문하사가 물리간지 얼마 안되어 부중대장이 가라반납견수를 조사해가지고 왔다. 모두 14건이나 된다고 했다.

소대장과 부소대장, 공급계들이 해먹은것들인데 그중 립원국중사가 4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자들에게서 가라반납대금을 회수해서 본인들에게 돌려주시오. 3일 내로!》

《예, 실시하겠습니다. 근데 중대장님.》

《또 뭐가 있소?》

《아까 그 립원국중사문제인데요. 여간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뒤소리가 많고 남을 잘 헐뜯고 고자질 잘하고… 하여간 그자때문에 지대위님한테 맞아터진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소대장들도 알기를 우습게 아는걸요. 어떻게 버릇을 떼주던지… 타중대에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소. 생각해봅시다.》

문제의 그 립원국중사가 기척도 없이 중대장실에 뛰어든것은 그로부터 나흘후 일요일이었다.

《중대장님.》

병구는 그가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버럭 소리질렀다.

《뭐야?! 나갔다 다시 들어와!》

인기척도 없이 뛰어든 무례함을 꾸짖은것이였다. 립원국은 실수를 느꼈던지 얼른 나가서 문을 두드렸다.

병구는 일부러 한참후에 《들어와!》 하고 소리쳤다.

립원국이 들어와서 격식대로 보고를 했다.

《필승! 제2소대 부소대장 중사 립원국 중대장님께 용무있어서 왔습니다.》

《잔밥 몇해나 먹은거냐?》

《복무년한 금년까지 7년입니다.》

《잔밥 그만큼 처먹고도 중대장실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는것도 몰라?!》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그따위짓하면 영창 처넣을테다!》

병구는 그렇게 공갈을 때린 다음에야 무슨 용무냐고 물었다.

《고명찬일병에게 외출증 떼주셨습니까?》

《그건 왜 묻는거야?》

《그놈이 없어져서 그렇니다.》

《사병들이 나의 승인받고 외출하는거 아니잖아.》

《예, 그렇지만...》

《나가봐!》

병구는 림원국을 쫓아버린 다음 전령병에게 3소대장 김영수소위를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전령병이 곧 돌아와서 그가 자기 방에 없다고 했다.

김영수소위도 오늘은 외출을 안하고 중대에 남아있었다. 어디 판데 없나 찾아보라고 전령병을 다시 보내는데 부중대장이 들어왔다.

《림중사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쩐다는거요?》

《애들의 사품들을 뒤지고 침대도 들어보면서 병실을 발각 뒤집고있습니다.》

《뭘 잊어먹고 그러는거 아니요?》

《글쎄요. 조금전엔 뒤산에서 내려오는걸 봤습니다. 뭘 찾다가 허탕치고 오는 놈 같던데요.》

병구는 방금 림원국이 뛰어들었을 때 그의 어깨에 나무잎이 묻어있는 것을 본 생각이 났다.

《3소대장이 어디 있는지 못봤소?》

《못봤는데요. ... 혹시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가요?》

《거긴 왜?》

《맑은 개울도 있고 나무그늘도 좋아서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요일 하루종일 병실에 있기가 갑갑해서 그러지요.》

김영수소위가 나타난것은 그로부터 약 30분후였다. 밖에서 전령병을 만난것같았다.

《질 찾으셨습니까?》

《응, 거기 좀 앉소. 판건 아니구... 어디 갔던거요?》

《산에 좀 올라갔었습니다. 전 대학때부터 산을 좋아했습니다. 등산부

에도 좀 따라다녔구요.》

《하긴 용수리 같은데 가서 어물거리기보다야 산을 타는게 좋겠지.》

병구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우연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마당을 가로질러오는 고일병을 발견했다. 그의 손에 산에서 꺾은것같은 야생화 몇송이가 있었다.

김소위와 같이 산에 올라간거다, 거기서 무슨 이야길 하다가 김소위가 먼저 내려오고 고일병은 땀 길을 타고 지금 내려오는 길이다 하는 생각이 번개치듯 머리에 스쳤다.

《산에서 림중사 못봤소?》

《림중사 말입니까? 룡선에 앉아있을 때 보니 그아래 골짜기를 두리번거리면서 지나가던데요.》

그러니까 림중사 그녀석이 산에서 고일병을 찾다가 뛰어내려와서 그 수선을 피운것이다.

김소위에게 던지시 귀뜸해주었다.

《림중사가 고일병의 뒤를 밟고있소.》

《?》

김소위는 상반신을 흠칫거리며 병구를 뻗히 쳐다보았다.

《가보시오.》

김소위는 무슨 말인가 할듯하다가 그냥 돌아서 나갔다.

병구는 이번에 처벌을 받으면서 《국군》의 생리와 좌표에 대한 반강이 더욱 강해졌다.

원호엽준장이 제대되었다는 소식도 그에게 여간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 미8군사령부측과 자주 마찰을 일으킨것이 빌미로 되었다느니, 연희석상에서 한 말이 청와대를 노엽혔다느니 하는 소문이 구구했지만 어쨌든 원준장 같은 장성을 정년전 제대를 시킨 처사에서 병구는 채삼 량심적인 장교들을 박해하고 거세하는 군의 생리에 강한 불만을 느꼈다.

군사가 곧 정치의 연장일진대 그러한 《국군》의 생리를 키우고 조장시키는 이 땅의 정치풍토가 저주스러웠고 파쑈적폭압을 일삼는 《정부》를 지원하는 미국의 처사가 가증스러웠다.

대학생들이 미국을 가리켜 《식민지배자》, 《내정간섭자》라고 저주하는것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가끔 고일병 생각이 났다. 그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싶었다. 그렇

다고 일부러 그를 부를수도 없었고 찾아가기도 거북한 일이었다.

또 우연히 만날 기회를 기다리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중대장이 된것이다.

림중사가 고일병의 뒤를 밟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왜 그런지 모르게 병구자신도 야릇한 불안이 생겼다.

무슨 일때문에 고일병이 보안대의 끄나불인 그놈의 감시를 받게 되였는지 알수 없었지만 어떤 위기가 닥쳐온듯한 예감이 들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림중사로부터 고일병을 보호해주고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도 고일병을 조용히 만나야 할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외의 정황에서 고일병을 만나게 되였다.

다음날 저녁이었다.

부중대장이 와서 TV에서 세계적축구강팀인 브라질팀과 잉글랜드팀의 시합을 방영한다는데 사병들을 다 구경시켜도 좋겠는가고 물었다.

좋다고 승인해주자 저녁식사후의 일과에서 해방된 사병들이 TV앞에 모여들었다. 축구애호가인 병구도 사병들 째에 끼여앉았다.

기술경기의 능수인 브라질팀과 완력과 속공의 명수인 잉글랜드팀이 일진일퇴하면서 한창 백열전을 벌릴 때 통신병이 와서 병구를 찾았다.

련대본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아쉬운것을 참으며 방에 가서 송수화기를 들었더니 뜻밖에도 허동팔대위의 목소리가 진동판에 울렸다.

《하숙집에 찾아가더니 며칠째 안들어온다 해서 그리로 전화하는거네. 그래, 용수리엔 영 등을 돌릴텐가?》

병구는 비위가 확 뒤집혔다.

《할일없으면 술이나 퍼마실게지 싱겁게 무슨 전화질인가?》

《자네 또 맨승맨승해서 생주정할건가? 긴한 용무있어서 전화하는거야.》

《무슨 용문가?》

《자네가 이번에 문하사녀석을 중대에 데리구 갔다는데...》

문하사소리에 병구는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랬으면 어쨌다는건가?》

《수고스러운대로 내 말을 그녀석에게 좀 전해주게. 넓고 좁은게 세상인데 아가리 함부로 놀리다간 재미없다구.》



허대위는 이쪽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다.

병구는 일순 어안이 벙벙해졌다. 허대위의 말 뜻을 몰라서 그런것은 아니다. 그것은 군수품류출건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면 보안대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하사와 자기 두사람에 대한 공갈이었다. 그자들이 감히 자기에게까지 그러한 공갈을 하는것에 일순 어안이 벙벙해진것이다.

다음순간 분노의 태풍이 확 터져나왔다.

《이놈들!》

주먹으로 책상을 탕 치며 부르짖었다.

어느 팀에서 끌인이라도 했는지 와— 함성이 울렸지만 병구는 주먹을 부르짖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문소리가 나는것도 듣지 못했다. 고일병이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고명찬은 상의단추를 벗기더니 품에서 알박한 소책자를 꺼냈다. 그것을 책상우에 놓으며 그가 말했다.

《이걸 드리려구 왔습니다.》

《사랑과 청춘》이라는 제호가 붙은 책이었다. 첫눈에 영인판이라는것이 알렸다.

병구는 의아쩍게 고일병을 쳐다보았다.

《이게 뭔가?》

《그건 위장제목입니다. 속표지를 보십시오.》

겉표지를 번져보았다. 속표지에 찍혀있는 《이북의 진실을 배우자》라는 제호가 확 시선을 끌었다.

《자네 이거, 응?》

병구는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중대장님.》

《림중사가 자네뉘를 밟고있다는 말 못들었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도 이런 책 함부로 들구다니다가 어쩔려구 그러나?》

《정황이 급하다는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후일 조용히 만나 이야기도 하고 이 책도 드리려 했는데...》

저쪽에서 또 와— 함성이 터졌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제가 이 방에 와있다는것이 알려지면 안됩니다.》

고명찬이 사단보안대에 체포돼간것은 다음날 병구가 김영수소위와 함께 런던본부에서 소집한 장교회회의에 참가하고있을 때였다.

## 10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의 하나가 사람이라는 말일 거요. 또 늘 사람들속에서 살고있으니 하루에도 수십수백명의 사람들을 보고 상대하는거 아니겠소. 그러면서도 자기자신을 포함해서 매개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데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 이거요. 왜 그럴까?》

작년 가을 용수리병원에 온 지혜를 불러내어 함께 거닐었던 그 들길이었다.

그날은 가을의 훈향이 풍겨왔지만 오늘은 복더위에 숨이 뻑뻑 막히는 날씨였다.

저녁해가 산마루에 기울어졌지만 더위는 조금도 가셔지지 않았다. 논판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고 하늘가에 비낀 저녁노을은 불길이 타는것만 같았다. 노을이 불타는 그 하늘에서 뜨거운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내렸다.

김영수소위와 함께 들길을 천천히 걸어가면서 병구는 생각에 잠긴 소리로 말했다.

《우리모두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의 진가를 정확히 모르고있었던거요. 그걸 몰랐기때문에 비인간적현황에서 고생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가 하는것도 깨닫지 못했지.》

논판에서 뛰어나온 커다란 개구리가 숨을 할딱거리며 병구를 뺨히 쳐다보다가 도로 물속에 뛰어들어갔다.

병구는 군모를 벗어두고 이마의 땀을 훔쳤다. 그는 아직 고일병이 보안대에 체포되어간것을 모르고있었다.

고명찬이 체포된것이 16시경이었는데 그때 병구는 런던본부에서 소집한 회의에 김영수소위와 함께 참가하고있었던것이다. 14시에 소집된 회의는 퇴근시간이 지나서야 끝났다.

병구는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김영수소위에게 물었다.

《내 하숙집에 가서 같이 자고 래일 아침 중대에 가지 않겠소?》

김영수는 그 말을 기다린 사람처럼 얼른 대답했다.

《예.》

그러나 하숙집에 가야 한창 더운것은 마찬가지일것같았다. 그래서 먼저 다방에 들러 얼음을 띄운 홍차 한잔씩 마시고 여기 들길에 나왔지만 저녁선기가 일기 전이여서 이마와 목, 등에 땀이 흥건히 배어나왔다. 전에 없이 흥분된 마음의탓인지도 몰랐다.

어제 밤 고명찬에게서 받은 책을 보면서 느낀 그 흥분이 여태 사그라지지 않고있었다.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이 다 생소한것은 아니었다.

전에도 북의 소식을 단편적으로나마 더러 들었고 또 주체사상과 북의 현실을 소개한 책자들이 민간인들과 군인들속에 류포되고있다는것을 병구도 알고있었다.

듣는것마다 놀랍고 희한한것들이었다. 그래서 그제 정말 사실일까 하고 반신반의했었다.

그러나 어제 밤에 본 그 책은 비상한 설득력으로 병구를 감동시켰다.

주로 이북을 다녀온 해외동포들의 전문기와 방문기, 수기들을 인용하면서 소개한것이여서 그런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이라고 믿게 해주었다.

책자에는 김정일령도자님의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대한 해제도 있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리론적으로 심화시킨 로작이라고 했다. 그것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와 본성에 대한 심오한 사상이었다.

인간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것의 주인이며 가장 위대한 창조자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력사가 재조명되고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것이 그 인간중심, 인간위주의 인식에 기초하여 해석되고 설계되고 실시된다고 했다.

책자에 인용된 명제들은 한결같이 한없이 넓고 깊은 영역을 포괄하는 금언들이었다. 단순하고도 평이한 서술속에 력사의 진실이 함축되어있었고 높은 지성이 빛나고있었다.

하루밤사이애 구체적으로 다 리해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한 내용의 집적이었다.

병구는 다만 즉흥적인 감흥으로 새롭게 채색되고 부조된 세계를 발견한 기분에 휩싸이면서 특히 인간에 대한 재인식에 환희로운 놀라움을 느꼈다. 인간을 그렇게까지 고귀한 존재로 내세워준 사상이 동서고금 언제 있었던가!

인간을 중심에 둔, 인간의 자유와 권리, 리익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역사를 해석하고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를 논한 사상가가 어디에 또 있었는가!

병구는 자기도 인간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긍지와 환희를 느꼈다. 나도 인간이다! 하고 소리높이 웨치고싶기도 했다.

그 흥분으로 밤을 새웠고 일과생활을 집행하면서도 가슴속에서 뜨거웠던 무엇이 끓어번져서 도무지 진정할수 없었다.

회의장에서도련대장의 말을 귀등으로 흘러버리면서 마음속으로는 어제 밤에 본 그 책의 구절들을 되새겨보곤 했다.

옆자리에 앉은 김영수소위도 내치만 생각을 하고있는것같은 눈치였다. 그 역시 그 책을 이미 보았고 고일병이 그 책을 자기에게 주었다는것까지 알고있을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에게 자기 하숙집에서 자고 가라는 소리를 했다. 서로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하고싶었기때문이었다.

《인간으로 살면서도 인간의 진가를 모르고있은거지 뭐요. 또 인간으로 자처하면서도 인간이하의 천시를 받는것에 반발할줄 몰랐던거요.》

병구는 하고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째선지 얼른얼른 말마디들이 이어지지 않고 더운 입김만 확확 풍겨나갔다.

《저도 많은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군인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존엄을 상실하고 단순한 명령집행도구로 리용돼왔지요. 명령의 당위성여부에 대해서 따질수도 없었고 단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한다는 요구에 순응해온겁니다.》

김소위가 한숨어린 소리로 말했다.

《나도 어제 밤부터 그 생각을 했소. 명령집행도구노릇을 하는걸 당연한 일로 여겼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노릇이요.》

병구는 쓰겁게 내뱉으며 주먹으로 허공을 때렸다.

장교의 직업의식에 매인 대위 한병구와 인간적량심에 눈을 뜨려 한 인간 한병구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기만했던 지난날이 쓰

겹게 회상되었다.

성태의 비난들과 지혜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일들도 얼굴을 붉히며 되새겨보았다. 그들에게 때늦은 사죄를 하고싶었다.

《중대장님.》

김소위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조용히 불렀다.

병구는 걸음을 멈추며 그를 돌아보았다.

《지척에 있는 이북의 진실을 여태 모르고있었으니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병구자신이 하고싶은 말이기도 했다. 찬란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허위와 위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이제 눈을 떴다. 물론 아직은 그 위대한 태양의 진실을 다 알지 못하고있다. 극히 한 부분을 보았을뿐이다.

하지만 일단 눈을 떴으니 미구에 모든것을 깨닫게 되리라.

《나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싶소. 그리고 우리의 좌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보겠소.》

작년 가을 그날처럼 저앞에서 중늙은이에게 고삐를 잡힌 암소가 뒤에 송아지를 달고 두 장교를 향해 마주 오고있었다.

하늘에서 노을이 사위여지고 어스름이 산골짜기에서 슬금슬금 기여나 오고있었다.

드디어 한가닥 선들바람이 불어왔다. 논판의 개구리들이 환성을 지르듯이 기세좋게 울어댔다.

두 장교는 마을을 향해 걸음을 돌렸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들어설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김소위가 북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는 북의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시책이며 그 실상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알고있었다.

병구는 꿈같은 새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심취되어버렸다. 거기에는 종전에 그가 생각했던적이 없었고 기어이 반대하고 분쇄해버려야 할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릇된 가치관과 신념에 포로되었던 자신의 지난날이 새삼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자신이 바야흐로 그 어떤 운명적인 전환점에 이른듯한감이 들었다.

마을길에는 벌써부터 군인취객들이 떼지어 다니고있었다. 저녁마다 보는

광경이지만 오늘따라 그것이 병구의 눈에 몹시 거슬렸다.

하숙집에 들어가는 고살어귀에 빈 찢차가 서있었다. 중대 작전차였다.

웬 일인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고살안에서 문하사가 뛰어나왔다.

《중대장님, 고명찬일병이 보안대에 체포됐습니다.》

《뭐라구?!》

병구는 불에 덴 사람처럼 팔쩍 뛰었다. 어제 밤 일이 번개치듯 머리속에 떠올랐다.

《왜 체포된거야?!》

《그건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김소위가 한마디 물었다.

《언제 체포된거야?》

《16시경입니다.》

병구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20시 5분전이였다.

보안대 취조실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있는 고일병의 모습이 눈앞에 어지럽게 떠올랐다.

무슨 일로 체포했건 우선 짐승처럼 두들겨패기부터 했을것이다. 찢릿한 아픔이 가슴을 허비고 지나갔다.

《중대에 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소위가 말했다.

《나도 가겠소.》

두 장교가 올라타자 차는 전속으로 달렸다.

병구는 중대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자기 방의 철궤를 열어보았다. 어제 밤 고일병에게서 받은 책이 제자리에 그냥 있었다. 철궤를 채우고 부중대장을 불렀다.

《고일병을 왜 체포해갔는지 모르겠소?》

《보안대 애들한테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안하더군요.》

《고일병은?》

《이상하게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미리 각오하고있은것같았습니다.》

《그때 립원국중사는 뭘 하구있었소?》

《립중사 말입니까?》

부중대장은 눈을 깜벅거리며 기억을 더듬다가 대답했다.

《야외교련장에서 방금 돌아왔을 땐데 마당 나무그늘에서 쉬고있었습니다.》

《판 눈치는 없었구?》

《글쎄요. 별로… 참, 고일병이 체포돼가는걸 보더니 입을 찹찹 다시면서 뭘 아쉬워하는것같았습니다.》

부중대장을 내보낸 다음 김영수소위를 불렀다.

그는 묻기 전에 말했다.

《우리 중대에서 사단이 생긴것같진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오?》

《보안대 애들이 고일병의 사품들을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압수해간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고일병이 치울것은 미리 다 치운줄로 알고있습니다. 림중사가 감시한다는걸 알았으니까요.》

병구는 방금 부중대장에게서 들은 림중사이야기를 하고 그가 왜 그런것같느냐고 물었다.

《그거야 제손으로 증거를 잡고 보안대에 넘기지 못한것이 분해서 그러는거겠지요.》

《그렇다면 고일병이 외부에서 무슨 활동을 했다는거요?》

김소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면서도 일부러 대답을 피하는것같았다.

병구는 곧 사단보안대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사병인지 장교인지 알수 없는자가 전화를 받았다.

우리 중대의 사병을 무슨 혐의로 체포해갔느냐고 물었더니 사병교육 똑똑히 안하고 야밤에 무슨 전화질이냐고 호통을 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다.

화가 나서 또 호출신호를 보내는데 김소위가 말했다.

《그만두십시오.》

전에없이 저력이 깔린 목소리였다.

《덤비면 공연한 의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다려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병구는 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는 사이에 고일병이 무서운 고문에 쓰러져서 신음하리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저의 뜬눈으로 밤을 밝히며 기다렸으나 보안대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

었다.

다음날에도 감감무소식이였다.

병구는 김소위의 당부를 무시하고 저녁때 또 보안대로 전화를 걸어 남인표소령을 찾았다.

《고명찬일병문제 말이요? 지금 취조중인데 후에 필요하면 부르겠소.》

남인표는 여느때와는 달리 랭담한 어조였다.

김소위가 뜻밖의 소식을 병구에게 알려준것은 그 이튿날이었다.

《8중대에 광화성이라는 하사가 있는데 일은 거기서 터진것 같습니다.》

《어떻게?》

《광하사가 나흘전에 체포돼갔답니다.》

《고일병과 친한 사이였소?》

《예, 그 책들도 주었을겁니다. 그 광하사가 고일병의 이름을 분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마십시오. 고일병이 중대장님애긴 안할겁니다.》

김소위의 말대로 고일병이 침묵을 지키는지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도록 보안대에서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고일병이 더 심한 고통을 당하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고 자기에게도 조만간 출두명령이 떨어지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다를가 하루는 남인표에게서 전화가 왔다. 15시까지 보안대에 오라는것이였다.

병구는 떠나기 전에 김소위를 잠간 만났다.

《고일병이 중대장님이름을 분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책은 저도 가지고있었습니다. 고일병이 실토했다면 왜 제 이름은 안대고 중대장님애기만 했겠습니까.》

김소위의 말이였다. 일리가 있는 생각같았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오라가라 하는가? 아무튼 부닥쳐보는거다.

병구는 시간을 맞추어 보안대로 갔다.

남소령의 방은 채광이 좋지 않아 대낮인데도 어둡시그레했다. 남소령의 얼굴빛도 밖에서 볼 때보다 어두운 기색이였다.

《이거 불러서 안됐소. 거기 앉소.》

병구는 책상앞의 의자에 앉으며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무슨 용무로 부른겁니까?》

《짐작하고 오지 않았소? 고명찬 그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것이 있어서 부른거요.》

《뭘 알고싶다는겁니까?》

《고일병이 당신의 중대에서 <리적>책자들을 류포시켰소. 그리고 <리적단체>를 조직할 모의도 했고… 그에 대해서 알고있는대로 말해달라는거요.》

병구는 우선 고일병이 것처럼 엄청난 죄명을 뒤집어쓰는데 대해서 놀랐다. 그러면서 한편 그것이 아직 정확한 물질적증거가 없는 혐의로 남아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중대장으로서 중대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옆방인지 건너방인지에서 올라오는 숨이 끊어지는듯한 비명소리가 남소령의 말을 중단시켰다.

《저게 고일병 아닙니까?!》

병구는 오싹 몸서리를 치며 물었다.

《그런것같소.》

《저짓을 당장 중지시키십시오! 그러기 전엔 아무 대답도 안할겁니다!》

병구는 주먹을 짹 틀어쥐며 부르짖었다.

남인표는 잠시 그를 뵈히 쳐다보다가 책상모서리에 붙은 단추를 눌렀다. 곧 출입문이 열리더니 전에 병구네 하숙집에 왔던 그 하사가 들어왔다.

《김중사한테 가서 조용하라구 일러.》

《예.》

하사가 나가자 남인표는 책상우에 있는 록음기스위치를 눌렀다.

《당신 요구대로 중지시켰으니 어서 말해보오.》

《이거 누굴 취조하는겁니까?》

남인표는 피식 웃으며 록음기의 다른 스위치를 눌렀다. 돌아가던 카세트가 멈춰섰다.

《왜, 이것이 신경에 거슬리오?》

《돌려도 좋습니다.》

《사정청취니까 굳이 록음하지 않아도 되오. 자, 그럼 대답해보오.》

《내가 아는데까지 말하지요. 고일병은 <리적>서적을 류포시킨 일도 없고 <리적단체>를 조직하려고 모의한적도 없습니다.》

《정식취조는 아니지만 수사관앞에서 위증을 하면 어떤 법적책임을 진

다는거야 알겠지?》

《법조문으로 아는건 없지만 상식으로는 압니다.》

《위증하는게 아니다 그거요?》

《그렇습니다.》

병구는 고일병에게서 받은 책이 결코 《리적》서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리적》이란 곧 북의 형제들에게 리롭게 한다는 뜻이겠는데 그들이 어찌 적으로 된단 말인가?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와 한피줄을 나눈 동포형제자매들이다. 그리고 그 책은 바로 량심의 목소리이며 정의의 가르침이다. 고일병이 그 가르침을 실현할 단체조직을 모의했다 해도 그것은 《리적단체》결성모의가 아니라 정의구현을 위한 행위인것이다.

남인표는 두손을 책상우에 얹었다.

《하긴 중대장으로 내려간지 얼마 안되니까 아무것도 모를수 있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런데 우리 대장님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것 같소.》

《보안대장님 말입니까?》

《그렇소.》

《대장님이 생각한다는 그 다른 각도란 어떤겁니까? 비밀이 아니라면 말해주십시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무슨 비밀이겠소. 첫째로 당신의 매부 있지 않소. 한때 <정치교수>로 파면된적이 있다지? 고일병은 그 교수의 제자였고...》

남인표는 점을 찍듯이 손가락끝으로 책상을 한번 두드리고는 뒤를 이었다.

《둘째는 당신이 매부의 부탁으로 고일병에게 무슨 책꾸레미를 갖다준 일이 있다지?》

남인표는 또 책상을 손가락끝으로 두드렸다.

《셋째는 당신 애인의 4촌오빠라는 그 권성태와 고일병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다는 점.》

남인표는 다시한번 손가락끝으로 책상우에 점을 찍고 두손을 들어 째 끼었다.

《우리 대장님은 그런 점들을 중시하면서 당신도 고일병과 의사소통이 됐을거라고 의심하오. 나야 3사때부터 당신을 잘 아는 사람 아니요. 그

렇다고 대장님의 의견을 아예 무시할수도 없는거구... 당신도 그런 오해를 받는것이 불쾌하겠지. 그래서 내 한가지 방도를 생각했는데... 판계 아니구 고일병 그놈을 잘 타일러서 당신네 중대에서 한것을 순순히 자백하도록 하오. 그래야 당신의 결백성도 증명될게 아니요.》

천만에, 오산하지 마오. 그런 방법으로 나의 결백성을 증명할 생각은 전혀 없소. 설사 고일병이 우리 중대에서 무슨 비밀단체를 조직하려 한것을 안다 해도 절대로 그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줄 생각이 없소! 하고 병구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그러나 고일병은 한번 만나보고싶었다.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싶었다. 자기쪽에서 그에게 뭔가 말해주고싶기도 했다.

그래서 남인표가 고일병에게 가보자고 했을 때 선뜻 따라나섰다.

복도 건너방이었다. 남소령이 문을 열고 먼저 들어섰다. 방바닥에 누군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있었다. 피비린내와 땀내가 숨이 막히도록 확 풍겨왔다.

병구는 방바닥에 쓰러져있는 사람이 고일병이라는것을 첫눈에 대뜸 알아보지 못했다. 모로 쓰러져있어서 얼굴이 출입문쪽을 향해졌는데도 온통 피범벅이 된데다가 만신창이로 터지고 붓고 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것이다.

아까 남소령방에 왔던 그 하사와 옷동을 벗어서 계급을 알수 없는, 땀이 번들번들 내뻐, 얼굴에 주먹코가 붙은 사나이가 고일병옆에 뒤짐을 지고 서있었다.

고일병당자는 그 지경이 되고도 병구를 알아본듯 붓고 피가 터진 이마 밑의 눈을 깜박거렸다.

병구는 억이 딱 막혔다. 고일병의 그 참혹한 모습이 커다랗게 확대되면서 숨통을 조이는것같았다.

저도 모르게 비칠거리는데 남소령이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여기 앉소.》

엉덩방아를 찢으며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았다.

고일병의 그 참혹한 모습과 함께 가죽채찍을 쥐고있는 주먹코의 모습이 시야를 꽉 메웠다. 방안의 다른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야, 고일병! 여기 너의 중대장님이 와있다.》

남인표가 고일병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고명찬은 그냥 모로 쓰러진채 병구를 쳐다보았다. 병구도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짹 붙잡았다.

남인표가 그를 돌아보았다.

《정신은 똑똑한것같소. 어서 말해보오.》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무슨 말을 하라는거요?!》

병구는 의자를 차고 일어서며 꾸짖었다.

《순순히 자백하지 않아서 그런거요. 이제라도 자백해야지 더 지독한 고통을 당할수 있소. 똥고집 부리는 놈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법이니까.》

남인표도 의자에서 일어서며 지껄었다. 고일병이 순순히 자백하지 않으면 죽어버릴수도 있다는 예고같았다.

《중대장님.》

고일병의 가느다랗게 찢긴 목소리가 병구를 불렀다.

병구는 한달음에 그의 머리맡에 가서 꿰어앉았다.

《고일병!》

퍼렇게 붓고 터진 이마밑에서 고일병의 두눈이 깜박거렸다.

《중대장님.》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가늘어졌다. 입술의 움직임은 보고야 겨우 무슨 말을 하는것인지를 알아들을수 있을 정도였다.

병구는 얼굴을 더 낮추 숙였다.

《고맙습니다.》

《...》

《행동해야 합니다.》

《...》

《찾으면 동지들이 많습니다.》

《...》

병구의 등뒤에 와서 귀를 강구고있던 남인표가 초조히 물었다.

《뭐라구 지껄인거요?》

고명찬은 병구에게 할 말을 다했다는듯이 후우 긴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병구는 숨을 죽이고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만신창이 된 얼굴 어디엔가 숨엄한것이 어려있었다. 그것은 정의로운 신념에 충실하고 불의에 굴

하지 않는 억세고 슬기로운 참인간의 모습이였다.

《뭐라구 지껄였냐 말ियो?》

남인표가 또 같은 소리를 물었다.

《자기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합니다.》

병구는 고일병에게서 천천히 시선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따위 허튼소리 듣고 왜 가만있는거요? 자백하도록 타이르라고 하잖았소!》

《죄가 없다는 사람에게 무얼 타이르라는겁니까?》

남인표의 입안에서 드드득 어금이를 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한경옥》에서 병구의 역습을 당한 후에도 그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털어버리지 않았다.

병구의 그 기발한 역습수법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사요원들과의 대결을 미리미리 준비해온 인간들만이 그런 수법을 쓰는 것이 아닐가싶었다. 그런 의식속에서도 병구에 대한 의심을 버릴수가 없었다.

이번에 고일병의 이름을 본것은 8중대의 광화성하사였다. 8중대에 박아둔 정보원이 광하사가 《리적》서적을 가지고있다고 신고해주어 체포해서 달구어쳤더니 7중대 고일병에게서 받은것이라고 했다.

고일병에 대한 취조는 처음부터 남소령의 지휘하에 진행되었다. 련루자들을 알아내는데 목적을 두면서 특히 한병구대위와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고일병과 권성태, 유경훈교수 세사람의 인맥관계속에 얹혀있는 한병구 인것만큼 반드시 뭐가 있을거라고 믿었다. 오래전부터 신경을 자극시켜온 한병구를 이번이야 드디어 잡아들일수 있을것같았다.

그러나 고일병의 입은 굳게 닫긴 철문이었다. 련일 고문실에 끌어들여 별의별 고통을 다 가해도 이미 드러난 8중대 광하사와의 다른 이름은 하나도 불지 않았다.

남소령 역시 군사작전을 배운 장교여서 정면공격에 실패하면 측면돌파를 시도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 측면돌파작전으로 병구를 부른것이였다. 그에게 고일병을 타이르라 한것은 그저 해본 소리였다.

남소령이 노린것은 병구가 빈사상태에 이른 고일병을 보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도 제입으로 자기의 《죄》를 실토히라하는것이였다.

여느 장교들과는 달리 부하들이 고통을 당하는것을 보면 필요이상의 동정심을 발휘하는 병구이기때문에 응당 그럴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병구의 그 대답과 태도는 남인표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남인표는 어금이를 드드득 갈며 병구를 노려보다가 고일병을 한번 더 찔러보기로 마음먹었다.

《야, 너 정말 죽고싶어서 그 똥고집이냐!》

고일병의 얼굴에 문득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죽고싶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소.》

목소리가 의외로 또렷했다.

병구는 가벼운 전율을 느꼈다. 고일병이 죽음을 각오하고 뭔가 마지막 말을 하려는것이 아닐가싶었다.

《그렇소. 살고싶소. 당신처럼 인간학대행위나 하고 주색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위업에 끝까지 투신하기 위해 더 오래 살고싶다 그거요.》

남인표의 두눈이 교활하게 깜박거렸다. 고일병이 이제 속심을 털어놓으려고 하는줄로 생각하는것같았다.

《계속해. 그 정의의 위업이란게 대관절 뭐냐?》

《새세상을 창조하는거요. 외세의 지배와 예속이 없고 군사파쑈도당의 폭압이 없는 그런 세상이요. 그땐 가난한 사람도, 천대받는 사람도 없게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자유롭게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요.》

만신창이 된 고일병의 얼굴에 한점의 불꽃과도 같은것이 피어났다. 자기가 말한 그 새세상의 정경을 그려보며 환희를 느끼는것같았다.

《흥, 병신 룡갑같은 소리하는군.》

《물론 당신에겐 이해되지 않을거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놀음밖에 모르는 짐승이 인간들의 아름다운 이상과 지향을 이해할리가 없소. 그러나 우리의 그 이상과 지향은 벌써 실현되고있소. 저기 이북땅에 말이요. 그것이 우리의 래일이고 힘의 원천이요! 우린 그것을 확실하기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 싸우기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참인간으로 되는거요!》

《개나발 작작 불구 런루자들의 이름이나 빨리 대!》

《나의 벗들과 동지들을 대라 그거요? 좋소, 잘 들어두오. 우리 민중모두가, 량심적인 사병, 장교모두가 나의 벗이고 동지들이요! 그들이

오래지 않아 당신들의 아성에 총공격을 개시할거요! 나의 녀도 그 공격 서렬속에 있을거요! 자, 이젠 내 말 끝났소. 다음은 당신 차례요. 채찍도 좋고 몽둥이도 좋소. 그러나 나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 생각은 하지 마요!》

고일병의 말은 조용조용히 울렸으나 병구에게는 그것이 새세계의 려명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아니, 나를 새세계를 위한 싸움으로 부르는 힘찬 구령이다!

병구의 가슴이 세차게 뛰놀았다. 뜨거운 피가 소리치며 온몸에 줄달음 쳐흐르는것같았다.

한편 남인표는 사형선고나 받은 사람처럼 얼굴이 시커멓게 질려있다가 주먹코에게 짹 소리질렸다.

《뭘 멍청해있는거야?! 출장보내도 좋다!》

남소령이 부하들에게 가끔 하는 《출장보내도 좋다.》는 말은 혐의자가 죽어도 좋으니 극단적으로 다루라는 신호였다.

그것은 피의자에게서 더 쥐여짚것이 없거나 살려두면 시끄러워지게 되는 경우에 하는 말이었다. 또 죽여도 후환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살해해버린다. 그렇게 고문실에서 주검으로 만든 피의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고명찬의 경우는 전혀 리용가치가 없는 피의자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 반드시 보안대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을것같았다.

문제는 그의 의지였다. 련일 낮에 밤을 이어 온갖 고통을 다 주면서 쥐여짚는데도 그 의지가 꺾여지지 않았다.

남소령개인의 사정도 있었다. 서울의 보안사령부에 있는 친구가 어제 뜻밖의 소식을 알려왔는데 금명간 자기를 보안사령부에 소환하는 명령이 떨어진다는것이였다.

남인표는 그 소환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고일병취조를 끝내고 련루자들을 일망타진하고싶었다. 그래야 수사관으로서의 실적도 올리고 민완(능란한 숨씨)수사관이라는 평판을 가지고 보안사령부에 발을 들여놓게 될것이다.

반대로 고일병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 탄 취조관이 그의 입을 기어이 열게 될것이며 그러면 그것은 자연 자기의 무능을 실증하는 자료로 되기마련이다.

그러한 창피를 면하기 위해 떠나기 전에 기어이 고일병의 입을 열게 해

야 한다는 생각에 마지막수단으로 병구까지 불러다 측면공격을 시도해보았지만 그것도 효과가 없으니 차라리 고일병 저놈을 죽여버리는거다. 죽여버려야 탄 취조판도 공로를 세우지 못하게 될것이다 하는 계산으로 《출장보내도 좋다.》는 소리를 한것이였다.

《엣!》

기세좋은 대답소리와 함께 주먹코의 가죽채찍이 공기를 찢며 날아오르더니 고일병의 얼굴을 내려쳤다. 거의 같은 순간 하사의 구두발이 가슴을 걷어찼다.

《이제 무슨짓이야!》

온몸을 떨며 웨치는 병구의 팔을 남인표가 짹 붙잡았다.

《저놈을 살리겠으면 당신이라도 빨리 말하오!》

《이걸 놓소!》

병구는 몸부림치며 남인표의 손을 뿌리쳤지만 팔을 뺄수 없었다. 남인표가 쇠집게처럼 짹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살인적고문은 계속되였다. 가죽채찍이 연방 고일병의 얼굴에서 살점을 뜯어내고 구두발은 당장 숨통이 끊어지라고 가슴에 련속 강타를 먹였다.

《저러다 죽소! 빨리 말하오!》

남인표가 악취나는 입김을 내뿜으며 재촉했다.

고일병은 벌써 죽었는지, 비명을 지를 기력도 없는지 깃소리없었다. 나무토막처럼 이리저리 몸을 뒹굴며 얻어맞기만 했다. 그 몸의 움직임도 점차 굼떠지기 시작했다.

병구는 그만 미칠것만 같았다. 고일병과 함께 자기도 가죽채찍에 얻어맞고 구두발에 채이는것만 같았다.

저도 모르게 아!— 하는 고함소리가 터져나갔다.

그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남인표를 뿌리치고 달려가면서 주먹코와 상사를 떠밀어친 다음 고일병을 몸으로 막으며 뚫어앉았다.

《고일병!》

대답이 없었다. 커다랗게 톱든 두눈의 동공이 굳어지고 찢어진 입에서 흘러나오는 선지피는 벌써 굳어지고있었다.



《소식 듣구 오는거예요?》

시원히 피지 않는 모기불을 쭈시고있던 민씨가 대문간에 들어서는 지혜를 보고 물었다.

지혜는 불이 켜있지 않는 병구의 방을 힐끗 바라보고 되물었다.

《무슨 소식 말예요?》

《아니 그럼, 대위님이 보안대에 불러간것을 여태 모른단 말예요?》  
병구가 고일병의 죽음을 목격한 바로 그날이었다.

《어머, 보안대엔 왜요?!》

《너무 걱정말아요.》

민씨가 지혜의 손을 잡아 자기곁에 앉히며 설명했다.

《대위님에게는 아무 죄도 없대요. 부하가 잡혀갔으니... 참, 아가씨두 그 사병 알거예요. 고 뭐라구, 전에 언젠가 갈비대가 부러져서 병원에 왔다는 그 사병 있잖아요. 대위님을 만나러 우리 집에두 한번 왔댔어요. 그 사병이 잡힌거래요. 그래서 대위님이 그 사병의 중대장이니까 뭐 좀 알아보려구 오라 했겠죠. 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런 일은 잘 알아맞춰요. 이제 곧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구 돌아오실거예요.》

그러나 자정이 다될 때까지 기다렸지만 병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씨가 대위님이 또 곧장 중대로 갔을거라고 했지만 지혜는 믿지 않았다.

사단본부에서 중대로 가려면 용수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하숙집에 들리지 않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내쳐 중대에 나가있었으니 내의를 갈아입기 위해서도 들릴것이 아닌가.

민씨가 자기 방에서 같이 자자고 했지만 지혜는 병원으로 갔다.

가슴을 짓누르는 걱정과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 뜯눈으로 뒤치닥거리다가 날이 밝자마자 민씨네 집으로 달려갔지만 병구의 방은 그냥 비어 있었다.

하루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전에 없던 일로 환자를 옆에 두고도

창밖을 우두커니 내다보다가 서울로 가버린 채의사대신으로 입직한 황의사의 꾸중을 듣기도 했다. 거리를 지나가는 군인대렬을 보고도 와뜰 놀랐다.

저녁때 병원문을 닫자 또 민씨네 집으로 달려갔다. 병구는 없고 민씨가 또 새 소식을 알려주었다.

어제 고일병이 보안대에서 매맞아 죽고 병구는 중대에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낮에 운전병 문하사가 갈아입을 병구의 내의를 가지러 갔을 때 아가씨가 몹시 걱정하며 기다리고있다고 기별했으니 오늘은 들어올게라고 했다.

그러나 그날도 자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굼뜨게 돌아가는 시계바늘을 자주 보면서 안타까이 기다리는 사이에 민씨가 고명찬의 이야기를 했다.

《무슨 책들을 군인들속에 돌렸대요. 학생들처럼 와 들구일어나서 싸울 단체를 만들 준비두 했구요. 그게 들통나서 잡혔는데 글썄 대위님이 보는 앞에서 때려죽였다잖아요. 세상에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죽했으면 대위님이 까무러쳤겠어요.》

지혜는 그날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나왔다. 고명찬의 죽음이 슬프고 그를 죽인 보안대원들에 대한 분노가 세차게 치밀었다.

서울에서 자주 만난 고명찬의 그 준수한 얼굴이 어두운 천정에 그림처럼 선명히 그려졌다. 기합에 특골이 부러져 병원에 왔던 고명찬의 모습도 떠올랐다.

고달픈 사병노릇을 하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던 일이 뼈에 사무치도록 뉘우쳐졌다.

까무러치고 중대에 돌아갔다는 병구일도 여간 걱정스럽지 않았다. 역세고 완강한 기질의 소유자인 그가 오죽했으면 까무러쳤으랴싶었다.

하숙집에 오지 않고 중대에 불박혀있는데도 뭔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는것같았다.

그런데 또 하루밤을 새고나니 뜻밖의 소문이 들려왔다. 병구가 고발해서 고명찬이 보안대에 체포되었다는 소문이였다.

원장 부인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와서 지혜에게 조심스레 알려주었다. 청천벽력파도 같은 소리였다.

지혜는 정신없이 병구내 하숙집으로 뛰어갔다.

민씨가 무슨 일때문인지 딸아이를 꾸짖고있었다.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대문간에 들어서서 지혜를 보자 아이를 방에 들여보내고 웬 일이나고 물었다.

《병구씨 계세요?》

《지금이 몇신데 벌써 퇴근하겠어요.》

지혜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16시 10분전이었다. 퇴근시간이 아직 멀었다는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뛰어왔던것이다.

지혜는 망연히 서있다가 민씨에게 물었다.

《아주머닌 무슨 소리 못들었어요?》

《대위님이 그 사병을 고발했다는 소문 말예요?》

《예.》

《들긴 들었지만 누가 그런 소리 곧이들겠어요.》

지혜는 가볍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자기가 알기에도 병구는 결코 고자질이나 할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를 밀고할 사람이라면 전에 성태오빠가 왔을 때 벌써 그를 밀고했을것이다.

하지만 불 안팎 굴뚝에서 연기나라, 뭔가 불미한것이 있었는지 모른다 하는 의혹이 생기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일단 마음이 외로 틀어지자 자기가 몹시 걱정한다는 기별을 받고도 며칠이 지나도록 하숙집에 나타나지 않는것도 이상한 일로 생각되었다. 자기에게 뗏뗏치 못한 일을 저지른것이 아닐가싶었다.

병구가 보는데서 고명찬이 타살됐다는 그 사실에도 불미스러운 의혹의 연기가 감돌았다.

보안대원들의 그 살인행위를 왜 저지시키지 못했는가? 그럴만한 힘이 없었는가?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었는가?

전에 자기를 경찰지서에서 빼내온 그날의 결연하고 대담한 병구의 모습을 떠올려보았다.

그만한 담력과 힘을 가진 병구가 왜 고명찬이 타살되는것을 보고만 있었는지 알수 없었다.

고명찬이 했다는 그 일에 반감을 가졌기때문인가? 그래서 보안대원들이 그를 혹독하게 다루는것을 응당지사로 간주해서 보고만 있던것인가? 아니면 강자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그랬는가? 전연부대의 특군대위에게 있

어서 경찰지서의 일개 형사는 약자로 되지만 보안대원은 감히 엿서기 어려운 강자로 될것이다. 그래 병구씨가 약자앞에서는 주먹을 휘두르지만 강자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그런 위인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가!

그러나 아직은 억측이다. 먼저 병구당자를 만나 확인해보아야 한다.

지혜는 그 어떤 운명적인 결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병구가 하숙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병구는 옛새만에야 나타났다. 그날도 지혜는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하숙집으로 가보았다.

민씨가 프락에 모기불을 피우고있다가 대문간에 들어서는 그를 보자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가며 병구의 방쪽을 눈짓했다.

방에 불이 환히 켜져있었다. 문이 활짝 열려있어서 책상앞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들여다보였다.

《조금 있다가 들어가요.》

민씨가 지혜에게 귀속말로 소근거렸다.

《벌써 한시간동안이나 저러구있지 뭐예요. 저녁두 안먹겠단지, 무슨 말 시켜두 대답이 없지... 그 죽은 부하의 귀신에 홀렸는지 원...》

지혜는 모기불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병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며칠사이에 중병을 앓고난 사람처럼 홀쭉해진 얼굴에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덮여있었다.

《들어가서두 될수록 죽은 그 사병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 일때문에 저렇게 상심해있는게 뻔한데 아픈 마음을 건드리지 말아야죠.》

민씨가 또 이렇게 당부했지만 지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온 것이었다.

방안의 병구는 맞은편 벽을 멍하니 바라보고있었다. 바깥의 기척에는 통 관심이 없는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지혜는 한참 더 기다리다가 방으로 들어갔다.

병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눈빛이 반짝거렸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눈빛이 다시 흐릿해지더니 시선을 거두고 맞은편 벽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한숨어린 소리로 한마디 했다.

《안됐소.》

무엇을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알수 없는 모호한 소리였다.

지혜는 입술을 잘근 깨물었다.

《고명찬씨 소식 저도 들었어요.》

병구는 그를 외면한채 기운없는 소리로 물었다.

《내가 그를 밀고했다는 소문도 들었소?》

《예, 병구씨.》

《왜, 그게 사실이냐고 묻자는거요?》

《전 믿고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병구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내흔들며 그의 말허리를 잘랐다.

《그렇지만 어쨌다는거요?! 밀고와 협조는 결국 같은 행위요, 같은 행위란 말요! 내가... 내가...》

병구는 뒤말을 잊지 않고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었다. 그에게 그런 소문이 돈다고 알려준것은 김영수소위였다.

《틀림없이 남인표소령이 만들어낸 소문입니다. 중대장님이 협조해주지 않는데 대한 앙갚음이지요. 우선 중대장님이 그 소문을 들으면 본격해할걸 타산했을게고 또 중대장님이 고일병과 뜻을 같이한 장교가 틀림없다면 동지를 밀고한 배신자로 만들어놓자고 한 수작입니다. 설사 중대장님이 현재제에 충실한 장교라 해도 자기 부하를 밀고해서 제 눈앞에서 죽게했다 하면 도덕적인 견지에서 치사한 일 아닙니까. 이러나저러나 남소령이 퍼뜨린 소문이고 중대장님을 비렬한 패덕한으로 지탄받게 하자는짓입니다만...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제건 밝혀지기마련이니깐요.》

병구의 머리속에 밀고와 협조가 결국 같은 행위라는 생각이 떠오른것이 김소위의 그 말을 들은 후였다.

만약 고일병이 정당한 일을 한것이라고 확신했다면, 그에 대한 보안대원들의 살인적만행이 부당한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결단코 그를 보호하고 보안대원들의 폭행을 저지시켜야 했었다.

그런데 그 폭행을 그저 보고만 있지 않았던가. 저지시킬수 있는 조건이 없었다는 변명으로 그 관조행위를 정당화할수 없다. 보안대원들의 그 막강한 권력과 폭력에 저항할 결심이 약했던것이다.

먼저 정신적으로 압도되어 한두마디 소리나 지르고 몸부림쳐본것이 고작이었다.

놈들의 폭행을 관조하고 목인한 그 비겁한 자세, 바로 그것이 결과적

으로 놈들의 폭행에 협조한것으로 되지 않는가! 그 협조가 밀고행위와 뭐가 다른가. 결과적으로 고일병의 죽음을 막지 못했으니 그 어떤 비난앞에서도 머리를 쳐들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병구를 괴롭혔다. 고일병앞에 만회할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죄의식이 가슴을 쥐여뜯었다.

지금 지혜앞에서도 그 죄의식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지혜가 겁에 질린 얼굴로 조심스레 말했다.

병구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침통한 어조로 물었다.

《서울에 취직자리가 있다구 했지?》

《전에 성태오빠가 와서 얘기한 그것 말예요?》

《이제라도 가면 거기 취직할수 있겠지?》

《글쎄요.》

병구는 어깨를 툭 떨구며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서울에 가오, 여기에 더 있지 말구.》

《네?!》

《리유는 묻지 말구. 미안하오. 래일이라두 당장 보따리 꾸러가지구 떠나가오.》

《병구썬요? 제대하실거예요?》

《아니요, 난 여기에 남아있어야 하오.》

남아서 할 일이 있었다. 남인표를 징벌하려는것이다. 고일병이 말한 그 행동, 새세상을 위한 싸움은 후일의 일이고 우선 살인마 남인표를 징벌할 결심이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것이 생명의 위협을 동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주저할수 없다. 그 대가로 자기에게 위협이 닥쳐오는 경우(그럴 가능성이 크다.) 지혜가 곁에 있으면 그에게도 모종의 박해가 가해지기마련이다.

지혜가 그런 곤경에 빠지게 하고싶지 않았다. 그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할 자격을 상실한 인간이 됐다고 간주하지만 어쨌든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것이다. 그를 사랑하기때문에, 부끄러움없이 그를 사랑할수 있는 인간으로 돼야 하기때문에 보안대의 그 살인만행을 징벌하려는것이다.

그 사랑이 지혜를 이곳에서 떠나보내려고 하는것이다. 처음부터 보호의 식에서 짝튼 병구의 사랑이었다.

앞날에 있을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서 떠나가라고 한것이다.

지혜가 이곳을 떠나 서울에 가는 경우 다시 돌아오지 않을수 있다는것도 모르지 않았다. 원래 전연지대 군인사회를 질색했던 여자이다.

이룰배반을 모르고 정의와 신념에 사는 어떤 길동무가 나타나면 그에게 매혹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곳 용수리와 나의 존재에 영원히 등을 돌릴것이다. 그것이 무서워 이곳에 붙잡아두어야 하는가?

아니다! 보내야 한다. 그를 보호해주는것이 내 사랑이다. 지금은 그것만을 생각해야 할 때다.

병구는 일부러 엄한 소리로 다시 말했다.

《당장 래일 떠나가오!》

지혜는 그만 눈앞이 아찔했다. 무정하고 가혹한 배신의 쇠주먹에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이성적판별력마저 짓밟아버릴 정도의 가혹한 타격이었다.

마음과 함께 몸도 갈기갈기 찢기는것같았다. 모진 현훈증에 눈이 감겼다.

소용돌이치는 암흑이 주위를 도는것같았다. 쓰라린 회상이 탁류처럼 밀려왔다.

절대로 제대될수 없고 성태의 벼으로 되지 않겠다고 고집하던 병구, 자기가 경찰지서에서 당한 그 곤욕, 성태오빠와 다툼 병구의 그 고집, 병구의 사랑과 성태오빠의 진실중의 어느 하나만을 택할수 없는 피로움에 뜬눈으로 밝힌 그 무수한 밤들, 섭섭하고 노엽고 피로웠던 그 가지가지 추억이 시키면 탁류가 되어 지혜를 골짜기바닥으로 떠밀어버렸다.

거기는 강바닥이었다. 방금 하늘에서 쏟아져내린 폭우가 벼랑을 허물어놓았다.

흙과 바위돌이 비물과 함께 쏟아져내려와 지혜를 덮쳤다.

산우에서는 병구의 랭담하고 엄격한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우린 남남이다! 밀고와 협조는 같은 행위다! 내가 고일병을 체포하고 타살하는 그 일에 협조한거다! 이제 내가 어떤 장교란걸 알았지? 그러니까 떠나가라는거다! 우리 관계는 끝났다! 하고 웨치는 그의 목소리가 우

뢰소리처럼 귀청을 때렸다.

지혜는 자리를 차고 강바닥에서 뛰쳐일어났다. 경멸과 반발심이 가슴속에서 불길처럼 타번졌다. 그 불길로 쏟아져내리는 사태를 쳐물리치며 산우의 병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우유부단하고 정의를 외면한, 자기 부하를 타살하는 만행에 협조한 인간, 순결한 여성의 마음에 침을 뱉는 인간, 가장 비열하고 추악하고 무지한 인간의 얼굴이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미련을 더 가지랴.

《좋아요. 래일 떠나가겠어요!》

지혜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병구의 방에서 나갔다.



## 제 4 장

### 1

제대수속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은 원호엽은 이제 군복을 벗은 몸이니 《국군》에 대한 관심도 일체 머리속에서 털어버리려고 걱정했다.

자기를 헌신짝처럼 버린 군에 대해서 관심할 필요가 없었고 관심하고 싶지도 않았다. 섭섭하다거나 노엽다 하는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봐야 소용없는 일이기때문이었다.

모든것을 깨끗이 잊고 단념하는것이 상책이다. 망각과 체념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요긴한 약으로 되는것이다.

일체 바깥출입을 안하고 방문객도 별로 없어서 시간을 보내기가 지루했지만 과히 넓지 않은 정원이나마 있어서 불행중 다행이었다.

아침부터 정원에 나가 꽃밭에 물을 주고 잔풀도 뜯어주었다. 무성하게 자란 관상용나무들을 바라보며 미풍에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설레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포도나무그늘에 앉아서 피우는 담배맛은 유별나게 구수했다. 어떤 날은 밤에도 정원에 나가 시간을 보냈다.

그럴 때 2층의 딸방에서 피아노소리라도 울려나오면 평화롭고 감미로운 정서가 안겨들었다. 생후 처음으로 가져보는 한가한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한가지 유감스러운것은 비가 오면 정원에 나가지 못하는것이였다.

장마라도 들려는지 비가 자주 왔다.

바깥의 비소리를 들으면서 서재에 우두커니 앉아있느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적해졌다. 울적해지면 자연 추억이 되살아나는것이 인간의 상정인가.

일생을 군에서 보낸 원호엽에게는 군인생활에 대한 추억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시절을 되돌아보기가 싫었다.

그는 곧 채머리를 흔들고 서가앞에 갔다.

한가하고 우울할 때는 백과사전을 보는것도 좋은 약으로 되는 법이다.  
한권 뽑아내면 반나절은 보낼수 있었다.

2~3일동안 백과사전에 대한 독서로 시간을 메꾸다가 하루는 《군대와 혁명의 기술》이라는 책을 뽑아들었다. 제목도 특이했지만 기가쉬령 고리라는 영국 녀류문필가가 쓴것이여서 전일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하던 책이었다.

새책을 볼 때마다 언제나 하는 버릇대로 서문과 후기부터 먼저 보았다.

《현대사회 즉 문명사회라고 불리우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질서와 국가질서를 중국적으로 규정하는것은 군사력이다.》

이것이 서문이였다. 카프라제 리도르하드라는 사람이 써준 글이다. 결론은 저자 자신이 쓴것인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군대의 성격은 그 나라 사회구조의 반영으로 된다.》

원호엽은 책을 손에 든채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바깥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기를 정년전 제대를 시킨것도 이 땅의 정치제도 그것이였다.

하긴 《국군》의 군령과 군정이 미8군사령부측의 의견에 따라 좌우된다면 청와대의 정치는 백악관과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의 《사전협의와 조언》에 따라 실시되는것이다.

《국군》이 애당초 미국에 의해 조직되고 무장되고 훈련된 군대라면 이 땅의 《정부》를 조직하고 키운것은 미국이다.

그리고보면 《국군》의 예측성도 결국 《정부》의 예측성의 한 반영이며 미8군사령부측의 의견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국군》은 미국의 대《한》정책의 집행자노릇이나 하는 《정부》를 무력으로 보위해주면서 군부파썸통치가 실시되는 이 땅의 질서를 지켜주고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력사의 비극이며 《국군》유지비를 담당하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 아닌가! 그 비극과 반역을 《군본연의 임무수행》이라는 대의명분으로 감추어온것은 또 얼마나 치졸한 기만인가!

아니, 내가 이거 사태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혹평하는것이 아닐가? 정년전 제대가 됐다고 그에 대한 분풀이로 이러는것이 아닐가?

원호엽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았지만 그것은 공연한 물음이였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원호엽은 공정하고 엄격한 사람이였다. 자신의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사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것은 그와 인연이 없는 일이었다.

자기가 편견에 사로잡힌것이 아니라고 확신한 원호엽은 그날부터 군의 실상과 자신의 군인생활에 대해서 새삼스레 생각해보았다.

군복을 벗었다 해서 군에 대해 일체 관심하지 않으려 한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이었다. 자기를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군이기에 그의 부정적측면에 대해 더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고 무려 30여년간 계속해온 군인생활이기에 그에 대해 회상해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무렵 어느날 한병구대위가 찾아왔다.

오래간만에 비가 멎고 해빛이 쏟아져내리는 날이어서 두사람은 정원의 포도나무그늘에 자리를 잡았다.

《왜, 이 사복이 몸에 잘 안붙어서 그러나?》

수인사가 끝난 다음 원호엽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병구가 자기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피는것같아 물은것이였다.

《예, 아무래두 좀… 준장님이야 몸도 마음도 천성적인 군인형이신데…》

《사복입은 사람보구 준장님이 뭔가.》

《예비역이라두 준장이야 준장 아닙니까. 전 앞으로두 변함없이 준장님을 우리 군의 선배님으루 모실겁니다.》

원호엽은 허거프게 웃었다.

《그래, 그후에는 별일없었나?》

《기어이 처벌받구 중대장으로 강직돼 내려갔습니다.》

《뭘라구?!》

원호엽은 금시초문이였다.

《왜,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그 지서사건때문입니다. <간첩>련루자를 어쨌다는 루명은 벗었지만 <관동행위>는 용서할수 없다구 해서 처벌주더군요. 근데 또 한가지 사고가 생겼습니다.》

《무슨 사고계?》

《저의 중대에 고명찬이라는 일병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병의 일이고 또 상대가 원호엽이기때문에 구태여 이것저것 재며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병구는 고명찬에 대해서 아는것을 다 이야기했다.

원호엽은 고명찬이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가 하는것까지 다 듣고나자 신음하는듯한 소리로 중얼거렸다.

《놀라운 일이군.》

고명찬일병의 신념과 주장이 옳다 그르다 하는 생각에 앞서 그 의지와 기개에 탄복을 금할수 없었다.

《전 그 사병이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 장교들의 뺨을 후려친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구가 정말로 뺨이라도 한대 맞은 사람같은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인가?》

《부하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피살되는걸 막지 못하면서 부정에 타협하고 굴종하고있으니 뺨을 맞은셈이 아닙니까.》

원호엽은 으음 하고 무겁게 머리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사병 혼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량심과 민족의 넋이 우리 장교들을 호되게 꾸짖고있을겁니다. 전 3사때 준장님에게서 들은 말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하고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게?》

《군인은 말공부쟁이가 아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는것이 군인이다, 그것이 곧 군인의 기질로 돼야 한다... 그런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원호엽은 언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얼른 기억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해온것만은 사실이었다. 군인은 행동의 인간으로 돼야 하며 실천력이 강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있었던것이다.

《준장님.》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원호엽은 잠자코 기다렸다.

《전 전으로부터 준장님도 미8군사령부에 예측된 우리 <국군>의 치욕을 통탄하시는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의 그 예측적실패가 <정부>가 백악관의 대<한>정책의 현지집행기관노릇을 하는데 기인된다는 사실도 잘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굴욕을 이이상 더 참을수 없지 않습니다. 굴욕을 감수하는건 장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원호엽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앉아있을 때는 그들을 받고있었는데 일어서니 포도나무잎사이를 뚫고

새여든 해빛이 얼굴에 정면으로 비쳤다. 뜨거운 별이었다. 금시 이마에 땀발이 돌아났다.

원호엽은 해빛을 피할 생각도 안하고 그 자리에 그냥 서있었다.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관자노리에서 피줄이 툭툭 뛰었다.

병구가 얼른 따라일어서며 걱정이 실린 소리로 말을 이었다.

《치욕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파쑈통치와 외세의 지배에 항거하는 학생 운동이 격화될 때마다, 민중운동이 고조될 때마다 계엄군으로 동원되어 그들을 탄압한 치욕스러운 죄파가 있지 않습니까. 전 얼마전까지만 해도 제가 광주에 계엄군으로 직접 투입되지 않았다는것으로 어리석은 자기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복을 착용하고있는한 군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자기 휘하의 모든 부하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속한 부대와 나아가서 전군의 좌표와 작전행동에 대해 책임질줄 아는 장교라야, 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줄 아는 장교라야 참다운 장교라고 생각합니다. 장교의 참다운 명예심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병구의 얼굴에도 해빛이 비쳤다. 살갗이 약간 검스레한 그의 얼굴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끓는 열정이 그대로 내비쳤다.

《참다운 명예심이라...》

원호엽은 그의 말을 되뇌이며 그제야 해빛을 피해 도로 의자에 앉았다.

《예, 그렇습니다.》

병구는 어깨를 짙 벌리고 그 자리에 섰다 여전히 걱정이 실린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전 장교의 그 명예심은 부정에 항거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 행동에서만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천행동 말인가?》

병구는 원호엽앞에 바짝 다가섰다.

《우리 <국군>이 진정한 민족의 군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 싸우는것이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청년학생들과 민중의 벗이 되어 미국의 내정간섭을 배격하고 파쑈폭압<정권>을 타도하는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공교롭게 이때 윤미가 무엇이 그리도 즐거운지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춤

추듯한 걸음걸이로 정문으로 들어왔다.

그는 정원 포도나무밑에 서있는 병구를 발견하자 《어머, 대위님!》 하고 소리치며 달려와서는 재잘거리기 시작했다.

《언제 오신거예요? 지혜언니 만나서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 법 어디 있어요? 대위님 나빠요! 대위님이 잘한거 뭐 있어요? 아주, 아주 잘 못한거예요!》

《윤미야.》

원호엽이 엄격한 표정으로 꾸짖듯이 딸을 불렀다.

《왜요?》

《네 방에 올라가있어.》

입을 비죽거리며 할끔 눈을 흘기는 딸에게 원호엽이 또다시 꾸짖듯한 어조로 말했다.

《네 방에 올라가있으래두!》

딸이 뽀로통해져서 달려가버리자 원호엽은 가볍게 채머리를 흔들었다. 아버지에게 찾아온 손님(병구)을 제가 가로채가지고 입방아 찧는 그 소행이 무례하다면 무례하다고 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성을 내며 쫓아버릴것까지는 없는 일이었다.

병구의 말에서 받은 충격때문에 공연히 애꿎은 딸에게 큰소리를 쳤던 것이다.

실상 그것은 보통충격이 아니였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생각을 병구의 입을 통해 들은것같기도 했다. 파썸통치제도를 용납한다면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실현될수 없고 《국군》의 통수권도 찾을수 없다는 생각을 이미 오래전부터 남몰래 마음속에 품어온 원호엽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리된 생각으로 품어온것은 아니였다. 따라서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로 굳어진것도 아니였다.

이따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머리에 스쳐지나가곤 했다. 현역장성이라는 직업의식이 그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오래 품고있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 병구의 말을 듣자 그것이 자기도 오래전부터 생각해온것처럼 느껴졌던것이다.

더우기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는것이 군인이라고 할진대... 아니다, 나야 벌써 군복을 벗은 몸이 아닌가.

원호엽은 자신의 사복차림을 서글픈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속된말로 행차뒤 나팔이라더니 험령한 사복을 입고있는 지금의 자기에 게 그런 소리를 하는 병구도 뭔가 착각하고있는것이 아닌가싶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제대는 댔지만 군대내에 아직 자기를 따르는 옛 부하들이 있다는것을 타산하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하긴 X사단 작전처장 최대령과 《수도경비사령부》의 차소령, 1군사령부의 마중령, X사단의 강모대대장을 비롯하여 자기 말이라면 거절하지 않을 장교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줄지어 떠올랐다. 그들모두가 병구와 같은 정의파들이고 실천력이 강한 장교들이다.

만약 그들에게 호소하면...

원호엽은 세차게 머리를 내저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결코 앉은자리에서 결심할 문제가 아니였다.

현 체제의 부정과 시행착오에 반감을 가진다는것과 그를 상대로 싸운다는것은 성질이 다르다. 좀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층의 윤미방에서 피아노소리가 울려나왔다. 무슨 환상곡같았다.

《만약 준장님께서...》

원호엽은 급히 병구의 말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이제 그런 말 어디 판데 가서두 했나?》

《준장님에게 오늘 처음 말씀드린겁니다.》

《그렇다... 물론 자네 말대로 참된 장교의 명예심이란게 있지... 나야 이미 군복을 벗은 몸이니까... 자네야 현역장교로서 감히... 물론 정의에 사는거야 좋지. 허지만 장교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상하게 말이 자꾸 더듬거려지고 맥락이 닿지 않는 뜻이 모호한 소리가 나갔다.

그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고 두가지 상반된 감정이 마음속에 뒤엉켜들기 때문이라는것을 깨닫자 원호엽은 쓰겁게 입을 다시며 병구에게 등을 돌리고 몇걸음 걸어나갔다.

병구가 그의 뒤를 따라갔다.

《제가 준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그만해두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또 그의 말허리를 잘라버린 원호엽은 두손을 허리

에 짚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무한대로 펼쳐진 하늘에 구름 한점 없었다. 중천에 뜬 태양에선 뜨거운 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져내려왔다. 원호엽은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그 어떤 뜨거운것이 폭발적으로 작렬하는듯한감을 느꼈다.

그러나 곧 주먹을 움켜쥐며 스스로 자신을 억제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게.》

한숨어린 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 2

병구가 전로부터 알고있는 원호엽은 결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사물현상에 대한 통찰력이 예리하고 자기 주견을 명백하게 내세우는 군인이었다. 아무리 복잡한 일이 제기되어도 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좋다 혹은 나쁘다 하는 판단을 내렸다. 결론을 뒤로 미루며 우물쭈물하는 법이 좀체로 없었다. 어쩌다 간혹 즉각판단이 잘되지 않거나 해석이 불가능한 조건이 생기더라도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면 말했지 어물어물해서 넘기는 성미가 아니었다.

부하들에게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그랬다. 잘한 일이면 치하해주는데 린색하지 않았고 반면에 무슨 인식착오나 시행착오가 있으면 즉석에서 엄하게 꾸짖고 시정시켜주었다.

언제 어떠한 정황에서나 항상 판단이 정확하고 립장이 명백하고 실천력이 강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가?

병구는 원호엽의 집에서 나와 매부에게로 가면서 생각해보았다.

예비역으로 돌아왔다 해서 현역으로 근무하던 그 시절의 성격이 일조일석에 달라진것일까? 그럴리가 없다. 수십년동안 체질화되다싶이 한 그 성격이 하루이틀사이에 달라지지는 않을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랬을가 하고 병구는 다시 생각해보았다.

지내 느닷없이 놀라운 소리를 한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로서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한 말이었다.

원호엽, 그는 청와대의 처사와 미8군사령부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품



고있을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그가 앉은자리에서 대뜸 군인들도 반미반파쑈투쟁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소리를 하리라고 기대한것은 아니였다. 수십년동안 장교로 근무하는 과정에 몸에 배인 직업의식도 일정하게 남아있기마련이라고 생각했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타부타 말 한마디 분명히 하지 않은것은 도무지 원준장답지 않은 일이 아닌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뜻이 모호하고 맥락이 닿지 않은 그 몇마디뿐이었으니...

어쨌든 그에게 무슨 변화가 생긴것만은 틀림없는것같은데 그게 뭔지 병구로서는 쉽사리 알수 없었다.

한편 병구의 경우에도 아직은 어떤 계획이 확고히 선 상태가 아니였다. 분격과 반항심, 욕망 그런것들이 앞설뿐이였다.

고명찬의 죽음에서 받은 강한 충격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흥분상태의 련속이라고나 할가.

실은 그래서 요긴한 조언이라도 들으려고 원호엽을 찾아가서 자신의 흥금을 솔직히 털어놓으려다가 중도에서 말이 잘리고말았던것이다.

그런데도 그에게 추호도 반감이 가지 않았다. 섭섭하거나 노여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되려 그에게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그에게 모종의 정신적균열이 생긴것이 아닐가싶었다. 그렇지 않다면 가타부타 평가도 없이 대화를 중도에서 끊어버렸을리가 없다.

원호엽자신이 그 균열을 스스로 바로잡을 때가 있겠지. 어쨌든 기회를 봐서 다시 찾아가는거다. 나도 그동안 마음을 정리하고...

병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부네 집까지 갔다. 신호종소리에 누이가 나와서 대문을 열어주었다.

《예구, 이게 누구냐?! 네 얼굴을 다 잊어먹을번했다. 왜 그새 통 오지 않았냐?》

병구는 누이의 푸념에 얼른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년초에 와본 후 처음 왔으니 할 소리가 없었다.

《매부랑 편안하십니까?》

《음, 지금 서재에 계신다. 어서 들어가자.》

매부 유경훈은 자기 안해와 함께 서재에 들어오는 병구를 보자 한마디 빈정거리기부터 했다.

《이거 우리 용사가 드디어 나타났군.》

안해에게도 같은 투로 말했다.

《여보, 부하를 죽이구 애인까지 쫓아버린 용사가 나타났지만 어찌겠소, 우선 점심부터 차리오.》

《원 당신두, 죽이긴 누가 죽였다는거예요.》

매부도 누이도 모든것을 벌써 다 알고있는것같았다.

지혜가 서울에 오자마자 성태에게 이 소리, 저 소리를 했을것이고 매부는 성태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것이다.

병구는 차라리 잘되었다싶었다. 제입으로 하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고일병을 죽였다는 그 말은 지나친 과장이지만 그렇다고 뭐 구구히 변명하고싶지 않았다.

《고발》과 《협조》가 결국 같은것이라는 생각, 보안대원들의 야수적만행을 저지시키지 못한것이 《협조》한 격이 됐다는 그 자책감을 의연 뼈저리게 느끼고있는데야 구태여 무슨 변명을 하랴.

《그래, 권양을 쫓아버린 후에 또 무슨 만용을 부렸나? 이번주까지 오지 않으면 찾아가려구 했네.》

《왜요?》

《왜라니, 걱정돼서 견딜수 없는걸 어떡하냐. 자네 성미를 내가 모르는줄 아냐. 무슨 저돌적만용을 부리지 않으면 바보처럼 자살소동이나 벌려려구 했겠지.》

병구는 뺨소를 머금으며 투덜거렸다.

《만용을 부리기는커녕 뺨만 얻어맞았습니다.》

《자네가?》

《예.》

《모를 소리군. 권양밖에 뺨칠 사람이 없겠는데, 그 아가씨야 자네를 다시 만나지두 았구 떠나오지 았았나. 대관절 누가 감히 자네같이 성깔 사나운 사람의 뺨을 쳤다는건가?》

《우리 련대 본부중대에 있는 염태훈중위라구, 평소엔 저에게 무척 호감을 가졌던 장교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제가 고명찬일병을 보안대에 밀고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걸 곧

이듣고 와서 뺨을 치더군요.》

《저런… 댜은 장교군!》

《또 한사람은 자신을 <타락장교>라고 자칭하면서 매일 술을 퍼마시던 장교인데…》

《그 장교한테서두 뺨을 맞았나?》

《뺨 맞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하루는 장하진대위가 술 한방울 입에 대지 않은 맨송맨송한 얼굴로 찾아와서 《나 오늘부터 술 끊기로 했네.》라고 하는것이였다.

《왜, 래일부터 전쟁한다는 소리라두 들은거 아닌가?》

《룡담 아니네. 고명찬일병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구 생각한거네. <타락장교>노릇 그만해야 되겠다구.》

병구는 가슴이 찡 울렸다.

《국민의 세금으로 무장한 <국군>이 어제는 광주에서 학생, 시민들을 학살했다면 오늘은 자기 동료들을 죽이구있네. 이걸 계속 방관할수야 없지 않나. 광주에서 죽은 그 녀자도 어제 밤 꿈에 나타나 복수할줄도 모르구 왜 매일 술독에만 빠져있느냐구 울면서 원망하더군. 그래서 내가… 결심한거네. 알겠나, 내 마음을? 염중위가 자네 뺨을 쳤다는 소릴 들었네. 그래서 내 그 사람한테 그따위 헛소문을 끝이듣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꾸짖어주었지만 자네 그 사람 마음두 리해해주어야 하네.》

《리해하구말구. 미더운 벼를 하나 얻었다구 생각하네.》

《자네가 그렇게 말할줄 알았네.》

장대위는 잠시 머리를 숙이고있다가 번쩍 쳐들었다.

《자네 마음속을 다 알순 없지만 하여간 믿을만한 벼이 필요될 땐 날 찾아주게.》

그날 밤 병구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보안대 취조실에서 들은 고명찬일병의 그 말마디들이 절벽을 때리는 파도소리처럼 쿵쿵 울려왔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 남긴 그리고 자기에게 한 마지막유언이였다.

그 유언의 뜻을 깊이 새길 대신 일시적이거나 남인표 개인을 징벌할 생각에만 사로잡혀있을것이 사뭇 뉘우쳐졌다. 이틀배반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지난날에 대한 부끄러운 회상이 탁류처럼 밀려왔다.

염태훈중위와 장하진대위 그리고 김영수소위 세 장교가 나란히 서서 역

센 손을 내미는 환영이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소리쳐 부르면 그들처럼 손을 내밀 장교, 사병들이 더 있을것같았다.

성태 생각도 났다. 지난날 그를 여러가지로 노엽혔던 일이 뉘우쳐졌다. 그를 다시 만나고싶었다.

고일병이 남긴 뜻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았다.

부정과 사악으로 썩어가는 이놈의 세상을 때려부시고 광휘로운 새세상을 건설하자는것이 그의 뜻이며 당부가 아니겠는가.

병구는 그 뜻을 살려주고싶었다. 회의와 의분의 계선을 넘어 드디어 실천행동으로 나설 결심이었다.

그러한 결심이 선 이상 성태를 만나면 서로 아무런 격의도 없는 절친한 벗으로 될수 있을것같았다.

하지만 그를 다시 만날 방도가 묘연했다. 그가 또 용수리에 나타날리가 없고 자기쪽에서는 그의 거처를 모른다.

혹시 매부에게 부탁하면 그를 만나도록 주선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른것은 오늘 아침 용수리를 떠나올 때였다. 그래서 먼저 원호업을 만나고 매부를 찾아온것이였다.

그는 자기 생각을 모두 숨김없이 매부에게 이야기했다.

유교수는 한동안 자기 집에 은신해있던 성태가 또 판데로 거처를 옮겨갔지만 그와 연계를 취할수는 있었다.

《전번에 만났을 때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하던데...》

유교수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물었다.

《정황이 좀 급했습니다.》

《나두 얘기 들었네. 이제 만나보면 알게 되겠지만 성태군두 사람이 달라졌다고 할가...》

《또 무슨 일 생긴겁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가보다... 참,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네. 바다 개벌에서 조개를 줏던 처녀이야기인데...》

병구는 조금 의아쩍은 생각이 들었다. 성태이야기를 하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매부의 속심을 알수 없었다.

《조개가 많아서 그걸 줏기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밀물이 쓸어들었다는거네. 흔히 있는 일이지. 나두 전에 한번 군산쪽에 가서 봤는데 밀물 속도가 사람의 걸음보다 훨씬 빠르더군.》

병구는 별로 귀맛이 당기지 않았지만 매부가 하는 얘기를 버릇없이 중단시킬수도 없어서 마지못해 그저 듣는체했다.

《그 아가씨가 정신차리고 물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밀물의 속도를 따라 잡을수가 있어야지. 물이 허리에 차고 가슴, 머리까지 차오르더라는거네. 때마침 성에장이 하나 떠와서 그우에 기여올랐다네. 성에장이 떠다닐 때니 날이 얼마나 춥고 바다물도 얼마나 찼겠나.》

유교수는 잠시 이야기를 중단했다. 성에장우에 앉은 그 처녀의 모습을 그려보는것같았다.

《조수란것이 한동안 물으로 밀려갔다가 만조가 되면 다시 먼바다로 되돌아가지 않나. 그날도 그 아가씨가 물으로 채 가닿기 전에 썰물이 졌네. 썰물의 흐름도 빨라서 아가씨는 잠간사이에 먼바다로 나가버렸지. 성에장을 타구... 그사이에 해가 저물구 물에서는 뒤늦게야 사람이 하나 개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는것을 알구 바다가에 우루루 달려나가 화불을 켜들구 소리쳐 불렀지만 아가씨는 아무 소리두 못들구 아무것도 못봤다는거네. 그만큼 멀리 흘러갔으니까. 그러니 생각해보게. 망망대해에 성에장을 타고 가랑잎처럼 떠있는 그 아가씨의 마음이 오죽했겠나.》

병구도 그제야 매부의 이야기에 끌려들었다.

바다바람이 얼마나 찼으랴. 먼바다로 흘러갈수록 파도가 더욱 높았을것이다.

어둠과 바람소리, 키높은 파도... 그것들이 무시로 그의 생명을 위협했을것이다. 사나운 파도가 성에장을 통째로 삼켰다가 빨아버리군 했으리라. 그 성에장우에서 처녀는 물참봉이 되고 그 물이 얼음으로 굳어지고 심장까지 얼어붙었는지 모른다. 자연의 횡포앞에서 인간은 무력한것이다. 바다의 벗으로 자처하며 뿔내는 어부들이나 해병들도 그런 정황에서는 죽음의 시각을 기다리는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하물며 개별에서 조개나 죽던 애젊은 처녀가 아닌가.

성에장우에 얼음처럼 굳어진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어지럽게 그려졌다.

벌써 숨이 끊어졌는가. 미동도 없이 앉아있다가 밀려오는 파도속에 또 삼켜들어간다. 파도가 지나가자 그제야 몸부림친다. 죽음에 대항하는 마지막몸짓같다. 칠혹같은 어둠속을 휘둘러본다.

불빛 하나 없다. 하늘의 별빛들은 너무 까마득히 높다. 달빛은 왜 저리도 랭담하고 엄숙한가. 바다가마을에서 조개나 죽던 인간이 자연의 횡

포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꾸짖는것일가.

그러나 처녀는 죽기가 무섭다.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있는 물으로 돌아가고싶다. 의식까지 몽롱해지지만 구원의 손길이 어디 없을가 하고 어둠속을 계속 두리번거린다. 수없이 엄마를 불러보기도 한다.

《처녀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무려 사흘밤과 낮을 보냈네. 헌데 그동안 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줄 아나? 구조선들이 바다로 달려나가고 비행기까지 그 아가씨를 찾겠다고 날아갔다는거네, 말하자면.》

《아니 뭐라구요?!》

병구는 어깨를 약간 솟구쳐올렸다. 그런 일이 도저히 있을것같지 않았다. 매부가 갑자기 환상가가 돼서 꿈같은 이야기를 꾸며내는것이 아닐가 싶었다.

개별에서 조개를 줯다가 그 봉변을 당한것이라니까 인천이나 군산, 목포근처 어디 해변가에 사는 처녀겠는데 어느 선주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배를 출항시켰겠는가. 비행기가 날아갔다는 말은 더욱 꿈같은 소리였다.

자기네 공군이 훈련중에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일은 있어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원한 일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을수 없다.

《참, 세살 먹은 애들두 끝이듣지 않을 얘기 그만하십시오. 꿈에서나 그런 일이 있겠는지.》

매부가 엄한 눈길로 힐끗 쳐다보았다.

《마저 들어보야지. 하긴 끝이듣기 힘든 이야기이긴 해. 허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파도에 표류한 한 이름없는 처녀를 구원하기 위해 국가적조치를 취한셈인데… 그 구원작전을 발기하고 지휘하신분이 누구이신줄 아나? 또 72시간만에 끝내 그 아가씨를 구원했을 때 제일 기뻐하신분도 누구이신줄 아는가? 다름아닌 김정일령도자님이시였다는거네!》

병구는 저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질렀다. 눈시울이 화끈 달아올랐다. 혈관을 타고 뜨거운것이 온몸에 퍼지는것같았다.

고명찬일병에게서 받은 책 《이북의 진실을 배우자》에서 본 김정일령도자님의 존함 세 글자가 눈부신 금빛장식을 띠고 하나하나 눈앞에 나타났다.

그분은 과연 어떤분이실까?!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탁월하고 자애로운 위인의 영상을 뵈옵고싶었다. 구원된 그 처녀를 대신하여 깊이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고싶었다.

아니, 어찌 그 처녀 혼자뿐이라.

불의의 사고와 자연재해야 흔히 생기는것이다. 그러나 북에서는 김정일령도자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모든 생명이 위기에서 구원될것이다. 사람들의 레사로운 일상생활의 갈피갈피에도 인간생명과 그들의 행복을 귀중히 여기시는 그이의 사랑이 해빛처럼 스며들것이다. 그 위대한 사랑에 깊이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고싶었다.

《이젠 믿어지겠지?》

유교수는 이렇게 묻고는 대답을 들으나마나하다고 생각한듯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처럼 무한한 환희에 휩싸인 얼굴로 곧 자기 말을 이었다.

《내가 아는바에 의하면 그렇게 이름도 없는 한 평범한 처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국가적비상을 걸고 온갖 대책을 다 취하는것이 바로 주체사상이 구현된 정치네. 국민 매 개인의 존엄과 생존권, 행복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보호하는것이 주체정치의 출발점이고 과정이고 목적으로 된다 그거네. 그런데도 반공광신자들은 이북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다고 떠들어대는데 내 생각에는 그자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초보적개념을 무시하고 외곡하고있네. 인간이 진실로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생활을 향유하려면 인간고유의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하등의 제한도 받지 말아야 하네. 일체 타의적속박과 강요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신념에 따라 살수 있을 때, 민중 각자가 완전한 평등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없이 발휘할수 있는 조건에서 살 때 비로소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거네. 하지만 그것은 인간 각자의 개별적노력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네. 인간이란 원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되어있고 그 사회속에서 살수밖에 없는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가.》

유교수는 잠시 이야기를 중단했다가 계속했다.

《사회정치체도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보장해주어야 하는데 이북의 주체정치가 바로 그것을 실현시켜주고있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진리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이상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

생운동의 좌표도 새롭게 정립하는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유교수는 여기서 이야기를 중단하고 책상우에서 원고를 집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주지된바와 같이 80년 5월의 광주봉기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학생운동대오의 의식화, 조직화를 실현해야 한다는것이다. 80년대의 새로운 투쟁구호가 반미반파쑸민주화, 조국통일로 되어야 한다는것도 더 논의할 여지가 없는 진리이다.

그러나 어떠한 리념하에 의식화, 조직화사업을 전개하며 어떠한 사상적 가치를 들고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을 추진시켜나갈것인가.

대학의 지성들이여!

일찌기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구국제민의 태양으로 조종의 산 백두산에 높이 오르신 **김일성**주석님의 인간해방, 민족해방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배우자!

주체사상을 리론실천적으로 무한대로 심화발전시키신 사상의 영재, 령도의 천재이신 **김정일**령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학습하자!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류사상사의 총결산이며 인간지성의 최고봉이다.

외세의 예속과 군사파쑸통치의 폭압을 종식시키는 길도, 참다운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도, 학생운동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 길도, 조국통일의 렬명을 맞이하는 길도 주체사상에 있다.

진리는 곧 생명이며 승리이다!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그 가치를 들고 전진하는 학생운동대오를 결속하고 강화하자!

...

유교수는 여기까지 읽고 원고에서 눈길을 뗀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운동이 반드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겁니까?》

병구가 물었다.

《그렇게. 다른 길은 없네! 이것은 4.19의 피값을 빼앗긴 그때부터 부단히 항쟁을 계속해왔지만 매번 탄압만을 받으며 승리하지 못한 학생운



동의 총결산에서 얻어진 결론이네. 광주참변후 여러 대학들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제나름의 류파들도 생겨나고있지만 이제 두구보게. 앞으로 학생운동의 주류는 주체사상신봉자들에 의해서 형성될거네. 그것이 80년대 학생운동의 의지이고 결심으로 되고 또 민중운동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거네.》

유교수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에 대해 말하듯이 확신에 찬 어조였다.

《성태씨도 형님과 같은 생각이겠지요?》

《그야 물론이지. 이 원고두 실은 성태군의 부탁을 받구 쓰는거네. 참, 권군을 만나구싶다구 했지?》

《예.》

《그래서 이 원고를 읽어준거네, 성태군의 사상과 좌표를 알려주기 위해서.》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한 성태를 만나는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이후에 자신의 좌표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와 그와의 관계문제를 두고 병구는 잠시 생각해보았다.

《좋습니다. 성태씨를 만날수 있도록 주선해주십시오.》

매부의 얼굴에 부드럽고 흡족한 미소가 피어났다.

《주선해주지. 잘 결심했네. 나두 인제야 한시름놓게 됐네.》

《그동안 여러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네 한사람에 관한 일이 아니네. 터놓구 말해서 지금까지 <국군>이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당국자들의 권력유지에서 <기둥>역할을 해오지 않았다. 학생운동이 격화되고 민중항쟁이 절정에 이를 때마다 최후수단으로 군을 투입해서 진압했거던. 그 군대속에 미국과 청와대의 식민지통치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학생운동두 지원해준다면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승리하구 통일위업을 성취하는 날이 그 만큼 빨리 올거네.》

《알겠습니다.》

《순탄한 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인간으로 살게 되는 정의의 길이네.》

때마침 누이가 점심상을 차려놓았다고 알리러 왔다. 피차에 할 이야기

를 다했으니 안성맞춤이었다.

《다음 일요일에 올수 있겠나?》

점심상이 있는 안방으로 건너가면서 매부가 물었다.

그날 성태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병구는 얼른 대답했다.

《예.》

점심상에서는 누이의 요리솜씨가 갖든 된장찌개가 구수한 냄새를 피여 올리고있었다. 오래간만에 찾아온 동생을 위해서 맥주도 두병 내놓았다.

《허 이거, 자네 덕분에 점심맥주를 마시게 됐군. 언제나 이렇다니까. 누가 와야 마실것두 좀 내놓지.》

유교수가 가벼운 룡담을 하며 처남의 잔에 맥주를 철철 넘치게 부었다.

된장찌개도 좋았지만 버섯볶음도 입맛을 돋구었다. 식욕도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것같았다. 병구는 오래간만에 맛있게 많이 먹었다.

《결혼문제는 어떻게 할셈이나?》

식사가 거의 끝날무렵 누이가 물었다.

《어떡하긴요, 파투가 된걸요.》

《파투가 되다니?》

《제가 그 녀자를 쫓아버렸으니까요. 아마 절 용서 안할겁니다. 지금에 와서야 공연한 객기 부린거라고 후회되지만 이미 깨진 사발, 도로 붙일수야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단념할테냐?》

병구가 대답하기 전에 매부가 말했다.

《사랑이란 그렇게 쉽게 단념하게 되는게 아니지...》

### 3

변두리에 자리잡고있는데다가 박사도 아닌 의사가 경영하는 조그마한 개인병원이 돼서 그런지 찾아오는 환자가 많지 않았다. 원장인 양재형선생과 채준호선생 두사람이 다 외과의사라는 사실도 작용했다.

용수리같은 시골과는 달리 서울에서는 외과의사가 다른 파에 속하는 질병까지 닥치는대로 다 치료하는것이 허용되지 않기때문이다.

이 한가한 병원에 지혜가 간호원으로 취직한것은 서울에 올라온 직후였다.

백부덕에 거처를 정했지만 그 집살림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애옥살이였다. 그로 해서 지혜는 군식구노릇을 면하기 위해 하루빨리 취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년초에 성태오빠가 말한 그 취직자리가 아직 남아있다고 기대할수는 없었다.

그래서 행여나 해서 안영일을 찾아가 용수리에서 영 떠나왔는데 성태오빠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좀 만날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영일은 안된다고 딱 잡아떼더니 사흘후 지혜에게 찾아와서 성태의 주소를 대주었다. 그동안 성태를 만나 의논한것같았다. 오빠가 기다리고있으니 남들이 눈치채지 않게 가보라고 했다.

그날 지혜는 오빠앞에서 오래도록 흐느껴울었다.

무릇 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두번째 인생이 아니겠는가. 지혜도 그랬다. 병구에 대한 사랑은 일시적인 달콤한 꿈이나 연보라빛랑만이 아니라 진지하고 성실한 삶 그것이었다.

서럽고 피로운 일도 많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어갔다. 정녕 그것은 인간의 불행과 고통이란 무엇이며 삶의 진실과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준 인생의 교과서와도 같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끝난것이다.

사랑이 식어버린 대신 저주와 원한이 시커먼 연기처럼 가슴속을 짝 메웠다. 그 가슴속에서 연기에 그슬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나왔다. 처음부터 자기의 피롭고도 뜨거운 사랑을 잘 아는 오빠앞이 돼서 더 서럽게 흐느껴울었다.

성태는 줄담배만 피웠다. 달래고 위로하기엔 이미 때가 늦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것같았다.

지혜가 스스로 울음을 그친 다음에야 성태는 고명찬에 대해 몇마디 물었다. 지혜는 그에 대해 설명한 후에야 취직소리를 했다.

그로부터 닷새후 영일이 찾아와서 양재형외과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그래 가보니 채준호선생이 있었다.

그와 함께 양재형원장을 만났다. 미리 이야기가 된듯 취직문제는 즉석에서 해결되였다.

전에 있던 간호원이 결혼하면서 사직한 바람에 새 간호원을 채용하려던 참에 마침 권양이 와서 다행이라고 되려 원장과 채의사가 더 좋아했다.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취직이 너무나 쉽게 되는 바람에 지혜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또 한가지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든것은 안영일의 말이었다.

지혜에게 양재형외과병원에 가보라고 이르면서 그가 말하기를 《지혜씨 때문에 내가 실업자가 됐다는걸 알아두십시오. 허 참, 기가 막혀서... 일이 이왕 이렇게 된바에 보수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어떤 보수냐 하면 지혜씨 월급에서 절반은 지혜씨때문에 실직한 저에게 주어야 된다 그겁니다. 실업자구제금으로 말입니다.》라고 하는것이였다.

시물시물 웃으며 룡담처럼 하는 말이였지만 전혀 실없는 룡담같지도 않았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던 그의 부친이 파산되어 가정형편이 아주 곤궁해졌다는것은 지혜도 전번에 왔을 때 백부에게서 들어서 알고있었다.

그렇다고 남의 월급을 넘겨다보는것은 절대로 아니고 남자인 그가 이 병원에서 간호원노릇을 했을리도 없는 일이였다.

혹시 학비보탬을 위해서 병원의 허드레일이라도 도와주고 약간의 보수를 받아왔을가? 설마 그랬으랴싶었지만 이상하게 그의 그 룡담이 마음에 걸려 하루는 채의사에게 안영일에게서 들은 소리를 그대로 옮기고 그가 왜 그런 룡담을 했는지 알수 없느냐고 물었다.

채의사는 껄껄 웃으며 그 친구 걸작이군, 이제 차차 알게 될거요 하고 모호한 대답을 했다. 그에 대해 당장 말해달라고 애들처럼 보챌수도 없었다.

채의사는 용수리때처럼 지혜에게 여간 친절하지 않았다.

지혜도 변함없이 그를 따르고 존경했다. 그래서 용수리를 왜 버리고 왔느냐 하는 물음에 모든것을 솔직히 다 이야기했다.

채의사는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소리는 없이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후에 한대위를 한번 만나야겠군.》

《아니예요. 그러실거 없어요. 다 끝난 일인걸요.》

채의사는 안경을 벗어서 손수건으로 닦은 다음 도로 쓰더니 지혜를 측은한 눈매로 바라보았다.

《하여간 당분간 꼭 쉬오. 이 병원이 과히 바쁘지 않으니까...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것같소, 권양에겐...》

지혜도 마음을 안정시키고싶었다. 곡절많은 지난날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과거와 깨끗이 결별하고 오늘에 충실하자.

채의사말대로 병원일은 과히 바쁘지 않았다. 환자가 없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용수리일이 떠오르곤 했지만 그러면 일부러 머리를 세차게 내젓고 조금전에 닦아낸 진료실바닥과 복도에 또 걸레를 대곤 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보니 병원분위기에서 조금 이상한것이 느껴졌다.

원장과 채의사의 생활에 환자진료외에 그 무엇이 더 있는것같았다. 딱히 짚어 말할수는 없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가짐에서 그 어떤 범상치 않은것이 가끔 나타났다.

채의사의 성격도 용수리때와는 달라진것같았다. 그때는 즉흥적인 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간 침착하고 진중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 해도 깊이 생각해보고 하는것같았다.

그가 가끔 지혜에게 시국형편이며 광주봉기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때로는 북의 사회정치제도와 거기 사람들의 생활이야기도 해주었다. 성태 오빠에 대한 칭찬과 학생운동의 전망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해주었다.

지혜는 그의 이야기에 심취돼버렸다. 왜 그런지 그의 이야기가 하나도 생소하게 들리지 않았다. 모든것이 지혜자신도 이미부터 마음속으로 느끼고있으면서도 말로 번지지 못한 이야기들이고 또 자신이 간절히 마음속으로 바라던것을 채의사가 말로 표현하여 이야기해주는것같았다.

특히 지혜를 매혹시킨것은 북의 이야기였다. 그것은 꿈같은 새세상이었다. 날개라도 있으면 당장 그곳으로 훨훨 날아가고싶었다.

하루는 채의사가 그에게 던지시 물었다.

《성태군이 있는데를 알지?》

지혜는 얼른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믿고 존경하는 채의사라 해도 오빠의 거처를 안다는 대답을 하는것이 옳을지 알수 없었다.

《전엔 안영일군이 우리와 성태군사이를 자주 다녔소. 이를테면 연락원역할을 했는데... 안군이 성태군과 아주 친한 사이라는건 대학에서 다

아는거구. 그러니 경찰에서두 알거 아니요. 만약 경찰에서 그 점에 주의를 돌리구 안군 뒤를 밟는다면 성태군 거처가 드러날게거던... 그래서 안군대신에 권양이 당분간 수고 좀 해주었으면 하는데...》

지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안영일이 《실업자》가 됐다고 한 그 말의 뜻이며 양재형원장과 채준호선생이 어떤 사람들이라는것도 대뜸 알아차렸다.

《예, 알아요. 제가 갈게요!》

지혜가 그들의 일을 돕고싶은 열망에 가볍게 몸을 떨며 말했다.

채의사의 두꺼운 근시안경속의 두눈이 광채를 띠고 반짝거렸다. 말은 없었다. 부드럽게 빛나는 눈으로 지혜를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지혜는 얼굴을 화끈 붉히며 그의 크고 억센 손에 자기의 조그맣고 부드러운 손을 맡겼다. 그것은 그들사이에 처음으로 교환된 악수였다.

지혜는 잠시후 오빠에게 전해주라는 카세트 3개를 받아가지고 병원을 떠났다.

그것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하신 보고가 수록된 육성테프라는것을 안것은 후일의 일이었다.

그날은 무슨 카세트인지 모르고 성태오빠의 거처를 향해 갔다. 전에없이 걸음이 가벼웠고 가슴속엔 형언키 어려운 공지가 차올랐다.

채의사에게서 누가 뒤따르거나 검문검색을 당하는 경우 혹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어떻게 하라는 주의를 듣고 떠났지만 도중에서 아무 장애도 받지 않고 성태오빠가 있는 집까지 무사히 갔다.

성태도 전에없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수고했다! 너도 드디어 우리 일을 도와나섰구나! 고맙다!》

성태의 온 얼굴에, 눈과 입과 이마와 뺨 모든 곳에 부드러운 미소가 물결치며 흘렀다.

지혜도 얼굴을 붉히며 미소했다.

《저도 기뻐요, 오빠네 일을 조금이라도 돕게 되어... 근데 오빠.》

《응, 뭐냐?》

《언제까지 이렇게 집안에만 박혀있을거예요? 큰어머니도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몰라요. 건강에도 나쁘고... 또 대학은 어떡해요?》

《너무 걱정마. 대학강의는 못받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

줄 아니. 네가 오늘 갖다준 이 테프도 아주 귀중한 교재다. 앞으로 외출도 더러 하게 될거다. 대학에도 한번 나가볼 생각이다.》

《어머, 그러다 잡히면 어떡해요?》

《잡히는걸 겁내면 아무 일도 못해. 잡히지 았구 다니는 방법두 있어.》  
상태는 자신만만했다.

며칠후 지혜는 다시 오빠에게 갔다. 이번에도 채의사가 카세트 3개를 주었다.

《김정일령도자님의 로작이 수록된 카세트요.》

그리고는 전번에 가져간것이 김일성주석님의 로작원문이 록음된 카세트라는것도 그제야 알려주었다.

지혜는 이미 채의사에게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의 존함을 여러번 들었었다. 그 위대하신분들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품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다.

그 카세트를 받으면서 지혜는 온몸이 환희로운 감동에 휩싸였다. 가장 값높은 행복을 받아안은것만 같았다. 한없이 귀중하고 영예로운 일을 한다는 긍지감에 심장이 뜨겁게 달며 터질것만 같았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렇듯 영예롭고 값높은 일을 맡겨주는 채의사가 무한히 고마웠다.

평범하게 살았고 세속적인 일에 고민하고 기뻐하던 자기가 오늘은 새로운 보람으로 가득찬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서는것이다.

《그럼 수고하오.》

채의사는 전번날처럼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네, 다녀오겠어요.》

인사하고 막 진료실을 나서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났다. 근처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였다.

운전사인듯한 사람이 환자를 업고 들어오면서 급한 소리를 질렀다.

지혜는 환자가 들어오는것을 보고 간호원이 병원에서 나가면 남들이 이상하게 볼것같아 그 카세트가 든 손가방을 치우고 위생복을 갈아입었다.

잘했소 하고 무언의 찬사를 보내며 채의사가 그에게 이것저것 다급한 지시를 주었다. 요행 중상이 아니여서 응급처치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환자가 돌아간 다음 지해도 손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섰다.

로선빠스를 두번 갈아타고 XX정류소에서 내렸다. 거기서 오빠의 거처까지는 약 20분거리였다.

카세트의 내용을 알고 가는 걸음이 돼서 그런지 전번날보다 더 긴장되었다. 채의사에게서 단단히 주의를 받은것이 있어서 헛눈을 팔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어디 애인이나 만나러 가는 처녀인양 경쾌한 걸음을 옮겨갔지만 마음은 조마조마했다.

전후좌우, 주위의 모든것을 바늘끝처럼 예민해진 신경으로 살피면서 걸어갔다. 그런데 대통로에서 뒤거리에 들어설 때였다.

어디서 오는것인지 모르게 피부에 섬뜩한 자극을 주는 느낌이 생겼다. 누구와 어깨를 부딪친것도 아니었다. 어느 바람난 싱검둥이가 눈을 끔뻑거리며 따라온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자극이 어디선가 날아오는것이였다.

공연한 신경과민인가? 아니다.

분명 누군지 자기를 보고 놀란것같았다. 그가 슬금슬금 뒤따라오는것 같았다.

뒤를 돌아보지 마오! 덤비지 말고 침착하오!

채의사의 목소리가 귀전에 울렸다. 땀이 바작바작 돌아났다. 심장이 쿵당거렸다. 누군지 금시 뒤덜미를 잡으려고 덤벼들것같았다.

어디로 막 도망쳐 뛰여가고있었다.

덤비지 말래두! 겁내지 말구 빨리 확인하오! 침착해야 출로도 찾게 되는거요!

다시금 채의사의 엄격한 목소리가 귀전에 울렸다.

마침 잡화점이 눈에 띄웠다.

지혜는 그리로 들어가 껌 한개를 사가지고 나오면서 재빨리 주위를 살펴보았다.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소리가 나갔다.

길건너편 다방앞에 서있는 군인, 그는 다름아닌 남인표소령이였다.

남인표는 지혜를 보자 도둑고양이처럼 몸을 사리며 얼굴을 돌렸다.

지혜는 일순 심장이 얼어붙는것같았다.

남인표가 빠스에서 내리는 자기를 발견했다는것, 자기를 보자 병구씨와 고명찬일병, 오빠 세사람의 그 해명하지 못한 관계를 다시 상기했고 자기를 뒤따르면 오빠의 은신처를 덮칠수 있다고 예감했을것이라는것, 오빠를



잡기만 하면 병구씨까지 체포할 증거를 얻을수 있다는것 등 그러한 타산을 굴리며 미행해왔을것이라는것까지는 몰라도 무서운 위협이 닥쳐왔다는것만은 온몸으로 느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얼어붙었던 심장에 피가 돌기 시작했다. 저놈에게 잡혀서 그 귀중한 록음테이프를 뺏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가슴을 쳤다. 오빠의 거처가 드러나게 해서도 안될것이다. 그러자면 저놈의 발목을 묶어놓고 눈을 멀게 해야 한다. 옳지, 방도가 있다.

지혜는 일부러 그를 못본체하며 상점에서 나오는 길로 곧장 다방을 향해 길을 건너갔다. 남인표가 재빨리 다방안에 뛰어들어가는것도 못본체했다.

다방앞에까지 간 지혜는 거기서 집주소를 찾는 사람처럼 길가의 간판이며 문패들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남인표가 다방에서 뛰어나와 또 자기뒤를 슬금슬금 따라오리라는것은 보지 않고도 뻔한 일이었다.

뒤거리어서 가게방이며 다방, 세탁소 같은 건물들 사이사이에 주택들도 끼여있었다.

얼마동안 간판과 문패들을 살피며 가던 지혜는 리발소앞에서 주소를 헛갈린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다가 획 돌아섰다.

10여메터뒤에서 따라오던 남인표가 제사 도리어 와 뜰 놀라며 주춤거렸다.

지혜는 급히 그에게로 다가가며 소리쳤다.

《어머, 소령님! 잘 만났어요!》

남인표는 풀섶에서 기어나오다가 밟힌 독사처럼 눈알을 뒤룩거리며 목을 비틀었다.

《저하구 같이 가요. 고명찬일병네 집을 찾는중이에요. 이 근처 어디라 했어요.》

《거... 거긴 왜 간다는거요?!》

남인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물었다.

《죽었다는 기별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거든요. 소령님이 가서 자세한 사연을 설명해주세요.》

《아니, 뭐... 뭐라구?!》

《왜 놀라세요? 소령님이 보안대 고문실에서 그를 때려죽인거 아니에요! 죄없는 사람을 왜 때려죽였는지 그 이유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라 그

거예요.》

호기심많은 행인들이 벌써부터 걸음을 멈추고 그 심상치 않은 대화를 듣고있었다. 삼시간에 20여명이 두사람을 성처럼 둘러쌌다. 대학생들과 로동복차림의 청년들도 있었다.

그것은 지혜가 잡화점에서 나올 때부터 예상한것이였다. 상대가 죄없는 사병을 때려죽인 보안대장교라는것을 알게 되면 행인들이 모여들것이라고 계산했던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리라는것도 뻔했다.

정황이 불리해졌다는것을 감촉한 남인표의 볼따귀가 푸들푸들 떨렸다.

《뭐야 이거?! 무슨 왕청같은 소릴 하는거야!》

《왜 발뺌하는거예요. 소령님이 죄없는 사병을 때려죽였다는거야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니예요. 그 사병한테 아무 죄도 없다는것도 사실이구요.》

지혜는 누군지 자기 손을 다정스럽게 잡는것을 느끼며 더욱 어성을 높였다.

물론 미행을 때버리기 위한 연극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남인표의 살인만행에 대한 분노가 끓어번지고 억울하게 죽은 고명찬에 대한련민의 정에 눈물이 쏟아져나왔다.

《이년 미친거 아냐?! 쌍!》

당황하고 화가 난 남인표는 한대 쥐여박기라도 할듯 지혜앞에 바싹 다가섰다. 그러자 구경군들속에서 날카로운 웨침이 총알처럼 터져나왔다.

《다치지 마!》

웬 대학생이 웨친 소리였다. 그 소리를 받아 여기저기서 비난과 야유의 화살이 연방 날아와 남인표의 면상에 박히고 등을 찔렀다.

《저 새끼 살인마다!》

《사등뼈 분질러라!》

《죄없는 사병을 왜 죽였다는거야?!》

대여섯명의 청년들이 사람들속을 비집고 나왔다. 모두들 남인표를 당장 때려눕힐 기세였다. 한 청년이 먼저 남인표의 얼굴에 침을 탁 뱉었다.

그러자 남인표가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며 찌지는 소리로 웨쳤다.

《비켜! 쏜다!》

벼랑끝까지 쫓겨간 짐승의 단말마적인 비명과도 같았다.

《여보, 그 알량한 죄불이 걸어놓고 썩 꺼져버리시오! 피차에 피를 흘리기 전에.》

웬 중년신사가 준절한 소리로 꾸짖었다. 그는 군중들에게도 한마디 타 이르듯 말했다.

《미친개는 쫓아버려야 하는거니 어서 길을 비켜주소.》

남인표는 살구멍이 열렸다고 군중속을 란폭하게 뚫고나갔다.

그자의 모습이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사라지자 지혜는 급기야 맥이 탁 풀려서 비칠거렸다.

아까부터 그의 손을 꼭 쥐고있던 사람이 몸을 지탱해주었다.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린 로부인이었다.

《수고했네. 내 아들두 대학다니다가 교도소에 갇혔네. 3년두 넘었는데 여태 못나오구있지.》

지혜는 목이 짹 메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잡혀가고 매맞고 죽어가고있는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우는 어머니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원한과 상실의 피눈물이 흐르는 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싶었다.

《무서워말구 어서 갈길을 가게.》

로부인이 지혜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속삭였다.

군중들이 방금 남인표가 빠져나간 방향과 반대쪽에 길을 내주었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머리숙여 인사하고 걸음을 땀다. 서럽고 고통스러울 수록 더욱 강심먹고 가야 하는 그 길을 갔다.

#### 4

술을 물처럼 마시면서 남인표는 연방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아무리 닦고 또 닦아도 그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 뺨은 침이 그냥 얼굴에 묻어있는것만 같았다.

영문을 모르는 접대부가 그러다가 살가죽이 벗겨지겠네요 하고 이죽거렸지만 듣지 않았다. 엉망으로 취해서 손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을 때에야 물수건을 바닥에 팽개쳤다.

남인표가 서울로 온 후 단골로 정해두고 다니는 술집이었다. 접대부도 처음에는 화대(술집 같은데서 춤추거나 노래하고 받는 돈이나 물건)받고 몸을 내맡기다가 얼마전부터는 정보원노릇까지 하는 여자였다.

그가 고주망태가 된 남인표를 밖으로 끌고 나가 택시에 태워주면서 운전사에게 그의 집주소도 알려주었다. 몇번 남인표를 따라가서 밤을 샌적이 있어서 그 주소까지 아는 접대부였다.

남인표는 택시 뒤좌석에 들어가자마자 제대로 앉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 쌍년아! 침대가 왜 이리 짧은거냐?》

발을 제대로 뻗칠수 없는것에 화가 나서 소리치자 운전사가 쓰겁게 입을 다시며 두덜거렸다.

《또 재수없게 걸렸군.》

《이 똥질 년아! 네년두 응, 보안장교에게 함부로, 함부로... 죽어버릴테다!》

남인표는 구두발로 택시문을 걸어차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이놈 차는 왜 이래, 똑바로 몰지 않을거냐? 이 새끼, 왜 꺼꾸로 모는거냐?》

차가 꺼꾸로 뒤집혀져서 굴러가는것이 아니라 남인표자신의 몸이 이리저리 마구 뒤집혀지기때문이었다. 너무 퍼마신타이었다.

운전사는 연방 쓰겁게 입을 다시며 차를 조심스레 몰아갔다.

여느 손님이라면 도중에서 차를 세우고 손님을 밖으로 끌어내다 땡개쳐버리련만 이거야 보안장교가 아닌가. 무슨 일때문인지 잔뜩 성까지 내고 있는 놈을 서둘러 잘못 건드렸다간 권총을 뽑아들지 모른다.

새벽 첫탕 손님이라고 맞다든것이 려관에서 나오는 머리가 푸시시한 매춘부년이더니 오늘은 아무래도 재수없는 날이다. 비위가 거슬려도 목적지까지 태워다줄수밖에 없다.

연방 이놈, 이년 하며 소리지르던 남인표는 택시가 아파트앞에 멎을무렵 갑자기 조용해졌다.

병신 룡갑하네.

운전사가 혀를 차며 밖에 나가 뒤문을 열어주었다.

남인표는 그냥 늘어져서 자고있었다.

《젠장! 손님, 내리시오! 다 왔어요. 손님!》

운전사가 그의 어깨를 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이 쌍년! 손들었!》

잠을 깨며 소리치던 남인표가 왁 하고 입에서 시큼한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운전사가 제때에 비켜서지 않았다면 구토물벼락을 맞을번했다.

남인표는 연방 왁 왁 하며 배안의 악취나는것들을 토해냈다.

운전사는 요금을 달라는 소리는커녕 침을 탁 뱉어버리고 차에 도로 뛰어들었다.

남인표는 택시가 배기가스를 들썩우고 횡 떠나간 다음에도 한참 길바닥에 쭈그러뜨리고 앉아있었다. 한바탕 토하고나니 속이 조금 편해진것같았지만 머리는 계속 어질어질했다. 늦은 밤이어서 아파트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다.

아파트 정문수위가 밖을 살피다가 그를 발견하고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아이구 소령님, 이거 웬 일입니까?》

남인표가 이 아파트에 입주한지 얼마 안되지만 그가 보안사령부에 다닌다는것을 알고 공연히 허리를 굽히고드는 수위였다.

《웬 술을 이렇게 마셨습니까? 어서 들어갑시다. 시골에서 아주머니가 와서 기다리고있습니다.》

《비켜! 웬 갈보년이 기다리고있다는거냐? 그런 년 없어!》

부축해주는 수위의 손을 뿌리치며 남인표가 소리질렀다.

《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겁니까. 하여간 먼저 올라가계십시오. 저앞의 려관에서 기다리구있으니까 제 얼른 가서 알려드리죠.》

남인표의 집은 3층에 있었다. 부동산투기바람이 일어서 아파트집을 사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지만 보안사령부 장교라는 특권을 리용해서 산것이였다. 아파트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것이 확실한 이상 미리 사둬으로써 그만큼 돈벌이도 하게 된다.

남인표는 아직 독신이였다. 사단보안대에 있을 때 하나 데리고 산 녀자가 있었는데 적당히 눈이 맞아 동서생활을 한 그곳 술집 접대부출신이였다. 그런 녀자를 서울까지 데리고 오기가 싫어서 때버렸던것이다.

남인표자신이 주색잡기에 이골이 난 위인이지만 접대부출신을 호적에 올려 정식 안해로 삼을 생각은 쥐뿔만큼도 없었다.

그의 나이도 올해 서른셋이다. 더 늦기 전에 정식 결혼을 할 생각이지만 지참금을 한아름 안고 올 녀자와 결혼할 계획이다. 집을 미리 사둔것도 결혼준비의 하나였다. 방 두칸에 부엌과 욕실이 붙어있는 집이니 신혼생활에 과히 불편하지 않은 보금자리로 될것이다.

그런데 뭐 시골에서 《아주머니》가 왔다구? 개나발같은 소리 지껄이지 마!

남인표는 3층의 제집으로 올라가면서 웅얼거렸다.

사단을 떠나면서 리미숙이라는 그 접대부출신 여자생각을 머리속에서 썩 지워버렸고 지금은 취중이라 더욱 그 여자 생각이 날리가 없었다.

방이란 곳에 들어가보니 지저분하기 이를데없었다. 빈 맥주병들과 안주로 먹다남은 명태겹질, 빈 담배갑, 휴지조박, 차잔과 접시, 냄새나는 양말, 속내의따위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어서 흡사 쓰레기장같았다.

침대우에도 때묻은 수건이며 손톱깡개, 먹다남은 과자부스레기 같은것들이 아무렇게나 쾅개쳐있었다.

너무 어지럽고 산만해서 치우고 정리할 여지가 없었다. 방바닥에도 먼지가 얼마나 끼였던지 발자리가 드러날 정도였다.

비칠거리며 방에 들어선 남인표는 바깥문을 잠그는것도 잊고 곧바로 침대에 가서 벌렁 자빠졌다. 모자도 상의도 벗지 않았다. 밖에서 토한 바람에 입안이 시큼했지만 양치질을 할 생각도 안했다.

《네년을 그제... 두구보자, 사지를 찢어죽일테다!》

속에서 부아가 끓어번져 연방 욕설을 뱉아댔다.

지혜를 미행하다가 그 봉변을 당한것이 분해서 치마신 술이었고 그 분노가 여태 사그라지지 않아 내뿜는 욕설이었다.

실상 그것은 보안장교노릇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당한 가장 지독하고 창피한 봉변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사단장이나 군단장도 잡아다 주리를 틀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보안장교가 한갓 간호원에 불과한, 그것도 어질어빠져서 숙맥 같아보이던 처녀에게서 봉변을 당한것이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질노릇이었다.

《두구보자, 다시 내 손에 걸릴 때가 있겠지. 사지를 찢어 죽여줄테다!》

게거품을 물며 올리대는데 목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아니, 저게 웬 년이야?! 지혜, 바로 그년이 러행용가방을 들고 들어선다.

남인표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일어났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방에 들어선 녀인은 지혜가 아니라 리미숙이었다.

《어머, 또 취했군요. 만날 술만 마시느라구 내 생각 다 까먹은거죠?》

쥐 잡아먹은 고양이같이 새빨간 입술을 나풀거리며 리미숙이 침대로 다가왔다.

남인표는 배속에서 또 무엇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왜 왔어?》

《어머, 왜 왔어가 뭐예요? 먼저 올라가서 자리잡을테니 뒤따라오라고 하시구두… 아유, 이 집주소 찾느라고 하루종일 헤맸어요. 막 피곤해요.》

그러한 부류의 녀인들이 항상 그러듯이 제멋대로 말을 지어내는것이 제법이였다.

전연지대에 혼자 떨어져 살기가 갑갑하고 남소령 같은 사내가 다시 걸려들지도 않아 찾아온것이리라.

술취한 남자를 어떻게 다루면 된다는것도 아는 리미숙은 남인표에게 몸을 기대어오며 요염한 눈웃음을 쳤다.

《비켜!》

남인표가 버럭 소리지르며 그를 란폭하게 떠밀었다.

《어머, 또 주정이지네. 내 술깨게 해드릴게요.》

방바닥에 뒹군 리미숙이 넉살 좋게 지껄이며 일어나더니 또 요염한 눈웃음을 치면서 남인표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려 했다.

《이 쌍!》

남인표의 주먹이 그의 면상을 후려쳤다. 리미숙이 또 방바닥에 뒹굴자 남인표가 이번에는 발길을 내질렀다.

《똥지구싶은거냐?! 당장 꺼져버렷!》

게거품을 물고 어금이를 으드득 가는품이 정말 죽여버릴 기세였다.

리미숙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발딱 튀어일어났다. 매맞은 자리가 아픈다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

남소령의 온몸에서 바람처럼 풍겨나오는 살기와 취기에 충혈돼가지고 세모꼴로 곤두선 눈매, 그것이 리미숙의 머리카락을 쭈뼛 일어서게 했다.

사람목숨을 파리목숨 다루듯하는 남인표의 야수적기질을 전으로부터 잘 아는 리미숙이였다.

언젠가 한번 무슨 일때문인지 화술을 마시고 들어온 그를 서둘러 잘못 건드렸다가 목졸림을 당해서 죽을번했던 기억도 번개치듯 스쳤다.

남인표가 두주먹을 부르쥐며 다가왔다. 또 목졸림을 하려는건가?!

《너 정말 죽고싶어 기신기신 찾아온거지? 좋아, 소원 성취시켜주마!》

죽고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세상에 사내가 남소령 하나만 있

는것도 아니다.

《사람 살려요!》

리미숙은 갑자기 찌지는 소리를 웨치며 문밖으로 뛰어나갔다.

《셋! 서라!》

남인표는 현관까지 쫓아나가며 고함쳤지만 잡히면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아는 리미숙이 왜 서겠는가. 계속 《사람 살려요!》 하고 웨치며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야밤의 소동에 이웃집들에서 다 잠을 깼으련만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보안사령부 장교의 집이라 해서 모두 거래를 안하고 담을 쌓고 살았다.

남인표는 현관에서 한참 씩씩거리다가 방에 들어갔다.

시어미 역정에 강아지 옆구리를 찬 격이였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바탕 주먹질, 발길질을 하고나니 속이 좀 풀렸다.

술 한고뿌 들이키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곧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목이 타는것같은 갈증을 느끼며 눈을 떠보니 벌써 9시가 지난 뒤였다.

출근시간도 지났지만 속이 쓰리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나갈수가 없었다. 침대맡을 들여다보니 마개를 따지 않은 술 한병이 있었다.

우선 그 술을 한고뿌 따라마신 다음 부엌에 나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나서 사령부의 직속상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령부에 전속돼오자마자 두툼한 돈봉투를 부임인사로 찢어준 그 직속상관이였다.

갑자기 설사가 나서 하루 쉬어야겠다고 말하자 쾌히 승낙해주었다.

남인표는 담배를 붙여물고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앉았다.

리미숙이 미처 가지고 가지 못한 자그마한 려행가방이 방바닥에 있었다. 어제 밤 그를 쫓아버리던 일이 떠올랐다.

쉴개빠진 년, 또다시 상통을 내밀면 정말 료정내줄테다.

남인표는 그이상 리미숙생각을 하지 않았다. 지혜를 놓치고 개코망신을 당했던 그 일만이 머리속에 짝 들어찼다.

새삼스레 분통이 치밀었다. 결단코 그대로 넘길수 없는 일이었다. 지혜 그년이 틀림없이 제 4촌오빠에게 가는 길이었을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연극을 놀았을리가 없다.

지혜 그년때문에 지명수배중인 권성태 그놈을 체포할 기회를 놓친것이



다. 한가하게 집안에 들여박혀있을수가 없었다.

남인표는 얼른 욕실에 가서 얼굴을 대강 씻고 밖으로 나갔다. 토장국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어제 지혜를 놓친 그 뒤거리로 갔다.

그러나 오리무중이었다. 성태의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다. 무턱대고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고 이 집에 아무개가 없느냐, 내놓으라 할수도 없었다.

맥이 풀리고 부아가 동하는 바람에 길가의 선술집에 들어가 낯술을 퍼마시다가 어제 저녁의 그 단골술집에 가서 접대부(정보원)를 끼고 하루밤을 보냈다.

××대학에서 대규모학생시위가 전개된것은 그로부터 사흘후였다.

대학에 박아둔 밀정들도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3 000여명 학생들이 교정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반《정부》, 반미구호를 웨치고 연설을 하고 교내시위까지 했다는것이였다.

나중에는 가두로 진출하려고 기도하다가 때마침 출동한 기동경찰과 격렬한 투석전을 벌렸다고 했다.

더욱 놀라운것은 반년이상이나 종적을 감추었던 권성태가 집회장에 나타나 연설까지 했다는것이였다. 그 연설내용이 또 종전의 학생집회에서 듣던것과 달랐다. 학생들의 의식구조개변을 호소하고 미국을 정면으로 공격했으며 현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하수인으로 단정하면서 주체적민족자주의식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것이였다. 심지어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위해 북의 사상과 제도를 알아야 한다는 소리까지 했다고 했다.

광주사태후 일부 대학에서 산발적인 반항운동이 더러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큰 규모로 발생한것은 처음이였다.

게다가 거기서 울려나온 구호와 연설의 내용이 또 얼마나 놀라운것인가!

수사기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은 최근 대학사회에서 발생한 주체사상신봉자들에 의해서 조직된 새로운 조류의 학생운동의 첫출발이였다. 그것이 조만간 각 대학에 파급되리라는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번 ××대학집회를 사전에 조직하고 집회당일에는 현장에 나타나 그 놀라운 연설까지 한 권성태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또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고 했다.

사태는 엄중했다. 청와대에서 욕설이 쏟아져나왔고 미국대사관에서도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안전기획부와 《국군》보안사령부,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권성태를 비롯한 XX대학 소요사건의 주동자들과 배후세력을 일망타진하고 새로운 종류의 학생운동이 발생발전하는것을 원천봉쇄하라는 긴급지령과 함께 범인을 체포하면 《2계급특진》을 시키고 1 000만원 상금도 준다는 공시까지 나왔다. 당일로 각 수사기관에 전담수사반들이 조직되었다.

남인표는 그 어느 수사반에도 망라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받은 타격은 누구보다도 컸다. 사건의 위험계수에 대한 판단에 앞서 권성태가 그 현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기절초풍을 할 지경으로 놀랐다.

권성태에게서 정수리를 한대 되게 얻어맞은듯한감이 들기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남인표가 저지른 엄청난 실책이었다.

그날 지혜를 끝까지 미행해가서 권성태를 체포했다면 이번 XX대학사건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을것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분통한 일이었다. 그럴수록 복수심이 세차게 타올랐다. 1 000만원의 현상금과 《2계급특진》의 유혹도 강하게 작용했다. 땅속을 파헤치며 뚜저서라도 권성태를 기어이 체포하고싶었다.

하지만 어디서 그놈의 꼬리를 잡을것인가?

욕망이 강한데 비해서는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지혜 그년을 다시 미행해볼가? 그년의 주소는 어떻게 수소문해보면 알아낼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년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날 미행을 당했다는것을 알았으니 다시는 제 오빠의 거처에 가지 않을것이다. 그럼 그년을 잡아서 족쳐볼가? 아니다, 또 고명찬일병꼴이 될수 있다. 계집년이 한번 양심을 먹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지 않는가.

겉으로 얄전해보이는 계집년들이 입술을 깨물고나서면 칼로도 그 입을 열지 못한다는것은 수사기관 요원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무슨 묘책이 없을까?

신통한 궁리가 떠오르지 않아 끔끔 앓던 남인표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친것은 며칠후의 일이었다.

원호엽의 신상카드를 본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장성들의 신상카드는 본인이 예비역으로 돈 다음에도 보안사령부에 보관되어있었다.

남인표는 얼마전에 장성들의 신상카드를 뒤적거리다가 원호엽의 카드도

보았는데 거기 특기란에 딸 윤미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대학 영문과 학생. 반체제적성향 있음. 지명수배중인 권성태가 대학에 유인물을 배포한 사건발생후 체제비판적발언을 더 자주 함. 권성태와 모종의 련계가 있지 않을까 의심되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대개 그러한 내용이었다.

남인표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지푸래기라도 잡아볼판이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단서가 잡히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윤미의 뒤를 밟으면 권성태 그놈을 잡게 될지도 모른다.

권성태와 한병구대위가 모종의 련계를 가지고있지 않을까 하는 전예부터 마음 한구석에 엉켜붙어있던 의심도 되살아났다.

그때 용수리 《한경옥》에서도 한병구대위에게 우습게 속은것이 아닐까 싶었다. 고명찬일병사건도 상기되었다.

이제 권성태만 체포하면 지난날의 모든 의문들이 다 해명될것같은 예감이 들었다. 어쨌든 이번엔 절대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남인표는 혀를 깨물며 다짐했다.

1 000만원의 상금과 《2계급특진》뿐만 아니라 이번 일이 자신의 운명에 그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줄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원호엽의 딸 윤미가 자기 얼굴을 모르는것이 다행이었다. 자기도 그의 얼굴은 모르지만 원호엽의 신상카드에 딸의 사진이 붙어있으니 그것을 복사하면 된다.

지혜를 미행하다가 놓치고 봉변당한 일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것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주 잘한 일이었다.

그런 실수를 했다는것을 실토하기가 부끄러웠고 또한 그것이 자기를 무능수사관으로 평가하는 계기로 될것같아 입을 다물고있었던것이다.

윤미에 대한 미행도 그날처럼 단독으로 할 결심이었다. 단독공작으로 미행하다가 민간인들에게 봉변을 당한 그 경험을 참작해서 이번에는 사복차림을 하고 나서기로 했다.

미행은 당장 그날부터 시작했다.

변두리 다방이지만 해질녘이 되자 손님들이 많아졌다. 퇴근길에 잠깐 들러 커피 한잔으로 피곤을 푸는 회사원이며 저녁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만난 편인들, 이마를 맞대고 상담을 벌이는 반대머리들, 이른바 《석양의 우울병》에 걸려 초점 잃은 시선으로 몬나리자의 모사품사진이 걸린 맞은편 벽을 멍청히 바라보며 랭소를 머금은 손님도 있다.

다방이란 흔히 친구들끼리 미리 약속하고 만나는 장소로도 되고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서 대낮부터 엉망으로 취한 사나이들이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 주정을 부려보는 곳이기도 하다.

석간신문에 미처 보도되지 않은 새 소식들과 각종 류언비어들을 들을 수 있는 곳도 다방이다.

공장에 다니면서 야간학교공부라도 하겠다고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처녀들을 《양공주춘》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흥정도 벌어지고 범인을 찾아헤매는 형사들도 자주 나타나는 곳이 또한 다방이다.

이 변두리 다방이라고 레외로 될수 없다. 빈자리를 몇군데 남기지 않고 모여든 손님들은 그 직업과 관심사가 제각기 다르다.

서로서로 차락을 끼고앉아 어디 은행을 털 꿈꾸이라도 하는지 귀속말로 수군거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성이 나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기도 한다.

바람난 사장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얼굴마담》이 틀어놓은 록음기에 서 울려나오는 음악소리도 자욱히 낀 담배연기를 휘저으며 풍작거린다.

이 소란한 다방 한쪽구석에 성태와 윤미가 의자를 바짝 붙여놓고 나란히 앉아있었다.

변두리 다방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윤미는 어디 중소기업체의 녀직원처럼 동대문시장에서 산것같은 수수한 회색모직달린옷차림을 했고 성태는 세탁소신세를 여러번 진듯싶은 잠바에 테가 굵은 안경을 낀 모습이 일견 입직한지 얼마 안되는 견습기자같았다.

윤미의 미모와 성태의 얼굴에서 풍기는 지성미도 잘 어울려서 누가 보아도 행복한 편인들같았다.

오늘도 윤미는 몇시까지 어디로 나와달라는 성태의 연락을 받고 이 다

방으로 뛰어왔다.

그의 부름을 받은것이 오늘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어디 비밀회합장소로 가는 성태를 목적지까지 동행해준 일이다. 미행이 불지 않았는지,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지, 주위를 예리하게 살피면서... 만약 위험이 생기면 자기가 곤욕을 당하는한이 있더라도 성태를 무사히 빼돌려야 하는 동행이었다.

오늘도 그러한 동행을 위해 자기를 부르는줄로 알고 집을 나선 윤미는 자기뒤에 남인표의 미행이 붙었다는것은 감감 모르고있었다. 성태와 함께 갈 때만 주위를 살피는데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웠지 자기 혼자 다닐 때는 미행이 붙을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윤미자신이 이미 리념서적제작작업에 참여했을뿐 아니라 지난번 교내시위에도 적극 참가했고 특히 지명수배대상인 권성태와 련계를 가지고있는 것만큼 언제나 자기 주위를 잘 살펴야 하지만 아직 그러한 경각성을 지니지 못했던것이다.

그대신 또다시 성태와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에 기분이 들뜬 그는 먼저 그지간의 대학소식부터 신이 나서 알려주었다.

그에 의하면 전날의 그 교내집회후에 대학분위기가 막 들끓는다고 했다. 총학생회를 하루속히 부활시키자는 대자보가 게시판에 나붙었고 요즘에는 꼭 가두로 진출하자는 목소리들도 여기저기서 울려나오고있었다. 휴식시간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를 부르고 북의 책자들을 찾는 학생들도 많아졌다고 했다.

《성태씨 얘기도 많이 해요.》

윤미는 새물새물 웃으며 말을 이었다.

《뭐 흥길동같다나요.》

《썩 마음에 드는 별명이 아니군.》

《왜요?》

《흥길동에겐 성춘향이 없으니까.》

《피-》

윤미가 눈을 흘기며 입을 비죽거렸다.

성태는 커피를 한모금 마시고 화제를 돌렸다.

《집에선 뭐라 안해?》

옆좌석의 손님들이 갑자기 너털웃음을 터뜨린 바람에 성태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네?》

《부모님들이 그 집회에 참가한걸 아시잖아?》

《어머니가 막 따지며 야단쳐서 혼났어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었어요. 요즘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해요.》

《왜?》

윤미는 커피잔을 입에 가져가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무슨 고민하시는것같아요. 새벽이 다될 때까지 서재에 불을 켜놓고계실 때가 많고 통 말씀이 없지 뭐예요.》

《량심적인분이시니까.》

그들은 서로 어깨를 붙이고 귀속말로 소근거려서 남들 보기에는 정담을 나누는것같았다. 엉덩이를 흔들며 지나가는 접대원도 그들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실 작정이세요?》

윤미가 가만히 물었다.

《한병구대위가 이제 이리로 올거야.》

《한대위님이요?!》

《응, 그가 오면 어디 판데로 장소를 옮겨야 돼.》

《그 장콘 왜 만나요?》

《유경훈교수님한테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몹시 만나고싶어한다는거야. 그 사람도 최근에 많이 달라진 모양이야. 군인들속에도 저항세력이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

《지내 환상적인 기대 가지시는게 아니예요?》

《이제 만나보면 알겠지만... 난 유경훈교수님말씀을 믿고싶어.》

《지혜언니 애긴 벌써 다 잊으신것같아요.》

성태는 아무 응대도 안했다. 지혜의 말을 액면그대로 믿는다면 병구는 비렬하고 너절한 패덕한으로 된다.

그러나 성태는 처음부터 지혜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싶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지 않았을가싶었고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적마찰이 앞선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어쨌든 병구가 자기 부하를 보안대에 밀고했거나 보안대의 야수적인 살

인만행에 협조한 악한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저도 전엔 한병구대위님을 좋게 보아왔지만 지혜언니 말 들은 다음 부턴...》

윤미가 말끝을 얼버무리며 성태의 얼굴을 뵈히 쳐다보았다. 대답을 재촉하는 눈빛이었다.

성태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이제 5분만 더 기다리면 병구가 나타날것이다.

그에 대한 윤미의 의심과 불신도 병구가 온 다음 그와 이야기하는 과정에 스스로 해명될것이다.

성태는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다방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천연스레 판전을 부리면서 남들의 말을 몰래 엿듣거나 거동을 감시하는자들도 없는것같았다.

사실은 아까부터 남인표가 이 다방에 들어와있었지만 성태쪽에서 그의 얼굴을 몰랐고 남인표도 그를 감시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있었다.

로련한 수사관인 남인표는 며칠동안 주야로 윤미의 뒤를 미행한 끝에 드디어 권성태를 붙잡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일부러 성태쪽에 눈길 한번 보내지 않았다.

성태네 차락에서 네자리 건너 이쪽 다방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옆에 앉아 있으니 구태여 미리부터 눈독을 들일 필요가 없기도 했다. 성태네가 밖으로 나가자면 자기옆을 지나가기마련인데 그때 따라나가면서 권총을 뽑아들고 쏠! 하고 웨치면 될것이다. 만약 그들이 뛰면 허벅다리에 한방씩 갈길 판이다. 권총사격에도 자신이 있다.

다 먹은 고기라고 생각되어 기분이 흡족해진 남인표는 위스키를 몇방울 떨곤 홍차를 짚금짚금 마시며 성태네가 자리에서 일어서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이젠 또 누구냐?!

남인표는 일순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헛본것이 아니였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는 새 손님은 틀림없는 한병구대위였다.

남인표는 직감적으로 마음에 쏘이는것이 있어서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병구는 그의 곁을 지나 때마침 성태가 상반신을 약간 일으키며 손을 쳐드는것을 보고 곧장 그리로 갔다.

남인표는 신문을 든 자기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것을 느꼈다. 한병구대

위가 성태의 자리에 가앉는것을 보고 너무나 놀란탓이었다. 자기의 그 흥분을 누가 눈치챌가봐 얼른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행운이란 이렇게도 느닷없이 찾아오는것인가!

한병구와 권성태사이에 모종의 련계가 있을지 모른다 하고 의심해왔던 그것이 끝내 해명된것이다.

그렇다, 둘사이에 불순한 련계가 없다면 그들이 여기서 저렇게 만날리가 없다.

남인표는 소리없이 어금이를 갈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권성태를 체포하는것만으로도 《특공》이 되는데 한병구대위까지 체포하면 2중의 《특공》을 세우게 될 판이다.

거기에 저 미모의 아가씨-원호엽의 딸이 끼여들었으니 저것도 구미가 당기는 안주감이다.

예비역장성의 딸을 권성태, 한병구와 같이 한그물에 잡아넣으면 얼마나 요란한 화제거리가 될것인가!

남인표는 허리춤에 슬그머니 손을 찔러넣었다. 권총손잡이가 선득하게 만져졌다. 그 쇠붙이의 촉감이 이번엔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세 년놈을 체포하리라는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한편 병구는 성태앞에 가서 잠시 우두커니 서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대학 교내집회소식이 알려지고 특히 거기에 성태가 나타났다는것을 알게 되자부터 사뭇 흥분한 병구였다.

학생들이 저렇듯 견결히 싸우는데 나는 언제까지 팔짱끼고 있을거나 하는 자책감이 가슴을 쳤다. 행동에로의 갈망이 불같이 타올랐다.

아니, 그보다 지금 당장 성태를 도와주는것이 급한 일이 아닐가? 이번 교내집회사건도 있었으니 경찰에서 그를 체포하기 위해 더욱 혈안이 되어 날뿔것이다. 이런 때 그를 도와주는것이 곧 학생운동에 대한 지원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도와주어야 한다! 성태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경찰의 추적이 더 심해져서 서울에 있기가 곤란하다면 용수리 내 하숙집에 데리고 가자. 남인표가 사단에서 떠나갔으니 위험도 없을것이다. 하숙방에 같이 기거하면서 지난날의 자기자신에 대해서, 그와 친교를 맺기를 거부하고 나중에는 지혜까지 쫓아버린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용서를 빌리라. 고명찬에 대한 이야기도 다하는거다.



그리고 최근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드는 그 모든 생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싶었다.

실로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았다. 그래서 매부와 약속한 일요일이 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린 끝에 오늘 매부를 찾아갔더니 성태가 몇시까지 어느 다방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그리로 가보라고 해서 이 다방으로 찾아온것이였다.

《오래간만입니다. 앉으시죠.》

성태가 먼저 미소어린 얼굴로 말을 건넸다.

병구는 윤미에게도 가볍게 목례를 하며 그들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윤미의 답례눈인사가 전에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병구는 직감적으로 그가 성태의 가까운 동지로 된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생활론리를 비약시킨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뭘 청할가요?》

윤미가 물었다.

《아무거나... 커피로 하지요.》

성태와 윤미앞에 커피잔이 놓여있는것을 보고 병구가 대답했다.

윤미가 주문받으러 온 접대원에게 커피를 한잔 더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땐 안됐습니다. 제가 떠난 후 별일없었습니까?》

성태가 물었다.

《아니, 제가 되려 미안합니다. 남인표소령두 그후 곧 서울로 올라가서 별일은 없었습니다. 고명찬의 이야긴 들었겠지요?》

《예.》

지혜에게서 들었을것이다. 따라서 다분히 지혜의 감정적해석이 가미된 이야기였으리라는것도 짐작할만했다.

《사실은 그 일이...》

병구는 자초지종을 정확히 설명하려고 말꼭지를 떼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밖에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다방분위기가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어디 장소를 옮길데가 없겠습니까?》

《그렇시다. 커피나 한잔 마시고 뽕시다.》

마침 접대원이 커피잔을 들고 와서 병구앞에 놓았다.

병구는 차순갈로 서너번 젓고 잔을 입에 가져가다가 별안간 눈살을 찌

프렸다. 출입문으로 나가는 통로 옆자리에 앉은 남인표의 얼굴을 발견한 것이다.

저도 모르게 커피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굳어지고 입에서 허 하고 헛 소리가 나왔다.

《왜 그러세요?》

윤미가 그의 얼굴을 의아쩍게 쳐다보며 물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병구는 우선 이렇게 당부하고 자기도 남인표에게서 시선을 거두며 뒤 말을 이었다.

《저쪽에 남인표소령이 앉아있습니다. 지나가던 길에 차나 한잔 마시려 구 들리게 아닐겁니다.》

성태와 윤미 두사람의 얼굴이 금시 굳어졌다.

《일부러 이쪽을 안보는체하지만 우리를 감시하고있는게 틀림없습니다. 두분중에 누가 이리로 오면서 미행당한것같습니다.》

성태와 윤미는 서로 눈짓으로 미행당한거 아니냐고 묻는것같았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가 미행당했다고 생각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좋습니다. 지금 그걸 따져서 무슨 소용입니까. 덤비지 말구 침착하게 출로를 찾아봅시다.》

《웁습니다. 우선 한형부터 몸을 빼는게 좋겠습니다.》

성태의 말이였다.

《성태씨도 같이 떠나세요. 저기 카운터뒤로 빠지는데가 있을거예요. 여긴 제가 남아있겠어요.》

윤미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낮게 부르짖었다.

병구는 차탁우에 올려놓고 깎지킨 윤미의 손을 부드럽게 다독겨려주었다.

《흥분하지 말구 이제부터 내 말대로 행동하십시오, 권형두. 이제 접대원이 오면 내가 차값을 물겠습니다. 그때 두분은 저 보안장교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체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십시오. 절대로 뒤를 돌아봐선 안됩니다. 밖에 나가면 찰차가 한대 서있을겁니다. 차번호는...》

병구는 문하사가 몰고 온 차번호를 천천히 불러주었다.

《기억했지요? 차에 하사견장을 부착한 운전병이 있습니다. 권형이 먼

저 그 운전병에게 뛰어가서 말하십시오. 내가 남인표소령을 이 다방 문밖에서 체포하겠는데 제격 뛰어와서 협조하라고... 두분은 그 차에 먼저 올라타서 기다리면 됩니다. 문쪽을 돌아보진 말구요.》

문하사는 중대 대기차 운전병으로 전속돼온 후 병구에게 여간 각별하지 않았다. 병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고 그가 시키는것이라면 그 어떤 번잡하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더우기 남인표에게 사무친 원한이 있는 문하사인지라 이제 멋지게 자기를 협조해주리라는것을 병구는 의심하지 않았다.

접대원이 뽕죽끓신 뒤축으로 바닥을 콕콕 밟으며 다가왔다.

병구가 그에게 차값을 치르자 성태와 윤미가 일어나 출입문으로 향해 걸음을 땀다. 그들을 네댓걸음 앞세우고 병구가 뒤따랐다. 아무도 남인표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밖에서 손님 셋이 들어왔다.

성태와 윤미는 그들결을 얼른 스쳐지나갔지만 병구는 일부러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주춤거렸다. 손님들이 언짢게 눈을 흘겼지만 그것으로 몇초 동안을 얻었다. 그사이에 성태네가 문하사에게 뛰어갈것이다.

병구는 천천히 숨을 들이그으며 출입문을 열었다. 밖에 나가자마자 문열에 재빨리 비켜섰다.

위낙 변두리의 령세다방앞이어서 오가는 행인이 많지 않았다.

병구의 예측대로 문하사가 차에서 뛰어내리고 성태와 윤미는 차에 오르고있었다.

다방에서 뛰어나온 남인표는 문열에 비켜선 병구를 못보고 차에 막 올라타는 성태와 윤미만 발견했다.

년놈들이 차타고 도망치기 전에 잡아야 한다!

남인표는 여간만 다급해지지 않았다. 한병구대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놈이야 권성태만 잡으면 다음 그물에 저절로 걸려들것이다.

문하사가 이쪽으로 뛰어나오는것이 보여서 저놈은 또 뭐야 하는 생각에 한참나 주춤거렸지만 저놈도 한병구대위와 같이 후에 한그물에 잡으면 된다고 장담되었다.

우선 성태와 윤미 두 년놈부터 놓치지 말아야 한다. 빨리!

남인표는 허리춤에 손을 찔러넣으며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병구가 권총손잡이로 그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다.

남인표는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돌렸다. 그러는 그의 면상으로 병구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바람같이 달려온 문하사가 재차 그의 배를 걷어찼다.

다방에서 나오던 손님들과 행인들이 공포와 호기심이 어린 얼굴로 모여들었다.

《다들 돌아들 가시오!》

병구가 권총을 내두르며 그들에게 소리쳤다.

남인표는 벌써 땅바닥에 쓰러져버렸다.

문하사가 재빨리 그의 몸에서 권총과 수갑을 찾아냈다. 병구가 그 수갑을 받아서 남인표의 손에 철컹 채웠다.

다행 남인표가 사복차림이어서 군대의 수사기관원들이 민간인을 하나 체포하는것만 같았다.

땅바닥에서 버둥거리는 남인표가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려고 문하사가 연방 차고 짓밟고 했다. 그리고는 까무러친 《범인》을 물건짝처럼 끌어가 차에 처넣었다.

《우선 이 구역을 빠져나갓!》

뒤따라 차에 오르며 병구가 명령했다.

성태는 비교적 침착한 얼굴이었으나 윤미는 입술을 깨물며 오돌오돌 떨고있었다.

《다 제대로 될테니 너무 걱정마십시오.》

병구는 윤미를 안심시키고 성태에게 물었다.

《이놈을 심문할만한 장소가 없겠습니까?》

《시내도 팬찮겠습니까?》

《예, 될수록 가까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운전병에게 주소를 대주십시오. 이놈이 장소 알아도 절대로 후환없게 할테니 안심하시고...》

성태가 잠시 생각하더니 문하사의 귀에 대고 몇마디 소곤거렸다.

병구는 윤미에게 보자기가 있으면 달라고 했다. 윤미가 손가방에서 차곡차곡 접은 보자기를 꺼내주었다.

줄도했던 남인표가 머리를 흔들며 눈을 떴다.

《깍소리말구 가만있어!》

병구가 그의 옆구리를 권총으로 꼭 찌르며 소리쳤다. 그리고는 방금 윤미에게서 받은 보자기로 입을 틀어막았다.

《뒤쫓아오는 차 없는것 같습니다.》

문하사가 후사경을 내다보며 말했다. 변두리의 뒤거리여서 래왕하는 차들이 적었다. 길가의 창문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대가리 숙엿!》

차창밖을 두리번거리는 남인표의 머리를 병구가 꼭 눌러놓았다.

성태가 문하사에게 대준 주소는 양재형외과병원이었다. 거리도 가깝고 후환이 없다는 담보도 있는 조건에서 그곳이 심문장소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때문이다.

외등이 켜진 병원앞에 차가 몇자 성태가 먼저 뛰어내렸다.

《잠간만 기다려주십시오.》

그가 병원으로 들어간 사이에 병구는 문하사에게 지시를 주었다.

《차에 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게. 그사이에 만약 경찰이나 보안사애들이 덤벼들면 경적으로 신호 울리고 내빼게.》

《중대장님은 어떡하실겁니까?》

《난 나대로 행동할테니까.》

《그래두요.》

《걱정말고 시키는대로 하게.》

병원에 들어갔던 성태가 나왔다.

《됐습니다, 들어갑시다.》

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온것같았다.

남인표를 끌고 안채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 방에 양재형원장과 채준호 의사, 권지혜 셋이 있었다.

양재형원장은 안락의자에 앉은채 침착한 얼굴로 병구네가 들어서는것을 쳐다보았고 지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방구석에 물러났다.

윤미가 지혜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으며 몇마디 가만가만 소곤거렸다.

채의사는 창가에 기대여서서 증오와 조소가 담긴 눈으로 남인표를 쏘아보았다.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어 죄송합니다.》

병구는 초면인 양재형원장에게 사죄했다. 채의사나 지혜에게 알은체를 할 경향도 없었다.

《방금 권군한테서 사정이야기를 대강 들었습니다. 저놈에게 뭐 심문할것이 있다지요?》

《예.》

《우리는 자리를 피해야 되겠지요?》

《아니, 그러실 필요없습니다.》

《그럼 우리두 어디 좀 들어봅시다. 전에부터 권군을 체포하려고 지혜양을 미행한자라니까.》

병구는 남인표의 입에 틀어막은 보자기를 뽑아냈다.

《남소령, 똑똑히 들어. 넌 지금 절벽우에 서있는 상태다.》

남인표는 얼굴빛이 시꺼멓게 죽어가지고 방안의 사람들을 두리번거렸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증오가 화살처럼 날아왔다.

남인표는 절망적인 공포에 숨이 떡 막혔다.

《한대위, 이거… 제발 좀… 나두 사실은…》

중언부언 지껄이며 빌붙으려드는 그의 말허리를 자르며 병구가 물었다.

《그 다방에 어떻게 나타났어?》

《저, 사실은…》

《대답 안할테냐?》

《원양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지혜와 함께 방구석에 붙어서서 숨을 죽이고있던 윤미의 입에서 《어머!》 하는 외마디비명이 새어나왔다.

《목적은?》

병구가 다우쳐물었다.

《예, 그건… 권성태를 체포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미행하다가 거기까지…》

윤미의 입에서 또 《어머!》소리가 새어나왔다.

성태의 날카로운 눈길이 윤미에게 돌아갔다. 윤미는 울상이 되어 고개를 푹 숙였다. 지혜가 그러는 윤미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안았다.

《그게 다냐?》

병구는 계속 심문을 들이댔다.

《예, 아니 저…》

《뭐가 또 있어?》

《미안합니다. 사실은… 한대위, 내가 그만…》

《빨리 말해!》

《거기에 당신이 나타난것을 보구…》

《나까지 체포하려고 했다 그거야?》

《예, 미안합니다.》

《네가 윤미씰 미행할 때 부하를 몇명 동원한거냐? 그놈들이 지금 어디 있어?》

《아닙니다. 혼자서 미행했습니다.》

《정말이야?》

《예, 정말입니다.》

남인표는 단독행동으로 《특공》을 세우려고 한 생각까지 서둘러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혹시 살구멍이 생길까 하고 기대하는 눈치였다.

병구는 쓴웃음을 머금었다. 그의 그 잔꾀가 가소로웠다. 고명찬을 죽인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놈인것이다.

《더러운 놈!》

병구는 한마디 내뱉고 양재형원장을 돌아보았다.

《따로 물어보실것이 없습니까, 이놈에게?》

《없습니다.》

채의사와 성태도 물어볼것이 없다는듯이 머리를 내저었다.

《한대위!》

남인표가 갑자기 병구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봐주십시오. 다시는 당신네들을 미행하거나 체포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봐주면 그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맹세합니다!》

《닥쳐! 인간이라는 말을 더럽히지 말아! 사람의 가족을 쓰구있다 해서 다 인간으로 되는거 아니다.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민족을 배반하는 너같은 놈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 때문에 우린 이 세상을 참인간들이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인간락원으로 만들기 위해 너같은 짐승들을 없애버리려고 결심한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느냐? 우선 네놈부터 인간세상에서 제대시켜버리겠다는거다!》

그것은 병구가 다방에서 남인표를 발견한 그때부터 이미 결심한것이였다. 살려두기만 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때려죽일 그놈을 결단코 살려둘수 없었다.

성태의 신변을 보호하고 새로운 진군을 개시한 80년대 학생운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도 그놈을 처단해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인표는 병구를 치며보다가 돌연 자리를 차고 뛰어일어났다. 두눈에 광기가 번뜩이고 불따귀가 푸들푸들 떨렸다.

손이 수갑에 묶이지 않았다면 단말마의 발악으로 병구에게 덤벼들것같았다. 짐승은 역시 짐승인것이다.

병구는 그가 미쳐 발악을 터뜨리기 전에 재빨리 입에다 다시 아까 그 보자기를 쑤셔넣고 목덜미를 짹 움켜잡았다. 심문도 끝났으니 이젠 이곳에서 떠나가야 한다.

문득 담배라도 한대 피우고싶었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갑을 꺼냈더니 빈 갑이었다.

다방에서 한갑 샀어야 하는건데 그럴 경황이 없었던것이다.

아니, 한가하게 담배나 피우고있을 때가 아니다.

병구는 좌중을 돌아보며 작별인사를 했다.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그럼 가보겠습니다.》

양재형원장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병구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 후에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채의사는 말없이 병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었다.

성태는 긴장이 채 풀리지 않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병구앞에 다가왔다. 병구도 굳어진 표정을 풀고 미소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성태가 그 손을 두손으로 짹 잡았다. 피차에 하고싶은 말들이 많은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된 그들이었다.

《대위님, 미안해요.》

윤미의 조그마한 목소리가 방구석에서 울렸다. 전에 아버지를 찾아온 그에게 퍼부은 그 비난에 대한 사죄인가.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이지도 않고있는것은 지혜뿐이었다. 윤미결에 꼭 붙어선채 병구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병구는 일부러 그쪽을 돌아보지 않고 남인표의 등을 떠밀었다. 지혜와 시선이 마주치면 쉬 발이 떨어지지 않을것같았다.

지혜의 시선을 등에 따갑게 느끼며 밖에 나가니 문하사가 운전석에 앉아서 기다리고있었다.

《타라!》



병구는 남인표를 먼저 차안에 밀어넣고 자기도 타려고 하다가 병원 현관문이 급히 열리는 소리에 돌아보았다.

《잠간만요.》

지혜였다. 새 담배갑을 손에 쥐고있었다.

《원장님이 주시는거예요.》

병구는 담배갑과 함께 지혜의 손을 덥석 잡았다.

지혜는 손과 함께 온몸을 그에게 내맡기듯이 바싹 다가왔다. 생기가 돌고 부드러운 정감이 흐르는 얼굴이었다. 두눈엔 눈물이 가랑가랑 맺혀있었다. 원래 정이 많고 눈물도 많은 지혜였다. 슬퍼도 울고 분해도 울고 말에 앞서 눈물로 가슴에 맺힌 설음과 원한을 터뜨리곤 했다.

그러나 지금의 그 눈물에는 설음과 원한의 빛이 없었다. 기쁨과 행복에 심취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아오르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슬에 젖은 꽃잎에 아침해살이 반짝거리듯이 눈물어린 두눈에 미소가 어려있었다.

병구는 불현듯 가슴속에서 뜨거운 파도가 출렁거렸다. 지혜를 두팔에 감싸안아주고싶었다. 지난날 가지가지 고민과 노여움과 원한으로 그슬려진 그의 마음을 따뜻이 덥혀주고 쓰다듬어주고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바쁜 형편이다. 일본일초라도 빨리 떠나가서 남인표를 처리해야 한다.

병구는 지혜의 손에 지그시 힘을 주며 다정히 말했다.

《후에 다시 오겠소.》

《네, 기다리겠어요.》

지혜는 가만히 속삭이듯 대답했다.

## 6

계절이 바뀌어 다시 겨울이 왔다.

강산에 눈이 덮이고 맵짠 바람이 나무가지들을 사정없이 꺾어버렸다. 강물이 얼음으로 변하고 땅도 두텁게 얼어붙었다.

소한, 대한추위가 한차례 휩쓸고 지나가서 한시름놓는가 했더니 립춘 추위가 또 닥쳐와서 바야흐로 다가오는 봄과 피어린 격투를 벌이기 시

작했다.

그무렵 어느날, 병구는 이른 조반을 먹고 방에서 나왔다.

대청마루도 바깥이나 별반 다름이 없었다. 추위에 얼굴이 금시 찢찢하게 굳어졌다.

《감기 걸리겠소. 어서 들어가요.》

병구는 외투단추를 채우며 뜨개옷차림으로 방에서 따라나온 지혜에게 다정히 말했다.

그들은 전달에 결혼을 하고 지금 여기 민씨네 건너방에서 신혼생활을 하고있다.

병구는 오늘 또 서울로 가려고 한다. 그가 가지고 갈 조그마한 여행가방을 지혜가 들고있다.

병구가 마루끝에 걸터앉아 구두끈을 매는데 안방에서 민씨가 내다보았다.

《일요일인데 아침부터 어디루 가시우?》

여전한 민씨였다. 일요일 하루를 새색시와 함께 오손도손 보낼거지 왜 나가느냐는 《비난》이었다.

《서울 좀 갔다올려구요.》

병구의 대답에 민씨가 눈을 흘기며 또 야단이다.

《아니, 혼자 가시면 어떡하우, 척 끼구 같이 가야지? 그렇게 혼자 다니기만 할바에야 평생 로총각으루 살거지 장가는 왜 가셨수?》

《그건 또 어떻게 하는 말씀이우? 나야 같이 가자구 했는데 아주머니가 뭐 시집오자마자 남편뒤에 착 붙어서 졸졸 따라다니면 못쓴다구 말렸다면서요. 그래서 같이 안가겠다는걸 어떡합니까?》

병구의 통답에 지혜가 기겁을 하며 조그마한 주먹으로 그의 어깨를 두들겼다.

《아니예요, 아주머니. 끝이듣지 마세요.》

민씨가 남자처럼 굵다란 목소리로 웃었다.

《장가가시더니 통답두 하시구, 됐수다.》

바람결이 센 날씨였다. 프락의 복숭아나무가지들이 바람을 안고 휘청거렸다.

대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문하사가 들어왔다. 그는 얼마전에 끝까지 병구와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말뚝박고》장기복무하사관으로 되었다.

《차 갖다왔습니다.》

《응, 나가세.》

지혜가 남편의 가방을 들고 따라나서고 민씨는 문지방에서 소리쳤다.

《오늘 돌아오시겠지요?》

《예.》

대문밖에 나서니 바람소리가 더욱 요란했다.

《추운데 어서 들어가오.》

《잘 모시구 다녀올거니 걱정마시구 어서 들어가십시오.》

문하사도 권했지만 지혜는 고살어귀까지 나와서 차가 떠나는것을 바라주었다.

차는 곧 용수리를 벗어났다. 곧추 뻗은 길우에 각종 차량들이 줄지어 가고있었다.

문하사는 버릇대로 차들을 연방 앞지르며 쾌속으로 차를 몰았다.

《부대대장님, 어제 보안대 운전병새끼 하나 만났는데 묻지도 않는 소릴 하잖겠습니까.》

문하사가 또 앞차를 따라잡으며 말했다.

《보안사에 있는 제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남인표의 시체를 여태 못찾아 다니요. 그 깊은 물속에 처넣었는데 찾아낼거 뭇니까. 보안사에서 시체찾기를 단념했다는겁니다. 어디 가서 술쳐먹구 지랄하다가 똥진줄 아는 모양이죠. 잘됐지 뭇니까!》

병구는 문득 복잡하고 다망한 겨울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영수 소위와 염태훈중위, 장하진대위와 더불어 《새벽길》이라는 조직을 만든 것도 지난겨울이었다.

오랜 방황끝에 그들은 통수권을 상실한 《국군》의 예속적력사에 종지부를 찍으며 학생들과 민중들의 반미반파쑸민주화투쟁의 동조자, 지원자로 되기를 맹세했다.

병구가 고과표에 찍힌 오점을 《모범장교의 성실한 군무》로 극복하고 소령으로 진급하면서 부대대장직을 받은것도 지난 년초였다.

그는 가끔 서울에도 다녔다. 갈 때마다 매부 유경훈교수를 만나 뜻있는 대화를 했다. 의기투합이 된 그들은 종전처럼 《정치교수》와 《모범장교》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념을 거부하는 논쟁을 하지 않았다.

학구적인 측면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해설하는 매

부의 이야기는 매번 병구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것은 상태를 그후에 다시 한번도 만나지 못한것이였다. 대부분의 말에 의하면 계속 여기저기 거처를 옮기면서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다니는중이라고 했다.

그러한 상태에서도 학생운동의 활성화와 양양을 위해 분투하고있으리라고 병구는 생각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해도 한마음한뜻으로 새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의 길을 함께 가는 친근한 벗으로 된것이다!

원호엽을 다시 만난것은 결혼식을 하기 직전이었다. 원호엽은 결혼한다는 말을 듣더니 자기가 주례를 서주겠다고 자청해나섰다.

윤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애들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날 그는 병구를 바래주면서 이런 소리를 했다.

《우리 아버지 계속 고민하고있어요.》

《왜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다 아시면서... 근데 요새 또 무슨 심경변화 생긴것같아요. 그제도 신문 보시다가... 그날 신문 보셨죠? 미대통령특사가 와서 무슨 수입개방압력 가한다는 기사 나쥔았어요. 그걸 보시다가 신문 팽개치시겠쥬. 그때 어머니가 커피 끓여가지고 들어오니깐 누가 커피 마시겠다구 했냐 하며 막 화내시지 뭐예요. 남자들은 우습쥬. 언짢은 일 생기면 공연히 애꿎은 녀자들한테 화풀이하니 말예요.》

《이다음 누가 윤미씨 남편으로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안그럴거니 안심하오.》

《어머머!》

병구는 윤미의 종주먹에 어깨를 맞으면서 껄껄 웃었다. ...

결혼식날 원호엽은 주례사에서 신랑은 민족의 녀을 지닌 슬기롭고 용감한 장교로 복무하고 신부는 내조의 미덕으로 신랑이 참다운 애국적장교가 되도록 잘 도와주면서 행복을 누리기 바란다고 했다.

병구는 그 주례사에서 또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옛 상급의 심중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느라니 려행가방생각이 불쑥 났다.

지혜가 꾸려준 려행가방속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령도자님의 로작 몇권이 들어있었다. 원호엽에게 줄 책자들이다. 현시점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것이 그 로작들이라고 생각했다.

길우의 눈은 차량들이 끊임없이 줄지어 다니면서 다 녹아버렸지만 산과 들에는 아직 눈이 하얗게 쌓여있었다. 바람에 눈가루가 날리고 산기슭의 나무들은 아우성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그래도 양지바른 곳엔 군데군데 시뻘건 흙이 드러났다. 그것은 땅 밑에서 치솟아오르는 봄의 손짓과도 같았다.

하긴 립춘도 지났으니 봄은 어차피 오고야말것이다! 엄혹한 대자연의 황포도 계절의 변화는 막지 못하는 법이다.

이제 오래지 않아 눈이 다 녹은 대지우에 봄의 훈향을 싣고 아지랑이가 꿈결같이 피어오르고 앙상한 저 나무가지들에도 새움이 틀것이다. 잎샘, 꽃샘이 또 한차례씩 기승을 부려도 화창한 봄날은 기어이 오기마련이다.

병구는 바람부는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면서 광명의 새세상, 식민지파쇼 폭압통치가 끝장날 그날을 그려보았다.

물론 그날이 쉽게 도래하지는 않을것이다. 력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원쑤들의 폭압이 더욱더 우심해지고있기때문이다.

그 폭압에 자기가 희생될수 있다는것도 병구는 알고있다. 그러나 일단 내디딘 항쟁의 길에서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다.

주체의 신념에 살고 투쟁하는 그 길만이 가장 영예롭고 행복한 참인간으로 영생하는 길이라는것을 깨달은 병구였다.

때문에 결혼식을 한 그날 지혜와 함께 별빛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영원히 그 길을 가자고 맹세했던것이다. 그것이 그들 두 사람의 사랑의 맹세였고 삶의 신념이었다.

차는 서울을 향해 쾌속으로 달렸다.

주체80(1991)년

통일문학작품선집 ㉘

장편소설 새 벽 길

---

저 자	전 설 주
편 집	신 홍 섭
장 정	김 영 일
교 정	안 순 광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6월 27일
발 행	주체111(2022)년 6월 30일

---

7-1541 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67-8